

2007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2007-1-18

|                      |
|----------------------|
| 발간 등록 번호             |
| 11-1370252-000066-14 |

# 2007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최 명 옥

연구 보조원 : 최 창 원

조 사 지 역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 월 20 일  
연구책임자: 최 명 옥

2007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  |     |
|--|-----|
| 1. 조사 과정 .....                                   | 5   |
| 2. 전사 원칙 .....                                   | 10  |
| 3. 전사 자료 .....                                   | 13  |
| 제 1 편    구술발화 .....                              | 15  |
| 제 2 편    어    휘 .....                            | 121 |
| 제 3 편    음    운 .....                            | 175 |
| 제 4 편    문    법 .....                            | 221 |
| 4. 제출 자료(별첨)                                     |     |
| 1) 보고서 100부                                      |     |
| 2) 디지털 파일 48,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     |
| 3) 조사된 질문지                                       |     |
|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     |
| 5) 제보자 조사표                                       |     |
|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7년도 경기도 지역어 조사지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1리 일명 주라위를 선정하였다.

파주시는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다.. 동쪽은 양주시, 서쪽은 김포시와 개풍군과 접하고 있다. 김포시와 개풍군 사이에는 각각 한강과 임진강이 있다. 그리고 남쪽은 고양시, 북쪽은 연천군에 접하고 있다. 파주시는 마석령산맥의 말단부에 속하므로 동고서저(東高西底)의 지형적 특징을 가진다.

지형적으로 동쪽에는 감악산(紺嶽山, 675m)·노고산(老姑山, 401m)·금병산(錦秉山, 293m)·팔일봉(464m)·앵무봉(622m)이 양주시와, 남쪽에는 황룡산(135m)·명봉산(248m) 등이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평산(坡平山, 496m)·봉서산(鳳棲山, 216m)·월룡산(月籠山, 229m)·박달산(368m) 등이 남쪽으로 가면서 낮게 펼쳐져 있다.

조사지점이 속하고 있는 파주읍은 파주시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파주읍은 서북부의 봉서산(216m)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00m 내외의 낮은 산지이다. 남·서쪽 읍계를 곡류하는 문산천과 그 지류인 연풍천 연안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파주읍의 주된 농작물은 쌀과 무·배추 등의 채소류이다. 경의선과 서울-파주를 잇는 국도가 읍의 서부를 남북으로 지난다. 파주읍에는 파주(坡州)·연풍(延豐)·부곡(釜谷)·백석(白石)·봉암(烽巖)·봉서(鳳棲)·향양(向陽) 등 7개 동리가 있다.

조사지점인 봉암1리 일명 주라위는 법원읍 법원리를 거쳐오는 56번 도로와 1번 국도가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마을 세력이 컸지만 지금은 매우 약하다. 이 마을의 주업은 농업 특히 벼농사인데 문산천(汶山川)을 끼고 형성된 마을 앞 쪽의 넓은 들이 벼농사의 중심지가 된다. 이 외에 이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엘지(LG)와 필립스가 합자하여 만든 큰 LCD 생산 공장이 있고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두원공과대학 파주캠퍼스가 들어 서서 개교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지도

## 1.2 제보자 선정 과정

이번 조사를 위한 제보자는 봉암1리의 이장의 소개로 쉽게 선정되었다.

### 1.3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2007년 7월 10일에서 8월 01일까지 19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제보자는 하루 정도면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조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매우 난감해 했다. 첫날 3시간의 조사는 제보자의 집에서 실시되었다. 여러 해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3시간을 앉아서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매우 적극적이고 시작한 일에는 열성을 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 방면의 경험을 하여 아는 것이 많았다. 음성은 크고 분명했다. 이런 좋은 제보자를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사는 이번 조사의 배경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보자는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였다. 그 결과 일상 생활 즉 농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조사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 다시 오후 2시 내지 3시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물론 제보자나 조사자가 부득이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사 둘째 날에는 제보자를 책상 의자에 앉아서 물음에 답하도록 하였다. 포천 지역어 조사 때에 제보자와 조사자가 책상 의자에 앉고 책상에 조사표를 놓고 전사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피로를 훨씬 줄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자기만 의자에 앉고 조사자에 바닥에 앉아 질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전사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조사 장소를 마을 회관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을 회관의 이층에는 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탁구대가 있었다. 그 탁구대를 책상으로 하고 제보자의 집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앉기로 했다. 나머지 조사는 모두 마을 회관에서 이루어졌으며 탁구대를 책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하게 묻고 답하고 전사할 수 있었다.

### 1.4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김
- 성별: 남
- 나이: 77세(1930년생)
- 출생지: 경기도 파주시
-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 선대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 직업: 농업
- 경력: 3대째 거주
- 학력: 국졸

- 병역: 육군(강원도 5년)
- 제보자 소개 과정: 이장 소개
- 제보자의 특기 사항: 병역기간 외에는 외지로 나간 적이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음성이 크고 분명함.

## (2) 보조 제보자

### ①

- 이름: 이
- 성별: 남
- 나이: 75세(1932년생)
- 출생지: 경기도 파주시
-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 선대거주지: 위와 동일
- 직업: 농업
- 경력: 12대째 거주
- 학력: 국졸
- 병역: 육군(강원도 5년)
- 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 소개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이 지역 토박이지만 제대 후에 5년간 외지에서 거주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맑지만 느리고 약함

### ②

- 이름: 안
- 성별: 여
- 나이: 78세(1929년생)
- 출생지: 경기도 파주시
-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 선대거주지: 위와 동일
- 직업: 무
- 경력: 8대째 거주
- 학력: 무
- 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 소개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결혼 후 경기도 김포에서 10년 거주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맑고 크고 빠름

## 1.5 조사 일정

- (1) 조 사 자: 최 명 옥(서울대 교수)  
 (2) 조사 일시: 2007년 7월 103일 - 8월 01일  
 (3) 조사 장소: 마을 회관  
 (4) 조사 내용:

| 번호 | 파일 내용             | 조사시간 | 조사항목              | 제보자 | 조사자     | 조사일자      |
|----|-------------------|------|-------------------|-----|---------|-----------|
| 01 | 구술1               | 1:36 | 구술발화              | 김** | 최명옥,최창원 | 2007.7.10 |
| 02 | 구술2               | 1:34 | 구술발화              | 김** | 최명옥,최창원 | 7.10      |
| 03 | 구술3               | 2:05 | 구술발화              | 김** | 최명옥,최창원 | 7.11      |
| 04 | 구술4               | 1:04 | 구술발화              | 김** | 최명옥,최창원 | 7.11      |
| 05 | 구술5               | 2:05 | 구술발화<br>1.1-1.2.7 | 김** | 최명옥,최창원 | 7.12      |
| 06 | 구술6               | 1:08 | 구술발화<br>1.2.7-1.8 | 김** | 최명옥,최창원 | 7.13      |
| 07 | 어휘1               | 1:20 | 어휘<br>20101-20414 | 김** | 최명옥,최창원 | 7.14      |
| 08 | 어휘2-채소            | 1:37 | 어휘<br>20415-20618 | 김** | 최명옥,최창원 | 7.16      |
| 09 | 어휘3-부엌            | 1:33 | 어휘<br>20619-20905 | 김** | 최명옥,최창원 | 7.16      |
| 10 | 어휘4-논밭1           | 1:58 | 어휘<br>20906-21223 | 김** | 최명옥,최창원 | 7.17      |
| 11 | 어휘5-논밭2           | 2:04 | 어휘<br>21224-21265 | 김** | 최명옥,최창원 | 7.19      |
| 12 | 어휘6-2.4           | 2:30 | 어휘<br>21301-21647 | 김** | 최명옥,최창원 | 7.19      |
| 13 | 어휘7-인체1           | 1:59 | 어휘<br>21701-21855 | 김** | 최명옥,최창원 | 7.21      |
| 14 | 어휘8-인체2           | 1:12 | 어휘<br>21856-22136 | 김** | 최명옥,최창원 | 7.22      |
| 15 | 어휘9-곤충-어종         | 0:54 | 어휘<br>22401-22514 | 김** | 최명옥,최창원 | 7.23      |
| 16 | 어휘10-곤충           | 1:57 | 어휘<br>22515-22928 | 김** | 최명옥,최창원 | 7.24      |
| 17 | 어휘11-육아-친족        | 2:13 | 어휘<br>22201-22379 | 김** | 최명옥,최창원 | 7.23      |
| 18 | 어휘12-4권끝          | 1:35 | 어휘<br>22929-23441 | 김** | 최명옥,최창원 | 7.24      |
| 19 | 음운1-목록            | 1:44 | 음운<br>30001-32019 | 김** | 최명옥,최창원 | 7.25      |
| 20 | 음운2-활용123         | 1:34 | 음운<br>32020-32123 | 김** | 최명옥,최창원 | 7.25      |
| 21 | 음운3-활용<br>124-227 | 1:42 | 음운<br>32124-32227 | 김** | 최명옥,최창원 | 7.26      |
| 22 | 음운4-활용<br>228-280 | 1:38 | 음운<br>32228-32280 | 김** | 최명옥,최창원 | 7.27      |
| 23 | 음운5-구술-곡용전        | 1:03 | 음운<br>32332-32362 | 김** | 최명옥,최창원 | 7.28      |

|    |     |      |                   |                   |         |      |
|----|-----|------|-------------------|-------------------|---------|------|
| 24 | 문법1 | 2:27 | 문법<br>40401-40111 | 김**               | 최명옥,최창원 | 7.30 |
| 25 | 문법2 | 2:27 | 문법<br>40112-41116 | 김**               | 최명옥,최창원 | 7.31 |
| 26 | 대화  | 2:24 | 구술발화              | 김**<br>이**<br>안** | 최명옥,최창원 | 8.01 |

(5) 조사 시간 : 43시간 38분

(6) 녹음기 : 마란츠 디지털 녹음기(PMD660)

(7) 마이크 : SURE SM11

## 1.6. 전사

(1) 전사자: 최창원 / 최명옥

전사 일시: 2007년 9월 09일 - 2007년 11월 28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 1번, 3번 파일 및 어휘, 음운, 문법 항목 전부

(2) 1차 점 검 자 : 최명옥 / 최창원

1차 점검 일시: 2007년 11월 06일 - 2007년 11월 25일

(3) 2차 점 검 자 : 최명옥 / 최창원

2차 점검 일시: 2007년 12월 10일 - 2007년 12월 24일



## 2. 전사 원칙

### 2.1. 구술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원칙적으로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말과 조사자의 말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전사하였다. 구술 내용이 전환될 경우에도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다음에는 (=X)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예, “거기에다 여글 하는데(=만드는데).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 “#1”, “#2”(보조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생략된 경우 추측이 가능한 경우 (xx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⑤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문법 형태(예. -이니?)를 조사할 경우, 조사에 이용된 어간(예. 생일)이 표제 항목의 것(예. 집)과 다를지라도, 전사에는 표제 항목의 어간으로 대치하였다. 예. 조사: 생이리냐, 전사: 지비냐
- ③ 표제 항목에는 없지만 표제 항목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에 대해서는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l]’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 또는 “:::”으로 표시하였다.
- ⑤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2007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 보기

#### (1) 마을 이름의 유래

10102 @ 이 저 봉아미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드려{이, 저, 봉암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

10102 # 봉:아미라는 애:기는 이제 그, 이, 저, 이, 원래가 여기 혀:나뭇나무다{봉암이라는 애:기는 이제, 그, 이, 저, 이, 원래가 여기 현암입니다.}

10102 # 예 혀:남동{예, 현암동}

10102 # 근데 이 봉:암니는 이 어떻게 돼서 이 긴간 봉암니가 일리서버터 오리까지 일꺼든요{그런데 이 봉암리는 이, 어떻게 돼어서 이, 그러니까 봉암리가 일 리에서부터 오 리까지 있거든요}

10102 # 오:리까지 인는데 우리가 일린데{오 리까지 있는데, 우리가 일 린데}

10102 # 이 봉암니 그 그니깐 그 봉:암니가 어떻게 돼서 봉암니{이 봉암리, 그, 그러니까 그, 봉암리가 어떻게 되어서 봉암리..}

10102 # 봉두산이 일췌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서 봉암니가 여기 이 역대 뭐라 그런거야?{봉두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어서 봉암리가 여기, 이, 역대 무어라 그런 거야?}

10102 # 혀:남동이라는건 그 혀:나미 왜 그러냐면 여 지금{현암동이라는 것은, 그, 현암이 왜 그러냐하면 여, 지금}

10102 # 요꺼지 나오든지 그 바위가 줄바위거든요 줄바위 주라위야 원 이르미 애:명이{요 꺼지 나오든지 그 바위가 줄바위거든요. 줄바위 주라위야. 원 이름이 애명이}

10102 # 이동네가 애:명이 주라원데{이 동네가 애명이 주라원데} @주라원데. / # 네 주라원데 그게{네, 주라원데 그게}

10102 # 예 원 한:짜로는 혀:남동{예, 원래 한자로는 현암동}

10102 @나타날 현짜인가요?{나타날 현자인가요?}

10102 # 그니깐 그게 이 저 이{그러니까 그게, 이, 저, 이}

10102 # 이 쇠:금변에 이게 뭐야 이 실:사 이거허른 혀:남이지?{이 쇠금 변에 이게 뭐야? 이, 실 사 이것 하면 현암이지?}

10102 @이 췌:그메 가물 현{이 쇠 금에 가물 현} / # 네 가물 현짜{네, 가물 현자}

10102 # 현 현 현 암 바우 암{현, 현, 현 암, 바우 암} @네네 바위가 관계가 이겐네요{예, 예, 바위가 관계가 있겠네요.} / # 그러니깐 이 바위가{그러니까 이 바위가}

10102 # 이 줄바위래능게 저기 드로는데 그 이러케{이 줄바위라는 것이 저기 들어오는 데 그, 이렇게}

10102 # 산 도라오는데 그 바위가 지금{산을 돌아오는 데 그 바위가 지금}

10102 # 동강이 나지 안안습니까? 거기 기리 뺑 절로 뚜러져서요{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길이 뺑 저리로 뚫어졌어요.}

10102 # 그걸 우리 동:네 싸람도 몰르게{그것을 우리 동네 사람도 모르게}

10102 # 그게 그냥 어떻게 책정이 된거예요 우리 동네 싸라미 아라쓰면 절때 용나블 모터쥬{그게 그냥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알았으면 절대 용납을 못하지요.}

10102 # 그거시 우리 동네에 유래에 내려오는 줄바윈데{그것이 우리 동네에 유래에 내려오는 줄바위인데}

10102 # 줄바위{줄바위} @ 줄바위 /# 그래서 줄바위가 줄바위 줄바위 해쓰니까 주라위가 된거쥬 주라위{그래서 줄바위가 줄바위, 줄바위 했으니까 주라위가 된 것이지요. 주라위}

10102 # 게 주라위 지금 주라위라 그래요 다 아:는 사람드른 뭐 이 근:처에서는 다 주라위라 그러거든요{그래 주라위. 지금 주라위라 그래요. 다 아는 사람들은. 뭐 이 근처에서는 다 주라위라 그러거든요.} @예 예 이걸 순경으므로{예, 예, 이것을 순경음으로}

10102 # 근데 원니름은 현암이야 현암 그리고 인제 봉암니래는 거는{그런데 원 이름은 현암이야. 현암, 그리고 이제 봉암리라는 것은}

10102 # 그거는 우리 동네마니 아니기 때무네 왜 봉암니라고 헐는지 모르켤썬요{그것은 우리 동네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봉암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10102 # 이 봉암 요기서 봉암 오:리꺼지 인꼬 고 다으메 저기 봉서리라고 또 내려가믄 봉서리가 인썬요{이 봉암, 여기서 봉암 오 리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봉서리라고 또 내려가면 봉서리가 있어요.}

10102 # 그니깐 봉:암 봉서리 여기 백썬니 그래두 어딘가 몰 그게 무신{그러니까 봉암, 봉서리, 여기 백석리. 그래도 어딘가 몰, 그것이 무슨}

10102 @선사시대에 바위가 이 근처에 인썬니까?{선사시대의 바위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 이 봉암 아니 그 아:애긴 또 인썬뎡거 거태요{이 봉암, 아니 그 이야기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10102 # 봉:암니가 왜 봉암니냐{봉암리가 왜 봉암리냐?}

10102 # 게서 인제 이 이조 이조때 그러니까 이조 초기나 이조때 아마 그러케 인썬뎡거 거태요{그래서 이제 이, 이조, 이조 때. 그러니까 이조 초기나 이조 때, 아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10102 # 요 이 봉암 삼 강게 이:리 삼리 고 사이에{요 이, 봉암 삼, 그러니까 이 리, 삼 리 그 사이에}

10102 # 그 봉:화를 올려서{그 봉화를 올려서} @봉아{봉화} / # 어 봉:화를 올려가지고 {어, 봉화를 올려서}

10102 # 거기서 그 이 개성 송악산허구 여기허구{거기서 그, 이, 개성 송악산과 여기와}

10102 # 저 통신력라글 헐다 이거예요 이 부칸산허구{저, 통신연락을 했다 이거예요. 이, 북한산과}

10102 # 그래서 이게 여기 봉암니에 그 말하자믄{그래서 이게 여기 봉암리에 그 말하자

면} 10102 @ 아 봉화바위구나{아, 봉화바위구나} / # 네 봉화바 봉화 봉화를 낚:파해서{네, 봉화바, 봉화, 봉화를 놓았다고 해서}

10102 # 거기에 유래를 따서 봉화 봉암니다 이 근처가{거기에 유래를 따서 봉화, 봉암리다. 이 근처가}

10102 # 그래서 봉암니가 뭘때 이런 얘:기는 내가 드려꺼든요{그래서 봉암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들었거든요}

10102 # 그런데 그거시 확실썩이 인능 건지는 몰르겐썩요{그런데 그것이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썩어요}

10102 # 근데 그제 아마 마즐 꺼예요 네{그런데 그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네}

10102 # 그 봉화를 올리는 데가 인썩끼 때메 거기에 이제 유래를 따서 봉암니루 이러케{그 봉화를 올리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래를 따서 봉암리라고 이렇게}

10102 # 해서 요쪽 곁으로로는 다 봉암니야{그래서 요쪽 곁으로로는 다 봉암리야}

10102 # 고기가 중시미이 돼:가지구 우리 동네가 일리 이:리 삼리 고 사:리꺼지 고로케 나가썩{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동네가 일 리, 이 리, 삼 리, 그 사 리까지 그렇게 나가썩요.}

10102 # 그래서 인제 봉암니라 그랜꾸{그래서 이제 봉암리가 그랬고}

10102 # 이게 이 뭐 그 주넨면은{이게 이, 뭐, 그 주내면은}

10102 # 고 월래 주넨면이라 그랜따가 파주으비라 그래{그 원래 주내면이라고 그랬다가 파주읍이라 그래}@ 주넨면의 주는 파주의 주짜겐썩요?{주내면의 주는 파주의 주 자썩썩요?} / # 네 주넨면이얼썩꺼든요{네, 주내면이었었거든요}

10102 # 그런데 그제 이제 왜정때부터 그제 주넨면으로 내려오다가{그런데 그제 이제, 왜정 때부터 그제 주내면으로 내려오다가}

10102 # 여기가 주내가 어떠케 똤냐든 파주시 지금 파주군{여기가 주내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파주시, 지금 파주군}

10102 # 고을 워:니 살던 데 파주 고을 원{고을 원이 살던 데 파주 고을 원} @ 여기가 중심지열똤 모양이지요?{여기가 중심지였던 모양이지요?} / # 그 그러치요 이 주내가{그, 그렇치요. 이 주내가}

10102 # 요 바로 요 주내 면:사무소 인는 데가 그래서 그저네 우리가 이{요 바로 요, 주내면사무소 있는 데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10102 # 참 우리가 핵교댕길때는 거기에 그 물로래능거뚜 인꾸{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거기에 그 문로(門路)라는 것도 있고}

10102 # 그 원:니미 살 저 행정허던 그 이 워니 살던 원:꼴도 인썩썩요{그 원님이 살, 저, 행정하던 그, 이, 원이 살던 원꼴도 있었어요.}

10102 # 그리구 우리가 핵교댕길 때 그 핵교가 그 원: 그당시에 그 저 이{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핵교가 그 원, 그 당시에 그, 저, 이}

10102 # 말하자든 그 유:림드리 그 해논 그{말하자면 그, 유림들이 그, 해놓은 그}

10102 # 핵교 비스탄{핵교 비슷한} @ 향교 / # 향교 향교 미트루 그제 인제 또 인썩가꾸 우리가 세: 교시린가 인썩썩요 그제 나마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허고 그랜는데{향교, 향교 밑을 그제, 이제, 또 있어서 우리가 세 교실인가 있었어요. 그제 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랜는데}

10102 # 그리구 인제 새루 또 질:꾸 이썩그로 인제 원니미 살:던 이썩{그리고 이제, 새로

또 짓고. 이쪽으로 이제, 원님이 살던 이쪽}

10102 # 그 물로 뒤:루 이쪼그룬 지서하구 면:사무소가 거기 드러 안절썰구{그 문로 뒤로 이쪽으로는 지서와 면사무소가 거기 들어 않았었고}

10102 # 그래서 그 또 요:쪼그로 쪼끔 내려와서 그{그래서 그, 또, 요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그}

10102 # 저거허든 사형장도 인썰구 그제 지금두{저거하면 사형자도 있었고 그제 지금도}

10102 # 그 얘:길 드리보니까 그 이 사형장이래는게 별거 아니거든요? 이 저{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 사형장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거든요? 이, 저}

10102 # 이러케 도:를 까까서 이러케 세웠는데{이렇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세웠는데}

10102 # 크::게 세워가지구 양쪼게 세워가지고 걸 구녀글 트리가지고 다리를 찌저서 주걸 따 그러는 얘:긴데{크게 세워서 양쪽에 세워서 그것을 구멍을 틀어서 다리를 찢어서 죽였다고 그러는 얘긴데}

10102 #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어린썰때:는 아주 학교땡길때는{그래서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주, 학교 다닐 때는}

10102 # 거기서 지:사를 지내고 그랜썰요 그 터주까리 이런거 크:다라케 두:를 해노코 그 아페다{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 터줏가리 이런 것을 커다랗게 돌을 해 놓고, 그 앞에다}

10102 # 그런데 그제 유기오때 읍썰전는데 게 내가 요즈메도 무려 보르는{그런데 그것이 6:25 때 없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도 물어 보면}

10102 # 그 도:리 하나는 업썰지고 하나는 미:구니 시러간는지 구니니 시러간는지 읍썰전 따 이거야 그래 하나는 직썰 인는데 그소게{그 돌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미군이 실어갔는지 군인이 실어갔는지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 하나는 지금 있는데 그 속에}

10102 # 무썰때는거야 쓰러저서{묻혔다는 거야 쓰러저서}

10102 # 그런 저 저거뚜 인꾸 이 파주가 예 파주구네서는 여기가 워니 살든 데다 그래서 이 봉두사니{그런 저, 저것도 있고. 이 파주가 예, 파주군에서는 여기가 원이 살던 데다. 그래서 이 봉두산이}

10102 # 파주에 명무리다 명사니다 이리케 된거지{파주의 명물이다. 명산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10102 # 이 기 이 그 반:며네 우리 동네는 또 그{이, 기, 이, 그 반면에 우리 동네는 또 그}

10102 # 여기 이 마:사니 이 마라자든 이조때 그{여기, 이, 마산이 이, 말하자면 이조 때 그}

10102 # 공:주 그르니깐 공주를 데리고 사:는 지바니 따로 또 인썰 안썰니까? 그제{공주, 그러니까 공주를 데리고 사는 집안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102 # 그저넌 그 이 예:를 드러서 따를, 이 왕:이 따를 아무나 주는게 아니자나요?{그전 예는 그, 이. 예를 들어서 딸을, 이, 왕이 딸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0102 # 게 그 이 박 모썰네라고 해서 그 공:주들이 글:로 와서 시지블 와서 사라서{그래 그, 이, 박 모썰네라고 해서 그 공주들이 그곳으로 와서 시집을 와서 살아서}

10102 # 거기가 일:똥 우리가 우리 동네가 이:등 저:기 늘노리에 그 예{거기가 일등, 우리가, 우리 동네가 이등, 저기 늘노리에 그, 예}

## (2) 산치성

- 10103 # 이게 뭐: 쪽 게 우리 동네에서 그 저걸 허다 보며는 옴:나렌{이것이 뭐, 쪽, 그래 우리 동네엿 그, 저것을 하마 보면 옛날에는}
- 10103 # 그 산:치성을 이 됴:싸네서 그 참 오래두록 산:치성을 지낸:서요{그 산치성을 이 뒷산에서 그, 참, 오래도록 산치성을 지냈어요.}
- 10103 # 근데 그게 인제 그거뚜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되지마는{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것도,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 10103 # 증말 그 산:치성을 그 참{정말 그 산치성을 그 참}
- 10103 # 조:상대에 지:내믄서 내려오딩 건데 그때는{조상대에 지내면서 내려오던 것인데, 그때는}
- 10103 # 에 그 산:치성을 지:내믄 소를 한마리 잡꾸{에, 그 산치성을 지내면 소를 한 마리 잡고}
- 10103 # 그래가지고 크게 일주일씩 인제 그 제:관드른 지베두 나가지도 모터구{그래서 크게 일주일씩 이제, 그 제관들은 집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 10103 # 바까테두 그리구 이제 그 지베서 주를 떠워노꾸 그 뭐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러케 허구{바깥에도,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줄을 떠워놓고 그, 뭐,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 10103 # 그거시 이제 그 점:점 세워리 가다보니깐 쇠:퇴해지면서{그것이 이제 그, 점점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쇠퇴해지면서}
- 10103 # 그거를 내가 인제 애당초에는 참 잘 모:시고 나두 헐썩썩요 따라간뜨랜는데{그것을 내가 이제, 애당초에는 참, 잘 모시고 나도 했었어요. 따라갔었는데}
- 10103 # 허다보니깐 점:점 이상해 지더라구요 왜?{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왜?}
- 10103 # 교:인드리 생겨가지구 이 연 아 예:수민는데 그게 무슨 피료인냐{교인들이 생겨서, 이, 연, 아,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 10103 # 이런 시기에요. 그다보니 이 동네 예:수민는 사라미 마나진다 이 사람 저 사람{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 사람 저 사람}
- 10103 # 그니깐 이게 아무 피료 아무 그 맨사람끼리만 그걸 지낸다능게 그게 이해가 양가는 애:기예요.{그러니까 이게 아무 필요, 아무, 그 몇 사람끼리만 그것을 지낸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애기예요.} @ 자꾸 약화되지요.{자꾸 약화되지요.} / # 예.
- 10103 # 게서 이게 이만 때려 칩시다{그래서 이게 이만 때려 치웁시다.}
- 10103 # 그래 내가 어느 그때 대:동 총회에서 이걸 인썩 썩 얹는 애:기다 마리아{그래 내가 어느 그때 대동총회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애기다 마리아}
- 10103 # 이럴빠에는 이게 물론 아무리 역싸가 익꾸 맨년 맨뽕년 흘러내려오는 거래두{이럴 바에는 이것이 물론 아무리 역사가 있고 몇 년, 몇 백년 흘러내려오는 것이라도}
- 10103 # 이걸 인썩수가 얹능거 아니냐{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 10103 # 우리 동네 저뉘니 모여서 지 이 정성을 드려서 위에는 마으를 위에서 태평을 위에서 허능건데{우리 동네 전원이 모여서, 지, 이, 정성을 들여서 위하는 마을을 위해서 태평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 10103 # 아 이 예:수지내는 사라미 뭐 열대여선명 그대로 빠져나가믄 뭐 우리 동네 그까진



꺼 뭐:허는 지시냐 이게{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열대엿명 그대로 빠져나가면, 뭐, 우리 동네 그까짓 것, 뭐하는 것이냐 이게.}

10103 # 다 때려치자고{다 때려 치우자고}

10103 # 그래서 그때 읍:썰 버렸썰요{그래서 그때 없애버렸어요.}

10103 # 저 지그른 안지내요{저, 지금은 안 지내요.} @ 저 어르신 그 산치성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이져버리기 저네요. 아니 다음 세대는 저너 그거 모를겁니다{저, 어르신, 그 산치성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잊어버리기 전예요. 아니 다음 세대는 전혀 그것을 모를 겁니다.}

10103 @ 그러치 안켄썰니까{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러쵸 그게 인제 예 우리가 내가 그거를{그렇지요. 그게 이제 예, 우리가, 내가 그것을} / @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절차를{그러니까 그게 어떤 절차를}

10103 # 예 그니깐 벌써 한 한 삼십년 전 애:기예요{예, 그러니까 벌써 한, 한 삼십년 전 애:기예요.}

10103 # 그게 읍:썰진지가{그게 없어진지가}

10103 @ 그럼 아직도 기어근 생생하지 안켄썰니까{그럼 아직도 기억은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 # 기어게 남는 사람들두 인썰요{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지요.}

10103 # 아직 늘그니드른 좀 인꾸{아직 늙은이들은 좀 있고} @ 그러니까 산 산치성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어떤 시그로 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인켄썰니까{그러니까 산, 산치성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 아아 그거는 인제{아아, 그것은 이제}

10103 # 그 제:과니 인썰가지구{그 제관이 있어서} @ 제과는 어떤 사라미 돼:야 되는지{제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 # 제:과는 인제 그게 주러가 그게 좀{제관은 이제 그게 주로 그게 좀}

10103 # 유보컨 사람{유복한 사람}

10103 # 말하자믄 보기 익꼬 좀 학썰기 인는 동네서두 그래두 좀 예{말하자면, 복이 있고, 좀 학식이 있는, 동네에서도 그래도 좀 예}

10103 # 그래두 좀 이 명예가 인는{그래도 좀 이, 명예가 있는}

10103 # 예 그래두 저 사라미 우리 동네선 그래두 점자는 퍼네 누구{예,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점잖은 편의 누구}

10103 # 그래두 동네서 누구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드리 주로 쁘썰요{그래도 동네에서 누구,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쁘썰요}

10103 # 그리구 인제 거기에서에 소이미 인썰꾸 주로 인제 간사지만 현재루 그리구 인제 거기 예{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임이 있었고. 주로 이제 간사지만 현재로. 그리고 이제 거기 예}

10103 # 주로 인제 그 그거를 또 마타서 그 읍:시글 또 맨들구 그{주로 이제 그, 그것을 또 맡아서 그, 읍:식을 또 만들고 그}

10103 # 그 술두 집썰 그 조:리를 해서{그 술도 직접 그 조리를 해서(=담가서)} @ 예

10103 # 수를 당가가지구 그 수를 그 약주를 당가서 떠서{술을 담가서 그 술을 그, 약주를 담가서 떠서}

10103 # 제:주를 올리고 이러케 쁘썰요{제주를 올리고 이렇게 쁘썰요}

10103 # 근데 그게 인제 그 정성이 작:꾸 가다보니깐{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성이 차꾸}

가다보니까}

10103 # 제:과늘 너는 제:관 자격기 인꾸 너는 어째 제:관 자격기 업냐{제관을 너는 제관 자격이 있고 너는 어째서 제관 자격이 없느냐?} @ 자격도 문제가 생겼군요{자격도 문제가 생겼군요} / # 자격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자격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10103 # 예? 아:니 예를드러서 김 모씨는 제:관 자격기 인는데 이 모씨는 제:관 자격기 업 따는 거는 마:리 안되지 안냐{예? 아니, 예를 들어서, 김 모씨는 제관 자격이 있는데 이 모씨는 제관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10103 # 제:과는 똑가치 아무나 그 이 저 이 성별로 이러케 해서 글 뭐 예{제관은 똑 같이 아무나 그, 이, 저, 이 성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 예}

10103 # 무얼 날짜를 보구 무슨 생기를 봐:서 허는데{무얼 날짜를 보고 무슨 생기를 보아서 하는데}

10103 # 생기를 보는건뚜 역시 매찬가진 내:기라구{생기를 보는 것도 역시 매찬 가지 얘기라고}

10103 # 그 사라를 위해서만 보능거나 다른 사람드를 위해서두 봐:야 되는데{그 사람을 위해서만 보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봐야 되는데}

10103 # 그게 잘 안돼요 여기서 그게 안됐쎬요{그게 잘 안 돼요. 여기서 그게 안 됐어요.}

10103 # 그러니깐 점점 뒤트러 지능거야 그 거기서 허는 사람 맨싸라든 그걸 만:날 그사라미 허니깐{그러니까 점점 뒤틀어지는 거야. 그 거기서 하는 사람 몇 사람은, 그걸 늘 그 사람이 하니까}

10103 # 그사람만 위해서 허능거지 다른 사라는 아니지 안냐{그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잖느냐?}

10103 # 그제 인제 예 아:주 공통화되구 마리 점점 악화되니깐{그것이 이제 예, 아주 공통화되고 말이 점점 악화되니까}

10103 # 때리치자 뭐 이런 게가지고 고만두자 이래가지고 고만둥거예요{때리치우자. 뭐, 이런. 그래서 그만두자 이래서 그만둔 것이예요.}

10103 @ 그럼 그걸 저 치 공치성을 할려며는 상당히 기가니 피로하지 안켤쎬니까{그럼 그것을 저, 치, 공치성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 그러니깐 고고를 인제 처메 이{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처음에 이}

10103 # 동:네서 그때만해도 동:네 노인드리 직끔은 노인정이 인쎬니다만 그때는 노인정이 읍:꾸 말뽕이라고 인제 인쎬서 그 말뽕에서 노인드리{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동네 노인들이, 지금은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노인적이 없고 마을방이라고 이제 있어서, 그 마을방에서 노인들이}

10103 # 모여가지고{모여서} @ 무슨 방이요? / # 말뽕{말:방} / @ 말뽕{말방} / # 네 말: 다니는{네, 마을 다니는} / @ 마을 단위방 / # 네, 마을 단위 방

10103 # 기에 가지구 인제 거기서들 노인네드리 시월 그때 시월 초하룬지 그에 되어 인쎬요{그래서 이제 거기서 노인네들이, 시월 그때 시월 초하룬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103 # 게 인제 그나른 인제 금너넨 누가 제:과늘 해:야 되냐{그래 이제 그 날은 이제 금년에는 누가 제관을 해야 되냐?}

10103 # 그러든 거:기서 인제 책 뭐 예 쟁녀글 보구 그래가지구 누구를 선정한다 인제 이러케 해서 선정을 허든 그 사라미 인제 그 한 열흘을 그때 한 열흘정도 저거를 헐쓸꺼예요.{그러면 거기서 이제, 책, 뭐, 예, 책력을 보고 그래서 누구를 선정한다고 이제 이렇게

- 해서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열흘을 그때 한 열흘정도 저거를 했을 거예요.}
- 10103 # 열:홀씨근 다른 데 나가지두 양쿠 무슨 뭐 음식뚜 함부루 머그른 안되구{열홀씨는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무슨, 뭐,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 10103 # 무슨 지베다 임쭈를 처노쿠 다른 사람두 지베 드로지 모터게 허구{무슨 집에도 금줄을 쳐놓고 다른 사람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10103 # 그리구 인제 그 음:시글 또 채리는 지븐 아주 그 동네서 가장 정결헌 집{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또 차리는 집은 아주 그, 동네에서 가장 정결한 집}
- 10103 # 또 그 증:마리지 그 나미 볼 때 쯔 저거할 수 인는 집{또 그, 정말이지 그, 남이 볼 때 쯔 저거할(=팬참을) 수 있는 집}
- 10103 # 그런 지비다 딱 맥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지비서나 음시글 다루질 모태요{그런 집에다가 딱 맡기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집에서나 음식을 다루지를 못해요.}
- 10103 # 그래서 그게 주로 우리 외갓집에서 그걸 마:니 행:는데 그 두 노인네가 사:니깐 {그래서 그게 주로 우리 외갓집에서 그것을 많이 했는데, 그 두 노인네가 사니까}
- 10103 # 그 절문 사라미 저 예를 드러서 월경을 해두 안되거든요 그 지바네서{그 젊은 사람이 저, 예를 들어서, 월경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집안에서}
- 10103 # 마:냐게 책정이 땀:는데 그 지바에 누가 월경을 행:따 그럼 안된다{만약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집안에 누가 월경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
- 10103 # 그기 안된다{그것이 안 된다} @ 아주 신성시 여기능군요{아주 신성시 여기는군요} / # 그니깐 그게 무:척 어려웁거쥬 까다록꾸{그러니까 그게 무척 어려운 거지요. 까다롭고}
- 10103 # 그런 데루 가지두 모터구 어 나메 사:라미 주걸꺼나 뭐 이런 장:사찌베두 가질 모터구{그런 데를 가지도 못하고, 어, 남의 사람이 죽었거나 뭐, 이런 장사 집에도 가지를 못하고}
- 10103 # 긴게 상:당이 엄격커게 에 허긴 행거예요 침엔 행는데{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에, 하기는 한 거예요. 처음에는 했는데}
- 10103 # 에 자꾸 이게 밝가지다 보니깐 에 뭐 다른 동네두 그런, 자꾸 읍썬썬만{에, 자꾸 이게 밝아지다가 보니까, 에, 뭐, 다른 동네도 그렇, 자꾸 없어졌지만}

### (3) 마을의 발전과 주민 생활

- 10105 # 에 우리 동네두 그래서 업썬징거구 기계 직끔 또 우리가 가마니 내가 생가케보든 참 여러가지루 답다편 이리 접때두 걸 애길헐씀니다마는{에, 우리 동네도 그래서 없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 또 우리가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저번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습시다마는}
- 10105 # 그 아까 애:기현대로 우리 줄바위가{그,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줄바위가}
- 10105 # 그 허리가 동강 찢라져 나갠쓰니 그리구 우리 동네가 인제{그 허리가 동강 찢라져 나갔으니 그리고 우리 동네가 이제}
- 10105 # 진:짜 우리 동네 싸람드리 지금 아주 완저니 그 사라미 안사는 동네 싸람들이 되구 마라썬요 아주 병신들만 사는 동네루{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금 아주 완전히}

그, 사람이 안 사는 동네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병신들만 사는 동네로}

10105 # 그 허릴 찢아서 뒤: 사늘 기냥 죄:다 뭉개버리지 아난씀니까 뚝 찢아버렸거든 마  
라자른 우리 동네 내려오는 혈기 혀를 찢라 버렸따구{그 허리를 찢아서 뒷산을 그냥 죄  
다 뭉개버리지 않았습니까? 뚝 잘라버렸거든.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내려오는 혈기, 혈  
을 잘라 버렸다고}

10105 # 그러믄 우리 동넨 아주 다 주근 동네다{그러면 우리 동네는 아주 다 죽은 동네  
다}

10105 # 그런데 그게 또 대하기 그래도 이쪼게 드러오니 이건 또 뭘:지 또 몰르쥬{그런데  
그게 또 대학이 그래도 이쪽에 들어오니 이건 또 무엇인지 또 모르지요,}

10105 # 대학이라le \*\*\*\*\* 이견뚜 아니구 저견뚜 아니구{대학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0105 # 그게 인제 어떠케 보믄 우리 동네 싸람드리 그걸 처으메 알아떠라믄{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 알았더라면}

10105 # 천:마네 말쓰미쥬{천만의 말씀이지요} @ 안되지요{안 되지요.} / 안뻬쥬{안 되  
었지요.}

10105 # 이:미 시자컬때 가서 우리 아라꺼든{이미 시작할 때 가서 우리가 알았거든}

10105 @아마 그런 생가글을 헐쥬깁니다{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 나두 그런 정  
보는 꽤 주의 빨룬데 구:네서 허는 이른 웬마난 건 게두 다: 어떠케 통허는데{나도 그런  
정보는 꽤 주의, 빨룬데, 군에서 하는 일은, 웬만할 것은 그래도 다 어떻게 통하는데}

10105 # 아 이사람드리 어떠케 감짜가치 고골 소겔쥬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짜같이  
그것을 속였어요.}

10105 # 내:가 처:메 추지늘 행:뎌 거는 이 바까트로 해:꺼든요{내가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은, 이 바깥으로 했거든요}

10105 # 그래서 이 고 상거리에서 바까트로 해:서 저 개울따라서 일:루 올라가서{그래서  
이 그 삼거리에서 바깥으로 해서 저 개울을 따라서 이리로 올라가서}

10105 # 그대로 저는 지금 현재 이 길 인는데 가서 마주 저 산뿌리 가서 다아 가지곤 그  
대로 바로 드러가게끔 뎜드런뎜 마리아{그대로 저는 지금 현재 이 길이 있는 데로 가서  
마주 저 산뿌리로 가서 닿아가지고 그대로 바로 들어가겠금 만들었던 말이야}

10105 # 게서 그러케 설:계를 해서 오개년 계획그로 일차공사를 행:쥬요{그래서 그렇게 설  
계를 해서 오개년 계획으로 일차공사를 했어요.}

10105 # 그래쓰니게 이게 되려니 해지 누가 그거 걸기 뿌러지는 생각 안헐거야{그랬으니  
까 이게 되려니 하지 누가 그거 그렇게 뚫어지는 생각을 안 한 거야.}

10105 # 그런데 그게 왜: 바뀐냐{그런데 그게 왜 바뀌었냐?}

10105 # \*\*\*\*\* 지금도 박 모씨라고 이사람 경기도 교육위원장 허던 사라미지요{지금도  
박 모씨라고 이 사람 경기도 교육위원장을 하던 사람이지요.}

10105 # 그 사라미 여기 의:위를 행:는데{그 사람이 여기 의원을 했는데}

10105 # 그 의원지글 고만두고 나니깐 그게 변경이 돼빠린거야{그 의원직을 그만두고 나  
니까 그게 변경이 되어버린 거야.} @ 네

10105 @(이때 전화가 걸려왔음) 여보세요 어어 뎜데{여보세요, 어어, 난데} # 그냥 내가  
이 어구러기 하:니 업는 거지요{그냥 내가 이, 억울하기 한이 없는 거지요.}

10105 @ 어 내 조사나와 일쥬 파주에 와서 일쥬 그래 내 저 학교 가며는 연락할게 그래

별릴 어 별릴업찌 그래 그래 어 인씨 에{어, 내가 조사 나와 있어. 파주에 와 있어. 그래  
 내 저 학교 가면 연락할게. 그래 별일 어, 별일 없지? 그래, 그래, 어, 있어, 예}

10105 # 게서 그게 직끔도 박 모씨를 내가 만나며는{그래서 그게 지금도 박 모씨를 내가  
 만나면}

10105 # 이게 이털쑤가 인는거나 어떠케 일차공사꺼지 해노쿠 그래{이게 이털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일차공사까지 해놓고 그래}

10105 # 측량해서 전:부 긴빨꼬자노코{측량해서 전부 깃발 꽂아놓고}

10105 # 그리구 썩 글루 돌리능 데가 어딘냐{그리고 썩 거리로 돌리는 데가 어디 있냐?}

10105 @ 그런데 여 도라 가는 거슬 바로 직썩느로 하는 셈입니까{그런데 여기 돌아가  
 는 것을 바로 직선으로 하는 셈입니까?}

10105 # 꼬러치요. 그냥 사느루 그냥 직썩느루 해버리는 거지요.{그렇지요. 그냥 산으로 그  
 냥 직선으로 해버리는 거지요.}

10105 # 에 일루 이리:케 도라갈 꺼를 직썩느루 한다 이거야{에, 이리로 이렇게 돌아갈 것  
 을 직선으로 한다 이거야}

10105 # 스으 그러나 이진 인썩쑤가 업따{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10105 # 이 에 당시니 의위늘 고만두더니 그래 이진꺼지두 그래 그러케 돼:야되능게 인냐  
 {이, 에, 당신이 의원을 그만두더니 그래, 이것까지도 그래, 그렇게 되어야되는 것이 있  
 느냐?}

10105 # 가서 좀 야단좀 치란 마랴 그래떠니{가서 좀 야단 좀 치란 말이야}

10105 # 그 참 게 내가 지금가서 내가 뭐: 야단쳐봐야 내가 의:위늘 고만둔 다으메는 무슨  
 히를 씹니까 그때 의:위느루 인썩땡 그래두 지권드리 마:를 드린찌만{그, 참, 그래 내가  
 지금 가서 내가 뭐, 야단을 쳐봐야 내가 의원을 그만둔 다음에는 무슨 힘을 씹니까? 그  
 때 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직원들이 말을 들었지만}

10105 # 이 됩니까 그래 어 참 따커타 내가 그걸{이, 됩니까? 그래. 어, 참, 딱하다. 내가  
 그것을}

10105 # 당신 의:원 그 그르케 될 때 그걸 으뜨크든지 내 이 여기가 원 기리 아니거든요  
 이게 저 바카트루 인는 기리예요 군데{당신 의원 그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이, 여기가 원 길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 바깥으로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10105 # 이 유기오때 이게 지비 그냥 동네가 썩 타버렷거든{이 6:25 때 이게 집이 그냥  
 동네가 썩 타버렸거든}

10105 # 그러니까 이 미:군드리 기냥 도:자를 가지고 쓰르르르 한번 지나가고 나서 그냥  
 차가 땡기기 시자칸 거예요 이게{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그냥 도자를 가지고 쓰르르르  
 한 번 지나가고 나서 그냥 차가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0105 # 그잉께 우리 집터드리 전부 다 집 지:꾸 나왈따허믄 전부 뺏긴거지요.{그러니까  
 우리 집터들이 전부 다 집 짓고 나왔다하면 전부 빼앗긴 거지요.}

10105 # 그래서 내가 그 이 이게 인썩쑤업는 애:기다 그래{그래서 내가 그, 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애기다. 그래}

10105 # 여태 여기 땅님자덜 보상두 하나두 몬박꾸 인는 거예요{여태 여기 땅 임자들 보  
 상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0105 # 긴칸 그대루 증발되거야 이진 그래 뭐 구:네 가서 애:길 해봐야{그러니까 그대로  
 증발된 거야 이것은, 그래 뭐, 군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10105 # 그 유기오때 그 지리 난거 뭐 지금 기리 나 인는 노르 기를 뭘 어쩌커런 얘기나  
구 이따위 소리나 허구{그 6:25 때 그 길이 난 것, 뭐 지금 길이 나 있는 놈의 길을 뭘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이 따위 소리나 하고}

10105 # 아 그 뭐 정부에서 그거 보상이 될꺼든 아마 어{아, 그, 뭐, 정부에서 그거 보상이  
될 거면 아마, 어}

10105 # 아마 이 뻔년 걸릴겁니다 뭐 이런시그루 나오구{아마 이 몇 년 걸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10105 # 이 이리 아주 어이가 음: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이 일이 아주 어이가 없는 얘  
기만 나와요. 그래서}

10105 # 이왕 내가 그걸 그 박 모씨한테 야 이걸 도대체 얘:기가 아니야 이 인썬 썬 음는  
이리니깐{이왕 내가 그것을 그, 박 모씨에게, 야,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아니야.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10105 # 이 기를 원길루 똥차{이 길을 원 길로 똥차}

10105 # 이거하나만 내 소원좀 드러다오{이것 하나만 내 소원 좀 들어다오}

10105 # 그랜뜨니 아이 그 형니미 꼭 그걸 해:야 된다고 허면 내가 안할 수 업찌어나요{그  
랬더니, 아이, 그 형님이 꼭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10105 # 그래서 그걸 시자글 형거예요 일차공사를{그래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일차공  
사를}

10105 # 게 머 긴빨꺼지 저::꺼지 다 꼬자날쓰니깐{그래 뭐, 깃발까지 저기까지다 꽃아놓  
았으니까}

10105 # 그거 누가 공사 다른데로 돌릴쥬른 몰랐거든요{그거 누가 공사를 다른 데로 돌릴  
쥬른 몰랐거든요.} @ 그대로 될쥬 아란는데{그대로 될 쥬 알았는데} / # 그러묘{그럼  
요.}

10105 # 그런데 이게 느:다답씨 기냥 공사를 글로 현대는거야{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그냥  
공사를 글로(=그리로) 한다는 거야.}

10105 # 거 이게 어트케 게 인제 김 모씨라고 이 박 모씨를 불러가지고{그 이게 어떻게,  
그래, 이제 김 모씨라고 이, 박 모씨를 불러서}

10105 # 야 유의원 너 이게 도:대체 이 뭐:허는 쥬 너가 의:위니냐 니가 뭐:허는거냐{야,  
김 의원 너 이게 도대체 이, 뭐하는 쥬, 네가 의원이냐? 네가 뭐하는 거냐?}

10105 # 아 그게 뭐: 어트케 뭐: 에 도:니 음:꾸 뭐: 어트커다가 중단 되구 그렇게 기냥  
{아, 그게 뭐, 어떻게, 뭐, 에, 돈이 없고 뭐, 어떡하다가 중단 되고 그렇게 그냥}

10105 # 허다보니깐 이게 직썬느로 사니든 에 사느루 두덩가 산{하다가 보니까 이게 직썬  
으로 산이면 산으로 두덩가 산}

10105 # 땅이 여기 인제 논:한평에 열드러서 십마닐 허며는{땅이 여기 이제 논 한 평에 예  
를 드러서 십 만원 하며는}

10105 # 아 이 산 한평에 기냥 오:쳐년도 안허는데 그걸 이 어:떠케 험니까 그러케해서 그  
냥 증:마리지 안된대능걸 비벼대가지구 음:는 도:느루 어뜨케 우겨 댄겁니다{아, 이, 산  
한 평에 그냥 오천 원도 안하는데 그걸 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이지  
안된다는 것을 비벼대어서 없는 돈으로 어떻게 우겨 댄 겁니다.}

10105 # 그며는 그이 직통이구{그러면 거의 직통이고}

10105 # 순저니 논 하나 이렇 거 양 개리구 기냥 사느루만 뿌러쓰니깐{순전히 논 하나 이

런 것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산으로만 뚫었으니까}

10105 # 그래두 그러치 그러믄 우리동네가 아주 망형 거 아니냐{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동네가 아주 망한 것 아니냐?}

10105 # 근데 이 줄바위 이걸 허릴 끈어논는 노미 어딘써 세상에{그런데 이 줄바위 이걸 허리를 꿰어놓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10105 # 이게 우리동네 싸람 다 주그라는 애:기 아니냐 예 허를 이래 꼬너노니{이게 우리 동네 사람 다 죽으라는 애기 아니냐? 예, 혈을 이렇게 꿰어놓으니}

10105 # 그게 뭐 직끔 세상에 그런게 인스니까 아유{그게 뭐,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10105 @ 그래도 공파대하기 드로는 걸 보면 이 마으리 이제 활성화 될겁니다{그래도 공과 대학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 마을이 이제 활성화 될 겁니다.}

10105 # 아니요 이 저: 월릉쪼게서 이러케 차를 타고설랑 측: 내려오면서 이러케 우리동넨 보면요{아니요, 이, 저 월릉 쪽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서 측 내려오면서 이렇게 우리 동네를 보면요}

10105 # 생기길 잘: 생겼거든요 이동네가{생기기를 잘 생겼거든요. 이 동네가}

10105 # 그런데 그자리가 무:언자리냐믄 고 미테가요{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그 밑에가요}

10105 # 유기오때 해:병대가 이 서부전서네서 전투혈쨌게{6:25 때 해병대가 이 서부전선에서 전투할 적에}

10105 # 그 전:사자드를 거기 임시 매장했뎌 자리에요{그 전사자들을 거기에 임시 매장했던 자리에요.}

10105 # 거기가 전:부 합동묘지 그래서 여기선 합동묘지 짜리라고 그래요 합동묘지{거기가 전부 합동묘지, 그래서 여기서는 합동묘지 자리라고 그래요. 합동묘지.}

10105 # 그런데 해:병대가 거기 에 한 수백꾸 거기 묻첼뜨랜써요 네{그런데 해병대가 거기에 에, 한 수백 구 거기에 묻혔었어요. 네.}

10105 # 에 휴전되고 나서 다 직끄믄 국꾼묘지로 다 갠쨌만{에, 휴전되고 나서 다 지금은 국군口7묘지로 다 갔지마는}

10105 # 그때는 이 서부전서네서 나오는 \*\*\* 그대로 바로갠따 거기다 매장을 했거든요{그때는 이 서부전선에서 나오는 \*\*\* 그대로 바로 갖다가 거기에다 매장을 했거든요.}

10105 # 그게 여러 가지로 인제 그 후에{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후에}

10105 # 다 캐:가고 나서는 그냥 그 뭐 이사람 저사람 무거자빠지구 뭐{다 캐어가고 나서는 그냥, 그, 뭐 이 사람 저 사람 목어자빠지고 뭐}

10105 # 쓰 그냥 풀:만 우거지구 낭구만 우거지구 그런는데{쓰, 그냥 풀만 우거지고 나무만 우거지고 그랬는데}

10105 # 느다덥쨌 근데 저: 우에서 이러케 내려다보믄 거기 참 자리가 아주{느닷없이 그런데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 참, 자리가 아주}

10105 # 듬지:커게 보이거든요 그 공파대학 지금 드러간 자리가{듬직하게 보이거든요. 그 공파대학 지금 들어간 자리가}

10105 # 그 참 잘:생겼쨌요{그 참, 잘생겼어요.} @ 아 조은자리 드러선네요{아, 좋은 자리 들어섰네요.} / # 네 조은 조은자리예요{네, 좋은, 좋은 자리예요.}

10105 # 그 갑 그 와서 참 그{그 값, 그 와서 참, 그}

10105 # 거기 인제 공파대학 교:수 두:부니 처으메 날 차자와서{거기 이제 공파대학 교수 두 분이 처음에 나를 찾아와서}

10105 # 그 애:길 허구 이제 참 협조를 좀 해달라구 그래서{그 애기를 하고 이제 참, 협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10105 # 하여튼 내:가 헐 쑈 인는 데는 해:드리겜습니다 해:서 인제{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10105 # 시:자글 해가지고 그래도 참 한사라미 마:를 안듣꾸 그냥 저걸 허구 그랜뜨랜는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참, 한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저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10105 # 게:도 끝까지 참 저걸 해가지고 다: 협조가 다: 잘되구 그래서{그래도 끝까지 참, 저걸 해가지고 다 협조가 다 잘 되고 그래서}

10105 # 게 무나니 이게 드러오게 되었쎄요{그래 무난히 이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 그 쪼근 저 뭇니까 따로 그 재다니 따로 인쎄니까 어떤 기업체하고 관련된건가요{그 쪽은 저, 뭇니까, 따로 그 재단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기업체와 관련된 건가요?}

10105 # 이 두원공대가요? 그 재다니 일뜨라구요 이사장두 일꾸{이 두원공대가요? 그 재단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도 있고}

10105 # 그 이 그냥 아냥에 일뜨라구요 아 저 안성{그, 이, 그냥 안양에 있더라고요. 아, 저, 안성} @ 안성예요?{안성예요?}

10105 # 안성에 원 대학기 그 공파 두원공대가 안성에 인쎄요 본점 본사{안성에 원 대학 이 그 공파, 두원공대가 안성에 있어요. 본점, 본사}

10105 @그게 조브니까 이제 큰테로 확장하는구나{그게 좁으니까 이제 큰 테로 확장하는구나.} 10105 # 본교가 그니깐 본교가 거기 놔두고 일루 이제 분교가 나오는거야 한마디 루 얘기해서{본교가, 그러니까 본교를 거기 놓아두고 여기로 이제 분교가 나오는 거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10105 # 근테 거기 저 이 전 모씨라구 경기도 지사하던 그저네 그사라미 거기 저 이{그런 데 거기 저, 이, 전 모씨라고. 경기도 지사하던 그 전에. 그 사람이 거기 저, 이}

10105 # 뭐야 이 이:산가 뭐 이 이:산가 가일뜨라구요{뭐야 이, 이사인가 뭐 이, 이산가 가 있더라고요.}

10105 # 그리구 이사장이래는 사라미 그 인제 돈:좀 일따 그러드라구{그리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돈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10105 # 그사라미 인제 어떠케 해:서 이걸 그게 아마 전 모씨가 경기도를 통허구{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게 아마 전 모씨가 경기도를 통하고}@ 그러켄...{그렇겠...}

10105 # 이러케 통해:가지구 그잉게 경기도 도:지사를 헐쓰니까{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를 했으니까}

10105 # 게:서 예 인제 엘지피리스가 일루 드러오고 여기 와 인쓰니깐{그래서 예, 이제 엘지-필립스가 이리로 들어오고 여기에 와 있으니까}

10105 # 아 동작빠르게 이걸 아마 태컨거 가태요{아, 동작 빠르게 이것을 아마 택한 것 같아요.} @ 잘 잘:뜨러 완꾼요{잘, 잘 들어 왔군요.} # 네 잘 드러와쎄요.{예, 잘 들어왔어요.}

10105 # 이 누구든지 \*\*\* 우리 파주으븐 파주읍때로{이 누구든지 \*\*\* 우리 파주읍은 파주읍대로}



10105 # 잘: 뎡뎡 애:기구{잘 되었다는 애기고} @ 그러썬니다 대하기 하나 드로머는 그 주위가 아주 달라집니다{그렇습니다. 대학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주위가 아주 달라집니다.}

10105 # 게 인제 우리 동네두 뭐 살게 될따 어쩐다 그래{그래 이제 우리 동네도 뭐, 살게 되었다. 어쩐다 그래}

10105 # 아 그 뭐 난 그 그런 애길 험니다 참 살게되긴 뎡는데 원주민드른 다 쫓겨나야 된다 원주민드른{아, 그, 뭐 나는 그, 그런 애기를 합니다. 참 살게 되기는 되었는데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야 된다. 원주민들은}

10105 @ 쪽 왜 쫓겨나썬썬니까?{쫓, 왜 쫓겨나썬썬니까?} # 이게 왜 쫓겨나냐?{이게 왜 쫓겨나냐?}

10105 # 지금 우리집두 이게 자:꾸 그냥 그 지까가 올라가가지구요{지금 우리집도 이게 자꾸 그냥 그 지까(地價)가 올라가서요}

10105 @ 지금 요기는 그 굉장하썬썬요.{지금 여기는 그 굉장하썬썬요.} # 네 이동네가 지금 엄:청납니다{네, 이 동네가 지금 엄청납니다.}

10105 # 게 이게 우리두 벌써 이게 지금 현:시까로 이 이:억가까이 되거드노 우리 지비{그래 이게 우리도 벌써 이게 지금 현 시가로 이, 이억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집이}

10105 # 이게 지금{이게 지금} @ 몇평썬?{몇 평썬} / #백칠십평인데{백 칠십 평인데}

10105 @ 오 대단하썬썬요.{오, 대단하썬썬요.} # 그러니 이게 엄청 엄청나요 그러믄{그러니 이게 엄청, 엄청나요. 그러면}

10105 # 농사지어서 배 그저 이 배까마나 한다{농사 지어서 벼 그저 이, 백 가마나 한다.}

10105 # 배까마 그러믄 그 늘지를 안커드노 뎡:날 해봐야 그 백까마거던{백 가마 그러믄 그 늘지를 앓거든요. 늘 해봐야 그 백 가마거든}

10105 # 금 쌀깎썬 과라먹지 못허면 떠러져{그러면 쌀값은 팔아먹지 못하면 떨어져}

10105 # 그러믄 세:그른 곱:썰이 벌써 뎡썰썰이가 올라갠썰요{그러믄 세금은 곱쟁이(=곱 절), 벌써 몇 곱쟁이가 올라갠썰요.}

10105 # 지금 벌써 우리가 이미 돈썰마넌 너머간지 훨씬 오래거든요{지금 벌써 우리가 이미 돈 십만원 넘어간 지 훨씬 오래거든요.}

10105 # 그리이 이거 까따카단 가옥썰 집썰 막 쏘다저 나오는데{그러니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옥썰, 집썰 막 쏘아져 나오는데}

10105 # 이 원주민드른 견디기도 어려워{이 원주민들은 견디기도 어려워}

10105 # 다른데서 무슨 번:데믄 되는데{다른 데서 무슨 번다고 하면 되는데}

10105 # 근데 나부텨도 또 이제 그 이 가마::니 지금 생각을, 애:들두 다 나가고 나두 용돈 \*\*\* 저 뒤:썰게다 방을 두:개 디려서 지금 방썰를{그러네 나부텨도 또 이제, 그, 이, 가만히 지금 생각을, 애들두 다 나가고 나두 용돈 \*\*\* 저 뒤쪽에다가 방을 두 개를 들여서 지금 방썰를}

10105 # 요썰게서 방 시보마넌짜리 방이고 요썰겐 시비마넌짜리 방이고 그런데{요썰에서 방 십오만 원 짜리 방이고 요썰엔 십이만 원 짜리 방이고 그런데}

10105 # 요썰근 화장시리 저:기 멀:다 해서 인제 그 또 화장실꺼지 해썰:썰{요썰은 화장실 이 저기 멀다고 해서 이제 그, 또 화장실까지 해주었지}

10105 # 아 인데 이썰빵이 빈:지가 벌써 언젠지 몰라요 안드러와요{아, 그런데 이썰 방이 빈 지가 벌써 언제인지 몰라요. 안 들어와요}

10105 # 그니 왜 안드러오냐{그러니 왜 안 들어오냐?}

10105 # 교:통망이 너무 조:타 이거야 그니깐 서울서 출퇴근 허는데 이게 뭐 삼 삼십뿐 사  
십뿐이든 다 드러오는데{교통망이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  
는데 이게 뭐, 삼, 삼십 분 사십 분이면 다 들어오는데}

10105 # 뭐:하러 여거와서 사냐 이마리거든{무엇하러 여기와서 사느냐 이 말이거든}

10105 # 방세를 왜 방을 세:를 주고 사냐{방세를, 왜 방을 세을 주고 사느냐?}

10105 # 그니깐 인제는 방 세:두 놔:머글쭈 업써{그러니까 이제는 방세도 놓아먹을 수 없  
어}

10105 # 그니 이 크닐난지 뭐야{그러니 이, 큰일 났지 뭐야.} @그래도 학교 인쓰면 괜차  
늘깁니다.{그래도 학교가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10105 # 그니깐 인제 저게 학생이 드러와바야 알겐찌만{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학생이 들  
어와 보아야 알겠지만}

10105 # 근데 파주여기 인쓰니깐{그런데 파주역이 있으니까}

10105 # 학생드리 아주 먼:데서 통근허는 학생드른 이여글 땡길꺼구{학생들이 아주 먼 데  
에서 통근하는 학생들은 이 역을 다닐 것이고}

10105 # 그러므 지금 우리동네 여기 식당두 제대로 되지 양코 뭐 여기서 뭐 할게 뭐인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 여기 식당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여기서 뭐 할 것이 뭐가 있  
느냐?}

10105 @ 그런거를 잘 고려해야 될겁니다{그런 것을 잘 고려해야 될 겁니다}

10105 # 그러니깐 방세나 놔머그든 방세래두 놔머그든 되지안냐 이런소리 했는데{그러니  
까 방세나 놓아먹으면, 방세라도 놓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10105 # 지금 공사허는 사람드리 여기 뭐 참 수:심명이 와서 버글대고 인찌 안씀니까?{지  
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 참, 수십 명이 와서 버글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10105 # 한:사람두 여기 동네사람 동네 와서 사는 사라미 업써{한 사람도 여기 동네 사람,  
동네 와서 사는 사람이 없어}

10105 # 다른때거트든 그사람드리 다: 방 으더가지구 여거와서 예 땡기고 출퇴근했쥔텐데  
{다른 때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방 얻어가지고 여기와서 예, 다니고 출퇴근을 했을 텐  
데}

10105 # 전:부 자동차로 왁따갈따 하네 지비서{전부 자동차로 왔다갔다 하네, 집에서}

10105 @ 워:낙 교통이 조곤요 서울써보니까{워낙 교통이 좋군요. 서울에서 보니까}

10105 # 머키로?{몇 킬로?} @오십 오:십 삼키론가 오십맨킬론데.{오십, 오십 삼 킬론가  
오십 몇 킬론데}.1# 예 교통이 여간 조치 안씀니까 통일로 해서{예, 교통이 여간 좋지  
않습니까, 통일로로 해서}

10105 @ 한시간도 안되거든요 드러오는데{한 시간도 안 되거든요. 들어오는데} / # 글썸  
요 그르니까는{글썸요, 그러니까는}

10105 # 이게 전:부 그 서울 여 일싼 이췌게서들 드론온다구요{이게 전부 그, 서울, 여, 일  
산 이췌에서들 들어온다고요}

10105 # 그 고양시 그러니깐 이게 도:저히 여기선 살기 어렵따 그러믄{그 고양시, 그러니  
까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살기 어렵다. 그러면}

10105 # 이거 땅 팔구{이거 땅 팔고}

10105 # 판테루 가야 지금 엘지 피리스 드러온 동네 싸람드리{다른 데로 가야. 지금 엘지-

필립스가 들어온 동네의 사람들이}

10105 # 그 내가 인제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 아십니까 그쪽 그동네 사람들두 원주민 썩 떠날쎄요{그, 내가 이제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 아십니까? 그쪽, 그 동네 사람들도. 원주민이 모두 떠났어요.}

10105 # 그래가지고 금촌 아파트 가서 사는데 저:번에 여자들 그 맨사람 만날쎄{그래서 금촌 아파트로 가서 사는데, 저 번에 여자들 그, 몇 사람 만났어}

10105 # 김 모씨 메뉴리 모두 먼사람들{김 모씨 며느리 모두 몇 사람들}

10105 # 아 이 몰라봐 어디 대:갈집 마:님덜 갈꾸 그냥{아, 이 몰라봐. 어디 대갓집 마님들 갈고 그냥}

10105 # 세:상에 하이칼래 여자드리 뻔쎄 그 촌:부지래기드리{세상에 하이칼라 여자들이 되었어. 그 시골 무지렁이들이}

10105 # 어어 게 우리 마누라 아이 어뜨케 된거야 그랜떠니{어어? 그래 우리 마누라. 아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10105 # 아 그 아무개 엄마지 뭐야 그래 아이 저러케 머쟁이가 돼쎄?{아 그 아무개 엄마지 뭐야? 그래. 아이 저렇게 멋쟁이가 되었어?}

10105 # 아 그 금:촌 나가서 사:니까 머쟁이가 돼쎄. 아 그 세:상에 아아 내 그래서 야아 이게: 촌:노미 따로 업꾸나{아 그, 금촌으로 나가서 사니까 멋쟁이가 되었지. 아 그, 세상에 아, 내 그래서 야아 이게, 촌놈이 따로 없구나!}

10105 # 어어 참 기가 매키다{어어? 참 기가 맥히다.}

10105 @ 잠깐 그럼 줌{잠깐 그럼 줌} # 네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 그 이 이 동네 사람드리 지금 가마니 생가켜능거는{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그, 이,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10105 # 지금 두원공대가 드로구 인제 이게 학생드리 줌 드와서 마니 해보든 줌 알겐찌마는{지금 두원공대가 들어오고 이제 이게 학생들이 줌 들어와서 많이 해보면 줌 알겠지마는}

10105 # 그래두 나:는 동네뿐들헌데 참 여러가지루 협조해 달라구 자꾸 부탁거는{그래도 나는 동네분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협조해 달라고 자꾸 부탁한 것은}

10105 # 동:네 대하기 드로는데 이걸 더이상 뭐:가 인냐 그래두{동네에 대학이 들어오는대 이걸 더 이상 뭐가 있느냐? 그래도}

10105 # 허다몰태 방쎄래두 놔:머그믐 살지 안캔냐 내가 그러케 애:길 헐꺼든{허다못해 방 세라도 놓아먹으면 살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애길 했거든}

10105 # 그르데 실쩍찌긴 닥쳐보니까 아니다{그런데 실제로 닥쳐보니까 (그게) 아니다}

10105 # 그리구 지금 이 금:초네서 또 일:루 기리 또 뿌려져요{그리고 지금 이 금촌에서 또 이리로 길이 또 뚫어져요.}

10105 # 이 저: 일:싼서 그냥 바루 드러오는 기리{이, 저, 일산에서 그냥 바로 들어오는 길이}

10105 # 그 이걸 통일로 다리 인는 월령 파리 그거 월령녀긴는 고고 말구{그 이걸 통일로 다리가 있는 월령 다리 그것 월령역이 있는 그것 말고}

10105 # 쪼끔내려가서 또 다리가 \*\*\* 그게{조금 내려가서 또 다리가 \*\*\* 그것이}

10105 # 저::기 일싼쎄 바루 쭈욱 빠져 내려와가지곤{저기 일산에서 바로 쭈욱 빠져 내려와서는}

10105 # 이 월령산 그 저 문녕학교 인는데서 이쪼그로 드리와가지곤{이 월령산 그, 저, 문  
령학교 있는 데서 이 쪽으로 들어와서는}

10105 # 지금 이 일:루 영주꼴로 해서 이리 추내로 빠진단 마리아{지금 이, 이리로 영주꼴  
로 해서 이리 추내로 빠진단 말이야}

10105 # 그러믄 그제 인제 보:통 사차선 아님 육차선 빠질텐데{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통  
사차선 아니면 육차선으로 빠질 것인데}

10105 # 그래가지구 인제 연:처느로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그래서 이제 연천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10105 # 그 이 그러니 이게 기리 거리나 저: 집{그, 이, 그러니 이게, 길이 거리나 저 집}

10105 # 저 뒤:루 또 저: 화석쟁으루 해:서 또 처뤄느로 빠져{저 뒤로, 또 저 화석정으로  
해서 또 철원으로 빠져}

10105 # 뭐 그냥 사:방으로 맨드느니 길만 맨들 뚫버지고는 일꼬{뭐 그냥 사방으로 만드는  
것은 길만 만들, 뚫어지고는 있고}

10105 # 그러니깐 뭐 이기 견디기가 어려운거죠{그러니까 뭐,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지요.}

10105 # 그러타고 해서 이 공:시지까는 해마다 일너네 두:번씩 날라와요{그렇다고 해서 이  
공시 지가는 해마다 일 년에 두번 씩 날아와요.}

10105 # 금너네 어, 얼마씩 뵈는데 이이가 일쓰믄 신청하십씨요.{금년에 어, 얼마씩 되었는데  
이이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 자꾸 오르겐쪼{자꾸 오르겠지요.}

10105 # 뭐 시:청으루 차자오십씨요{뭐, 시청으로 찾아오십시오.}

10105 # 이 우리가 그거 올랐따고 차자가서 마:라믄 뭐 우리 마:리 통합니까?{이 우리가  
그것 올랐다고 찾아가서 말하면 뭐 우리 말이 통합니까?}

10105 # 그사람드른 이 대:번 그럴텐데 뭐 아이 당신네들 한 평당 맨 뽕마넌씩 바다머글텐  
데 뭐 지금 판소리허냐구{그 사람들은 이, 대번 그럴 텐데 뭐. 아이 당신네들 한 평당  
몇 백만 원씩 받아먹을 텐데 뭐 지금 판소리하느냐고}

10105 # 큰소리 팡:팡 칠꺼라구 그러믄 아::무쏘리 모터구 그냥 쪼껴나와야 된다구{큰소리  
팡팡 칠 것이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쪼껴나와야 된다고}

10105 # 그냥 노:는 절대놓지 이런걸루 해서 논:값슨 별루 올르지 안치만{그냥 논은 절대  
놓지 이러 것으로 해서 논값은 별로 오르지 않지만.}

10105 # 이런 터:마는 이 이견 올르게 돼:일썤요{이런 터만은 이, 이것은 (값이) 오르게 되  
어 있어요.}

10105 # 이 뭐 그러니 직끔 우리동네두 뭐: 마:른 무신 이:뽕마넌 삼뽕마넌 떠들지만{이,  
뭐, 그러니 지금 우리 동네도 뭐, 말은 무슨 이백 만원, 삼백 만원(이라고) 떠들지만}

10105 # 복덕방에서 허는 소리구 또 파라봐:짜 우리 원주민이.{복덕방에서 하는 소리고 또  
팔아보았자 우리 원주민이} @ 결구근 요조게 팔:구 판테를 가고 이러케 될 수바게 업겐  
쪼{결국은 요쪽에 팔고 다른 데를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10105 # 파라봐:짜 별거 아니야. 팔므는 그래도 이:어기나 사먹 받는다{팔아보았자 별것  
아니야. 팔면 그래도 이익이나 삼익 받는다.}

10105 # 금촌가서 아파트 하나 사믄 맨년이따간 돈떠러지믄 고마이지 뭐{금촌으로 가서  
아파트 하나 사면, 몇 년 있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만이지 뭐}

10105 # 거기 가서 무얼 무신 우리가 취:지글 헐꺼야 어디 가서 무슨 뭐 장:사를 할껀니까

{거기로 가서 뭘, 무슨 우리가 취직을 할 거야, 어디로 가서 무슨 뭘, 장사를 할 겁니까?}

10105 @ 근데 여기 인쓰면 세금 자꾸 올르니까 그게 또 문제자나요?{그런데 여기 있으면 세금이 자꾸 오르니까 그것이 또 문제잖아요?} # 그러쵸 이게 세:그미 자꾸 올르니까 그게 걱정이지{그렇지요. 이게 세금이 자꾸 오르니까 그것이 걱정이지}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 (1) 농악대 조직

10201 # 이거 저: 잘못뜨롱거 아십니까{이거, 저..., 잘못 들은 것 아십니까?} @ 아님니다.{아닙니다.}

10201 # 지금 주변, 말쑤변도 엄는데, 더군다나.. 하하하.{지금 주변, 말쑤변도 없는데, 더군다나.. 하하하}

10201 # 이런 그 중대한 이:를{이런 그 중대한 일을..}

10201 # 그냥 함부로{그냥 함부로..} @ 아님니다. 의식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아닙니다. 의식하지시 마시고요. 그냥}

10201 # 그 인제 먼:저 내가 애:기항거는 제... 말하자면는{그, 이제, 먼저 내가 애기한 것은 제.. 말하자면..}

10201 # 군 거 어려서 자란 애:길행거구.{그..., 어려서 자란 애기를 한 것이고.}

10201 # 아프루 인제 그러케 애:길허자문 그 그후에 내가 제대해 나와가지구 내가 현 일{앞으로 이제, 그렇게 애기를 하자면, 그 후에 내가 제대해 나와가지고 내가 한 일}

10201 # 그게 인제 좀 중요현 이리 만:씀니다.{그것이, 이제, 좀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10201 @ 그 그거 저 천::천히요 그 어 문화부에서 이게 국까저긴 사업이지 안씀니까? 국까저긴 사어비니까 기가니 좀 오래 걸립니다.{그 그거는, 천천히, 그, 으, 문화부에서,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이지까 이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10201 @ 애:기, 마으리 유래 이 마으레서 내려오는 무슨 전설 설화가통거, 이 마으리 풍습, 저 풍속가통거, 이 마으리 또 민속, 이 마으리 어너, 이렇거뜨레 대해서 전부다 애:기를 든능거거든요.{애기, 마을의 유래,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무슨 전설, 설화 같은 것, 이 마을의 풍습. 저, 풍속 같은 것, 이 마을의 또 민속 이 마을의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애기를 듣는 것이 거든요.}

10201 # 글쎄 그러려면 인제 땀싸람이 가치 애:기가 되야 되는데 나 혼자서 애:길 해가지구 이게.{글세, 그러려면,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애기가 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서 애길 해가지고 이게..}

10201 @ 글쎄 가능하다며는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기 출신으로서 친하신 분 한 분만 더 있으려는 조...{글세, 가능하다면,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기 출신

신으로서 친하신 분 한 분만 더 있으면 좋..}

10201 # 그쵸요, 여기 인제:: 뭐 그사라::문 인제..{글쵸요, 여기, 이제... 뭐 그 사람은 이제..}

10201 # 이 월래 여기 이씨넨 이씨넨데 여기 이 신평 이씨네가 마니 사라요..{이, 원래, 여기 이 씨넨, 이 씨넨데, 여기, 이, 신평 이 씨네가 많이 살아요..}

10201 # 여기 월래 저, 근데 근데 그 사라:미 인제 나::하구 가튼 친구가 여기 하나 인는데 {여기, 원래, 저,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 같은 친구가 여기 하나 있는데..}

10201 # 그 사라문 파리로 해:방되구 일본서 건너왔거든{그 사람은 8:15 해방되고 일본에서 건너왔거든..}

10201 # 그래서 그 전 애:기를 저너 몰르..{그래서 그 전(=해방 이전)의 애기를 전혀 모르..} 10201 @ 그런 그러쵸끔요..{그렇.., 그렇쵸끔요..}

10201 # 그래서 좀 저거허구{그래서 좀 저거(곤란)하고..} @ 여기 출시느로써 그래두 좀 오랫동안 여기에 사신 부니 조커든요..{여기 출신으로써 그래도 좀 오랫동안 여기에 사신 분이 좋거든요..}

10201 # 그기 인제 그런 사람들두 일긴 일쵸. 내 이... 누구를 해야 하나. 한 사람 이...{그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내 이.., 누구를 해야 하나. 한 사람. 이...}

10201 # 그 인제 유기오때 그.. 나는 인제 또 읍:썰꾸..{그, 이제, 6:25 때, 그, 나는 이제, 또 없었고..}

10201 # 그 읍:썰편 사이에 또 이러난 일두 만:탄 마리쵸..{그, 없었던 사이에 또 일어난 일도 많단 말이지요..}

10201 # 그렇거. 그 저:기 저나 좀 거리봐요..{그런 것, 그.., 저기, 전화 좀 걸어봐요..}

(부인) 어디요? / 10201 # 호:피릴레. 그, 호:필 아버지 인쓰문 좀 지비 내려 오라고...{호필 일네, 그, 호필 아버지 있으면 좀 집으로 내려 오라고..} / @그부는 요쵸게서 출생하.. {그 분은 요쵸에서 출생하..}

10201 @하쵸습니까?{하쵸습니까?} # 네, 나보든 두: 사리 아랜데요. 근데 인제 그, 자랄때까지 자랄꺼든{예, 나보다는 두 살이 아랜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랄 때는 같이 자랐거든..}

10201 # 월래 여기 이서방네 지바니구{원래 여기 이 서방네 집안이고} @아, 월래...{아, 원래..}

10201 # 예, 여기 이씨네 토배기거든요. 우리, 나는 김가니깐 여기 토배기가 아니지..{예, 여기 이 씨네 토박이거든요. 우리, 나는 김 가니까 여기 토박이가 아니지..}

10201 # 우리 외가:가 여기 사란떠랜구. 근데{우리 외가가 여기 살았었고. 그런데}

10201 # 어. 그 이:씨네가 여기 살기를 예..꽤 여러대 사란쵸요..{어, 그 이 씨네가 여기 살기를 예, 꽤 여러 대 살았어요..}

10201 # 그사람드리 인제 좀 우리 동네를 마:니 인제 잡꾸 이케 사라나간쵸..{그 사람들이 이제 좀 우리 동네를 많이, 이제, 잡고 이렇게 살아나갔지..}

10201 # 엔날엔 그 인제 다 이:씨네가 인제 주동..뽀를 잡꼬 헐:뜨랜는데{옛날에는 그 이제 이 씨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했었는데..}

10201 # 지:끄문 인제 세:상이 달라전쓰니깐 인제 그 아니지만..{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깐, 이제, 그, 아니지만(=그렇지는 않지만)}, @ 그러치요..{그렇지요..} 예 예

10201 # 근데 그 내가 이 부.. 그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는 애:길헐:는데 제대허구 나서

내가 여길 오니까{그런데 그, 내가 이 부... 그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내가 여기를 오니까.}

10201 # 상당이 그 그 참 그 그때 당시에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내가 제 제대하자마자 인제 청소년{상당히 그, 그 참, 그, 그때 당시에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내가 제,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청소년}

10201 # 선:도위원이라는 인제 저걸가따 인제 조:가지고 낄: 또 끄러내:서{선도위원이라는 이제, 저것을 이제 하라고 해서 나를 또 끌어내어서}

10201 # 내:가 인제 그 이 마으레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그때 사에치운동이 한창 버러질 켜인데{내가 이제, 그, 이 마을의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그때 4H운동이 한창 벌어질 적 인데}

10201 # 그때 인제 그걸 주동저그로 이끄러뜨렷꼬{그때 이제, 그것을 주동적으로 이끌었었 고}

10201 # 그 후에 인제 새마을 사어블 허는데 인제 그 이장.. 인제 에 여기 에..{그 후에 이 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이장.. 이제, 에, 여기, 에..}

10201 # 그 때 당시에는 절문사람이얼썬지만 그이 사라미 수를 너무 머거가지고 아이 완 저니 이장은 이장인데 말로만 이장이지{그때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었었지만 그, 이 사람 이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아이, 완전히 이장은 이장인데 말로만 이장이지}

10201 # 긴간 허는 도대체 안돼. 그래서 참 면:장을 허다 주근 주건지만 지금 이장을 허는 아부지가{그러니까 하는, 도대체 안돼. 그래서 참, 면장을 하다가 죽은, 죽었지만, 지금 이장을 하는 아버지가}

10201 # 박수리라구. 그 사라미 면:장을 허다 주건썬요. 그때{박술이라고. 그 사람이 면장 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때}. (이때 제보자 부인이 먹을 것을 가져왔다.) @어유, 네, 고 맙습니다.{아, 네, 고맙습니다.}

10201 # 그때 인제 나하구 가치 그거를..{그때 이제 나와 같이 그것을..}

10201 # 인제 이왕 그러케 똥건데 새마을 사어블 허는데 새마을 사업 그 때

10201 # 이.. 근데 그 새마을 사업 뿌:미 이러나기 전에 내가 제대해 나와가지구

10201 # 켈: 처:메 항게 이..농악땀니다. 농악때루 추지늘 해서.{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 농악대입니다. 농악대를 추진해서.}

10201 # 이 동네 농악때를 뿌:믈 이르켜썬요.{이 동네 농악대 붐을 일으켰어요.} 10201 @ 어유, 여기에 농악대 / # 네, 이 마으레.{예, 이 마을에.}

10201 # 그때 인제 그래가지구 파주군 농악대회가 이썬는데{그때 이제 그래서 파주군 농 악대회가 있었는데.}

10201 # 그거를 압뚜구 인제 내가 인제 이 마으레 절문 사람드를 조지글 해가지구{그 대 회를 앞두고 이제 내가 이제 이 마을의 젊은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10201 # 그.. 참 도:늘 동:냥을 내가 허다시피 해서 구거를 헐쥌.{그 참, 돈을 동냥을 내가 하다싶이 해서 구걸을 했지요.}

10201 # 이 수중에 자보니 업쓰니깐,{수중에 자본이 없으니까} @ 그러치요{그렇지요.} / 10201 # 그래서 인저 허다모태 모자하나 모태 입, 쓰구 이랬는데{이래서 이제 하다못해 모자 하나 못해 입, 쓰고 이랬는데}

10201 # 그 대회 나갈때까지 계속 뭐 내가 옴나레 그 이{그 대회 나갈 때까지 계속, 뭐 내 가 옛날에 그, 이}

10201 # 이시빌사단이라고 이게 백두산 부대가 인썬니다 이러케(양 손으로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매는 시늉을 하면서){21사단이라고. 이것이, 백두산 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10201 # 이거를 해:서 하치마끼를 맨드러가지구 차게 허구{이것을 해서 하치마끼(=머리띠)  
 를 만들어가지고 차게(=매게) 하고} @ 예

10201 # 그래가지군... 참 나가서 쟁가리를 치고 했는데{그래서.. 참, 나가서 쟁가리를 치고  
 했는데}

10201 # 그 고양시에서 이 상쇠를 이 오야봉을 데려다가 교:유글 받꾸 인제 별진다해써 그  
 걸{그, 고양시에서 이 상회를 이, 오야봉(=우두머리)을 데려다가 교육을 받고, 이제, 별  
 짓을 다 했어. 그것을}

10201 # 그게 인제 날..내가 제대해 나와서 쥔 출바리외다.{그것이 이제, 날.. 내가 제대해  
 나와서 쥔 출발입니다.}

10201 # 가서 그게 인제 전... 파주시 전... 대회에서 삼등을 헐따구{가서 그것이 이제, 전  
 파주시 전 대회에서 삼등을 했어.}

10201 # 그게 인제 그때는 \*\*\* 여기가 아주 양색씨 초니어씨씨요. 양색씨 초니어씨꾸 그냥  
 뭐 영:{그것이, 이제, 그때는 \*\*\* 여기가 아주 양색씨 촌이였었어요. 양색씨 촌이였었고.  
 그냥 뭐 영}

10201 # 주내빠다기 굉장해쥔는데 그 삼등을 허고 나니깐 우리 기냥 이 주내 파주 그때  
 주내며:니야.{주내(=면이름)바닥이 굉장했었는데, 그 삼등을 하고 나니까 우리, 그냥, 이  
 주내, 파주, 그때 주내면이야.}

10201 # 주내며니 발각 뒤지핑거야 으이 우리 봉암리는 낭중이구{주내면이 발각 뒤집힌  
 것이야. 으이, 우리 봉암리는 나중이고.}

10201 # 기냥 뭐 양색씨들꺼정 기냥 몽:탕 나와가지구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새두룩 그냥  
 수네(?)서 나오질 모터게{그냥, 뭐, 양색씨들까지 그냥 모두 나와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그냥{그냥, 뭐, 양색씨들까지, 그냥 몽땅 나와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그냥, 순(?)에서 나오지 못하게}

10201 # 기냥 털기잉커구(?) 뚜들겨 먹꾸 그냥.{그냥 털기잉하고 뚜드려 먹고 그냥}

10201 # 그래 이제 그 이튿날 나오는데 그러니 그게 인제 우리 그{그래, 이제, 그 이튿날  
 나오는데 그러니, 그게 이제, 우리, 그}

10201 # 에 말허자면 우리 동네에서 그 인제 하루 결:찌퍼는데{에, 말하자면, 우리 동네  
 에서 그 이제 하나로 결집하는데}

10201 # 고고 하나 시:자글 형거예요{그것 하나 시작을 한 것이예요.} 10201 @에 집, 단  
 결하고 협동하는데{에, 집, 단결하고 협동하는데} / 10201 # 시자글{시작을}

10201 # 참 그때 당시에 제대해 나와보니깐 내 아우가 그니깐 유기오를 격꾸 머 이러케  
 하다보니깐 피난 나가는 동안에 다 파라먹꾸{참, 그때 당시에 제대해 나와보니까 내 아  
 우가 그러니까 6-25를 겪고 뭐,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피란 나가는 동안에 (논밭을)다 팔  
 아먹고}

10201 # 이 차{이 차..}(제보자가 조사자와 보조원에게 커피를 권하면서) @ 예. # 요 드시  
 죠.{이것 드시지요.}

10201 # 그 인저{그 이제..} @ 잘먹쥔습니다.{잘 먹겠습니다.} / # 아무거뚜 업는 지비 와  
 보니까 참 빈만 걸머지고 참 논 그저 한 천여평 남았따라구요.{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보  
 니까 참, 빗만 쏴어지고 참, 논, 그거 한 천여평 남았더라고요.}



10201 # 내 아우가 인제 농사를 진는데 그거마저 파라치구 인제 기냥{내 아우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것마저 팔아치우고 이제, 그냥}

10201 # 빈깡개인데 그땐 순저니 이부루 사:능 거지 뭐.{빈깡통인데 그때는 순전히 입으로(=말로) 사는 것이지 뭐.}

10201 # 무슨 내 절른 혈끼 그냥 그대루 성질 그대루 사능거지. 아무거뚜 기델때가 엄는거지요.{무슨 내 젊은 형기 그냥, 그대로 성질 그대로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기델 데가 없는 것이지요.}

10201 # 그대두 까지꺼 내가 설마 절른 노미 굴머 죽겐냐.{그래도 그까짓거 내가 설마 젊은 놈이 굶어 죽겠느냐.}

10201 # 마누라두 인찌만{마누라도 있지마는}

10201 # 아:니 인제 그게 동네 마리에요.{아니, 이제, 그게 동네 말(語)입니다. @ 예 그러쥬니다.{예, 그렇습니다.}/ # 네 그게 동네 마를 하능거예요.{예, 그게 동네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201 # 인제 그리다보니깐 인제 이 여러가지루 인제{이제, 그리다보니까 이제, 이 여러가지로 이제}

10201 # 그 시:자글 해가지구 순저니 이부루 시:자기 땡거예요.{그 시작을 해서 순전히 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0201 # 그래가지구 인저 동냥을 허다시퍼 해서{그래서 이제 동냥을 하다싶이 해서}

10201 # 동네싸라를 설떡커구 별진 다해가지구{동네 사람을 설득하고 별짓을 다해서}

10201 # 그 대회 나가는데두 참 증말 밥항기, 끼 가서 사머글 돈:두 업써꺼든.{그 대회에 나가는 데에도 참, 정말 밥한끼 가서 사먹을 돈도 없었거든.}

10201 # 그대두 그걸 어터케든지 맨들어 가지구{그래도 그것(=농악대)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10201 # 다 그대두 인제 그 모든 다나비 뽕뜨라 이마리아. 그래서 가서 삼등을 했뜨니 인제 과연 으 김윤태가{다 그래도 이제, 그 모든 단합이 되었더라 이말이야. 그래서 (대회장으로) 가서 삼등을 했더니 이제, 과연, 으, 김윤태가}

10201 # 절른노미 으 방여근 인꾸나. 이 인제 인정을 바등거쥬. 인제.{젊은 놈이, 으, 박력은 있구나.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 @ 지도려기 아주{지도력이 아주..}

10201 # 그래서 고담:부텨 인제 시자글 허는데 새마을 사어블 이제.{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새마을 사업을 이제}

10201 # 허게 댜:는데 그대두 또 역시 대동 회의를 허구 뭐 이장이야 만날 술만 먹꾸 헬렐레허구 머 그냥{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또 역시 대동회의를 하고 뭐, 이장이야 늘 술만 먹고 헬렐레하고 뭐, 그냥}

10201 # 이 돌아댁기니 뭐 이기 소양두 업꾸{이, 돌아다니니 뭐 이것이 소용도 없고}

10201 # 거 또 여이 또 노인네들 서꺼랑 인제 절른 사람 서꺼랑 {그 또, 여기 또 노인네들과 이제 젊은 사람들이}

10201 # 아유 그냥 참 형니미 또 한번 나오셔야쥬. 나서서 한번 추지를 허셔야 됩니다.{아, 그냥, 참 형님이 또 한 번 나오셔야지요. 나서서 한 번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10201 # 인제 나도 뭐 히미 어딘냐? 그건 그냥되능게 아니냐, 물론 노력뚜 해야 되지만. {이제 나도 뭐 힘이 어디 있는냐?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냐(=아니야),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마는}

10201 # 아 동네 싸라미 나와서 노려글 허게 되므는 막꼰리래도 한자루 갑파노쿠 머거야 이리 되능거 아릅니까?{아, 동네 사람이 나와서 노력을 하게 되면 말거리라도 한 자루(= 한 통) 갖다놓고 먹어야 일이 되는 것 아릅니까?} @ 기보는 이씨야{기본은 있어야.}

10201 # 기보니, 기보니 이게 엄는거야. 그서 인제 생각 생각하다 못해 지금 이장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인제 그{기본이, 기본이 이것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생각, 생각하다가 못해 지금의 이장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0201 # 면:장이 아니구 그땐 자유당때 채감을 지고 인씨씨요.{면장이 아니고 그때는 자유당 때 책임감을 지고 있었어요.}

10201 # 그래서 그 양반한테 인제 그 의뢰를 해가지구 내가 이런 아들 가지고 인는데 한 번 올라가서 서우레{그래서 그 양반에게, 이제, 그 의뢰를 해서 내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올라가서 서울에}

10201 # 이 동네에서{이 동네에서}

10201 # 지금 서우레 나가인은 사람드리 그래두 우리보더문 낯:게 산:다.{지금 서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낯:게 산:다.}

10201 # 그러니 그분드를 차자가서 한번 우리 동냥을 허능게 어떠릅니까 그랜떠니{그러니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 번 우리 동냥을 하는 것이 어떻릅니까? 그랬더니}

10201 # 그거... 조:태는 사라미 읍:쫂, 가서 달래능거 누가{그것..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누가}

10201 # 내 일도 아닌데 그거 헐라 그러게릅니까? 그래 그양반을 업구 나성거예요, 내가. {내 일도 아닌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릅니까? 그래, 그 양반을 업고 나선 것이예요. 내가}

10201 # 갑썰다. 내: 마:른 내:가 헐테니깐{갑시다. 내가, 말을 내가 할테니까}

10201 # 뒤에서 그냥 응 서구만 계십씨요, 이래가지구 간판이지.{뒤에서 그냥 서만 계십시오. 이래서, (그 분이) 간판이지.}

10201 # 그래가지구 간, 서 인제 참 내가 인제 아무날 올라가게따.{그래서 갔어. 이제 내가 아무날 올라가겠다.}

10201 # 그 인제 연라글 해 낯:떠니, 서울려게 한 인제 그 중앙시장쫂게 뭐 인제 그러케 먼꾼데로 노나저서 모여일뜨라구요.{그 이제, 연락을 해 놓았더니, 서울역에 한, 이제, 그 중앙시장 쪽에, 뭐, 이제, 그렇게 몇 군데로 나누어서 모여 있더라고요.}

10201 # 게 가서 사실 우리 동네서 이버네 이러케 돼서 새마을 사어베 꼭 일똥을 해야되는데{그래 가서, 사실 우리 동네에서 이 번에 이렇게 되어서 새마을 사업에 꼭 일등을 해야 되는데}

10201 # 이게 뭐.. 물론 대:통령 표창을 타능게 문제가 아니라{이게 뭐, 물론 대통령 표창을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201 # 어찌뵤뜬지 남은 다른 부라게 저서는 안되지 안냐{어찌 되었든지, 남은 다른 부락에 저서는 안 되지 않느냐?}

10201 # 게두 우리 이 이 동네가 그 참 싸:믈 해두 지믈 안 된대는 이런 성겨글 가지구 인는 동네거튼요.{그래도 우리 이, 이 동네가, 그 참, 싸움을 해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네거튼요.}

10201 # 어느 동네허구 싸와도 지지 안는다. 인제 이런 애:기가 나와{어느 동네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야기가 나와}

10201 # 어려서부터 인제 우리가 그러케 또 배웠꾸{어려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웠고}

10201 #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떠니 아 그럼 나두 얼마 내노켄따, 나두 얼마 내노켄따 하구 인제 조금씩 내노터라고요{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나도 얼마 내어놓겠다. 나도 얼마 내어놓겠다 하고 이제 조금씩 내어놓더라고요.}

10201 # 아 어찌 되었든지 그걸 가져 오니까 풍부해,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가면 기냥 그 {아, 어찌 되었든지 그것을 가져 오니까 풍부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가면 그냥 그}

10201 # 하:수도 나가는데 그 동메이를 몇차 또 그 내 군대 동기 저 병하기라고 용주골에 삽니다.{하수도 나가는데, 그 돌을 몇 차, 또 그, 내 군대 동기 저 병학이라고 용주골에 삽니다.}

10201 #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사:정을 했떠니, 그럼 내가 도:를 그때 당시에 사네서 도:를 깨트려서 파라머글 찌긴데{그 친구에게 가서 그 사정을 했더니, 그럼 내가 돌을 그때 당시에 산에서 돌을 깨뜨려 팔아먹을 적인데.}

10201 # 그 지에무씨를 그사라미 직접 가지구 운영을 하거든. 그땐 옛날엔 군대 생화를 할 때{그 GMC(=트럭 종류)를, 그 사람이 직접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 드때는 옛날에는 군대 생활을 할 때}

10201 # 내:가 데리구 땡기믄서 보:그블 수령할 때 지에무씨를 데리고 땡걸꺼든요. 이 만 날 그사람드리 데리고 땡걸는데.{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급을 수령할 때 GMC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 늘 그 사람들이(=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10201 # 그런 서로 관계가 이끼 때때, 과거 얘길 했떠니{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했더니}

10201 # 아 그거 좀 내가 한 열차 정도는 도와주마{아, 그것, 좀, 내가 한 열 차 정도는 도와주마}

10201 # 고맙따. 그래 인제 그 으:더오구.{고맙다. 그래 이제 (돌을) 그 얻어오고}

10201 # 또 기술짜한테 가서 야 돌싼는데 이거 너 {또 기술자에게 가서, 야, 돌 쌓는데 이거 너}

10201 # 며칠만 쫘 싸다오. 그랜떠니 동네 애:드리 또 이러케 저러케 동원니 왜:가지구 허구{며칠만 쫘 쌓 다오. 그랬더니 동네 애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동원이 되어서 하고}

10201 # 그랜는데 이게 생각찌도 아는 물론 우리 동네가 물론 잘했찌마는. 아아 어서와요 {그랬는데, 이것이 생각하지고 앓은, 물론, 우리 동네가 물론, 잘 했지마는. (그때 전화로 오라고 한 호필 아버지가 왔다.) 아, 어서 와요}

10201 # 이거 저 이 뭐야 지금{이거, 저, 이, 뭐야, 지금}

10201 # 내가 여 혼자서 우리 동네 애:길 허기가 참 저거래서{내가 여, 혼자서 우리 동네 얘기를 하기가 참 저거래서(=편하지 않아서)}

10201 # 이분드리 서울대학교에서 오셔쵸요. 이 이런데{이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오셨어요.}

10201 # 이 마으레 대한 애:길 좀{이 마을에 대한 얘기를 좀}

10201 # 드러어쓰문... 조켄다 해서{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201 # \*\*\* 인제 물론 어려서부터 격곤 얘길 해:쵸요, 접때는{\*\*\* 이제, 물론, 어려서부터 겪은 얘기를 했어요, 지난 번에는}

10201 # 에 군대나간 얘기꺼지만 했찌. 그런데 이버네는 인제 고{에, 군대 나간 얘기까지}

만 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고}

10201 # 군대나갔다 와서부터 애:기를 이제 시자커는데 인제{군대 나갔다가 와서부터 애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10201 # 허허허허 그 인제 아무캐도 나 혼자버덤두 이 가치 헐 애:길 허능게 조캐써 근데 {하하하, 그 이제, 아무리해도 나 혼자보다는 이 같이 할 애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그런데}

10201 # 지금 영수를 불러도 영수가 물론 고차든 영수가 나이는 머거써두 영수는 파리로 해방 후로 나와끼 때무네{지금 영수를 불러도, 영수가 물론 고참은, 영수가 나이는 먹었어도 영수는 8·15 해방 후에 (일본에서 이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10201 # 암케두 여기 내용을 잘 모른단 마리아. 그 전 내용을{아무래도 여기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 전 내용을}

10201 # 그래서 당신을 좀 가치 애기를 허자구 불른 거예요{그래서 당신을 좀 같이 애기를 하자고 부른 것이예요.}.

10201 # 또 이러케 먼:데서 오서쓰니 어:떡힘니까?{또 이렇게 먼 데서 오셨으니 어떡합니까?}.

10201 @ 또 취지를 제가 잠깐 또 말쓰물 드려야 되겜습니다.{또 취지를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겜습니다.}

10201 @ 지금 또 전국쪼그로 칠십년대 이후부터 예 각 지, 지방 가며는{지금 또 전국적으로 칠십년대 이후부터 예, 각 지, 지방으로 가면}

10201 @ 연세가 노프신 분들만 계시고 중간층이 거의 다 도시로 진출해 있습니다.{연세가 높으신 분들만 계시고 중간층이 거의 다 도시로 진출해 있습니다.}

10201 @ 그니깐 그러케 예 되어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며는{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어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10201 @ 아프로 십년 뒤쪼 되면요. 전통저그로 내려오는 그 지역기 풍스비나 민소기나 언어{앞으로 십년 뒤쪼 되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의 풍습이나 민속이나 언어}

10201 @ 이런 거시 다 단절될 상황에 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시를 국가에서 알고{이런 것이 다 단절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국가에서 알고}

10201 @ 문광부 산하에 있는 궁넙구거원에서{문광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어원에서}

10201 @ 그 정국쪼긴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인거든요{그 전국적인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10201 @ 각 도에 다선지점쪼 분다믈 해가지고 이 사어블 하고 인쪼니다.{각 도에 다섯 지점쪼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201 @ 그 인제 경기도는 용인쪼쪼하고 화성쪼쪼하고{그 이제, 경기도는 용인 쪼쪼와 화성 쪼쪼과}

10201 @ 저기 포천쪼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쪼쪼 북쪼쪼{저기, 포천 쪼쪼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쪼쪼 북쪼쪼}

10201 @ 그 다메 동쪼쪼 서쪼쪼 이런 시그로 해서 대개 다섯 지저믈 대개 정헐쪼니다.{그 다음에 동쪼쪼, 서쪼쪼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다섯 지점을 대개 정헐쪼니다.}

10201 @ 금년 조사지가 여기 파쪼쪼니다{금년의 조사지가 여기 파쪼쪼입니다.}

10201 @ 파쪼쪼에 대해 무르니까 이 주내면 봉일 봉암리 요쪼쪼글 어떤 부니 추쳐늘 헐쪼쪼요. {파쪼쪼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주내면 봉일 봉암리 이쪼쪼를 어떤 분이 추천을 했어요.}

10201 @ 그래서 이제 어르시늘 매칠 전에 첨 뵈꼬, 오늘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그래서 이제 어르신을 며칠 전에 처음 뵈고, 오늘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10201 # 접때 이장이 우리 지블 보냈다고 해서 학생들 두부니 완썸요.{지난 번에, 이장이 우리 집을 보냈다고 해서 학생들 두분이 왔어요.}

10201 # 그 무슨 애길 혈께 내가 뭐 인냐 그래 아 동네 애기도 조쿠 개인 애기도 조쿠{그 무슨 애기를 할 것이, 내가 뭐 있느냐? 그래 아, 동네 애기도 좋고 개인 애기도 좋고}

10201 # 거 내가 그냥 초등학교 땡길 때서부터 학교 다니는 애기서부터{그 내가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니는 애기서부터}

10201 # 군대 나간따온거 의용군 나간따 와서 군대 또 나간 거 이런걸{군대 나갔다가 온 것, 의용군 나갔다가 와서 군대 또 나간 것. 이런 것을}

10201 # 이딱까진 애기 한썸요. 그래 제대해 나와서 허는데{이때까지는 애기를 했어요. 그 래 제대해 나와서 (부터의 애기를) 하는데}

10201 # 아 조합짱이 기냥 계:속 저:짜를 허는 거예요. 빨리 들 오라구. 그때 그날 우리 동 인회 친목회를 허는 나린데{아, 조합장이 그냥,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고. 그때 그날 우리 동인회 친목회를 하는 날인데}

10201 # 그날 내가 깜빡카고 또 드리가지 아난찌 그러니깐{그 날 내가 깜박하고 또 들어 가지를 앓았지. 그러니까}

10201 # 조합짱이 그러케 저:짜를 하고 야다늘해서 드리갈떠니{조합장이 그렇게 전화를 하 고 야단을 해서 들어갔더니}

10201 # 밥뜨를 다머걸떠라구 그래 여하튼 어찌되든지 그래서 고때까지만 애길 허구{밥들 을 다 먹었더라도. 그래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그래서 그때까지만 애기를 하고}

10201 # 오느른 내가 제대허구 나서부터 애기, 주로 우리 마으래 대한 애:기{오늘은 내가 제대하고 나서부터 애기, 주로 우리 마을에 대한 애기}

10201 # 뭐 이렇걸 이제 뭐 다르게 내가 겨곤 애기바께 허능게 업찌{뭐 이런 것을, 이제 뭐 다른 것이, 내가 겨은 애기밖에 하는 것이 없지.}

10201 # 그 그러면 유래래는건 전통적인 유래래는건 역사채글 갈따노코 보기 저넌 뭐 그 런건{그 그러면, 유래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래라는 것은 역사책을 갖다놓고 보기 전에 는 뭐, 그런 것은}

10201 # 따지기는 어려꼬 내가, 우리가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만 애기허능 거지 내가{따지 기는 어렵고 내가, 우리가,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만 애기하는 것이지. 내가} @ 그런썸 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10201 # 그래서 또 한분 더 가치 허시면 조퀸다고 그래서{그래서 또 한 분이 더 같이 하 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10201 # 또 제일 그래도 그중에서 기영녀기 좀 저거허구 아실만한 부니{또 제일, 그래도 그 중에서 기억력이 좀 저거하고(=좋고) 아실 만한 분이}

10201 # 그래서 당신거태서 가치 하자 애기를 하자 안짜고 그렇거예요{그래서 당신 같아 서 같이 하자고 애기를 하자고 앓자고 그런 것이예요.}

10201 #1 지금 마:를 들꼬 말썸허능걸 들꼬보니까 우선 저거허능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데{지금 말을 듣고, 말썸 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우선 저거하능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런데}

10201 #1 사시른 저보다두 이부는{사실은 저보다도 이 분은}

10201 #1 마라며는 여기에 나도 여기에 오래 거주허구 인찌마는 가치 허구 인찌마는{말하면 여기에 나도 여기에 오래 거주하고 있지마는, 같이 하고 있지마는}

10201 #1 이 모:든 대인관계래든지 또 여기 노인네 회:장을 한 시버년 겹헸꾸{이 모든 대인관계래든지, 또 여기 노인네 회:장을 한 십여년 겹헸고}

10201 #1 지끄른 으:비 되엿씀니다만 이 주내 며:나라구 그럴적에 멀:래에서는 참 송꼬피는 부니고{지금은 읍이 되엿씀니다만, 이 주내 면이라고 그럴 적에 먼 내에서는 참 손꼽히는 분이고}

10201 # 하이고. 10201 #1 누구나 좀 모르능 거는 다 알고 대인 관계를 해서{누구나 좀 모르는 것은 다 알고. 대인 관계를 해서}

10201 #1 우리네다 대르는 참 월똥한 참 저거를 가지고 인는 부니쥬{우리과 비교하면 참, 월똥한 참, 저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쥬요.}

10201 #1 그래서 직끔까지 무슨 말쓰미 일썬는지 몰라도 또 나는{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말쓰미 있었는지 몰라도 또 나는}

10201 #1 허구시픈 얘:기도 이부니 다 여기 싯태를 다 하션썰꺼구{하고싶은 얘:기도 이분이 다 여기 싯내플 다 하션썰 것이고}

10201 #1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내가 뭐 여기 참 뭐:를 아:싯라고 하는진 몰라두{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내가 뭐, 여기, 참, 무엇을 아싯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10201 #1 혈애기가 업네요 뭐 이부니{할 애기가 업네요. 뭐, 이분이}

10201 #1 다 나보다 월똥한 부니니 다 하션썰꺼고{다 나보다 월똥한 분이니 다 하션썰 것이고}

10201 @ 이제 서로 보완하시면서 한쪼기 알면 또 한쪼기 모르는 얘:기도 인썰수{이제 서로 보완하시면서 한 쪼기 알면 또 한 쪼기 모르는 얘:기도 있을 수}

10201 # 이제 내가 얘:기를 허다가 좀 하나 더 얘:기헸쓰른 조켤따 하는 얘:기 인쓰면 거기서 한번 끼어 주시면 돼{이제 내가 얘:기를 하다가 좀 하나 더 얘:기헸쓰면 좋겠따 하는 얘:기 있으면 거기서 한 번 끼어 주시면 돼}

10201 # 게서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다 마란안냐 허믈요?{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앗느냐 하믈요?}

10201 # 새마을 사어피는 얘:기::가 시자기 똥거야 인제.{새마을 사어하는 얘:기가 시작이 된 거야 이제}

10201 # 그 처으멘 저거 헸찌. 우리 두레 꾸며가지구 대회 나가서 내 제대해 나와가지고 처으메 형게 그거니까{그 처음에는 저거 헸찌. 우리 두레 꾸며가지고 대회 나가서, 내, 제대해 나와가지고 처음에 한 것이 그것이니까}

10201 # 그리구 인제 새마을 사어블 하는데 서울 나가서 서구씨하고 나가서 참 도:늘 조금 모금해가지구 와서{그리고 이제 새마을 사어블 하는데 서울 나가서 영민 씨하고 나가서 참, 돈을 조금 모금해가지고 와서}

10201 # 그거가지구 이제 행거 그 얘:기허구{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것. 그 얘:기하고}

10201 # 그 인제, 그 얘:기를 허는 중에 한 분 더 보:충혈 쑈 인는 얘:기가 인쓰른 조켤따고 한 분 더 모션쓰른 조켤따고 그래서{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분 더 보:충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따고, 한 분 더 모션쓰면 좋겠따고 그래서}

10201 # 호피리 아버질 저날 모시라 그랜썰요 그니깐 그러케 아시고{호필이 아버지를 전화를 모시라고 그랜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10201 # 내가 애:기허구 난 다메 무슨 애:기헐게 인쓰믄 또 애:길 좀 허시구 그래요{내가 애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할 것이 있으면 또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요.}

## (2) 새마을 사업과 다리 놓기

10201 # 근데 내가 새마을 사업 애:길 하는데 인제 고고{그런데 내가 새마을 사업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고}

10201 # 이왕 애:길 허등거니깐 고골 허고{이왕 얘기를 하던거니까 그것을 하고}

10201 # 그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헨:는데{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10201 # 기계 우니 조알뜰 어떻게 우리 마으레서 열심히들 해서 그런진 몰라도{그것이 운이 좋았던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열심히들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201 # 참 파주구네서 일똥을 헨썬요{참, 파주군에서 일등을 했어요.}

10201 # 대:통령 표창을 박게 될따구. 그래서{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10201 # 근데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그런데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10201 # 그 기며녹 내:무부장과니 순, 직접 여길 저, 이, 왕니를 하썬썬요.{그 김현옥 내무부장관이 순, 직접 여기를, 저, 이, 왕림을 하썬썬요.}

10201 # 이 마을 회파네서 인제 저기에서 마당에서 그 인제 수여시글 허구{이 마을 회관에서 이제 저기에서, 마당에서 그 이제, 수여식을 하고}

10201 # 그리구 인제 사지를 찍구덜 인제 이러케 이야까를 상으루다 이야까를 열 때 주어.{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들 이제 이렇게 리어카를 상으로, 리어카를 열 대 주어}

10201 # 그때는 이야까만 해두 끝구인는 구루마두 읍쓸 때, 지게, 지게 지다가 이야까 생길 찍기거든요{그때는 리어카만 해도 끌고 있는 구루마도 없을 때, 지게, 지게 지다가 리어카가 생길 적이거든요.}

10201 # 그니깐 이야까 열때도 참 그런데 기며녹 장과니 뭐:라 그러냐믄{그러니까 리어카 열 때도 참, 그런데 김현옥 장관이 무어라 그러느냐면}

10201 # 내 이동네 와 보니깐 참 인상두 조쿠 그냥 동네가 참 열심히들 허시능 거 보니깐 {내가 이 동네를 와 보니까 참 인상도 좋고 그냥 동네가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10201 # 이 사:라미 증말 아주 이러케 자기 누네 이러케 딱 드러온다 이거야{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온다 이거야}

10201 # 그래 기분조타고 열때를 더드리웁썬니다 그자리에서 그러더라구.{그래 기분이 좋다고 열 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10201 # 게 그자리에서 스무대를 써서 주어써 이{그래 그 자리에서 스무대를 써서 주었어. 이}

10201 # 우리가 바탄썬요.{우리가 받았어요.}

10201 # 그리구 나서 가마:니 생가글 허니깐{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10201 # 뭐 아까두 애기, 이 인제 말쓰를 디런는데{뭐, 아까도 애기, 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201 # 그저 뭐 읍:는 사람이니겐 낸 난 아무겔뚜 읍:는 사람이니깐{그저 뭐, 없는 사람

이니까. 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10201 # 그냥 이:불 가지고 사라야 되니깐{그냥 입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10201 # 게 내 장:관님한테 꼭 한 말씀만 디릴게 인는데,{그래 내 장관님에게 꼭 한 말씀만 드릴 것이 있는데}

10201 # 그 말쓰를 좀 존사라미 디려도 괜찬씀니까 그랜뜨니 그 무슨 말쓰민지 나와서 한 말씀 하시오 그래{그 말쓰를 좀, 존사람이 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슨 말쓰인지 나와서 한 말씀 하시오. 그래}

10201 # 게 내, 이에 우리 마으레 아주 천:추에 소위니 하나 인씀니다{그래 내, 이에, 우리 마을에 아주 천추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10201 # 게 천:추에 소위니래능게 뭘니까? 그래{그래 천추의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10201 # 그러헿게 하나 인씀니다 그랜떠니 말쓰해 보시오.{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쓰해 보시오}

10201 # 게 우리 지끔 이 조:상 대:대부터{그래 우리 지금 이 조상 대대부터}

10201 # 이 아페 우리 동네 아페 개우리 인는데{ 이 앞에 우리 동네 앞에 개울이 있는데}

10201 # 그게 참 제:방이 읍:꾸 그 이냥 저쪽 월렁 큰 개울허구 비만 왁따하믄 이 벌판이 이냥 바다가 되능 거예요{그것이 참 제방이 없고 그 이냥 저쪽 월렁 큰 개울과 비만 왔다하면 이 벌판이 이냥 바다가 되는 겁니다.}

10201 # 그 우리 어렸을때부터 그걸 겨끄문서 애길 형건데. 그러자 내가 인제 그걸뚜 생가글 현, 햐쩌만{그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겪으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한, 했지만}

10201 # 게 인제 다리를 하나 꼭 날:쓰른 조젠는데 꼭 외나무 다리를 노쿠{그래 이제 다리를 하나 꼭 놓았으면 좋겠는데, 꼭 외나무 다리를 놓고}

10201 # 이제 겨우레만 땡기는거지 여르멘 다리를 놀: 쑈 업쓰니깐, 비만 오믄 떠내려 가니깐{이제 겨울에만 다니는 것이지 여름에는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비만 오면 떠 내려가니까}

10201 # 게 인제 파월 추성나리믄 그걸 그 이튼날이믄 모여서덜 대:동이 모여서 외나무 다리를 노쿠덜 그냥{그래 이제 팔월 추석날이면 그것을 그 이튼날이면 모여서들 대동이 모여서 외나무 다리를 놓고들 그냥}

10201 # 이 하루 나와서 햐쩌든요. 그 내가 그런 얘:기를 쑈 햐쩌요. 이견 천:추에 한임니다{이 하루 나와서 햐쩌던요. 그 내가 그런 얘기를 쑈 햐쩌요.}

10201 # 에 수귀니구 이거 하나만 장:관니미 여:까지 오션쓰니 하나만 드러 주션쓰른 참에.{에, 숙원이고 이거 하나만 장관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하나만 들어주셨으면 참, 에}

10201 # 증말이지 이동네 소위니 푸러지겐씀니다 그랜뜨니{정말이지, 이 동네 소원이 풀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10201 # 뭇:지 한번 가서, 가뵈씨다{무엇인지 한 번 가서, 가뵈시다.}

10201 # 얼마나 큼겼니까 그래{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

10201 # 뭇 크긴 크지만{뭇, 크기는 크지마는}

10201 # 동:네루 받:쓸땡 큼거지만{동네로 보았을 때는 큰 것이지마는}



10201 # 장:관니미 보실텐 쿵게 아닐껀니다{장관님이 보실 때는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10201 # 그 인제 가서 보더니

10201 # 거길 나간썬요 쪽..인제 그니깐 쪽 군:수 내무 저, 뭐 그 이 국장드리 쪽 따라오고  
그랜는데{거기를 나갔어요. 쪽, 이제 그러니까 쪽, 군수, 내무, 저, 뭐, 그, 이, 국장들이  
쪽 따라오고 그랬는데}

10201 # 그 신문기자드리 따라오고 그랜썬요. 그런데 경향 신문네, 저저 신문협회에서는  
{그 신문기자들이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향 신문에, 저저, 신문협회에서는}

10201 # 이 송아지를 한마리 또 주어썬요. 네 그날{이, 송아지를 한 마리 또 주었어요.}

10201 # 그래서 인젠 그리군 나가서 보드니{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나가서 보더니}

10201 # 아 이 저 별파니 이게 다 이동네껀니까{아, 이, 저 별판이, 이것이 다 이동네 것입  
니까?}

10201 # 게 우리 동네 보시다시피 뒤:는 사님니다{그래, 우리 동네 보시다시피, 뒤는 산입  
니다.}

10201 # 농사는 우리 별파네 나가서 집니다{농사는, 우리 별판에 나가서 짓습니다.}

10201 # 근데 이게 뭐 다리가 읍썬서 땡기질 모탐니다{그런데 이게, 뭐, 다리가 없어서 다  
니지를 못합니다.}

10201 # 참 고통이 마:는데{참, 고통이 많은데}

10201 # 장:관님 히드로 이게 되신다든 하나만 해주시든 우리 천:추에 하늘 풀겐썬니다.  
그랜떠니{장관님 힘으로 이것이 되신다면, 하나만 해주시면 우리 천추의 한을 풀겠습니  
다. 그랬더니}

10201 # 자, 군수! 이걸 한번 재:봐{자, 군수! 이것 한 번 재어봐!}

10201 # 아라썬니다. 그러믄서 인제{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201 # 게 우린 기냥 박수더를 치구 기냥 날:리를 겨꾸 기냥 완썬요{그래서 우리는 그냥  
박수들을 치고 그냥 난리를 꺾고 그냥 왔어요.}

10201 # 그랜뜨니 이게 얼마 후에 결쟁이 날따구{그랬더니, 이것이, 얼마 후에 결정이 났  
다고}

10201 # (이때 전화벨이 울렸음) 예, 여보세요.

10201 # (전화를 받고 하는 말) 그래서 인제 만날 이 무슨 인:삼뿌래기 허허{그래서 이제  
늘, 이, 무슨 인삼뿌리 허허}

10201 #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그걸 이제 그러케 해:서 결쟁을 지었떠니 군수가{그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결쟁을 지었더니 군수가}

10201 # 통보를 켜썬요{통보를 했어요.}

10201 # 그게 해드리기루 결쟁이 날썬니다. 장:관니미 해주라구 해서 허기루 켜썬니다 그  
래{그것이, 해드리기(=다리를 놓아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님이 해주라고 해서 하  
기로 했습니다 그래.}

10201 # 게서 이제 그 다리가 놔:징거예요. 게서 처음 참 역싸 이래 처으므로 다리가 하나  
개울파리가{그래서 이제 그 다리가 놓아진 것입넌. 그래서 처음 참, 역사 이래 처음으로  
다리가 하나 개울다리가}

10201 # 게 다리 하나 녹:쿠{그래 다리를 하나 놓고}

### (3) 파주역 유치 작업

- 10201 # 게 이제 그 후에도 우리가 이 또 내가 참 여러가지 고충을 고통두 당허구{그래 이제 그 후에도 우리가 이, 또, 내가 참 여러 가지 고충을, 고통도 당하고}
- 10201 # 으:정부 검찰청엘 끌려가고 온통 날리여쁜 일도 또 하나 인습니다{의정부 검찰청으로 끌려가고 온통 난리를 겪은 일도 또 하나 있습니다.}
- 10201 # 그거는 지금 여기 파주 여기 이제 직끔 여기 인는데{그것은 지금 역이, 파주역이, 이제, 지금 역이 있는데}
- 10201 # 이 여글 추지늘 허는데 그때 추진위원장이{이 역을 추진을 하는데, 그때 추진위원장이}
- 10201 # 이 아까두 얘길했던 그 박 모씨라고 그 지금 이장 아버지예요{이, 아까도 얘기를 했던 그, 박 모씨라고 그, 지금의 이장 아버지예요.}
- 10201 # 그사라미 인제 그때 읍사무소에 유치 읍: 다뉘로 왔었는데 자유당 때 으원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읍사무소의 유치, 읍 단위로 왔었는데, 자유당 때의 의원이니까}
- 10201 # 그 자유당 후:에도 오일록 후:에도 그 참 당 광계로 해서 여러가지 저거를 가지고 인썰썰요 그래서{그 자유당 후에도 5·16 후에도, 그, 참, 당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저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 10201 # 그 때 인제 위원장을 허구 내가 총무를 받:는데{그때 이제 위원장을 하고 내가 총무(일)을 보았는데}
- 10201 # 그 추진위위를 허문서 그 허다가 그 해 어떻게 가물었는지요{그 추진위원을 하면서, 그 하다가, 그 해가 어떻게 가물었는지요}
- 10201 # 그래 인제 그제 월령싸람허구 우리허구 게:속 싸:미 부통게{그래 이제 그것이, 월령 사람하고 계속 싸움이 붙은 것이}
- 10201 # 월령싸라든 월령에다 해달라 이거구{월령 사람은 (역을) 월령에다가 해달라는 것이고}
- 10201 # 우리 파주는 우리 파주 요기다 해달라 그래 직끔자리 거기{우리 파주는 우리 파주 여기에다 해달라. 그래서 지금의 자리 거기}
- 10201 # 게 싸:미 부턴는데 세상 이게 이 구케의원도 정 모쨌데 그때{그래 싸움이 붙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이, 국회의원도 정 모쨌데, 그때}
- 10201 # 해겨를 몬터는 거예요 그리드니 나중예 결정을 어떻게 내냐하든{해결을 못하는 것이예요. 그러더니 나중예 결정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 10201 # 아 이 무지공청 저 기니깐 월령서{아. 이 무주공산, 저, 그러니까 월령에서}
- 10201 # 이 키론가? 또 파주에서 지정한데서 이키로 그니깐 중간에다가 딱{2km인가? 또 파주에서 지정한 데서 2km.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딱} @ 중간에
- 10201 # 무주공청 논뼤민에 갑따가 여기다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인가하라고 차가서게 될때요. {무주공산 논에다가, 여기다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인갈르 하라고. 차가 서게 되었어요.}
- 10201 # 기러니깐 월령 싸라미 하나 자사를 켜췌요{그러니까 월령 사람이 하나 자살을 했어요.}
- 10201 # 이 월령 다리에다 여기 허리를 자바매구{이 월령 다리에다 여기 허리를 잡아매구}

10201 # 기차가 오는데 기냥 내루 거기 안자서 그대로 갈려버릴쪼{기차가 오는데 그냥 레 일에 앉자서 그대로 갈려버렸지요.}

10201 # 게 하나 절른 사라미 하나가 자사를, 그 추진허던 사라미야?{그래 하나, 젊은 사람이 하나가 자살을, 그 추진하던 사람이야.}

10201 # 그쪼게두 그놈두 절른 놈 나두 절른 노민데 {그 쪽에도, 그 놈도 젊은 놈, 나도 젊은 놈인데}

10201 # 이쪼겐 뭐 그런니른 읍썸찌마는 나는 인제 그 반며네 {이 쪽에는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마는. 나는 이제 그 반면에}

10201 # 뭐:가 인썸나허든 그, 그거를 혈러면 아까도 말씀드려습니다마는 직끔이나 그때나 도:니 피료형 거 아릅니까?{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 그것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필요한 것 아릅니까?}

10201 # 그니 그걸 거기다 여글 하는데 월렁 싸라미 쳐다도 안보지요. 월렁싸라미 쳐다도 안보지 안썸니까? 거기 주내땅이야 더군다나 우리 주내땅이야.{그러니 그것을 거기에다 역을 하는데(=만드는데) 월롱 사람이 쳐다도 안 보지요. 월롱 사람이 쳐다고 안 보지 않 습니까?}

10201 # 그런데다가 그 무:지공청에다 간파노:니 월렁서 여기와서 탈리가 읍:꺼던{그런데 다가 그 무주공산에다 (역을) 갖다놓으니 월롱서 여기 와서 탈 리가 없거든}

10201 # 그래도 우린 여그서 나가서 탈 쭈 인찌마는 응 우린{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나가 서 탈 수 있지마는. 응, 우리는}

10201 # 요기 저 저 이 중간썸 가서 인찌만요{요기, 저, 저, 이 중간 썸 가서 (탈수가) 있 지만요.}

10201 # 개서 우린 여기다 이 차가 설리며는 호옴이라고 해서 차 타는텔 쯔 길습잔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이, 차가 서러면 홈이라고 하여 차 타는 데가 쯔 길지 않아요?}

10201 # 이걸 이야까로 호글 파다가 심재기를 도다서{이것을 리어카로 흙을 파다가 가운 데를 둔우어서}

10201 # 기 철로길 여페다 부쳐서 걸 맨드린썸요{그래 철로길 옆에다 붙여서 그것(=홈)을 만들었어요.}

10201 # 그리구 그 차를 거기 서게끔 맨들고 인제 개서 우린 탄는데{그리고 그 차를 거기 서 서도록 만들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탔는데}

10201 # 그래 그걸 맨드는데 참 그게 뭐 구괴의위니나 그때 야당 구괴의위니 정 모씨라고 그분이 했는데{그래 그것을 만드는데 참, 그것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때 야당 국회의원 이 정 모씨라고 그분이 했는데}

10201 # 아 무슨 히미 인난 마리에요. 야당 구괴의위니 돈한푼 줄{아, 무슨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야당 국회의원이 돈 한 푼 줄}

10201 # 그때 돈 그저 돈: 마뉘이나 간파주고 뭐 큰 재사니나 떠:다주는 거처럼 이러커고 간파주고{그때 돈, 그저 돈 만원이나 갖다주고 뭐, 큰 재산이나 떠다주는 것처럼, 이러면서 갖다주고}

10201 # 거 막결리 그정 두다로 뭐 이런시그로:: 주구가구 인제 이랬썸요{그 막결리 그저 두 통, 뭐 이런 식으로 구고가고 이제, 이랬어요.}

10201 # 그 그래도 그냥 그걸 무슨 큰:: 저거나 되는 줄 알고 너얼파 뻔파 하든서 이러케

주구 그랜는데{그 그래도 그냥, 그것을 무슨 큰 무엇이나 되는 줄 알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10201 # 참 생가커든 지금 그냥 딱한 애:기죠{참, 생각하면 지금 그냥 딱한 애:기지요.}

10201 # 그런데 인제 그 해에 가물어서 내가 농사를 진:는데 또 역시 절은 사라미라 그{그런데 이제 그 해에 가물어서 내가 농사는 짓는데 또 역시 젊은 사람이라 그}

10201 # 가물 한:해 대:채글 허는데 또 압짱 서야 되지 안습니까? 나도 농사를 지:야 되니까{가물 한해 대:채글 하는데 또 앞장 서야 되지 안습니까? 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10201 # 그래 개울빠다글 저 철로길 밋에서부터 저 신작로길 밋에서부터 철로길을 파제켜서{그래 개울바닥을 저 철로길 밋에서부터 저 신작로길 밋에서부터 철로길을 파제켜서}

10201 # 도:자를 좀 어:더다가 파제컬썩요. 그러든 무리 좀 나오거든요 밋에서{도자(=불도자)를 좀 얻어다가 파제컬썩어. 그러면 물이 좀 나오거든요. 밋에서}

10201 # 그래 그 무를 또 밋송기로 또 퍼서 올려서 이제 농사 진:는데{그래 그 물을 또 밋송기로 또 퍼서 올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10201 # 그러케 파다 보니까 철로길인데 와서 파는데{그렇게 파다 보니까 철로길이 있는데 와서 파는데}

10201 # 유기오때 그, 지금 낭, 예, 철로길 저, 이, 카:드조. 카:드{6:25 때 그, 지금 낭, 예, 철로길, 저, 이, 카드(?)지요, 카드}

10201 # 그 쇠루다가 맨든 카:드를 이러케{그 쇠로 만든 카드를 이렇게}

10201 # 낭간 우이에다 카:드를 올려 놔:가지고 거기 우이다 네:루를 노치 안썩니까?{낭간 위에다 카드를 올려놓아가지고 거기 위에다 레일을 놓치 안썩니까?}

10201 # 근데 그제 인제 부러져가지구 유기오때 그제 탈각 부러져가지구 땅썩게 무천따 떠러져가지고{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6:25 때 그것이 탈각 부러져가지고 땅속에 묻혔다. 떨어져가지고}

10201 # 근데 그제 나와썩요 그리니까 이게{그런데 그것이 나왔어. 그리니까 이게}

10201 # 자 이게 그러니 썩평어런데 이게 썩평기냐 게 인제 그 문산가서{자, 이게 그러니 썩평어가 이룬데 이것이 썩 평기냐? 그래 이제 그 문산으로 가서}

10201 # 고:물썩을 불러다가 이렇게 인는, 썩평어리가 인는데 좀 사갈래냐? 그랜떠니 아 이 뭐 열썩구나썩요.{고물상을 불러다가 이런 것이 인는, 썩평어리가 인는데, 좀 사 가겠느냐? 그랬더니 아, 이, 뭐 열썩구나썩지요.}

10201 # 그 뭐 아주 고까루다가 해서 인제 처서 가져가기로 썩는데{그, 뭐, 아주 고가로드가 해서 이제, (값을) 처서 가져가기로 썩는데}

10201 # 아이 그 다 찰라서 전부 실어 간는데{아이, 그, 다 찰라서 전부 실어 갔는데}

10201 # 아 이게 이 철또구게서 나:를 거러서 고:소를 해버렘썩요.{아. 이게, 이, 철도국에서 나를 걸어서 고소를 해버렘썩어.}

10201 # 그러니 이게 내가 아무 참 이 뭐 썩짜꺅썩 당썩거썩요.{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 참, 이, 뭐, 썩짜꺅이 당한 것이썩지요.}

10201 # 게 그 도:늘 가지고 우린 그거를 썩는데{그래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썩는데}

10201 # 썩는데 그도늘 쓰기 위해서 그르케 썩꼬 그도늘 썩는데{썩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썩고 그 돈을 썩는데}

10201 # 예 이거 왜지? 이 꺅찰청에 불려간썩요{예, 이것이 왜지? 이 꺅찰청에 불려갔썩요.}

10201 # 그때 면:장이 우리 친구예요. 가치 아까도 예전 그{그때 면장이 우리 친구예요. 같이 아까도 예전 그}

10201 # 이동네 가치 사란, 우리 가치 자란 칭군테{이 동네에서 같이 살안, 우리 같이 자란 칭군테}

10201 # 지그른 저 일짖가서 삼니다마는{지금은 저, 일산에 가서 삼니다마는}

10201 # 그칭구가 오일룩면장이야{그 친구가 5·16 면장이야.}

10201 # 오일룩때 인제 대위 출썬이라 해:서 인제 면장이 땡거거든요?{5·16 때, 이제, 대위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면장이 된 것이거든요?}

10201 # 그리니깐 면:장도 그르케 되고 우리 이 모씨라고 그양바니 우리 주내서 자유당 정치에 이르게 좀 소늘 대고 허니깐{그러니까 면장도 그렇게 되고 우리 이 모씨라고 그 양반이 우리 주내에서 자유당 정치에 이렇게 좀 손을 대고 하니까}

10201 # 우리동네가 히미 쫌 인썬썬요 사실{우리 동네가 힘이 좀 있었어요. 사실}

10201 # 그래서 인제 내가 또 그걸 억꾸 또 이리왈 저리왈 땡거고{그래서 이제, 내가 또 그것을 업고 또 이리저리 땡 것이고}

10201 # 그래도 거기 검찰청엘 간는데{그래도 거기 검찰청에를 갔는데}

10201 # 그게 또 처음에 가서는 뭐 별거 아닝걸루. 궁겐{그것이 또 처음에 가서는 뭐, 별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10201 # 읍:짱한테다 채김질 수는 업능거 아닙니까? 공, 공, 공직잔데{읍장에게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읍장은) 공, 공, 공직잔데.}

10201 # 그니깐 공직짜 그르치 서:구 위:원장인데 그러쿠 게:도 절믄 내가 뒤지버 썬야 되능구나.{그러니까 공직자 그렇지, 서구 위원장인데 그렇고, 그래도 젊은 내가 뒤집어 썬야 되는구나.}

10201 # 내가 혼자 다: 현거다.{내가 혼자 다 한 것이다.}

10201 # 내가 형거니깐 이 사람드른 아:무 광게 읍는 거니깐 이사람드른 다 푸러줘라.{내가 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풀어주어라.}

10201 # 내 혼자 드러가두 유치장을 드러가두 내 혼자 드러갈테니까 걱정마라.{내 혼자 들어가도 유치장을 들어가도 내 혼자 들어갈 테니까 걱정마라.}

10201 # 그때만해두 나이 절믄쓰니까 뭐 그까질꺼 겁날께 읍짜나요?{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뭐, 그까짓 것 겁날 것이 없잖아요?}

10201 # 그랜뜨니 인제 그{그랬더니 인제}

10201 # 아 이게 뭐 어떡게들 왓따감따하고 그러더니 결구근{ 아. 이게 뭐, 어떻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10201 # 끌:려댕기다보니까는 그때 또내 오:뱅마뉘니예요.{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때 돈 오백만원이에요.}

10201 # 벌그명으로 떠러져썬요.{벌금형으로 떨어졌어요.}

10201 @그때돈 오뱅마뉘니면 큰도니지요.{그때 돈 오백만원이면 큰 돈이지요} / # 참 큰도니쥬{참 큰 돈이지요.}

10201 # 이에 나는 도저이 널 능녀기 읍는 사라미구{이에, 나는 도저히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10201 # 그래서 인제 그걸 \*\*\* 정치저그로 인젠 \*\*\*텐데 인제 달라부턴는데{그래서 이제, 그것을 \*\*\* 정치적으로 이제, \*\*\*때인데 이제 달라붙었는데.}

10201 # 오 모씨한테 인제 그걸 애:길했는데 이게 이러케 된는데 한사라미 희생되게 될따  
 {오 모씨에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었다.}

10201 # 난 게:서 나 그때두 나두 좀 정치를 한다고 뛰어댕겔쓸 찌기거든요{나는 그래서, 나 그때도 나도 좀 정치를 한다고 뛰어다녔을 적이거든요.}

10201 # 차자가서 난 뭐 어차피 이러케 돼:서 정치두 모터구 유치장에 갈파니니깐 그러케  
 {찾아가서, 난, 뭐,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정치도 못하고 유치장으로 갈 판이니까. 그렇게}

10201 # 에 아쉬워 인제 이랬더니{에, 아쉬워 인제 이랬더니}

10201 # 아 그 진:작 왜 애:길 아내. 진:작이라야 뭐 은:제부터 애:길해두 눈두 껌쩍 안하  
 구 인따가 인제와서 그런 소리가 어딘냐?{아, 그 진작 왜 애길 안 해. 진작이라야 뭐, 언  
 제부터 얘기를 해도 눈도 껌쩍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10201 # 까진꺼 내 하나 희생되구 가서 맨달 맨년 살구 오믄 고마니지. 내가 뭐 별게 인  
 냐? 인제 이러구 나왈따{까짓것, 내 하나 희생되고 가서 몇달 몇년 살고 오면 그만이지.  
 내가 뭐, 별게 있냐? 이제 이라고 나왔다.}

10201 # 그랜떠니 명하믈 가지고 거기 총장이{그랬더니 명함을 가지고 거기 총장이}

10201 # 잘 아는 사라미니깐 가보시오.{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 보시오.}

10201 # 명하믈 줘:서 이제 간, 차자가씨요.{명함을 주어서 이제 갔, 찾아갔어요.}

10201 # 간뜨니 그사라미 바로 파주싸람이야{갔더니 그 사람이 바로 파주 사람이야}

10201 # 이 지청장이 서 모씨라고 이름도 안니저버리지{이 지청장이 서 모씨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리지.}

10201 # 서 모 총장인데 올라가서 그런 애길 했더니 그냥 무르블 탁치면선 이 사라마{서 모 총장인데,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사람아.}

10201 # 진작 완씨야지 이거 형이 떠러져서 벌그미 나완는데{진작 왔어야지. 이거 형이 떨어져서 벌금이 나왔는데}

10201 # 인제 차자오믄 날보로 어떠커래는 거야 이걸{이제 찾아오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이걸}

10201 # 게 이게 그러케 이러케 돼:서 이러케 될습니다. 이 참 진:작 이러케 돼쓰믄 차자  
 뵈씨야 되능건데 그랜습니다 그랜떠니{그래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  
 니다. 이, 참, 진작 이렇게 되었으면 찾아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했습니다.}

10201 # 하아아, 그러더니 가마이씨봐 그림{하아아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림}

10201 #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아래로 내려가더니{따라 오시오. 그러더니 아래로 내려가더  
 니}

10201 # 그 어디 그 긴깐 아마 이 담당인지 거기까지{그, 어디, 그, 그러니까 아마 이, 담  
 당인지 거기서}

10201 # 어 이거봐 이 우리 고향청군데 이 하나 봐줘야게씨{어, 이거 봐! 이, 우리 고향 친  
 구인데, 이 하나 봐주어야겠어.}

10201 # 그니깐 이러나서 어찌구저찌구 허드라구. 이게 저 별게 아닌데 이 저 이사라미 농  
 사나 진:꾸 도:니 아무겔또 얹는 사라미야. 그러니까 이 벌금 몬내{그러니까 일어나서 어  
 찌고저찌고 하더라도. 이게 저, 별것이 아닌데, 이, 저, 이 사람이 농사나 짓고 돈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벌금 못내}

10201 # 그러니깐 이 사라마 돈 생기는대루 그냥 생긴 기냥{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생기는대로 그냥 생긴, 그냥}

10201 # 쪼끔씩 기냥 간따 내:는 걸로 이르게 해놔{조금씩 그냥 갖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아}

10201 # 그래 아라따고 그르구서는 왁:떠니 뭐 이게 독촉장이 게:속 나오는데 뭐{그래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뭐, 이게 독촉장이 계속 나오는데, 뭐}

10201 # 독촉장은 게:속 나와요 그게. 거 할수업씨 이냥 이리케 저리케 그르니{독촉장은 계속 나와요, 그게. 그 할 수 없이 이냥,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

10201 # 면:장은 그냥 빠져버리지 위원장이라구 빠져버리지 이냥 결국근 당허능게 나혼자 당허능게 아닙니까?{면장은 그냥 빠져버리지, 위원장이라고 빠져버리지. 이냥 결국은 당하는 것이, 나 혼자 당하는 것 아닙니까?}

10201 # 참 어느때 그냥 술한잔 먹꾸 그냥 그대로 드리바다 버리고 시픈 생각도 드어가는 데{참, 어느 때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10201 # 그거뚜 또 그러치두 앙코 그냥{그것도 또 그렇지도 않고, 그냥}

10201 # 그냥 꺽꺽참꼬 어뜨케 견뎌는데 그래두 설마 죽쩐 안켤찌 허구 인제{그냥 꺽꺽 참고, 어떻게 견뎌는데. 그래도 설마 죽지는 않겠지 하고 이제}

10201 # 게 그게 그래두 그러케 해:서 해겨리 결국근 내가 다 낸:씨요 오백만원늘{그래 그것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결국은 내가 다 내었어. 오백만원을} 10201 @ 아 그러쥔쥔요{아, 그러쥔쥔요?}

10201 # 땀버네 나와서 내긴 낸:는데 다 내:구 그래 그게 인제 파주여기래능게 해:겨리 뵙거구.{ 몇 번에 나누어서 내기는 내었는데. 다 내고. 그래 그것이 이제 파주역이라는 것이 해결이 된 것이고}

10201 # 게서 인제 파주여기 생길찌게 가장 그 그 참 이{그래서 이제, 파주역이 생길 적에 가장 그, 예, 참, 예}

10201 # 내 일썬이 거기 바쳐징거나 마창가지다{내 일썬이 거기에 바쳐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10201 # 이런 얘:기두 허구 그래가지구 그 후에도 이 파주역을 또{이런 얘기도 학.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이 파주역을 또}

10201 # 봉암여그로 허든지 주내여그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봉암역으로 하든지 주내역으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10201 # 파주여기라면 금:천역도 인는데 문산역도 인꼬 그런데 이 신설력이 어떻게 파주여기돼. 대:표가 되지 안냐?{파주역이라면, 금천역도 있는데, 문산역도 있고. 그런데 이 신설역이 어떻게 파주역이 돼. 대표가 되지 않느냐?}

10201 # 그리니깐 파주역을 바꿔라 바꿔다오 이런 얘:기거든요?{그러니까 파주역을, 바꿔라, 바꿔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10201 # 게 난 내 모가지가 달라나도 모타젠따{그래, 나는 내 모가지가 달아나도 못하겠다.}

10201 # 읍:싸무소에서 그냥 그, 이 토로니 버러지고 각 이장드를 막 그냥 불르고 해서 거기서 그냥{읍사무소에서 그냥, 그, 이 토론이 벌어지고 각 이장들을 막 그냥 부르고해서 거기서 그냥}

10201 # 쌈이 버러져씨요. 게 내가 거기서 그냥 막떠드런쥔{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 내가

거기서 그냥 막 떠들었지요.}

10201 # 내 모가지를 아주 내:논트래두 난 모턴다 그건{내 목을 아주 내어놓더라도 나는 못한다. 그것은}

10201 # 그 왜 모터냐 그게 무슨 상관인썸니까 봉암니인데 봉암녀기라고 허든 어떠썸니까 {그 왜 못하냐?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봉암린데, 봉암역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201 # 여보슈 그게 마:리 됩니까?{여보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10201 # 애당초 파주여그로 해 맨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주여그로 헨건데{애당초 파주역으로 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주역으로 한 것인데}

10201 # 으뜨케 그걸 바꿈니까 건 안됩니다{어떻게 그것을 바꿈니까? 그건 안됩니다.}

10201 # 게 결구근 정:: 뭐 그러케꺼지 강하게 나가신다든 어쩔 쑤가 엄능거지 뭐{그래 결국은 정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가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10201 # 어쩔수 엄는겁니다 그 이제 도로 파주여그로 해서 댜데{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제, 도로 파주역으로 해서 되었는데}

10201 # 아 그 후에 또 구괴의워니 뻔뻔 바뀌구 뭐 정치저그루 또 이러케 저러케 허드니 {아, 그 후에 또 국회의원이 몇 번 바뀌고 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10201 # 아 월렁은 월렁여그루 파주는 파주여그루{아, 월렁은 월렁역으로, 파주는 파주역으로}

10201 # 분류 허 시켜서 거길{분류 허, 시켜서 거기를}

10201 # 이 중가네 인능 걸 읍:쌔구 따루따루 그 느이드리 원하는 데다 해주겐따{이 중간에 있는 것을 없애고 따로따로 그, 너희들이 원하는 데에다 해주겠다.}

10201 # 이르케 돼썸요{이렇게 되었어요.}

10201 # 그래서 지금 여기 파주{그래서 지금 여기 파주} @ 월렁을 보니까 저쪽 # 네 월렁여기 생깁거구{예, 월렁역이 생긴 것이고}

10201 # 그래서 이제 우리 파주여기 그대로 웅겁니다 여기{그래서 이제 우리 파주역이 그 대로 온 것입니다 여기}

10201 # 제자리루 이 우리가 먼저 처으메 원:허던 자리가 그자리거든요{제자리로 이, 우리가 먼저 처음에 원하던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10201 # 처음엔 육:교가 이썸서 안되느니 되느니 으짜구 그 알루 내려가야 되느니. 여보시오 우린 그게 아니다{처음에 육교가 있어서 안 되느니 되느니 어찌고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되느니. 여보시오. 우리는 그게 아니다}

10201 # 이 주내서 나오고 버뵤니서 나오는 차드리{이 주내에서 나오고 법원리에서 나오는 차들이}

10201 # 요 나와서 오가서 서서 거기서 내려서 타게끔 맨드려야지{요 나와서 오가(五街)에 서 서서 거시거 내려서 타도록 만들어야지.}

10201 # 여기서 마냐게 한 일키로 정도 내려간다{여기서 만약에 한 일 킬로 정도 내려간다}

10201 # 일키로든 거기 빠스가 가질 모터지 안냐{일 킬로면 거기 버스가 가지를 못하지 않냐?}

10201 # 문산에서 문산서 타고 그럼 여긴 피료가 엽따{문산에서는 문산서 타고,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다.}

10201 # \*\*\*\*\* 씹싸우드태서 이러케 뵤는데{\*\*\*\*\*쌔웁 싸우듯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10201 # 그거 하나 인제 참 기적째그로 맨들어 놓:거죠{그거 하나 이제 참, 기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 (4) 두원공대 부지 매입 협조

10201 # 그러구 인제 그 후에 참 그 헌닐도 만치만{그리고 이제, 그 후에 참, 그, 한 일도 많지만}

10201 # 세:상 사라나가능게 이냥거디 그 뭐{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 뭐}

10201 # 그러케 쉬:운 애:긴 아니자나요 그래{그렇게 쉬운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10201 # 참 내:가 평생 사라나가믄서{참, 내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10201 # 그 참 여태까지 참 아까 이청구가 애:기허드시{그, 참, 여태까지 참, 아까 이 친구가 애기하듯이}

10201 # 양끼는데 업씨 다 가서 끼언쥬요. 그러케되다보믄 그 인제{안 끼는 데 없이 다 가서 끼었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이제}

10201 # 어떡케 돼:서 그런진 몰라두 뭐 수를 먹꾸 지랄을 허구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어떻게 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술을 먹고 지랄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0201 # 그래도 어디든지 버썸 끼어주고 기냥 이러케 해주고 그러니깐 자연히 끼게 되구 {그래도 어디든지 버썸 끼어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연히 끼게 되고}

10201 # 거 모 참 누구 말마따나 내가 흔히 지끄믄{그 뭐, 참, 누구 말처럼 내가 흔히 지금은}

10201 # 나이를 머그니깐 이제 어디서 불러주는데두 업꾸 차자 오래는 데두 업찌안썸니까 {나이를 먹으니깐 이제 어디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찾아 오라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10201 # 게서 내가 인젠 떠러징거나마 그나마 떠러진 회장짜리두 누가 오랜 마리 업따 허랜 말두 업꾸{그래서 내가 이제는 떨어진 것이나마 그나마 떨어진 회장자리도 누가 오래는 말이 없다. 하라는 말도 없고}

10201 # 인젠 쳐다두 안보는구나 이런 소릴 내가 허지마는{이제는 쳐다고 안 보는구나. 이런 소리를 내가 하지마는}

10201 # 사시리 지금 그러커든요{사실이 지금 그렇거든요}

10201 # 지끄믄 그래 지끔 내가 어디가서도 그런 소리를 험니다마는{지금은, 그래 지금 내가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마는}

10201 # 지금 내 이 표창장 이게 이 저 두원공대가 여기 드리오잔썸니까{지금 내 이 표창장, 이게, 이, 저, 두원공대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10201 # 그거 두원공대 드리오는데 또 그 저걸 험따고 저러케 감사패를 하나 줘서{그것 두원공대가 들어오는데 또 그 저걸 했다고 저렇게 감사패를 하나 주어서}

10201 # 그 인제 그 사늘 아까두 얘기험쥬만 면장네 그 면장하던 친구네 사닌데 그게 주루가 마나썸요 한 만평 이상이 되구{그, 이제, 그 산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면장네, 그 면장하던 친구네 산인데, 그게 주로가 많았어요. 한 만평 이상이 되고}

10201 # 거기 인제 며짜라메 인제 땅이 인는데 사니{거기 이제, 몇 사람의 이제, 땅이 있는데, 산이}

10201 # 이 그거를 먼:짱, 저, 읍짱허구 인제 여기 시의원허구{이, 그것을 면장, 저 읍장하

고 이제, 여기 시의원하고}

10201 # 날 차자와서 그걸 어트케 또 압짱서달라는 얘기에요{나를 찾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또 앞장 서달라는 얘기에요.}

10201 # 그 좀 어트케 추지늘 좀 해서 인제{그 좀, 어떻게 추진을 좀 해서 이제}

10201 # 아 이게 뭐 이걸 후:소늘 위해서 해야되는 일 아닙니까{아, 이게 뭐, 이것은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10201 # 대하글 유치하는데 거기 협조안하시든 어트커십니까{대학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협조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10201 # 쓰 내가 무슨 히미 일겐써 하여튼 해 봅씨다 기래서 인제 이게{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여튼 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201 # 참 이러케 저러케 산 임자드를 만나고 해서 이게{참, 이렇게 저렇게 산 임자들을 만나고 해서 이게}

10201 # 해:겨리 돼서 땅을 다 사서{해결이 되어서 땅을 다 사서}

10201 # 두원공대 @지금 아직 학교 공사 하고 인썸니까?{지금 아직 학교 공사하고 있습니까?}/ # 지금 내년 뽀뽀 이곽될꺼예요{지금 내년 봄에 입학 될 거예요.} / @ 오, 다 뽀뽀요{오, 다 되었군요.} / # 벌써

10201 # 에.. 지나간 가을서부터 시자글 헨는데{에, 지나간 가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0201 # 오래 봄버터른 아주 벌써 건추기 올라가서{오래 봄부터는 아주 벌써 건축(=건물)이 올라가서}

10201 # 에 번관 두동이 완저니 올라간썸요{에, 본관 두 동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10201 # 그르고 인제 거쫘그로 에 학 저:기 무슨{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에, 학, 저기, 무슨}

10201 # 에 체육관 뭐 무슨 뭐 본부 뭐 이 어찌구 저찌구 또 다르게 안되야 된다고 해서 또 진대는데{에, 체육관 뭐, 무슨, 뭐, 본부, 뭐, 이, 어찌고 저찌고, 또 다른 것이 안 되어야 된다고 해서 또 짓는다는데}

10201 # 하여튼 에 대하기 드러오면서도 이파글 바다가면서도 공사는 계속할 모양이에요. {하여튼 에, 대학이 들어오면서도 입학을 받아가면서도 공사는 계속할 모양이에요.}

10201 @ 그러썸썸요{그렇겠군요.}/ # 에, 근데 그게{에, 그런데 그것이야}

10201 # 대하기 어떡케 돼:서 드러오게 된냐하므려는 여기 엘지 필립스가 또 요 건너 인제 안썸니까?{대학이 어떻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느냐하면, 여기 엘지 필립스(LG-Philips)가 또 요 건너에 있지 않습니까?}

10201 # 그 엘지 필립스가 드러오면서{그 엘지 필립스가 들어오면서}

10201 # 그 두원공대에서{그 두원공대에서}

10201 # 그기허구 어떡케 열타글 헨거거태. 경기도...청허구{거기(=엘지-필립스)와 어떻게 연결을 한 것 같아. 경기 도청과}

10201 # 게 경기도:청에서 배거글 은:꼬{그래 경기 도청에서 백역을 얻고}

10201 # 여기서 오시버글 어덜때나 봐요. 엘지 필립스에서{여기서 오십역을 얻었다나 봐요. 엘지-필립스에서}

10201 # 그 지워늘 받:꼬 이래가지고{그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10201 # 파주 시:청에서는 인제 이거를 알선해주는 걸루 허구. 허가 관계 이렇거 전부 해주구{파주 시청에서는 이제, 이것을 알선해주는 것으로 하고. 허가 관계 이런 것 전부

해주고}

10201 # 그래가지구 이걸 두원공대가 그 참 머릴 잘써가지구 여꺼지 드러완는데{그래서 이것을, 두원공대가 그, 참, 머리를 잘 써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10201 # 아푸로는 여기서 육개월생 일련생 이:년생 이걸 사:년생 이러케{앞으로는 여기서 육개월생, 일년생, 이년생, 이것을 사년생 이렇게}

10201 # 배추를 현대요. 게 육개월생은 무어나 하니간{배출을 한답니다. 그래 육개월생은 무엇이나 하니까}

10201 # 엘지 피리스 기술진드를 바로 가르쳐서 여기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위를 바든거다.{엘지-필립스 기술진들을 바로 가르쳐서 여기에다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은 것이다.}

10201 # 게가지구 가마이 보니간 참 머리를 잘썬떠라구요.{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머리를 잘 썬더라고요.}

10201 # 에 이제 처옴엔 월링 절루 드러올라구 그랜편 건데 거기가{에, 이제 처음에는 월롱 저기로 들어오려고 그랬던 것인데, 거기가}

10201 # 에 여러가지 군동이 안나고 그래가지구{에, 여러 가지 군동이(?)가 안 나고 그래서}

10201 # 에 인제 읍:짱이 그걸 허던 추진허던 읍:짱이{에, 이제 읍장이 그것을 하던, 추진 하던 읍장이}

10201 # 에 그 시청에 인편 사라미 바로 여기 읍:짱을 나오게 돼:썬요{에, 그 시청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읍장을 나오게 되었어요.} @ 봉아메서는 그러믄 아주 가깝썬썬요{봉암에서는 그러믄 아주 가깝썬썬요.} / # 요 바로 요기에요.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요, 바로 요기에요.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10201 # 요 바로 요로케 산 뒤:로 도라가는 데 인제 그게 지금 아주 마:니 진척이 되고 그랜는데{요, 바로 요렇게 산 뒤로 돌아가는 데, 이제, 그것이 지금 아주 많이 진척이 되고 그랬는데.}

10201 # 그거뚜 역시 인제{그것도 역시 이제}

10201 # 줌 내:가 인제 무슨 히믈 줌 별거뚜 아닌 촌늘그니가 히믈 썬다 해:서{줌, 내가 이제, 무슨 힘을 줌, 별것도 아닌 촌늘으니가 힘을 썬다고 해서}

10201 # 순금 달또네다가 감사패를 해서 주드라구요 거 이{순금 닷돈에다가 감사패를 해서 주더라고요.}

10201 # 이거 기공식 커던 날{이것 기공식 하던 날}

10201 # 이 그런거 하여간 그 난 배우지도 모터구 초:네서 그냥 참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두{이, 그런 것, 하여간 그, 난 배우지도 못하고 촌에서 그냥 참,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도}

10201 # 어터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끌러댕김션 그정 만날 이용만 당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 저기 끌러다니면서. 그제 늘 이용만 당한 것이지, 그런데}

10201 # 한마디루 그러커다 보니까는 지금 표창 바든게 열다섯개{한 마디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표창 받은 것이 열 다섯 개}

10201 # 감:사패 바든게 열다섯개예요{감사패를 받은 것이 열 다섯 개예요.}

10201 # 그러믄 내평생에 다른 사라믄 한두개 받기도 어려운데{그러믄 내 평생에, 다른 사

람은 한두 개 받기도 어려운데}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01 # 나 그 내가 깐깐{나, 그 내가 그러니까}

10201 # 대:통령 표창만 못받았지 도:지사까지는 도:지사허구 대의원까지 장:관건 다 바탄  
써요{대통령 표창만 못 받았지, 도지사까지는, 도지사와 대의원까지, 장관 것은 다 받았  
어요.}

10201 # 이 대:통령 국무총리건 못:받았써{이, 대통령, 국무총리 것은 못 받았어}

10201 # 그리구 인제 뭐{그리고 이제, 뭐}

10201 # 다 그 사회단체 무슨 단체 뭐: 해:서 감사패들{다, 그, 사회단체, 무슨 단체, 뭐 해  
서 감사패들}

10201 # 내가 무슨 뭐 별것뽀 아닌데 몸뽀이루 희생하능거{내가 무슨 뭐, 별것도 아닌데,  
몸으로 희생하는 것} @ 그래도 아주{그래도 아주}

10201 @ 능동저기고 아주 저 뭘니까 추진력기 인쓰니까{능동적이고 아주 저 뭘입니까, 추  
진력이 있으니까}# 인제 그래두 그 뭐 이젠{이제, 그리고 그, 뭐 이제는}

10201 # 그래서 인자 떠러진 회:장은 차례가 다 오구{그래서 이제 떨어진 회장은 차례가  
다 오고}

10201 # 만날 그 참 그대신 인제 직끔 친구두 여기 인찌마는{늘 그, 참, 그 대신 이제 지  
금 친구도 여기에 있지마는}

##### (5) 부인의 고생살이

10201 # 우리 마누라가 고생 무척캄쵸{우리 마누라가 고생을 무척하였지요.}

10201 # 여기서 문사늘 이야까를 끝구{여기서 문산을 리어카를 끌고}

10201 # 이 돼:지죽 그니깐 밤 먹따 나른 식당에서 찌꺼지 나른 그 그걸 한도라무씩{이 돼  
지죽, 그러니까 밥 먹다가 남은, 식당에서 찌꺼기 남은 그, 그것을 한 드림씩}

10201 # 여 끝:구 와서 여거 와서 돼:지를 메기고 그랜쓰니까{여기 끌고 와서 여기 와서  
돼지를 먹이고 그랬으니까}

10201 # 그러니깐 우리 마누라도 절면쓸때니깐 물론 햐:찌만{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젊었  
을 때니까 물론 했지마는}

10201 # 이야까루 그걸 끝:구 가구 왁따갈따 한대면 지끄른 생각뽀 모터는 애기쵸{리어카  
로 그것을 끌고 가고,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애기지요.}

10201 # 게도 그걸 햐:써요. 그러케해서 허문서 나는 만날 도라탱기거나 허구 지비른 도라  
다보지두안코{그래도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나는 늘 돌아다니거나 하고,  
집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10201 # 또 과:수워늘 현다구 저::기 나가서 그냥 그 또 배:나무를 싱거가지고 그거뽀 뭐  
{또 과수원을 한다고 저기 나가서 그냥 그, 또 배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도 뭐}

10201 # 게 오주카른 그 이 배나무는 보통 일러네 열려덜뽀늘 소독을 해야 된다는 기보니  
인쵸요 근데{그래 오죽하면 그, 이, 배나무는 보통 일년에 열여덟 번을 소독을 해야 된  
다는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10201 # 최소한 그래도 열:뽀는 해야 되거든요{최소한 그래도 열 번은 해야 되거든요.}

10201 # 근데 그걸 나는 만날 돌아탱기고 수리나 먹구 도라탱기지{그런데 그것을, 나는 늘

돌아다니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지}

10201 # 마:누라가 다 하능거죠 그 마:누라가 참{마누라가 다 하는 것이지요, 그 마누라가 참}

10201 # 고생 참 마:니 헐쎄요 그래서 직끄른{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201 # 참 만날 그냥 병원에나 댕기고 그러는데{참 늘 그냥 병원에나 다니고 그러는데}

10201 # 참 그러케 생각허구 직끄른{참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10201 # 양:시메 가차기 돼:서 그냥{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냥}

10201 @ 잘 하셔야 되겜습니다{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 # 웬:마난 건 내가 다 해줘야  
 \*\*\*\* 데모도꺼지 다 해줘야 되구{웬만한 것은 내가 다 해주어야 \*\*\*\* 데모도(=주변의 잡  
 일)까지 다 해주어야 되고}

## (6) 게이트볼회의 조직

10201 # 참 걱정돼. 이게 직끔 대충 쫘 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 이쓰른 쯔 허시우{참 걱정  
 돼. 이게 지금 대충 쯔 뭐, 보충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으면 쯔 하시오} #1 보충해서 뭐

10201 #1 말씀 드릴게 업져 뭐.{말씀 드릴 것이 없지 뭐.} # 아니 지나간 얘:기 중에서{아  
 니, 지나간 얘기 중에서} #1 지나간 얘:기 뭐 중에서 말씀 드릴게 없지 뭐{지나간 얘기  
 뭐, 중에서 말씀 드릴 것이 없지 뭐} @ 그, 저

10201 # 내:가 현 얘:기 말:구 쯔{내가 한 얘기 말고 쯔} #1글쎄 뭐{글쎄, 뭐}

10201 #1 나루쎄 기어기 얼릉 안나는데{나로서는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10201 #1 객쎄를 돌아댕기다가 또{객지를 돌아다니다 또}

10201 @ 한번 저{한 번 저..}

10201 @ 게:속 뭐 나와서 가치 게:시기는 어렵쎄꾸요{계속 뭐, 나와서 같이 계시기는 어렵  
 겠고요}

10201 @ 저이가 일정한 기간이 되며는 두부니서 얘:기하는 쪽{저희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두 분이서 얘기하는 쪽}

10201 @ 그런 시가늘 가질 피료가 익꺼든요{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0201 @ 대화하는 시간 그럴 때 쯔 오셔가지고{대화하는 시간. 그럴 때 쯔 오셔서}

10201 @하루쯔 가치 저 두부니서 얘:기를 하는 시가늘{하루쯔 같이 저,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10201 @ 내 주쎄쓰면 합니다.{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글쎄 데 뭐 우리야 뭐 만날 노상  
 만나니까{글쎄, 데.. 뭐, 우리야 뭐 늘 노상 만나니까}

10201 @ 제 제하고 얘:기하는 건 하고요{저, 저하고 얘기하는 것하고요}

10201 @ 가튼 동네 분들하고 얘:기하는게 또 쯔 다릅니다{같은 동네 분들과 얘기하는 것  
 이 또 쯔 다릅니다.}

10201 @ 그래서 저쪽 구거워네서 요청은 가튼 마을분들끼리 얘:기하능거{그래서 저쪽 국  
 어원에서 요청하는 것은 같은 마을분들끼리 얘기하는 것}

10201 @ 그렇거뜨를 한시간 내지 두:시간정도{그런 것들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10201 # 글쎄요 그러믄 그 얘:기 그러믄 재료를 쯔 무얼 맨드러야지 나가치 이러케{글쎄  
 요. 그러면 그 얘기. 그러면 재료를 쯔 무얼, 만들어야지. 나 같이 이렇게}

10201 # 갑자기 기냥 재료도 업쎌.{갑자기 그냥 재료도 없이} @ 시가니 좀 이스야 되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10201 @ 그때 한번 시가늘 내 주셔서 가치 애:기할 시가늘 간도록 해스면 조켄썬니다{그때 한 번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같이 얘기할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201 #1 어 또 또 한번 오시게 되나요?{어, 또, 또 한 번 오시게 되나요?} @ 아, 저

10201 @ 전:체저그로 마리쥬{전체적으로 말이지요.}

10201 @ 어르시니 제가 한 보름 오면 어떠켄썬니까 한 보름 정도로{어르신이. 제가 한 보름 오면 어떻겠습니까? 한 보름 정도로}

10201 @ 보름 정도로 오저네 아홉시에 와서 한시까지{보름 정도로 오전에 아홉 시에 와서 한 시까지}

10201 # 글쎄요 이게 나:야 뭐 무슨 혈:리른 별로 업썬니다마는.{글쎄요. 이게 나야 뭐 무슨 할 일은 별로 없썬니다마는} @ 왜냐하면. 마리라고 하는게요 민속 풍속 하는 거시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민속, 풍속 하는 것이} # 근데 뭐 재료가{그런데 뭐 재료가 ...}

10201 @ 아 재 재료는 피료 업썬니다 그냥{아, 재, 재료는 필요 없썬니다. 그냥}

10201 @ 하실 말씀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하실 말씀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10201 @ 저희가 무려 볼꺼는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니까{저희가 물어 볼 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10201 @ 그냥 무려 보는 데에 대해서 담:만 하시면 되거든요{그냥 물어 보는 데에 대해서 답만 하시면 되거든요}

10201 # 그런거야 뭐. 어렵찌가 안치마는{그런 거야 뭐 어렵지가 않지마는} @ 근데 이게 열:마나 중노한 이리냐 하머는{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나 하면}

10201 @기수리라든지 이런거슨 해가 지나머는 자꾸 발전할 쑤 인찌 안켄썬니까 물건도 해가 지나면 더 조용게 나올 쑤 인는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가 지나면 자꾸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도 해가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10201 @ 그 지방의 마리라고 하는 거슨 이 어르신 세대만 지나머는 전통저그로 내려오는 마른 완저니 꼬너저 버리고 맙니다{그 지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르신 세대만 지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10201 # 그러니깐 인제 마:를 투나 무슨 인제 어너 그 자체가 바름 이렇게 전:부 그 이.. {그러니까 이제 말을, 투나 무슨 이제 언어 그 자체가 발음 이런 것이 전부 그, 이,.}. @ 사용 단어드리라든지{사용하는 단어들이라든지}

10201 # 연:구자료가 된다 이런말쓰미이시고.{연구자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 그런 썬니다{그렇썬니다.}

10201 @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이 그, 마리라고 하능 거슬 소위 그 무형무나재라고 그러니다 왜냐머는{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그,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니다. 왜냐하면} # 아, 허허허

10201 @ 수:십년 수백년 똥안 조상드리 지혜가 그 지방 말쑤게 다 드러 익꺼든요{수 십년, 수 백 년 동안 조상들의 지혜가 그 지방 말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10201 @ 그런데 우리가 마:를 보통 하니까 마:를 별로 귀한 주를 모르는데 공기하고 똑가 썬니다{그런데 우리가 말을 보통 하니까 말을 별로 귀한 줄을 모르는데, 공기하고 똑 같썬니다.}

10201 @ 그게 업쓰며는 팽:장히 그 중요한 거를 알게 돼거든요{그것이 없으면 팽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10201 @ 그런 저메서 좀 시가니 걸리드라해도{그런 점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해도}

10201 # 글썄 뭐 글썄요 우리야 뭐: 촌:늘그니가 뭐{글썄, 뭐, 글썄요, 우리야 뭐 촌: 늙은이가 뭐}

10201 # 무신 큰 저거는 업습니다마는{무슨 큰 저거는 없습시다마는}

10201 # 이 뭐 우리가 도우미 될만한 말쓰를 디릴쭈가 인는거야 아니야{이, 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아니야.} @ 전:부다 도우미 됩니다{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10201 @ 예 예 드시죠 좀 드시죠 예 잠깐 좀 스톱 해노코{예, 예, 드시지요. 좀 드시지요. 예, 잠깐 좀 스톱 해놓고}

10201 # 예 나는 그게{예, 나는 그것이}

10201 # 케이드 볼:루 또 시자경게 내가 케이드 보:를{게이트볼(gate ball)을 또 시작한 것이, 내가 게이트볼을}

10201 # 파주에다 창:서를 해서 걸 참 사:라를 한{파주에다가 창설을 해서 그것을 참, 사람을 한}

10201 # 그때 십칠명을 모아서 그게 회워니 지끄메 시자기 댜:는데{그때 십칠 명을 모아서 그것이 회원이 지금의 시작이 되었는데}

10201 # 다른 읍:면두 잘: 도라가는데 우리 파주으메두 잘: 도라가요 그게{다른 읍, 면도 잘 돌아가는데, 우리 파주읍에도 잘 돌아가요 그것이}

10201 # 나는 그 버르장머리가 틀려서 그런진 몰라도 결국근 [웃음]{나는 그 버릇이 틀려서 그런 지는 몰라도 결국은... [웃음]}

10201 # 지금 그 실래 체육파늘 맨드러 놓:거는 아마 지금 며꾼데 안되거든요 각 읍면별로 {지금 그,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마, 지금 몇 군데 안 되거드뇨. 각 읍, 면별로 @ 실래로 돼 이습니까?{실내로 되어 있습니까?} / # 지금 내가 그거를 맨드러놓: {지금 내가 그것을 만들었지요.}

10201 # 뭐 그러께나 회장:: 현대든 그냥 세월 보낼 쭈가 업는거니깐{뭐 그러니까 회장을 한다면 그냥 세월을 보낼 수가 없는 거니까}

10201 # 내 이게 그러니까 아까두 내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내,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10201 # 초:네서 자라가지고 무슨 뭐 뭐 재:사니 인습니까 뭐:가 인습니까{촌에서 자라서 무슨 뭐,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0201 # 한가지 인파면 그저 절른 혈끼허구 그냥 성질허구{한 가지 있다면 그저 젊은 혈기와 그냥 성질과}

10201 # 패:기바게는 업는거야 그러니깐 이 주둥아리 이 이거가지구 그냥{패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 이, 이것 가지고 그냥}

10201 # 거 또 또 의:원들 구쾌의원 시:장{거, 또, 또, 의원들, 국회의원, 시장}

10201 # 맨번씩 기냥 애:길 해:두 안되구 성:질두 내구 온:통 그래가지구{몇 번씩 그냥 애기를 해도 안 되고 성질도 내고 온통 그래서}

10201 # 하나 건뚜 이력정도 구천육백마닐 디려서 하나 맨드러 낱{하나, 그것도 일억 정도, 구천육백만 원을 들여서 하나 만들어 놓았..}

10201 # 참: 조:쵸 지금 맨드러 노:니까 비가 오나 누나 오나 지금 여름에 이러케 더와두  
 {참 좋지요.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여름에, 이렇게 더워도}

10201 # 크:: 따물 뽀뽀 흘리구두 그 아네만 들어가면 옷통 퍽퍽: 벽꼬 그냥 땡땡 치르는  
 씨원:헌게 조쿠{크, 땀을 뽀뽀 흘리고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옷통 퍽퍽 벗고 그냥 땡, 땡  
 치면 시원한 게 좋고}

10201 # 기냥 세:상에 더 조용게 어딘썬요{그냥 세상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 실내  
 로 돼: 인는데는 그러케 만치 아늘 낀 가튼데요.{실내로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  
 을 것 같은데요.} # 만:치 아나요{많지 않아요.}

10201 # 여 수원가면 그 수원 시:에서 해노응거 참 조용게 인썬요{여, 수원 가면 그 수원  
 시에서 해놓은 것, 참 좋은 게 있어요.}

10201 # 개이드볼 여덜개 구장이 한까바네 저 이{개이트볼 여덟 개, 구장이 한뼘밖에 저,  
 이}

10201 @ 경기도 대항하면 그쪼그로 가서 합니까?{경기도 대항하면 그 쪽으로 가서 합니  
 까?} 10201 # 예 그쪼그로 가는데{예, 그 쪽으로 가는데}

10201 # 참:: 잘해낵:썬요 그런데도 익꼬 어 인제{참 잘해 놓았어요. 그런 데도 있고 어,  
 이제}

10201 # 다른데두 좀 자래 자래낵:는데 오래 인제 파주 시청에두{다른 데도 좀 잘해, 잘해  
 놓았는데, 올해 이제 파주 시청에도}

10201 # 오래 처음 이제 한동 맨드러 녹쿠{올해 처음 이제 한 동 만들어 놓고}

10201 # 네: 군 이제 네: 구장 네:개를{네 군, 이제 네 구장, 네 개를}

10201 # 그 시:리분동장 그 뒤:쪼게다 그 사늘 저걸해가지구 개간해서 맨드러 낵:썬요 그  
 래서 개이드 볼두{그 시립운동장 그 뒤쪽에다 그, 산을 저걸해서, 개간해서 만들어 놓았  
 어요. 그래서 개이트볼도}

10201 # 늘그니들두 좀 어떠케 좀 살:게 활개치게 살:게끔 맨드러다오{늑은이들도 좀 어떻  
 게 좀, 살게, 활개치게 살게끔 만들어다오.}

10201 # 이런시그루 인제 좀 마:니 조아전썬요{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10201 @ 회원들도 만치요?{회원들도 많지요?}

10201 # 예 회원드리 우리 파주시에는 한 삼백명 돼요{예, 회원들이 우리 파주시에는 한  
 삼백 명 돼요.}

10201 # 그래두 다른 그 여기보더문 마:는 퍼니쵸{그래도 다른 (곳은) 그, 여기보다는 많은  
 편이지요.}

## (7) 건강 문제와 주변 변화

10201 @ 경강 경강에 아주 큰 도우미 되지요?{건강,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10201 # 저는 인제 그 근강::이 조안뜨랜는데요 한 오년저네{저는 이제 그, 건강이 좋  
 았었는데, 한 오 년 전에}

10201 # 그 인제 느닷업:썬 무조:미 걸러가지구 어뜨케 그거 화긴허러 간다구 간 쯔{그 이  
 제, 느닷없이 무릎이 걸려서 어떻게 그것 확인하러 간다고, 간 쯔}

10201 # 검사하기 위해서 피검사허러 갑따가{검사하기 위해서 피 검사하러 갔다가}



10201 # 이 저 이 내:시경을 받:는데 아 이노미 느:단업씨 요만형게 하나{이, 저, 이 내시경을 보았는데, 아 이 놈이 느닷없이 요만한 게 하나}

10201 # 뭐 이따구 잘모뎌따구 그래{뭐, 있다고 잘못 되었다고 그래} @ 위예요?{위예요?} / 10201 # 예.

10201 # 뭐 낭중에 위 아됩니다 이래 위 암 거 혈쑤업씨 뭐 백병워네서 그 저걸 핸:는데 {뭐 나중에 위암입니다 이래. 위 암, 그, 할수없지 뭐, 백 병원에서 그 저거(=검사)를 했는데}

10201 # 낭중에 우리 큰아이가 서둘러가지구 암:센타로 해서 기냥 암:센타에 가서 수술을 핸:는데{나중에 우리 큰아이가 서둘러서 암센터로 해서, 그냥 암센터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10201 # 그래두 그 초:기에 그 어뜨케 기냥 그러니깐 피검사허러 가서 굴머서 가쓰니까{그래도 그 초기에 그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피검사하러 가서 굼어서 갔으니까}

10201 # 내시경두 보자 해서 마누 우리가 마누라가 당신 술 머그른 만날 껍뻍커니깐 그 이상허니까 한번 보자구{내시경도 보자고 그래서, 마누, 우리가, 마누라가 당신 술 먹으면 항상 껍뻍하니까, 그 이상하니까 한 번 보자고}

10201 # 그 마:루라 기 썰:떼업씨 기기 내:시경은 아:무나 봐 패:니 그저 그{그 마누라, 그 쓸데없이 그, 그 내시경은 아무나 봐? 괜히 그저, 그}

10201 # 아 글썽 이왕 굴머서 와쓰니 보라고 예에 봐쓰니 발겨늘 잘항거지 그때{아, 글썽 이왕 굼어서 왔으니 보라고. 예, 예, 봤더니 발견을 잘한 거지, 그때}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01 # 아이구 그 요만항거 하나 일쫘 때 저 이 백병워네서 요기만 요망:큼 오려내른 됩니다 그래꺼덩{아이구, 그 요만한 것 하나 있을 때, 저, 이 백 병원에서 요기만 요만큼 오려내면 됩니다. 그랬거든}

10201 # 근데 뭐 웬걸 아유 이 삼부네 이를 똑 잘라버려는데{그런데 뭐 웬걸 아유, 이, 삼분의 이를 똑 잘라버렸는데}

10201 @ 잘라썰요?{잘랐어요?} # 예

10201 # 그럼요 이 암센타에서 인정사정 업떠라구.{그럼요, 이 암센터에서 인정사정 없다고} 10201 @ 그러니까 저니되능걸 마가야 되니까{그러니까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10201 # 그래가지구 난 그래두 그 항암제를 안만능게 참 천만 다행이거든 항암제 마즈른 중능거야{그래서 난 그래도 그, 항암제를 안 맞는 것이 참, 천만 다행이거든. 항암제 맞으면 죽는 거야.}

10201 #1 초기니깐.{초기니까.} @ 예

10201 # 그 초기에 발겨내서 그래두 항암제를 안마자서 살지{그 초기에 발견해서 그래도 항암제를 안 맞아서 살지}

10201 # 사라찌 이러케 상거지 하여 내가 명:은 긴 사라미예요 가마니 보든{살았지. 이렇게 산 것이지. 하여튼 내가 명은 긴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10201 # 그냥 부그루 부그루 나므루 그냥{그냥 북으로. 북으로 남으로 그냥} @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는 핑자이 정정하시지요.{그래도 연세에 비해서는 핑장히 정정하시지요.}

10201 # 세:상에 안맹긴테가 업:꺼든요{세상에, 안 다닌 테가 없거든요.}

10201 # 전국 일때 그 나와가지구두 뭐 참{전국 일대, 그 나와서도 뭐 참}

10201 # 이거 뭐 농촌지도자 뭐 으:뽕장을 이:십칠년뽕아늘 해{이거, 뭐, 농촌지도자 뭐, 읍회장을 이십칠 년 동안을 해}

10201 # 이거 뭐 구:너나뽕장을 맨너늘 해 이게 뭐{이거, 뭐 구연합회장을 몇 년을 해. 이게 뭐}

10201 # 하여튼 별난지슬 다하고 땡긴거예요 하여튼{하여튼 별나 짓을 다하고 다닌 거예요. 하여튼}

10201 # 뭐 배:운거뚜 업는 노미{뭐, 배운 것도 없는 놈이}

10201 # 왜그러케 또 차례는 마니 오는지 참{왜 그렇게 또 차례는 많이 오는지. 참}

10201 # 게도 땡:따 하르는 그러케 나먼테 뒤편러지거나{그래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남보다 뒤편러지거나}

10201 # 경기도여나뽕에서두 그래두 파주여나뽕가더래두 뭐 어찌구 이런 소리 드려야만 되니까{경기도 연합회에서도 그래두 파주 연합회 가더라도, 뭐, 어찌구,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니까}

10201 # 이게 참 여렵긴 어려운거지{이것이 참 여렵기는 어려운 거지}

10201 # 그런데 자여니 노픈사람들헌테 가서 구거, 구거를 해야되구{그런데 자연히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구거, 구걸을 해야되고.}

10201 # 이 그 참 내평생에 그 농민회관 우리 파 정:구게서 농민회관 인는데는 우리바께 업써{이, 그, 참 내 평생에 그 농민회관, 우리 파, 전국에서 농민회관이 있는 데는 우리 밖에 없어}

10201 # 직끔 아마 그게 사:층짜리 그러니깐 백:평이 사:층이면 그게 얼마야{지금 아마 그게 사층 짜리, 그러니까 백 평이 사층이면 그게 얼마야?}

10201 # 한 배격가까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꺼야 지금 시:청아페 바로 일쓰니까 {한 백억 가까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지금 시청 앞에 바로 있으니까}

10201 # 그거를 내가 그래두 해:논쿠{그것을 내가 그래두 해 놓고}

10201 # 참 지금 후임자드른 참 땡땡거리구 뭐 으이{참, 지금 후임자들은 참 땡땡거리고 뭐, 으이}

10201 # 아 그때 내가 그냥 사:정을 허문서 구괘의위니다 시:장이다 붙들구 그냥 온통 구거를 허구 그랜는데{아, 그때 내가 그냥 사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다, 시장이다. 붙들고 그냥 온통 구걸을 하고 그랜는데}

10201 # 지그른 아주 이놈들 기냥 차도 휘발류값 빼:주구 무슨 팡공비가 얼마 아 이거 땡땡거리고 사능거야 이 회장더리{지금은 아주, 이놈들 그냥 차도 휘발유값 빼주고 무슨 팡공비가 얼마, 아, 이거 땡땡거리고 사는 거야. 이 회장들이}

10201 # 그 참 기가 매켜서{그, 참 기가 막혀서}

10201 # 그 물론 그게 조은 조건 후배를 위해서 형거다{그 물론 그게 좋은 조건, 후배를 위해서 한 것이다.}

10201 # 근테 그렇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내가는 해농:게{그런데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내가 해농은 것이}

10201 # 땡기면서 참 그런지슬 허지 그리니께 썰떼업:는데 가서 그냥 공갈치구 쑹게{다니면서 참, 그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썰떼없는 데 가서 그냥 공갈 치고 쓰니까.}

10201 # 대가리치구 싸우구 그냥 해가지구 그래두 뜨더서래두 맨드러 노쿠 그 참{머리치고 싸우고 그냥 해가지고 그래두 뜯어서라도 만들어 놓고. 그 참}

10201 # 그게 그 뭐 버르신진 몰라두 그 뭐 몰라 하여튼 땡김서 그런지슬 내가 마니 햐:썩  
 요{그게, 그, 뭐, 버릇인지는 몰라도, 그, 뭐, 몰라. 하여튼. 다니면서 그런 짓을 내가 많  
 이 했어요.}

10201 # 게서 직끔까지두 뭐 가는데마다 그래두 그 끄르태기는 나마인꾸 허니까{그래서  
 지금까지고 뭐, 가는 데마다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고 하나까.}

10201 # 참 그 기분두 조:꾸 또 어찌다가 그 구녀납페에서 저:님 회장님드를 모십니다 하  
 구 또 그냥{참, 그, 기분도 좋고. 또 어찌다가 그, 군연합회에서 전임 회장님들을 모십니  
 다 하고 또 그냥}

10201 # 회장이 차자와서 가문 저 이 참 백경수나 이런 노리터를 가서{회장이 찾아와서  
 가문 저, 이, 참, 백경수나 이런 놀이터를 가서}

10201 # 그냥 뭐 그냥 개:를 자바노쿠 이건 난 무신 개:고기를 또 몬머그니까 이게 또 향  
 구네 끼:지를 모터네요 이 이{그냥, 뭐, 그냥 개를 잡아놓고 이건, 난 무슨 개고기를 또  
 못 먹으니까, 이게 또 한 군에 끼:지를 못하네요. 이, 이}

10201 # 접:때두 조합짱이 오라 오라 해서 갇떠니 개:를 뜨더멍느라 야다니야{저번에도 조  
 합장이 오라오라 해서 갔더니, 개를 뜯어먹느라 야단이야}

10201 # 그래두 다칸마리 뜨더 줘서 그걸 뜨더먹구 나 참{그래도 닭 한 마리 뜯어, 주어서  
 그것 뜯어먹고 나, 참}

10201 # 아 그 세:상 사능게 그냥 그러케 그러케 살다가 가능거지 뭐{아, 그, 세상 사는 게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10201 # 게두 요간먹꾸 가야텐다 하는 그냥 그런 생강만 허는거야 요간먹꾸 가문 된다{그  
 래도 욱 안 먹고 가야 된다 하는,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욱 안 먹고 가면 된다.}

10201 @ 애쓰시고 고생하신 보람드리 다 안 인썸니까?{애쓰시고 고생하신 보람들이 다 안  
 있습니까?} # 후임자드른 팬차나요 그대신 다만 내가{후임자들은 팬찮아요. 그대신 다만  
 내가}

10201 # 해서 지금 월로회거튼거뚜 농협베 월로회 거튼걸뚜{그래서 지금 원로회 같은 것  
 도, 농협의 원로회 같은 것도}

10201 # 내가 그거 회장을 내:노쿠 나서 인제 고 사이 회장을{내가 그거 회장을 내어놓고  
 나서, 이제, 그 사이 회장을}

10201 # 아 이거 \*\*\*\* 콧때가 이리 그 썰다구 나는 주그라고 그랜떠니{아, 이거 \*\*\*\* 콧대  
 가 이리 세다고, 나는 죽으라고 그랬더니}

10201 # 그걸 해가지구 내가 그냥 허다모테 추리링 한벌씨기래도 해이퍼서 그걸 데리구  
 차를 또 내서{그것을 해서 내가 그냥 하다 못해 추리닝 한 벌 썩이라도 해 입혀서 그것  
 을 데리고 차를 또 내어서}

10201 # 광광을 데리구 가구 온통 그러지 아 이건 회:비를 떠억 올리고 아주 안자서{관광  
 을 데리고 가고 온통 그러지. 아 이건 회비를 떠 올리고 아주 앉아서}

10201 # 시비문 관두라 하지 그렇게 회원드리 밀구 드러온다 또{시비면 관 두라 하지. 그  
 러니까 회원들이 밀고 들어온다 또.}

10201 # 인제 오히려 회워늘 썰라야 된다 이런 시그루 나온다구{이제 오히려 회워를 잘라  
 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10201 # 나 [한심하다는 듯한 웃음] 이런 나{니 이런 나}

10201 # 아 난 그때 회원 그저 한 칠썸명 가지구 기냥 쳐으메 시자글 햐:는데{아, 나는 그

때 회원 그저 한 칠십 명 가지고 그냥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0201 # 어유 10201 @ 지그든 회워니 굉장히 망쥔쑤요?{지금은 회원이 굉장히 많쥔쑤요?} 10201 # 한 배겨명 돼:요{한 백 여명 돼요.}

10201 # 뺑명두 너무요{백 명도 넘어요.}

10201 #1 이, 이 모씨가.{이, 이 모씨가} # 이 모씨가 뵈:장이지{강성남이가 회장이지.}

10201 # (부인이 묻는 말에 대해) 응? 글썄 뭘 오신 손님 뭘:루 대저패야 할텐데 우리 초:네는 무신{응? 글썄, 뭘, 오신 손님에게 무엇으로 대접해야 할텐데. 우리 촌에는 무슨}

10201 @ 아닙니다 아니 저 좀 인따가요 제가 모시쥔쑤니다{아닙니다. 아니, 저, 좀 있다가 요. 제가 모시쥔쑤니다.}

10201 @ 식당이 요쪽 근처에 인쑤니까?{식당이 요쪽 근처에 있쑤니까?}

10201 @ 그 애:기가 좀 아프로 감니다만 유기오때는 연세가{그 애:기가 좀 앞으로 감니다만, 6:25 때는 연세가}

10201 @ 어뜨케 되십니까?{어떻게 되십니까? # 내가 수무사레 유기오때가 수무사리에 요.{내가 스무 살에, 6:25 때가 스무 살이에요.}

10201 @제가 포천에 가서. 장녀네 포쳐네 간쁘니요{제가 포천에 가서. 장년에 포천에 갔더니요}

10201 @ 그 유기오 이러나기 저네 저쪽 북쑤게서 막 드러와가지고 미{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저쪽 북쑤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미}

## (8) 아들과 딸

10201 # 이에 우리 아드네 둘:째아들두 그이 근데 우리는 그래 참 쑤끔 모쑤텐게 내 마오메 안드능게 그야 두 인제 두 아이가 둘째가 쑤 말썽을 부려쑤요 아들두 둘째 딸두 둘째가 그이 즈이들 뉘때루 이 겨로늘 행꺼던{이에, 우리 아드네 둘째 아들도 그이, 그런데 우리는 그래 참, 쑤끔 모쑤된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야, 두, 인제 두 아이가 둘째가 쑤 말썽을 부렸어요. 아들도 둘째, 딸도 둘째가 그이, 자기들 멋대로 이, 결혼을 했거든.}

10201 @ 대체로는 천째보단 둘째가 자유롭쑤니다 {대체로는 첫째보다 둘째가 자유롭쑤니다}

10201 # 그래 인제 그이 천째는 또 너머 그냥 그이 {그래 인제 그이, 첫째는 또 너무 그냥 그이,}

10201 @ 장남 의식이 인꼬 그래서 쑤 다릅니다 {장남 의식 있고 그래서 쑤 다릅니다.}

10201 # 아이 두 여:자를 만:쑤늘 봉거시 뉘 참 열 한버닌지 열뚜버닌지 그라케봐쑤요 {아이, 두, 여:자를 맞선을 본 것이 뉘, 참, 열 한 번인지 열두 번인지 그렇게 봤어요.}

10201 # 그니깐 아주 그냥 지:칠때로 지칠쥔도로 그냥 어뜨게 어뜨게해서 만나게하든 또 빠: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칠 대로 지칠 정도로 그냥 어떻게어떻게 해서 만나게 하면 또 빠:꾸(=퇴짜)}

10201 # 거 머 어럽따 그냥 가마니 안자이쑤 기냥가 금 너 도:대체 무얼 골레능거나 어뜨게{거, 뉘, 어럽다. 그냥 가만히 앓아 있으면 그냥 가. 그러면 너는 도대체 무얼 고르는 것이냐? 어떻게}

- 10201 # 아 내가 지금까지두 어느때 인제 애:길허지만 기 지금 문산여상에서 그래두 일똥을 해서 지금 서대문구청에가서 공무원 생활을 허구인는 여 아가씨가 이씨요 {아, 내가 지금까지도 어느대 인제 애기를 하지만 지금 문산 여상에서 그래두 일똥을 해서 지금 서대문 구청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 아가씨가 있어요.}
- 10201 # 그 어떤 친구가 야 그 이버네 그 똑또커내 하나 이쓰니깐 해라{그 어떤 친구가 야, 그 이번에 그 똑똑한 애가 하나 있으니까 해라.}
- 10201 # 그래 인제 아주 얼씨구나 허구 난 그냥 그래 신빠라미나서 문산 그 서뉴리인는 여자 이저 윤씨네편 진짜 파평 윤씨네야 {그래 인제 아주 얼씨구나 하고 난 그냥 그래 신바람이 나서 문산 그 선유리에 있는 여자 이, 저, 윤씨네편 진짜 파평 윤씨네야.}
- 10201 # 게 가문도 갠찬쿠 아 이게 이 조타 아이 그냥 데리구 나가길래 난 무신 그 어디 그 다방 다방이 나가서 어트게 좀 따로가서 무신 애:기나 할러 그러는줄 아라씨 버스 태:주고 와때자나{그래 가문도 갠창고 아. 이, 좋다. 아이 그냥 데리고 나가기에 난 무슨, 그, 어디, 그, 다방, 다방이나 가서 어떻게 좀 따로 가서 무슨 애기나 하러 그러는 줄 알았어. 버스 태워주고 왔다고 하잖아.}
- 10201 # 자 이러니 이거야 무슨 그 어트게 그르니 그러드니 어트게 데서 지금 며느리는 서울 여잔데 {자, 이러니 이거야 무슨, 그 어떻게 그러니? 그러더니 어떻게 되어서 지금 며느리는 서울 여잔데}
- 10201 # 그때 인저 서울 직장을 가지고이씨씨요 우리 크내가 게 인제 지금 그 이 메누리 는 내가 처:메 이러케 보니깐 마:메 안드러 게 만메누리는 게 이 옛날시그루 참 말로써 하른 두똥:항게 그래도 좀 거이 참 간파니 텍 이씨야 그래두 그게 만메누리 까민데 {그 때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그래 인제 지금 그, 이, 며느리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만며느리는 그래 이, 옛날식으로 참, 말로 하면 두툽한 것이 그래도 좀 거 이, 참, 간판이 텍 있어야 그래도 그게 만며느리 감인데}
- 10201 # 행 허리가 요마녕게 그냥 아이구 망할 아이 그 일루 데리구와써 그 내 에 저 바 까테 살찌긴데 자 이 인제 내 누이동생이 오빠 오빠 어때요 {행, 허리가 요만한 것이 그냥 아이구, 망할 아이 그, 이리로 데리고 왔어. 그, 내, 에, 저 바깥에 살 때인데 자, 이, 인제 내 누이동생이 오빠, 오빠 어때요?}
- 10201 # 에이그 야 남드른 모미 너무 야캐서 그저 안텐다 아 그 소릴 어트게 알구 안빵에서 애:기허는 소릴 들꼬설랑 저:쪽빵에서 툽튀어나와 저 고등학교까지 나와두 감기 한번도 안알쿠 자라씨요 또 이 어린놈이 나 그참 내 그 그소리가 지금두 귀에 쟁쟁헌데 {에이그, 야, 남들은 몸이 너무 약해서 그저 안 된다. 아, 그 소리를 어떻게 알고 안방에서 애기하는 소리를 듣고 저쪽 방에서 툽 튀어나와 저 고등학교까지 나와두 감기 한 번도 안 앓고 자랐어요. 또 이, 어린놈이, 나 그, 참, 내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헌데}
- 10201 # 아유 내 그래서 지금 애:기가 조금 빈나간는데 허다보니깐 그래서 인제 그 회갑 인제 그 내가 인제 우리 그 애:드리 좀 빈나갈때는 애:긴{아유, 내 그래서 지금 애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하다보니까. 그래서 인제 그 회갑 인제, 그, 내가 인제, 우리 그, 애들이 좀 빗나갔다는 애긴}
- 10201 # 둘:째애:가 제맘대루 근데 이제 저이 지금 저 저게 인제 훈련소에 이쓸때 찌근 사 지닌데 우리 둘째애가 저이 소령으루 제대를해씨요 그래 이제 {둘째 아이가 제 맘대로. 그런데 이제 저, 이, 지금 저, 저게 저, 훈련소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우리 둘째 애

- 가. 저, 이, 소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 이제}
- 10201 # 게:가 인제 그때 대:위로 이쓸때 그 어트게 대대장이 근가 중위쪄기지 소대장으루 이쓸때 그 누구 친 친구에 예 누이동생을 소개를 해때요 {개가 인제 그때 대위로 있을 때 그 어떻게 대대장이 그러니까, 중위 쪄이지 소대장으로 있을 때 그 누구 친, 친구의 누이동생을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 10201 # 그래서 지금 해서 인제 그 소우레 그저네 이제 이 예:비군 중대장을 저 남 이 강 나메서 행는데 거:기서 어트게 두리서 만나구 이르게해서 거 허드니 결구근 겨로늘 허게 따구 게 크나이 겨로늘 허고난는데 {그래서 지금 해서 이제 그 서울에, 그 전에 이제 이, 예비군 중대장을 저, 이, 강남에서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둘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거, 하더니 결국은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큰아이가 결혼을 하고 났는데}
- 10201 # 그뚜 크나이두 기래서 다르내들보드문 느저서요 손:주가 그만 느저쪄{그것도 큰아이도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늦었서요, 손자가. 그만 늦었지요.}
- 10201 # 게서 지금 그이 손:주딸 그 나는 참 좀 유달릉게 좀 이썬요 어트게 어뜨게보문 애:드리 나를 좀 이 참 유달르다구할른지 모르지만 난 그래두 갇출건 좀 갇추고십따 또 내 역때 멀:루봐:두 우리가 무슨 지바니 저거헌 지바니냐 왜 헐꼐 모터냐 그런 애:기구 {그래서 지금 그, 이, 손너 딸. 그, 나는 참, 좀, 유다른 것이 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나를 좀, 이, 참, 유다르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갇출 것은 좀 갇추고 싶다. 또, 내 역대 무엇으로 봐도 우리가 무슨 집안이 저거한 집안이나? 왜 할 것을 못하냐? 그런 애기고}
- 10201 # 게 인제 그 아이 겨론 허구나서 우리 큰메누리 이제 그 둘째애가 그르케 데가지구 인제 허 겨로늘 허게 큰메누리 크나이 겨로나구 나니까 게:가 데투루 머 형이 아:너 문 내가 먼저허지며 이런시그루 애:기를 헌다 내 그래서{그래 인제 그 아이 결혼 하고 나서 우리 큰머느리 이제 그, 둘째 애가 그렇게 돼가지고 인제 결혼을 하게 큰 머느리 큰아이 결혼하고 나니까 개가 대뜸 뭐 형이 안하면 내가 먼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내가 그래서}
- 10201 # 이눔새끼 그 무슨 말따위 그게 하나 그래뜨니 {이눔 새끼, 그 무슨 말 따위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 10201 # 아 나는 이 여자가 이:때는 애:기지 한마디루 애:기해서 게 인자 한번 데리구와봐라 그래뜨니 인제 데리구와썬요 자 그르니 이미 벌써 이 이게 이 이미 머 그 이 서늘 너 머성거가튼데 그걸 그러타구 너안데 그르문 그를썬도 읍꾸{ 아, 나는 이, 여자가 있다는 애기지. 한마디로 애기해서 게, 인자 한 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인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니 이미 벌써 이, 이게, 이미 뭐, 그, 이, 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 그걸 그렇다고 너는 안 돼. 그러면 그럴 수도 없고}
- 10201 # 아까두 애기해찌만 엘지 피립쓰에 지금 인제 엘지엑쓰터 번부에 인는데 거:기에 인는 그 남자 그{아까도 애기했지만 엘지 필립스에 지금 인제 엘지 엑쓰터 본부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남자 그,}
- 10201 @ (이때 아주머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아이구 그냥 잘먹게썬니다 {아이고, 그냥 잘 먹겠습니다.}
- 10201 # 아 이 어저께 그 친구 불르 불르 이저 불르지 아나두데요?{아, 이, 어저께 그 친구 부르, 부르지 않아도 되요?}
- 10201 @ 예 저 피료할때 제가 말씀드리게썬니다 {예, 저 필요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10201 # 네 게 이제 그 에 이 그러치 또 큰따른 또 애 얼릉 혼처가 안나타나서 걱정을해 그냥끈코 끝까지기냥 {예, 그래, 이제 그 에, 이 그러치. 또 큰딸은 또 얼른 혼처가 안 나타나서 걱정을 해, 그냥 꿇고 끝까지 그냥}

10201 # 둘째엔 또 이 딸녀는 또 아 직장에 서울 마포로 올라가더니 이거 어트게 또 그냥 두리 또 만난판마라 {둘째애는 또 이 딸녀는 또 아, 직장에 서울 마포로 올라가더니 이거 어떻게 또 그냥 둘이 또 만났단 말이야.}

10201 @ 아 가튼 직장생활하며는 그러치요 {아, 같은 직장 생활하면 그렇지요.}

10201 # 에 게 이 그 마메 안드러 근데 이 실랑노른 그냥 게 인제 우리 마누란 아유 실랑 이 마메든다고 또 그냥 조아죽췌페능거지또 {예, 게, 이,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실랑 노른 그냥, 게, 인제 우리 마누라는 아유, 실랑이 마음에 든다고. 또 그냥 좋아 죽 겠다는 것이지 또}

10201 # 아니 그건 그거고 나는 마메 안든다 나 는마메안든다 아이 키가 크고 머 얼굴리 잘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야 생활러기 강해야데구 {아니, 그건 그거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아이, 키가 크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생활력이 강해야 되고.}

10201 #(아주머니): 교수님 # 다 지:바네전통이 이씨야{다 집안에 전통이 있어야} #(아주머니): 지가 한말씀 여쭙바:도데까요{제가 한 말씀 여쭙봐도 될까요?} @ 네네{네네}

10201 #(아주머니): 지금 저이 손주마리 서울려대 사망녀니거등요 근데 거그서 저거 수학 짜에서 수학글 잘해가지구 장하끄트타서 지금 공불허고 인꺼드뇨 근데 그러네는 어:디를 선택글해서{지금 저희 손녀딸이 서울여대 3학년이거등요. 그런데 거기서 저, 거, 수학과 에서 수학을 잘 해가지고 장학금을 타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등요. 그런데 그런 애는 어 디를 선택을 해서}

10201 # 교수님미 앞날꺼지 점쳐주시나 게 수학글 원체 그 이 하귀네서 공부할때서부터 수학글 자래써 이게 대 대하글 갈째도 게 서울대하글 하라구 인제 그래쓰니 서울대아근 수학카나만가지군 안텐다 이래가지구 {교수님이 앞날까지 점쳐 주시나 게, 수학을 원체 그, 이, 학원에서 공부할 때서부터 수학을 잘했어. 이게 대학을 갈 때도 그래 서울대학을 하라고 인제 그랬더니 서울대학은 수학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10201 # 지:가 노:피 보능게 아니라 야:치보게따 해가지구 저이 서울여대허구 인 저 이 어 디 인천 인천대{제가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보겠다고 해가지고 저, 이, 서울여대 하고 인, 저, 이, 어디 인천, 인천대}

10201 @ 인 이나대약 {인, 인하대학}

10201 # 이나대아긴가 거:길 바췌요 게 이나대아기 두군데가 다데써 그래서 그른데 지가 거이 그 인천은 멀다구 이 서울려대를 가서 지금 땡기는데{인하대학인가? 거길 봤어요. 게, 인하대학이, 두 군데가 다 뻤어. 그래서 그런데 거, 이 그 인천은 멀다고 이, 서울여대를 가서 지금 다니는데}

10201 # 아 이누무 시험만 바따아른 일똥이래지뵤야 거기서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이르미 나뵤요 그서 수아기 그르케 수:아글자래 수:아글 {아, 이놈의 시험만 보았다하면 일똥이 라지 뵤야, 거기서.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이름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수학을 잘해. 수학을}

10201 @ 그럼 보통 저 수아글 보통 {그럼, 보통 저 수학을 보통}

10201 # 저 새끼 이상하다 #(아주머니): 게 수항만 시험만보면 일등을 해가지고 장학금들 거:서 좀 준데거덩요 근데 지금 사망녀니거드노 {저 새끼 이상하다. 그래 수학만 시험만 보면 일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거기서 좀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학년이거든요.}

10201 @ 보오 보니는 어뜨게 생가가는지 보니니 이제 제:일 자아랄텐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이제 제일 잘 알텐데}

10201 # 아 난 그래서 공:무위를 드러가라 그래져 공:무위를 그래 공무원니 제:일날따 선생 그르치아는 선생드러가라 {아, 난 그래서 공무원을 들어가라 그랬지. 공무원을. 그래, 공무원이 제일 낫다. 선생 그렇지 않으면 선생 들어가라}

10201 @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는 관계가 업 업게웨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데}

10201 # 그라니 수학 선생 드러가면 데자나요 {그러니 수학선생 들어가면 되잖아요.}

10201 @ 학교에 마리지요 {학교에 말이지요?}

10201 # 네 학교선생으로 {예, 학교 선생으로}

1020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1 # 그럼 이제 되는데 아이 선생은 실테지 또 근데 게:는 선생도 실쿠 공무원도 실쿠 무슨 {그럼 이제 되는데 아이, 선생은 싫데 또. 그런데 개는 선생도 싫고 공무원도 싫고 무슨}

10201 # 무얼헌데능거야 그럼 어디 머 으냉 뭐슨 머해 원 나 원 {무얼 한다능거야 그럼. 어디 뭐, 은행 무슨, 뭐해 원, 나, 원}

10201 @ 대하그로 가쓰면조켄따 하는 생가글하고인 인는 모양이쥬 교수로{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교수로.}

10201 # 그게 인제 대하 나와가지고 대학교수로 갈쑤인나요 그르게 인제 {그게 인제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나요? 그르게 인제.}

10201 @ 그건 쫘 공부를 마니해야 됩니다 {그건 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10201 # 고 공부를 해야데건쥬요{공부를 해야 되쥬지요.} #(아주머니): 아니 대하권 이:너 늘 나와야 텐데면쥬요{아니 대학원 2년을 나와야 된다면쥬요?}

10201 @ 대하권 이년 나오고 또 박사과정나와서 요즈믄 박사를 따야 대하게 갈쑤이쥬니다 기본저그로 그래 이제 열썬미하머는{대학원 2년 나오고 또 박사과정 나와서 요즘은 박사를 따야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이제 열심히 하면} # 그래 이제(그래 이제)}

10201 @ 자기가 열썬미 하머는 할쑤도 인쥬 인쥬요{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지 있지요.} # 게 애:는 쫘 애가 쫘 착썰헌데 인제 이(그래 애는 쫘 애가 쫘 착실헌데 인제, 이)}

10201 #(아주머니): 무 여잔데요 머 머 그러다보면 또 머{뭐 여잔데요 뭐 하다보면 또 뭐} # 아이 또 시집보{아이 또 시집 보} #(아주머니): 엄마아버지도 몬또와쥬고 시집만가면 고마니지쥬 {엄마 아버지도 못 도와쥬고 시집만 가면 그만이지 쥬}

10201 @ 요즈믄 저 겨로늘 그 겨로니 늑꺼든노 학교를 마니 다니고이러머노 {요즘은 저 결혼은 그, 결혼이 늑꺼든요. 학교를 많이 다니고 이러머요}

10201 # 여쵸 나이가 벌써 이개 개:도 벌써스물네 스물쵸사리야 스물네사리야 {여쵸, 나이가 벌써 이개, 개도 벌써 스물 넷 스물 쵸 살이야 스물 네살이야}



10201 @ 그서 학교생활리 그래도 제:일무난한데 {그서, 학교생활이 그래도 제일 무난한데}

10201 # 그쵸 난도 나도 교수 쪼그로 이르게 학교선생을해라 그레 인제 선생 허능게 그레도 그게 지겹 쳐노곤 좀 고급져거바니냐{글세, 난도 나도 교수 쪽으로 이렇게 학교 선생을 해라. 그레 인제 선생 허능게 그레도 그게 직업 치고는 좀 고급 직업 아니냐?} @ 어으 그러썅니다 방하기 방하기 인쪼요{어으, 그렇습니다. 방학이, 방학이 있지요.}

10201 # 제: 엔:날부터 그 이 참 그 이 학교가 아니고 이 저이 글썅을 가리켜두 선생님 허른 그게 존경을 허능거시 { 제, 옛날부터 그, 이, 참, 그, 이 학교가 아니고 이, 저, 이, 글썅을 가르쳐도 선생님 하면 그게 존경을 받는 것이}

10201 # 아이 선생니미 얼마나조으냐 그레짜나 이 마땅치안케 그 대다블 아네 뭇: 어떠케 혈른지 몰르지 지:가 아라서하겐찌 {아이,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냐, 그랬잖아. 이, 마땅치 않게 그 대답을 앓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10201 @ 그래서 인제 보니니 여러가지로 생가글 할텐데 {그래서 인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텐데}

10201 # 그래서 인제 우리 자식뜨리 그 내 그르케 오래이조래이 근데 다 그레도 {그래서 제, 우리 자식들이 그, 내, 그렇게 오롱이조롱이 그런데 다 그레도}

10201 @ 그레도 예 {그레도 예}

10201 # 인제 갠찬케 좀 즈이들 압까리른 허고사는데 이게 그러타고해서 내마메 그냥 흡쪼킨 저거는 아니다이거야 그러나 {이제, 괜찮게 좀 저희들 앞가림은 하고 사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그냥 흡족하게 저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10201 # 즈이들끼리 조아서 사:는데 무어 자식들 아들딸나쿠 살:구 그르른 우리 큰딸::른게 간따 그레 저 이 고양시청에 인는데 지끔 {저희들끼리 좋아서 사는데 뭐 자식들 아들 딸 낳고 살고. 그러면 우리 큰딸은 그 간다 그레 그, 이, 고양시청에 있는데 지금}

10201 # 그이 남퍼니 그이 공지기니깐 그레두 괜찬쿠 아 늦게까지 가이 늦게시집까는데 또 나 애:를 몬난능거야 늦게 시집간는데 그지비 인제 한서방넨데 한서방네가 또{그, 이, 남편이 그이, 공직이니까는 그레도 괜찮고 아, 늦게까지 그 애는 늦게 시집갔는데 또 나 애를 못낳능거야 늦게 시집갔는데 그 집이 한서방네 인데 한서방네가 또}

10201 # 소:니 귀어다나 어쨌데 애:를 몬나고 또 야:단 법써기 난거야 인제 가뜨기나 늦게 시지블간는데 서:른사래 시지블간데 아 애를몬나니 이거 크닐 난찌웁니까{손이 귀하다나 어쨌데. 애를 못 낳고 또 야단법석이 난 거야. 인제 가뜩이나 늦게 시집을 갔는데 서른 살에 시집을 갔는데 아, 애를 못 낳으니 이거 큰일 났지 뭇니까?}

10201 # 그레 그냥 가즌진 다하구 그냥 머 절루 땡기구 온통 즈이엄마 그냥 무슨 사:주쟁이를 쪼차땡기구 야기래는 야근 다:머꾸 병:원마다 그냥 산부인파래는 다차자땡기구 그랜는데{그레 그냥 갓은 짓 다하고 그냥 뭇 절로 다니고 온통 자기 어머니는 그냥 무슨 사주쟁이를 쫓아다니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고 병원마다 그냥 산부인파라는 (산부인과는) 다 찾아 다니고 그랬는데}

10201 # 어뜨게 서울 을찌로 그 저 이 무신 산 산부인파가 전구게서 아주 그냥 유명한 데레는데 거길 가서 어뜨게 데얀는데{어떻게 서울 을지로 그, 저, 이, 무슨 산부인파가 전국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데라는데 거기를 가서 어떻게 되었는데}

10201 @ 차병워닌가요? {차병원인가요}

10201 # 거기서 애:가 그 어뜨게 데언느냐 임시니 땡썅요{거기서 애가 그, 어떻게 되었느

나 임신이 되었어요}

10201 # 게 지금 아들 두:를 난: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이걸 또 무슨 저 벽째서 궁미낙교를 안보내고 서울 무슨 사립국민 저이 초등학교를 보내가지구 이게{그게 지금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이걸 또 무슨 저 벽째서 초등학교를 안 보내고 서울 무슨 사립국민 저, 이, 초등학교를 보내가지고 이게}

10201 # 한:다레 머 그냥 뱅:마년씩 드러간테나 어쨌때나 뭐 이 영 도데체 못땅헌다능거야 그래두조테 그래두 나 이런 아유 모르겐따 에라이 에라 느이 큰누미 유강녀니에요 벌써 근데 유강녀한테 아 이 중구그로 수 수향녀앵을 가때능거야 {한 달에 뭐 그냥 백만원씩 들어간단나 어쨌단나 뭐 이건 도대체 못 당한다는 거야. 그래도 좋대, 그래도. 나 이런 아유, 모르겠다. 에라이, 에라 큰놈이 육학년이예요 벌써. 그런데 육학년인데 아, 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는 거야}

10201 # 게 야 초:등악쟁이 외:구그로 수향녀앵가는 노미 세:상에 어딘냐{그래 야, 초등학교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10201 @ 요즘그래썸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10201 # 에이 그렇게 어디썸 그래뜨니 아 이 그놈 학썸 그르테능거야 그 머 또 일보노로 또 머 일본 구경 또 간다고 그른다 그래 이게 도:니 그 어트게 그걸 부담을 허냐 다{에이, 그런 게 어딴어? 그랬더니 아, 이, 그 놈의 학교는 그렇다는 거야. 그 뭐 또 일본으로 또 뭐 일본 구경 또 간다고 그런다고 그래. 이게 돈이 거 어떻게 그걸 부담을 하냐? 다}

10201 # 갠찬테 그래도 나 참 아이 그래 능 느이들 능러기썸 해:라 그이지 우리 자근딸도 또 자근따리 먼저 거기 그학교를 애 남 저 아들로틀 거길 보:내썸 그래가지구 그노미 지썸 고등아썸나와 저 이 지금 다니는데{괜찮다고 그래. 그래도 나 참, 아이, 그래 너희들 능, 능력이 있으면 해라. 그 이제 우리 작은딸도 또 작은딸이 먼저 거기 그 학교를 애, 남, 저, 아들로틀 거길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놈이 지금 고등학교 나와 저, 이, 지금 다니는데}

10201 # 이 갠칸 동생보더른 애:가 느저서 예 이제 그 그렇게 이꾸 또 이 게 인제 그 지금 인제 그놈 두:리 아들 두:노를 다: 그학교를 보내썸요 또 이런 참 내 그래서 내 이야 {이그러니까 동생보다는 (언니가) 애가 늦어서 예, 이제, 그, 그런 게 있고. 또 이, 게, 인제 그, 지금 인제 그놈 둘이 아들 두 놈을 다 그 학교를 보냈어요. 또 이런 참 내 그래서 내, 이야}

10201 # 너 그 초등학교때는 그러케 하능게 아닌데 잘못생각헐따 아니래 예 초등하때 아니 이 기보니 기보니 데야지 기본 공부를 모터면 이건 게:속떠러진다 이마리야 그래서 안텐데능거야 거기는 {너 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잘못 생각했다. 아니래. 예, 초등학교 때 아니 이, 기본이, 기본이 되야지 기본 공부를 못하면 이건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거기는}

10201 # 그 돈:도 마니 드러가지만 애:드를 다 그냥 공부 아나쁜 안테게썸 맨드는 학교다 이마리야 그래서 인제 보내지 아유 모르겐따 나:들 아라서 해:라 능러기썸 해:라{그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애들을 다 그냥 공부 안 하면 안 되게썸 만드는 학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제 보내지. 아유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능력이 있으면 해라.}

10201 # 내 그래썸 이 지금 그래두 이 그런대로를 다들 지 압까름들 허고사랴요 근데 나:드리 나:들 아라서허니깐 그저 에이 그렇가부다{내 그랬지. 이, 지금 그래도 이 그런대로

다들 제 앞가림들 하고 살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들 알아서 하니까 그저 에이, 그런  
가보다}

10201 @ 그러쥘니다. (이때 아주머니가 먹을 것을 가져 왔다.) 이럼 저 인제 여 저 커피만  
하면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예 잘먹게쥘니다{그렇습니다. (이때 아주머니가 먹을 것을  
가져 왔다.) 이러면, 저, 인제 여, 저, 커피만하면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예 잘 먹겠습  
니다.}

10201 # 그래서 인제 잘 그 자:식뜨른 그러케 데:서 인제 잘 그 그런데루그냥 푸러지구 그  
래서 아까두 애:기해찌만 그이 인제 아푸루 내가 팔씨블 살믄 팔순잔치를 허군 그때가선  
또 인제 저 줌 한바탕 친구들{그래서 이제 잘 그, 자식들은 그렇게 되어서 이제 잘 그,  
그런대로 그냥 풀어지고 그래서 아까도 애기했지만 그, 이, 이제 앞으로 내가 팔십을 살  
면 팔순잔치를 하고는 그때 가서는 또 이제 저, 줌 한바탕 친구들}

10201 @ 예 아주 화모칸 가운데 잔치를 할쥘인쥘쥘니다 {예, 아주 화목한 가운데 잔치를  
할 수 있쥘쥘니다.}

10201 # 그래서 인제 게 지금 조게 요게 인제 사지니 요 똑가치 조게 데인찌안쥘니까 저  
게 제:일 먼저 인능게 크나들 둘째아들 큰딸 자근딸 요게 그 네:시 똑까튼 사진 거튼데  
그게{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 조게요게, 이제 사진이 요 똑같이 저기에 되어있지 않습니  
까? 저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큰아들, 둘째아들, 큰딸, 작은딸, 요게 그 넷이 똑같은 사  
진 같은데 그게}

10201 # 예:식짱이 고 이 금:천예식짱 비쥘 똑까튼테에요 그래서 사지니 비쥘비쥘터지요  
{예식장이 고, 이, 금천예식장 비쥘, 똑 같은 테에요. 그래서 사진이 비쥘비쥘하지요.}

10201 # 그리구 인제 요거는 손:주들 인제 큰손주서부터 인제 요게 쪼옥 인제 차례차례로  
요게 나옉거에요 차례차례로 게 지금 저:기 아래가 인능게{그리고 인제 요것은 손자들.  
이제 큰손자서부터 이제 요것이 쪼옥 이제 차례차례로 요게 나온 거에요, 차례차례로.  
그래 지금 저기 아래에 가 있는 것이}

10201 @ 열:명 인꾼뇨 {열명 있군요.}

10201 # 네 저아래 인능게 제 그래 참 아{네. 저 아래 있는 것이 제 그래 참 가} @ 어 열  
하나{어 열하나}

10201 # 게서 마누라도 그르고 저걸 줌 조카딸 그 인제 그게 조 꼬테 인능게 두:리 남매가  
그거 게:, 게:드리지 뭐에요{그래서 마누라도 그르고 저걸 줌, 조카딸 그, 이제, 그게 저  
끝에 있는 것 둘이 남매가 그거 개, 개들이지 뭐에요.}

10201 # 그런데 순:서대로 가다보니까 저러케 텅거지 게:를 내 조카따리라고해서 거기다  
꼬테다 둥거 아니다 이마리야{그런데 순서대로 가다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지. 개를 내  
조카딸이라고 해서 거기다 끝에다 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10201 # 근데 이애:가 오믄 자기두 잘 보이지두양쿠 이거 뚜덜텐다 이거야 나 근데 그게  
이 지금그러치 안쥘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두{그런데 이 애가 오면 자기도 잘 보이지  
도 않고.. 이거 투덜텐다 이거야. 나 그런데 그게 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10201 # 다: 이르케 나가다가 저 꼬트머리에 저 하나가 저:쪼그로 꼬트머리게 망내가 저러  
케 데이쓰니 긴칸 지 에미가 볼텐 기부니 조치안타 이그야{다 이렇게 나가다가 저 꼬트  
머리에 저 하나가 저쪽으로 꼬트머리에 막내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제 어미가  
볼 때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거야.}

- 10201 # 그래서 마:누라가 그거를 뎌 한 두:번 들꾸나선 이걸 차라리 읍새든 전부다 읍새 든지 저걸 그러치 아느든 이걸 이쪽꺼 이 사진 쿵:걸 따:버리구 일루 끄러 올려서 이쭈 그루 땅기든지 해애지 저거 안텐다{그래서 마:누라가 그것을 뎌, 한두 번 들고 나서는 이것을 차라리 없애면 전부다 없애든지 저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쪽 것 이 사진 큰 것을 떼어버리고 여기로 끌어 올려서 이쪽으로 당기든지 해야지 저거 안 된다.}
- 10201 # 그 누가 오든 저기 게:는 그러치 아:느 우리가 그러치 아는 나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형거다 그래서 설명을 해 쥘:는대도 참 뉘이 어찌구러니까 이 아 마음쏘그로 나는 조카따리테서 이러케 허능거아니냐 이르케 생가커능거 가따이거야{그 누가 오면 저기, 게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나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참 뉘이, 어찌구 그러니까. 아, 마음속으로 나는 조카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야.}
- 10201 # 우리 마:누라가 저걸 어트게 다시 험씨다 다시 험씨다 기 근데 무 이진 다 따:버리 지 어트거나 다른데루 왕기구 이걸허야데는데 이 내:가 근데 나는 또 카메라를가지구 뎡 겨요 내가 그 여:행을 가구 그러므는 기냥 사지를 마니찌거 오기때메 이 사지를 내가 꽤 조아하거드뇨 {우리 마:누라가 저걸 어떻게 다시 함시다 다시 함시다 그, 근데 뉘 이진 다 떼어버리지 어떡하냐? 다른 데로 옮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내가 그런데 나는 또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내가. 그 여행을 가고 그러면 그냥 사진을 많이 찍어오기 때문에 이 사진을 내가 꽤 좋아하거드뇨.}
- 10201 @ 이 큰사지를 요 미테다가 요쭈그로하면 어떠케썸니까{이 큰 사진을 요 밑에다가 요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10201 # 게 이게 저거는 또 이버네 찌근{게, 이게, 저거는 또 이번에 찍은} @ 아니 풍경 인는데 {아니, 풍경 있는 데}
- 10201 # 네 아이 글썸 이 풍경이든 이거는 또 이 조합짱이 금강사네가서 인제 이걸 사다 줘:써 그래서 이걸 또 거기다 아 지:가와서 거기다 꼬:자쓰든 조케따고 또 그래노코 가쓰 니 이걸 또 그르케 안헐쭈도 업:꾸 {네. 아이 글썸 이 풍경이면, 이것은 또, 이, 조합장이 금강산에 가서 인제 이걸 사다주었어. 그래서 이걸 또 거기다 아, 자기가 와서 거기다 꽃았으면 좋겠다고 또 그래놓고 갔으니 이걸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 10201 # 그래서 거기다 거러와:썸요 그래 인제 저거를 내 그래서 고거를 따:구 고걸 떠구 저: 사지를 이르케 오구 (@ 하나씩 다 여프로 다 뎡기면)응 뎡기든 그르든 요글 덜 요글 안머글꺼 가타{그래서 거기다 걸어놓았어요. 그래 인제 저것을, 내 그래서 그것을 떼고, 그것을 떼고 저 사진을 이렇게 오고 ({@ 하나씩 다 옆으로 다 당기면})응 당기면, 그러면 욱을 덜, 욱을 안 먹을 것 같아}
- 10201 @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방법{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방법} # 방법일꺼바게 업썸 꺼 가태요 아이 나 우스워서{방법일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나 우스워서}
- 10201 # 게 이제 이 자시글 이제 오래 조래 길르다보니까 참 기게 무어 열:쏘꼬락 깨무러 서 뉘 아나폰 손꼬락 업따구 그러지만 옰 옰:날노인네드리 만는 말쓰미거드뇨 {그래 이제 이, 자식을 이제 오래 저렇게 기르다 보니까 참 그게 뉘 열 손가락 깨물어서 뉘,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지만 옰, 옛날 노인네들이 맞는 말썸이거드뇨.}
- 10201 @ 경허를 통해서나온 마리니까요{경험 통해서 나온 말이니까요.} # 네 근데두 지금 이제 나는 또 인제 그 참 아까두 내가 쪼끔 이상하다 그래썸니다마는 {예, 그런데도 지금 이제, 나는 또 인제 그, 참, 아까도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랬습시다만}

10201 # 난 그 그렇길 가출길 전:부 간취야 텐다허는 애:기를 항상 주장하는 사라미거드노  
 게 예이와 도덕 이렇 거 전:부 내가 무슨 머 이 참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나온 사  
 라른 아니지만{난 그, 그런 것을, 갓출 것을 전부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애기를 항상 주  
 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예이와 무슨 도덕, 전부 내가 무슨, 뭐, 이, 참,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10201 # 게도 한:문서당엘 내가 그이 참 중악교 묻까는바라메 그래도 한 삼::년 땡겨서 그  
 래도 하:나글 좀 해뜨랜꾸 {그래도 한문서당에를, 내가 그, 이, 참, 중학교를 못가는 바람  
 에 그래도 한 삼년 땡겨서 그래도 한학을 좀 했더랬고}

10201 # 지끔두 내가 좀 이 저 이 서예를 요즘 소지리 이썬요 그래서 이 저 웬만항건 좀  
 내가 쓰구 쓰지 그러나 지금은 아주 바 바쁘구 그르케 안하지만{지금도 내가 좀 이, 저,  
 이, 서예에 요즘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 웬만한 건 좀 내가 쓰고 쓰지. 그러나 지  
 금은 아주 바빠서 그렇게 안 하지만}

10201 # 그저넌 좀 그걸뚜 좀 지베서두 좀 연:스블 허구 그래썬요 그래서 그 재:료도 여태  
 인꾸 그런데{그전에는 좀, 그것도 좀 집에서 좀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  
 료도 여태 있고 그런데}

10201 # 에 이게 저 이 두 자식뜨를 길르다보니까 인제 그 오래이조래이 나오능거구 뭐  
 어쩔썬 업는 저걸또 마:는데 {에, 이게 저, 이, 두, 자식들을 기르다 보니까 인제 그 오롱  
 이조롱이 나오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많은데}

10201 # 하 이그 그 참 크이 크내:는 하나가 난 그래두 말짜시기다 그르니까 그 이 아주  
 게:헌 텐 이제 하라버지산 인는데 그거 저거해서 그냥 이 그 장남한트루 아주 등끼를 내  
 줘:빠리구 그 니가 니가 이 언제까지나 니가 팔리헐꺼다{하 이그 그, 참, 크이, 큰애는  
 하나가, 나는 그래도 말자식이다. 그러니까 그, 이, 아주 개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남  
 긴) 산(이) 있는데, 그거 저거해서 그냥 이 그, 장남한테로 아주 등기를 내주어버리고, 그  
 녀가 이 언제까지나 너가 관리할 것이다.}

10201 # (아주머니): 다녀오겜썬니다{다녀 오겠습니다.} @ 예예 다녀오썬지요{예, 다녀 오  
 시지요.}

10201 # 아 영:시리헌테 열라개:썬요?{아, 영실이에게 연락했어요. # (아주머니): 아:치메  
 간따가 못:간대요 .더우시면 에어컨트르드리고요{아침에 갔다가 못 간대요. 더우시면 에  
 어컨 틀어드리고요.}

10201 @ 아니 땡:썬니다 {아니, 땡썬니다.} # 혼자가{혼자 가?}

10201 # 혼자갈꺼야? 혼자 갈꺼야.}

10201 @ 어디루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10201 # 일싼노{일산요.}

10201 @ (조사보조원): 제가 모셔다 드리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10201 # 그러커드라구요 거기서 근데 윈 이게 에 공식그루 허재믄 여:자썬게서 날짜를 잠  
 능거거드노 게서 날짜는 여자썬게서 잠는겁니다 그래뜨니{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윈, 이게, 에, 공식으로 하자면 여자 썬에서 날짜를 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  
 짜는 여자 썬에서 잠는 겁니다. 그랬더니}

10201 # 아이 나는 그저 머 그렇길 잘 몰르고 허니까 그저 다: 인제 마타서 허썬썬요 그래  
 근데 그 색:썬 어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 나는 그저 뭐 그런 길 잘 모르고 하니까 그  
 저 다 인제 말아서 하썬시오 그래. 그런데 그 색:시 어머, 아버지 어머니가}

- 10201 # 그 동갑내드라구 인제 뭐 쉬:닐곱싸리니 뭐 나하구는 이에 거리가 멀:지 우리 크 나이가 쉼:두사리니까 이 인제 만찌를 안능거야 {그 동갑네기더라고. 인제 뭐 쉼일곱 살 이니 뭐 나와는 이에, 거리가 멀지. 우리 큰아이가 쉼두 살이니까. 이, 인제 맞지를 앓는 거야.}
- 10201 # 그래서 그래서 하두 어찌웁:든 사두는 사두니지 뭐 색:씨 엄마는 엄마구 그래 게 인제 그르케 텐:는데 우리 크나이 이제 둘:째애이가 그런시그루 겨로느러구 인제 망:내가 그르케 텐는데 크나이는 또 그르케 겨로늘 어렵게 헨는데 딸:만 또 두를나코 그만두능거 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찌되엇든 사돈은 사돈이지 뭐. 색:시 엄마는 엄마고 그래. 그래 인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 큰 아이, 이제 둘째 아이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인 제 막내가 그렇게 됐는데 큰 아이는 또 그렇게 결혼을 어렵게 헨는데 딸만 또 둘을 낳고 그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 10201 # 참 내가 그 인제 게 가정애:기하구 참 개인애:기바께 안 데는데 아이 세상에 그림 장:소니라능게 너 사 나메지베 와서 소:늘 꼬너놀썩때는 애:기 아니냐 {참, 내가 그 인 제, 그래, 가정 애기하고 참 개인 애기밖에 안 되는데 아이, 세상에 그림 장손이라는 게, 너 사, 남의 집에 와서 손을 꿰어 놓겠다는 애기 아니냐?}
- 10201 # 마:누라한테 이 야:다늘철썌요 다이 인제 진짜 어트게 메누리 하나두 거느리질 모 터냐 그 혼:썌를 내야지 그 나메집에 소:늘 꼬너노:문 어뜨카자는 애:기냐{마누라에게 이 야단을 쳤어요. 다 이 인제, 진짜 어떻게 며느리 하나도 거느리지를 못 하나? 그 혼썌를 내야지 그 남의 집의 손을 꿰어 놓으면 어떡하자는 애기냐?}
- 10201 # 그 인제 지금 그 세:상이 그런 노를걸 어트게 다 둘 이상을 안니는데 어트가냐 두 리 쉼넨저 다서슬나트래도 아드를 날때꺼진 나:야지 무신소리냐 마리아 아이 나메집 소: 늘 꼬너노면 어트카제는 애기냐 장 장:소니{그 인제 지금 그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해. 다 둘 이상을 안 낳는데 어떡하냐? 둘이 셋, 넷, 저, 다섯을 낳더라도 아들을 낳 때까지는 낳아야지 무슨 소리냐 말이야? 아 이, 남의 집 손을 꿰어 놓으면 어떡하자는 애기냐 장, 장손이.}
- 10201 # 게 인쟁 제 그 마누라가 가서 애:기를 헨:네 야 지금 아버지가 펄펄뛰고 야:다니 다 이 둘:만나쿠 너이들 안난다그랜따구 그냥 야:단법썌긴데 마:니레 안나:면 아주 쳐다 도 안본다구 그러는데 너이 어트게 할꺼냐{그래 인제 그 마누라가 가서 애기를 헨네. 야, 지금 아버지가 펄펄 뛰고 야단이다. 이 둘만 낳고 너희들 안 낳는다 그랬다고 그냥 야단법석인데, 만일에 안 낳으면 아주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는데 너희 어떻게 할 것이 냐?}
- 10201 # 응 대:가 꼬너지는데 그럼 내가 근대 두:째아드리 아드를 쳐다드를 나쓰니까 그럼 둘:째아드리 드러와야 썌꺼아니냐 에 이런애:기야{응, 대가 꿰어지는데 그럼 내가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들을, 첫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럼 둘째 아들이 들어와야 썌 것 아니냐? 에, 이런 애기야.}
- 10201 # 그:래뜨니 기어꼬 머 어트게 해가지고 어디가서 머 보구 그니깐 이 임:시니 데프 는 임신데자마자 그거 보능게 이때요 그제 영등포 어디 무슨 산부인파에서 그걸 허는데 {그랬더니 기어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머 뭐 보고. 그러니까 이, 임신이 되면 은 임신 되자마자 그거 보는 게 있대요. 그제 영등포 어디 무슨 산부인파에서 그걸 하는 데}
- 10201 # 거:기서 그걸 땅 만썌서 해주머는 그 저이 거기 와서 애:를 나야텐데요 다른데로

가서 나쁜 안데요 비:미리래능구먼{거기서 그걸 딱 맞춰서 해주면 그, 저이, 거기 와서 애를 낳아야 된대요. 다른 데로 가서 낳으면 안 되요. 비밀이라능구만.}

10201 # 게 그걸 꼭 지키는 대는 약썸글 허고 그걸 봐준대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애:를 낳 때 영:등포가서 나:씨 이 영:등포 가서 어트게 애:를 난냐 이거 먼데{그래 그걸 꼭 지키는 약속을 하고 그걸 봐 준대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애를 낳을 때 영등포러 가서 낳았어. 이, 영등포 가서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 먼데}

10201 # 아 그런 머:가 이씨서 그래따 그러능거야 그래 마누라가 아무 소리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능거야 머 그냥 애:드리 허능걸 일리리 간 간여할려고 그러르냐 아 그니까 아드를 낳따 그래 마냐게 그 아이를 나:쁜 내가 메겨살리마 그래꺼든 두이 둘, 썬 나능거는 너이들헌데 부담 안주마 내가 그 그랜꺼든{아, 그런 뭐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래 마누라가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뭐 그냥 애들이 하는 걸 일일이 간여하려고 그러느냐? 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그래. 만약에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먹여 살리마 그랬거든. 둘 셋 낳는 거는 너희들헌데 부담 안 주마 내가 그랬거든.}

10201 # 마누라한테 그러케 애:길 허라고 그래서 인제 그 게 인제 지금 개:가 인제 이 중학교 삼학년니에요 게 고등학교를 지금 인제 내녀네 간데는데 고노미 공부도 잘허구 참즈이 누나를 달머서 그런지 공부도 잘허구 애가 그냥 튼튼하게 아주 참 건강하게 잘자라씨 {마누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인제 그게 인제 지금 개가 인제, 이, 중학교 삼학년니에요. 그래 고등학교를 지금 인제 내년에 간다는데. 그 높이 공부도 잘하고 참 제 누나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고 애가 그냥 튼튼하게 아주 참 건강하게 잘 자랐어.}

10201 @ 잘 뻔네요 또 {잘 되었네요. 또}

10201 # 아 돼:따 듣지:캐서 마미 그냥 참 노이는데 이 크나이 이 둘:째아이네가 이 대하글 묻카가지고 저러케 쫄쫄 매능거야{아, 되었다. 듣직해서 마음이 그냥 참 놓이는데. 이 큰아이, 이, 둘째 아이네가 이 대학을 못 가가지고 저렇게 쫄쫄매는 거야.}

10201 # 나: 거참 근데 개:는 그럴쑈마께 엄능게 기초가 잘못텐때능게 만는 애:기거드노 {나 거참, 그런데 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초가 잘못 되었다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10201 # 이 군대생활 허면서 이 전방으루 이 댕기문서 이게 애 가조글 대리구 댕겅끼때무네{이, 군대 생활 하면서 이, 전방으로 이, 다니면서 이게 애, 가족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10201 # 학교를 이 기냥 일러네도 어느땐 두:번씩 왕기는 수도 이썬판 애:기예요 그니까 그래도 무슨 하귀니 그런 뭐 그파나 이 저 이 처웁 이썬그로 댕기는데 무슨 하귀니 제테루 저거해 뭐 그니까 공불 제대로 모시킨건 틀리몹씨{학교를 이 그냥, 일 년에도 어느땐 두 번씩 옮기는 수도 있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학원이 그런 뭐 금화나 이 저, 이, 철원 이쪽으로 다니는데 무슨 학원이 제대로 저거 해. 뭐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시킨 건 틀림없어.}

10201 # 게 춘치네 나와 가지구 그래두 칠군단 사령부 이썬때 거그 와서 좀 집썬 장만허고 아파트에 드러서서 그때부턴 제 그 애:를 공부시키니 이미 때는 느즌거다 {그래 춘천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칠군단 사령부 있을 때 거기 와서 좀 집 썬 장만하고 아파트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애를 공부시키니 이미 때는 늦은 거다.}

10201 # 그 중학교 그냥 고등학교 그니까 이 이항년 올러올 때서부텀 제 거기서 공부를

하귀네 나가고 공부를 했는데 아 그거가지고는 안텐데능거지{그 중학교 그냥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이학년 올라 올 때서부터 거기서 공부를 학원에 나가고 공부를 했는데 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10201 # 게 대하글 이 서울로 저거 허기위해서 인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뚜 인제 그때 아주 저이 청와대 뒤루 판자지블 어:더가지구 그래가지구 {그때 대학을 이 서울로 저거 하기 위해서 인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집도 인제 그때 아주 저이, 청와대 뒤로 판자 집을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201 # 경북고등학교를 아주 즈 가기로 아주 그러케 맘:먹꼬 고쫓그로 간따 텐는데 아 이 게 경북고등학교 나오기는 나완는데 대아글 못가능거예요{경북고등학교를 아주 가기로 아주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쪽으로 갔다 대었는데 아 이게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대학을 못가는 거예요.}

10201 # 그래가지구 결구근 재:수를 했는데 올해도 또 못까써 게이 장녀넌 시어를 안받치 만 오래시어를 받:는데 안텐데요 그랬따고{그래 가지고 결국은 재수를 했는데 올해도 또 못 갔어. 게이, 장녀에는 시험을 안 봤지만 올해 시험을 봤는데 안 됐대요. 그랬다고}

10201 # 그냥 애:드리 쉬쉬하고 그냥 하라버지가 뭐:라 그런다고 그냥 무신 무 지비도 아 놀려고 그러구 그래요 그서 야 그게 다:가 아니니까 저 이 너이드리 뭐:든지 그냥 허는 니레 열씨미만 허든 데능거니깐{그냥 애들이 쉬쉬하고 그냥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 그냥 무슨 뭐 집에도 안 올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든지 그냥 하는 일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201 # 너이드리 몸 애끼지말구 열씨미해 뭐:든지 학교 안가든 직장을 가든지 뭐래든지 열씨미만허든 거:기에서 뭔가 으:더지능거다{너희들이 몸을 애끼지 말고 열심히 래, 무엇이든지. 학교 안 가면 직장을 가든지 무얼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거다.}

10201 # 게 내가 그애:길 허능거예요 그 손주를 데리고 지금 인제 나이가 스무살 스물 한 사리 텐 짜나요 {그때 내가 그 애: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자를 데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스무살, 스물한 살이 되었잖아요?}

10201 # 느이 아버지가 켈 고등 대하글 떠러져가지구 인제 그 문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구 대하글 저걸 시허물 친는데 떠러져썩요{너희 아버지가 켈, 고등,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인제 그 문산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을 저걸,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10201 # 그래서 이누미 지빌 안드러오구 빌:빌허길레 금:촌 데리구나가서 내가 손:목시계를 사주었꺼덩 그때 사실 우리 형퍼네 손목씨게 애들 사주고 그털 형퍼니 못뻔썩요.{그래서 이놈이 집을 안 들어 오고 빌빌하기에 금촌 데리고 나가서 내가 손목시계를 사주었거든. 그때 사실 우리 형편에 손목시계를 애들에게 사주고 그털 형편이 못 되었어요.}

표# 손:목씨계를 사주구 이건 떠러진 기녀미다 [웃으면서] 애:기가 게서 지끔두 그런 애:길 해요 하라버지가 떠러진 기녀므루 시겔사준 애:기를해 애드리 그래서{손목시계를 사주고 이건 떨어진 기념이다. 애기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애:길해요. 할아버지가 떨어진 기념으로 시계를 사준 애기를 해. 애들이 그래서}

10201 # 그 인제 그리구 난는데 지그 인:쳐느로 직장을 나가고 인제 지가 재:수를 난 허라고 크나이가 또 떠러져 인제 그러케 데가지구 인제 크나이는 아연정 저(즈)이 그어 저 담당 이 문산고등학교 다니미 영 삼사등을 해:썩요 문산고등학교에서{그 이제, 그리고 났는데 지금 인천으로 직장을 나가고 인제 제가 재수를, 난 하라고. 큰아이가 또 떨어져.



인제 그렇게 되가지고 인제 큰아이는 아연정 저의 담당, 이 문산 고등학교 담임이 영, 삼사등을 했어요. 문산 고등학교에서}

10201 #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기간 이 고:등학교를 서울로 칠라구 그랜따구요 근데도 안대 그래서 머 결국 모:터는데 이 대학뚜 몸따가 몸까 그래 혈:쭈업씨 인제 둘:째는 인제 아주 기어코 해야 데간따 맘 머건는데 기어코 안데드라구요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떨쭈업씨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를 서울로 치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뭐 결국 못 하는데. 이 대학도 못 따가, 못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제 둘째는 인제, 아주 기어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어코 안 되더라고요. 또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10201 # 너 이 재:술 해라 어트커든지 재:술해서 대하글 가라 그래뜨니 아라씨요 어찌구 그러드니 신문들보니까 머 어디 미 인:처네 어디 무신 머 직장이 이때요 그래따구 쪼차 가드라구{너 이, 재수를 해라. 어떡하든지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어찌고 그러더니 신문을 보니까 뭐 어디 인천에 어디, 무슨, 뭐, 직장이 있대요. 그랬다고 쫓아가더라고.}

10201 # 게 너 이 야 임마 누가 재:수허랜지 직장가랜냐 그래뜨니 아 이제 내:가 아라서 다 하니까 걱정마시래{그래 너, 이, 야 이놈아, 누가 재수하려했지 직장 가려했냐? 그랬더니, 아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걱정 마시래.}

10201 # 그러드니 가서 한 일런 어트게 와따가따하구 그르드니 군대를 제대허드라구요 저 저 이 지원늘허드라고 이왕 군대간따올꺼면 간따와야텐다구{그러더니 가서 한 일년 어떻게 왔다갔다 하고 그러더니 군대를 제대하더라고요 저. 저, 이, 지원을 하더라고. 이왕 군대 갔다 올 거면 갔다 와야 된다고.}

10201 # 그러니 이게 그 인제 그 군 제 저,이 논산훈련소예를 간는데 거기서 다시 도라와서 이 저이 양평으로 와씨요 그 왜그러냐 해뜨니 그냥 그날루 도라서 와때능거야 그래 이 하:사관학교 자추리텐때능거야{그러니이 이게 그, 군, 제, 저, 이, 논산 훈련소예를 갔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 저, 이, 양평으로 왔어요.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그날로 돌아서 왔다는 거야. 그래 이, 저, 하사관 학교로 차출이 됐다는 거야.}

10201 # 이 그런데 어딘냐 그래뜨니 그렇게 이때요 논산훈련소에서 아예 하:사관학교를 인제 이 학생드를 모지블해서 하:사관학교를 보낸다 이거야 양평에 인는 게 양:평에 가니까 하:사관학교가 이뜨라구요{이, 그런데 어디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논산 훈련소에서 아예 하사관 학교를, 인제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하사관 학교를 보낸다 이거야. 양평에 있는. 그래 양평에 가니까 하사관 학교가 있더라고요.}

10201 # 거:길 나와서 게 인제 지:가 근 저걸현거니깐 가:니깐 홀려니 너무 시어가지구 아:주 무섭게 홀려늘허드라구요 그냥 무슨 저 이 증말 군대정시니 드러가서 면:회를 한번 가뜨니 그냥 차:렷장세로 그냥 뺄뺄타게 무슨 그 인:형거치 홀려늘 시켜나씨요 애:를{거기를 나와서 그래 인제 제가 근, 저거를 한 것이니까. (그곳으로) 가니까 훈련이 너무 세어가지고 아주 무섭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저, 이, 정말 군대 정신이 들어가서. 면회를 한번 갔더니 그냥 차렷 자세로 그냥 뺄뺄하게 무슨 그 인형같이 훈련을 시켜놔왔어요, 애를.}

10201 # 아유 야 이거 오이러 하:사 저 사:과낙폰 그러치 안태요 자유가 일꾸 그런데 하:사관학폰 그러케 엄허머데는구뇨 그래 인제 그거 조림 만는데 이 육꾼본부에 저 추소령이라고 아:는 사라미 하나 이써서 그 그런 이리 인는데 그 쯔 어트게 쯔 웬마난 자리루

좀 배치해줘쓰믄 조케따 그래쓰니 제테루 저{아유 야, 이거 오히려 하사, 저, 사관학교는 그렇지 않대요. 자유가 있고 그런데. 하사관 학교는 그렇게 엄하다는군요. 그래 인제 그거 졸업 맞는데 이, 육군 본부에 저 추 소령이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쫘 어떻게 좀 웬만한 자리로 좀 배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대로 저}

10201 # 조러븐 맡게 텐:는데. 게서 요기 저 이 파주로 인제 이 떠러트려드리게요 그래 그리커라구 그래요 기갑 기갑녀다느로해서 그게 근데 이 보:병이니까 기갑녀다는 안:텐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기 저, 이, 파주로 인제 이, 떨어뜨려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 요 기갑, 기갑여단으로 해서. 그게 그런데 이 보병이니까 기갑여단은 안 된다 그래서}

10201 # 그 그 또 일개대대가 이때요 보:병이 그 인제 거:길 완는데 게 하:살달구 쳐오메 와서 이 이 이제 이 허니깐 애 그 쫘병드리 마:를 안듣뜨래요 하:살달구 완는데두 인제 그 신뻐이하사라해서 하:사관학교출썬 드른 고참 병:장 이런 애:드리 마:를안듣 뜨래능거야 그래서 이 {그, 그, 또 일개 대대가 있대요, 보병이. 그 인제, 거기로 왔는데 그래 하사를 달고 처음에 와서 이, 이, 이제 이, 하니까 애, 그 쫘병들이 말을 안 듣더래요. 하사를 달고 왔는데도 인제 그 신참 하사라고 해서 하사관 학교 출신들은, 고참 병장 이런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10201 # 그땐 인제 중대장 대신 그니깐 하:사관학교에 나와쓰니가는 조:교 노르슨 아주 기가매키게허능거지 배운대로 고대로 인제 애:드를 가리키니까{그 때는 이제, 중대장 대신, 그러니까 하사관 학교를 나왔으니까 조교 노릇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배운대로 그대로 인제 애들을 가르치니까.}

10201 # 그 인제 가리키는데 그거 중대장이 그거 인제 그 저거허라 그러고 중대장이 자리를 빈:세에 아 이누미 으:트게 그냥 장나늘허구 마:를 안듣꾸 그르는지 이 그 저이 불러 내가지구 인제 아마 한대 주어바간나바{그, 인제 가르치는데 그거, 중대장이 그거, 인제 저거 하라고 그러고 중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 이놈이 어떻게 그냥 장난을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는지 이, 그, 저, 이, 불러내어가지고 인제 아마 한 대 쥐어 박았나봐.}

10201 # 그 어트게 때링게 막때기로 때링게 어트게 귀가 어트게 머 잘못뻔때나 아 뭐 이게 말썽이 데가지구 이제 이 부모네드리 부델 차자오고 야:다니 나때능거야 {그, 어떻게 때린 게 막대기로 때린 게 어떻게 귀가 어떻게 뭐 잘 못되었다나. 아, 뭐 이게 말썽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부모네들이 부대를 찾아오고 야단이 났다는 거야.}

10201 # 근데 애:가 점 그 그 그 이 기갑 여단에서 그 애:들 그 아주 좀 똑똑허다 이놈 애:는 그냥 저거허기 아깝따 해가지구 보병학교를 보내썬요 보병학교를 지원해가 지워늘 해가지구 {그런데 애가 쫘 그, 그, 그, 이 기갑 여단에서 그 애들 그 아주 좀 똑똑하다. 이놈 애는 그냥 저거하기 아깝다 해가지고 보병학교를 보냈어요. 보병학교를 지원해가, 지원을 해가지고.}

10201 # 게 나는 안텐다 처메와서 지배와서 그러길래 보병학교 임마 가믄 그 말뚝박고 영문 모태 그니깐 나와서 대:하글가야지 인마 그까진 군대생활을 해가지고테냐{그래 나는 안 된다. 처음에 와서 집에 와서 그러기에. 보병학교 이놈아 가면 그 말뚝박고 영 못, 못 해. 그러니까 나와서 대학을 가야지 이놈아 그까짓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되냐?}

10201 # 아 근데 머 이 자꾸 그러케 이 대대장두 그러구 인제 이 자꾸 그 추쳐늘 허는데 어트킴니까 이 한버는 여:단장이 불러가지고 글 그러케 해라 너 이 지금 말썽이 생겼는

데 널 거기까든 팬찬타 그러믄선 가:라 그러드레지 머야 {아 그런데 뭐, 이, 자꾸 그렇게 이, 대대장도 그러고 인제 이, 자꾸 그 추천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한 번은 여단장이 불러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라. 너 이, 지금 말썽이 생겼는데 너가 거기 가면 팬찬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더라고 하지 뭐야.}

10201 # 게 또 거:길 간는데 아 그래 저 육꾼 저 이 보병학교 저 광:주를 가씨요 가 그래 가지구 차출이 돼:서{그래 또, 거기를 갔는데 아, 그래서 육군 저, 이, 보병학교 저 광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차출이 되어서.}

10201 @ 장교되는 보병학교지요{장교되는 보병학교지요?} # 네 그래가지구그게 육꾼단사령부에서 시어를 받는데 육꾼단사령부에서 그게 학끼기 데가지구 거길 보병학교를 보냈드라고요{예, 그래가지고 그게, 6군단사령부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6군단사령부에서 그게 합격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보병학교를 보냈더라고요.}

10201 # 그래가지구 장:교가 텐거예요 웨 그냥 쫓 쫓:병으루 기냥 제 입때를 헐:는데 거기서부터 어트케 데:가지구 {그래가지고, 장교가 된 거예요. 웨, 그냥. 줄, 줄병으로 그냥 제, 입대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어가지고.}

10201 # 게가지구 이따가 나중에 여기 저 배길려다네 요기 그니깐 문산서부터 저 이 좀 그니깐 김포 여 이 고양시 요쫓그로 요 이 이 지금 통일동산 인는데 요기가 배길려달 여단 구역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파주시 아니까 네{그래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여기 저 101여단에 요기 그러니까 문산서부터 저, 이, 좀, 그러니까 김포 여, 이, 고양시 이쪽으로 요, 이, 이 지금 통일동산 있는데 여기가 백일연달, 여단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파주시 아니까?}

10201 # 이 이쫓그로 와서 해필 중대장으로 거길 와뜨라구 그래서 이 심지어 우리 지비서 떠:글 다 그냥 인제 파월추성 나리믄 뜨 이 떠글 해가구 이 슬:딸그믐 그믐 그믐께는 가래떠글 빼서 이 방가마니씩 해서 가서 중대애:들 끄려메기구 인제 기 그렇거는 어렵지 아는데 {이, 이쪽으로 와서 하필 중대장으로 거기를 왔더라고. 그래서 이, 심지어 우리집에서 떡을 다 그냥, 인제, 팔월 추석날이면 떡을 해 가고 선달그믐, 그믐께는 가래떡을 빼서, 이, 반 가마씩 해서 가서 중대 애들 끓여 먹이고 인제,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은데.}

10201 # 하여튼 니가 그 말썽부리지양케 잘 그 중대장 근무가 쥔: 심들대요 가여워서 까딱 잘못타면 기냥 잘못떼구 그러치 아느른 거기서 그냥 점수가 왁 저거 데가지구 안테구 그니깐{하여튼 네가 그 말썽부리지 않게 잘 그. 중대장 근무가 제일 힘들대요. 가여워서 까딱 잘 못하면 그냥 잘 못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점수가 왁, 저거 되어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10201 # 거기서두 여단장이 그 벼:리 하난데 이사라미 일구 인제 이 배길려단 단장이 진: 그블 시켜야데는데 안테드레능거예요 이 보병학교 출신가지구는 아냐 육싸출씨니 우선권이 일끼때무네 게 그런 얘기를 허먼선 너 여기서 이 안테니까 이 포천 저 이 육꾼다느루 가라 {거기서도 여단장이 그 별이 하난데 이 사람이 1, 9 인제 이 101여단 단장이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보병학교 출신 가지고는 아냐 육사출신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 여기서 이, 안 되니까 이, 포천 저 이 6군단으로 가라.}

10201 # 육꾼단 군단사령부로 가라 그래가지고 군단사령부로 드러가가지고 거기서 인제 진그비 데:긴 텐:는데 {육꾼단 군단사령부로 가라. 그래가지고 군단사령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급이 되긴 되었는데,}

- 10201 # 거:기서 고만 이 정 정보특끼루다 특끼를 바꿔버려따그래 보:병특끼에서 그니깐 정:보특끼가 데니깐 진그비 안데능거야{거기서 그만 이, 정보 특기로 특끼를 바꿔버렸다 고 그래, 보병 특기에서. 그러니까 정보 특기가 되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야.}
- 10201 # 이 정보 특기는 그니깐 개:가 그래서 엘지에 지끔 드러가 인능거지만 그 정:보 트키는 이 전:부니면서 이:부게 저 이 드나들구허는 이런 정보를 전:부 종하패서 저걸 허기 때메 군단사령부에서 그걸 맨:날 그냥 빵까아네서 그거만 저거로 연:구허구 그러니까{이 정보 특기는 그러니까 개가 그래서 엘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 정보 특기는 이 전분이면서 이북에 저, 이, 드나들고 하는 이런 정보를 전부 종합해서 저걸 하기 때문에 군단 사령부에서 그걸 늘 그냥 병커 안에서 그것만 저걸로 연구하고 그러니까.}
- 10201 # 이게 그냥 그 이 거기 이따가 나중에 거 이 또 이 육군대학까지 거기서 이 육군 대학 조립만꼬 또 인제 그 정보통신대학 나오구 이 전부 해:가지군 또 칠군다늘 가서 그 리기 일따가 인제{이게 그냥 그 이,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그, 이, 또, 이, 육군대학가서 거기서 이 육군대학 졸업 말고 또 인제 그 정보 통신대학 나오고 이 전부 해가지고는 또 7군단을 가서 그렇게 있다가 인제}
- 10201 # 인제 거기서 이 칠군다네서두 제 일버느루 신청이 올라간데 그제 체꾸에구슬랑 이:버니 당선 저 이 중령이 데면서두 일버는 중령이 안데드래 그 위:니니 뭐냐 하니깐 정:보특키니까 그래 정:보는 정보 요원 중에서만 또 거기서 남버가 이제 고참수니 인끼 때무네 {인제 거기서 이, 7군단에서도 제 일번으로 신청이 올라갔는데 그제 체크하여서 2번이 당선 저, 이, 중령이 되면서도 일번은 중령이 안 되더라.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깐 정보특기니까 그래. 정보는 정보 요원 중에서만 또 거기서 넘버가 이제 고참 순이 있기 때문에.}
- 10201 # 이 또 안테데는 겁니다 그니깐 제가 화:가 나니깐 그냥 에이 고만두자 그 래:니 고생하고 군대생활만 헐게 뭐인냐{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니까 에이, 그만 두자. 그 괜히 고생하고 군대 생활만 할 게 뭐 있냐?}
- 10201 # 허다모테 안테든 나와서 예비군 중대장을 해머거도 그까지꺼 그때 인제 그니깐 애:가 이시빌년 땀깨워린가 해쓰니깐 연:그든 타먹게 데니깐 에이 이견 나온다 그래가지구 그냥 나와버려썬요 그러자 인제{하다못해 안 되면 나와서 예비군 중대장을 해먹어도 그까짓꺼. 그때 인제 그러니까 애가 이십일 년 몇 개월인가 했으니까 연금은 타 먹게 되니까 에이, 이견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 10201 # 인제 어든 그 저 이 부대장 가치인든 부대장이 애:길해가지구 엘지 거기에 시험틀 봐라 거기 보르는 그 좀 저거해줄 싸라미 이쓰니깐 봐:라 했는데 그 정보트키 이걸루다가해서 시험틀받는데 거기서 돼:가지구 애:가 지금 직책이 이 국방담당 인제 지끔 팀:장으루 지금 이썬요 엘지에{이제 어떤 그, 저, 이 부대장, 같이 있던 부대장이 애기를 해가지고 엘지 거기에 시험을 봐라. 거기 보면 그 좀 저거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봐라 했는데 그 정보 특기 그것으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되여가지고 애가 지금 직책이 이 국방담당 인제 지금 팀장으로 지금 있어요. 엘지에} @ 결국 그 그썬글 {결국 그 썬글}
- 10201 # 네 그래서 결국근 그거 국방담당 정보요원으로 그러니까 정보계통이야 엘지에 정보계통 그니깐 전:체 대한민구게 정보를 다: 캐치해구 무슨 강나 다른 나라꺼까지두 해:야 텐데요 그니깐{예, 그래서 결국은 그거 국방담당 정보요원으로. 그러니까 정보계통이야, 엘지에 정보계통.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 캐치하고 무슨 각 나(라), 다른 나라 것까지도 해야 된데요. 그러니까}

- 10201 # 엘지 그 개인 회사에 뭐 그런거 이 허나 했쓰니 거기서도 무슨 공:사가 어디 무슨 떠러지구 머 어디 무슨 뭐 어 별랑걸 다: 인제 캐칠해 정보부서 그거 인제 어 이걸 정부에 알려줘야 텐데요 그래서 그게 무척 중요헌 저거다 그래서 트키나 팀:장이 데가지구 그니깐 소령쫘 해쓰니까 아마 팀장자리를 켜:나봐요{엘지 그 개인 회사인데 뭐 그런거를 하나 했더니. 거기서도 무슨 공:사가 어디 무슨 떨어지고 뭐 어디 무슨 뭐 거 별난걸 다 인제 캐치를 해 정보부서 그거 인제 어, 이걸 정부에 알려주어야 된데요. 그래서 그게 무척 중요한 저거다. 그래서 특히나 팀장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령쫘 했으니까 아마 팀장 자리를 주었나봐요} @ 그런 사람 구아기가 어렵쪄요 민간 회사에서{그런 사람 구아기가 어렵쪄요 민간회사에서}
- 10201 # 에 그런데 그 지금 거기 팀:장을 하면서 상다이 힘들텐디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래 쓰니{에 그런데 그 지금 거기 팀장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 10201 # 거기에 지금 드려오는 그 지권드리 보:통 수주니 아닙니다 이거야{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그 직원들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야.}
- 10201 # 대:학또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만 오는데 이견 머 머리드리 다 천재드리 오는데 그걸 부하로 데리고 이썰 이썰래니깐 증말 힘들대 군대견저 아나서 무 심들다 이거야{대:학도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만 오는데 이견 뭐 머리들이 다 천재들이 오는데 그걸 부하로 데리고 있으려니까 정말 힘들대. 군대 같지 않아서 무(척) 힘들다 이거야.}
- 10201 # 허 그 물론 그를꺼다 이거야 그니깐 내:가 거기에 모버를 보여야 테는데 이거 참 백하든 바를 새가면선 혼자서 그냥 허구 그냥 그 아마 참 노려기 대:다년거 가태요{허, 그 물론 그럴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참 특하면 밥을 새가면서 혼자서 그냥 하고 그냥. 그 아마 참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 10201 # 게도 거기서 인정을 바다서 거기서 또 아, 또 자란다고 인제 이런 소릴듣꼬 그니깐 개가 그런 저거는 이썰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그래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또 아, 또 잘한다고 인제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개가 그런 저거는 있어.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 10201 @ 그래도 결국은 잘 돼:쑤요{그래도 결국은 잘 됐쑤요}
- 10201 # 네 지금 잘 땡거예요 지금 그 엘지 지금 남산미테 그 엘지 그 그 저 본부에서 이쓰니 모:든 저걸 정보 파아글 해서 {네, 지금 잘 된 거예요. 지금 그 엘지 지금 남산 밑에 그 엘지 그 본부에서 있으니 모든 저걸 정보 파악을 해서}
- 10201 @ 심장부를 차지하고{심장부를 차지하고} # 각 부대로 인제 이르게 내려보내주구 인제 각 티프로 보내주고 허니깐 그냥 상:당히 중요헌 자리 가태요 가마:니 보니깐{각 부대로 인제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인제 각 팀으로 보내주고 하니까. 그냥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 그러쑤니다 예{그렇쑤니다. 예}
- 10201 # 인제 그게 인능거구 인제 다:만 내가 평생을 사라나가므선 그 참 기 애: 내 아이 드른 이제 그러케 그냥 그럭저럭 푸러전는데{인제 그게 있는 거고. 인제 다만 내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참, 그 애, 내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풀어졌는데}
- 10201 # 게 인제 용남매가 텡거는 자식 이기 내 망내아우가 어떡허거다가 인제 그 저 지 쑤 이 그저 한남동{그래 인제 6남매가 된 것은는 자식 이기, 내 막내아우가 어떡하다가 인제 그, 저, 지금 이, 그 저, 한남동}
- 10201 # 계:가 그 이 저걸 해쑤요 이 처:옴에는 그 이{개가 그 이, 저걸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

## (9) 동생 일가

10201 # 그저넌 나:지오 이르케 해가지구 이런 박쓰를 해가지구 나지오를 근 그 박스를 짜서 나지오를 에 들고댕기고 머 이르케 형거 헐짜나요 그렁걸 공장을 똑써메다 한번 내 쫄:뜨니 근 내:가 머 도:니 업꾸 촌누미 여기서 무슨 미신 미 도:니 어딘서 비슬내:서 그 걸 인제 그 공장 그래두 하나 채린대능게 게 쉬웁게 아니거드뇨{그전에는 라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박스를 해가지고 라디오를 그 박스를 짜서 라디오를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한 거 했잖아요? 그런 걸 공장을 똑써메다 한 번 내주었더니 근, 내가 뭐 돈이 없고 촌놈이 여기서 무슨 무슨 돈이 어디 있어. 빚을 내서 그걸 인제 그 공장 그래두 하나 차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201 # 게 서우레 그 똑써메 내 웨:사초니 살:구 이써서 거기서 인제 지블 좀 바깥채를 쫄 이르케해서 혁까니나마 좀 으:더가지고 인제{그래 서울에 그 똑써메 내 외사촌이 살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집을 좀 바깥채를 쫄 이렇게 해서 헛간이나마 좀 얻어가지고 이제}

10201 # 거 가서 사:정을 해가지구 거기다 공장을 내주고는 곧잘해:서 웬다 그러드니 웬:가 이게 어트게 그냥 갑따 어 가주가는 도:늘 제대로 안주니까 이게 우:녕이 안데능거지 {거기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내주고는 곧 잘 해서 된다 그러더니. 웬걸 이게 어떻게 그냥 갖다, 가지고 가는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지.}

10201 # 그니깐 참 허다허다 안데가지구 또 드러머거 그래서 또 도남동으로 가서 허든 텔꺼견따그래서 또 거:기다 또 자릴 내줘:{그러니까 참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또 들어 먹어. 그래서 또 돈암동으로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거기다 또 자릴 내주어.}

10201 # 그르드니 결구근 말썽부리구 그르케 왈따갑따하구 그르드니 돈:만 디리 처갓따버리군 나꺼지 몰쌀게 멘드러 농:거야 이제{그러더니 결국은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러더니 돈만 디리쳐 갖다 버리고는 나까지 못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10201 # 그레논콘 뜨:커니 이 저 이 머 지블 한남동 그땐 아이 저 한남동 그 저 이 이 고 한남동 근:너 그 머 잠시리야 그 무신 그 아:파트 처:음 인제 새로 쥔:꾸 그럴찌기지 웨 그 강근너 거기 저 이 지끔 그 머 저 이 터:미널 생기구 인제 그저네 이거 저 이 종합 터:미널 생기지 아나쎄 이 고속버스{그래 놓고는 떡하니 이, 저, 이, 머, 집을, 한남동 그땐 아, 이, 저 한남동 그, 저, 이, 이, 고, 한남동 건너 그, 머, 잠실이야 그 무슨 그 아파트 처음 인제 새로 짓고 그럴 적이지. 왜 그 강 건너 거기 저, 이, 지금 그, 머, 저, 이, 터미널 생기고 인제 그전에 이, 거, 저, 이, 종합터미널 생기지 않았어? 이, 고속버스}

10201 @ 예 고쪽 현대아파트 인는데 {예, 그쪽 현대 아파트 있는데} # 예

10201 # 그쪽 그거 인제 개발 처:음에 개발할때 거길 지:가 인제 무슨 어느 영 마 머 지블 그 진능걸 마타가지구 드러간다구 그래{그쪽, 그거 인제 개발, 처음에 개발할 때 거기를 자기가 인제 무슨 어느 머 집을 그 짓는 걸 말아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10201 # 그르데 인제 거기에서 어트게 추라버리가 생긴나 보드라구요 그니깐 예:를 드러서 그때만해:두 인제 그걸 인제 마타가지구 드러가능걸{그런데 인제 거기에서 어떻게 트러블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인제 그걸 말아가지고 들어가는 걸}

- 10201 # 그게 인제 경쟁이 이 데가지고 어떤 누미 시길 해가지구 인제 이르케 그테루 술을 먹꼬설랑 저너게 인제 서로 헤:저서 지브루 가는, 기루 헨:는데 그래서 인제 그 그때 두 그 수사를 해:서 참 그 그걸 끝까지 차저쓰른{그게 이제 경쟁이 되어가지고 어떤 놈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대로 술을 먹고서 저녁에 이제 서로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때도 그 수사를 해서 참, 그, 그걸 끝까지 찾았으면}
- 10201 # 하여튼 시:체를 한달마네 차자씨요 시:체를 제 망내를 그 어디냐든 한남동 그 고개서 쭈:: 내려가는 그 개울창 인는데 그 거기 주유소가 한:창 내려가든 주유소가 하나 인는데 그 저쪽 단국대학 바로 마즌 쪼그로{하여튼 그 시체를 한달만에 찾았어요. 시체를. 제 막내를. 그 어디냐 하면 한남동 그 고개에서 쭉 내려가는 그 개울창이 있는데 그 거기 주유소가, 한참 내려가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저쪽 단국대학 바로 맞은쪽으로.}
- 10201 # 그에 거기 그 주유소 바로 미테 무리 홀르는데 거:기다가 지버너:씨요 뚝뚝기 여기 보니간 그걸두 어떤 학생애:드리 엔 물가지구 도랑에서 장난하다가 그 물도 읍꺼드노 사시른{그래 거기 그, 주유소 바로 밑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뚝뚝기 여기. 보니까 그것도 어떤 학생 애들이 물가지고 도랑에서 장난을 하다가, 그 물도 없거든요, 사실은}
- 10201 # 근데 그 그 미트로 떠내려가가지고 그 돌다리거튼 이게 동메이다틸 이케 노코 또 건너가게끔 맨드려전뜨라구요 그 미트로그게{그런데 그, 그 밑으로 떠내려가서 그 돌다리 같은, 이게 돌로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고 또 건너가게끔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밑으로 그게}
- 10201 # 거기서 애:드리 장난허다가 어트게 막패려가는데 이 파리 나왈때능거야 그래서 그 싱:고를해서 인제 차자가지구 결구근 이제 열라기와서 가보니까는 이 여기를 무슨 도:끼 거튼걸루다 기냥 처:뜨라구 참{거기서 애들이 장난을 하다가 어떻게 마구 가는데, 이, 팔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고를 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이, 여기를 무슨 도끼 같은 것으로 그냥 쳤더라고 참}
- 10201 # 게 인제 그 그래가지군 그 가서 그거 인제 그 수사기과네서 나와가지구 인제 전:부 저걸허구 가보니까는 어이가 엄능거야 이에 한:달 똥아늘 차자서 헤메구 그냥 뭐 참이 서울 시:경으루 얼루 땡기문선 그냥 시:체마다 그냥 다: 그냥 행여사망이라 하든 기냥 다가서 시체마다 내가 뒤져씨요{그래 이제 그, 그래서 그 가서 그거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전부 저걸하고 가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이에 한 달 동안을 찾아서 헤메고 그냥 뭐, 참, 이 서울 시경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그냥 시체마다 그냥 다 그냥 행여사망(行旅死亡)이라 하면 그냥 다 가서 시체마다 내가 뒤졌어요.}
- 10201 # 그런데두 몬 영:모차자서 그런데 어트게 그기서 그러케 발겨니텐거야{그런데도 못, 영 못찾았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야.}
- 10201 # 쓰, 자:: 그래서 지 그때인제 어:머니가 기스 인제 생저네 게:실텐데 그 망:내가 그러케 뵈때든 또 인제 어:머니가 크닐날꺼가테{쓰(=헛소리) 자, 그래서 지,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계시, 이제 생전에 계실텐데 그 망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또 이제 어머니기 큰 일 날 것 같아.}
- 10201 # 게 몰:래 그냥 내가 그냥 저거허문서 쉬쉬하문서 그냥 그 장례를 치르구{그래 몰래 그냥 내가 그냥 저것하면서 쉬쉬 하면서 그냥 그 장례를 치르고}

- 10201 # 거 화장장에 이제 갑다내 저걸해서 그만 내뺄리구 그리구 인장 시치미 뚝뚝구 물: 래 이제 지비 드러완는데 그게 뭐: 비:미리 오래감니까 어머니가 어르게 알:게 돼:가지구 참 막 졸:또하시구 그런데 이 뭐 그 이:미 주근 주근 사:라든 어쩔쑤가 엄능거지 어르게 그러니 이제{그 화장장에 이제 갔다가 저걸(=화장을)해서 그만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몰래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 비밀이 오래 감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알게되어서 참, 막 졸도를 하시고 그런데 이, 뭐, 그, 이미 죽은,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 이제}
- 10201 # 기:수레는 사라미 이제 따를 이제 두:를 그래 이제 아드를 게 저걸 팔:개워리 댜:는데 이걸 데리구 이제 천상 그림 어트감니까 우리지브로 드러와라 지브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구 그때 이제 한남동 사란꺼던 이 지브루 내려와가지군 이제 한:지베서 인는데{계수라는 사람이 이제 딸을 이제, 둘을 그래 이제 아들을 그래, 저걸, 팔 개월이 되었는데, 이걸 데리고 이제 천상, 그림 어떡합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한남동에서 살았거든. 이 집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한 집에서 있는데}
- 10201 # 그때 이제 내가 저: 버레 통일로 여페 거 지블 하나 지:꾸 거기 이제 우리 바치익꾸 과수워니 익꾸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배나무두 익꾸 이제 싱거가지구 저걸한다 그러다가 거기 논:바치이쓰니까 거기다 지블 직:꾸 그때 이제{그때 이제 내가 저 별(판)에 통일로 옆에. 거기 집을 하나 짓고 거기 이제 우리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배나무도 있고 이제, 심어서 저걸한다(=과수원을 한다) 그러다가 거기 논밭이 있으니까 거기다 집을 짓고 그때 이제}
- 10201 # 참 아닌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생화리 하도 쫄:리니깐 별: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깐 요동네서두 내가 일:곱뻔을 이사를해썬요 그러니까 한마디루 애:기해서 이제 어:려서 내가 이 아:부지가 처:으메 와쁜집 요기에 가인쁜집 우리 지 아버지 지블 새로 지어서 또 여기와서 이 핵 초등학교는 요기서 댕기구{참, 아닌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생활이 하도 쪼달리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도 내가 일곱 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어려서 내기 이, 아버지가 처음에 왔던 집, 요기에 가 있던 입, 우리 지,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지어서 또 여기 와서 이 학, 초등학교는 요기서 다니고}
- 10201 # 그 이곤까지 웅거시 내가 일곱뻔째 여기 이동네서만{그 이곳까지 온 것이 내가 일곱 번째. 여기 이 동네에서만.}
- 10201 # 그르케 이살해썬요 게 이제 그래가지군 그 아이를, 와선 이제 두달후에 참 애:를 난는데 아드를 나:썬요{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 아이를. 와서는 이제 두 달 후에 참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 10201 # 게 다행이다 씨 이제 종자는 바단꾸나 이제 그럼 거 다 그런데 이제 그 그르키 그엄마가 좀 길러줘쓰면 되는데 세살되니깐 세살된 요만항 거를 그냥 나두구 그냥{그래 다행이다. 씨, 이제 종자는 받았구나. 이제 그럼 그, 다,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그 엄마가 좀 길러 주었으면 되는데, 세 살이 되니까 세 살 된 요만한 것을, 그냥 놓아두고 그냥}
- 10201 # 노쿠 가능 거예요 그 참 우리 마:누라가 그냥 울며불며 어르게 자시글 으 띠어노쿠 가냐{놓고 가는 거예요. 그, 참, 우리 마누라가 그냥 울며불며 어떻게 자식을 으, 떼어놓고 가냐?}
- 10201 # 게 나는 그리 애:길형 게 일곱살만 메겨다오 그러든 내가 데려다가 학포를 너:야



테니깐 일곱살꺼지만 어트게 좀 보살펴다오 그 좀 애:길해라 마누라가 암만 애:기해두 돼요? 안되지 그냥 노코 도망가능 걸 어트케{그래 나는 그리 얘기를 한 것이, 일곱 살만 먹여다오. 그러면 내가 데려다가 학교를 넣어야 되니까. 일곱 살까지만 어떻게 좀 보살펴 다오. 그 좀 얘기를 해라. 마누라가 아무리 얘기해도 돼요? 안 되지. 그냥 놓고 도망하는 것을 어떻게.}

10201 # 게 할쑤업씨 그걸 이제 마타가지구 길르는데 이 둘:째 기지배가 그때 네:사린데 아 그냥 만:날 울:기나하구 그러니깐{그래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말아서 기르는데, 이 둘째 계집애가 그때 네 살인데. 아, 그냥 늘 울기나 하고 그러니까}

10201 # 내가 인제 그냥 왜 너는 울기만허냐 어트게 크내이는 이제좀 애:가 좀 켜차는데 {내가 이제 그냥 왜 너는 울기만 하냐? 어떻게 큰애는 이제 좀 애가 좀 켜찮은데.}

10201 # 크내:두 애:를 나가지곤 우리지베다 떠어논쿠 이썬서 그래 자라기는 우리지베서 자랐꺼든 그러니깐 개:는 인제 정이 드러쓰니깐 저거헌데 이 둘:째기지배는 그냥 저엄마 허구만 이썬서 만:날 울:지뭇야 그냥 게 내가 인제 야:다늘 친구 그래{큰애도 애를 낳아서는 우리 집에다 떼어놓고 있어서. 그래 자라기는 우리 집에서 자랐꺼든. 그러니까 개는 이제 정이 들었으니까 저거헌데(=괜찮은데) 이 둘째 계집애는 그냥 자기 엄마와만 있어서 늘 울지 뭇야. 그냥 그래 내가 이제 야단을 치고 그래}

10201 # 게 할무니 우리어무니가 그 그아이를 데리구 인제 주내 여기가인제 둘째애이 동생이 거기사란는데 가서 그걸 너좀 하나 마타라하니깐 아 고아워네나 갇다주라구 야단 고래고래소릴질르니{그래 할무니, 우리 어머니가 그,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내(면), 거기에 둘째 애, 동생이 거기 살았는데, 가서 그것 너 좀 하나 말아라고 하니까 아, 고아원에나 갇다주라고 야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10201 # 게 내가 불러가지구 너 하나만마타라 내:가 세식 다맡긴 좀 저거허니깐 하나만 마타주믄 둘째애일 하나맡든지 니가 맘:대루 큰애일 데려가든지 하나만마타라 그래뜨니{그래 내가 불러서 너가 하나만 말아라. 내가 세식 다 맡기는 좀 저거하니까(=어려우니까) 하나만 말아주면 둘째애를 하나 맡든지 네가 마음대로 큰애를 데려가든지 하나만 말아라. 그랬더니}

10201 # 아 그냥 고 그냥 소릴 껍질르구 그냥 끝까지누뜨거 이 내새끼두 길르기 힘든데 아 고아워네 갇다주라구 고아워네 갇다주믄 어떠냐래{아 그냥 그냥 소리를 껍 지르고, 그냥 그까짓 놈의 것, 이, 내 새끼도 기르기 힘이 드는데, 아, 고아원에 갇다주라고. 고아원에 갇다주면 어떻냐 그래}

10201 # 내가 그냥 화:가나서 야:다늘 야 이놈새끼야 시르믄 고만두지 고아원쏘리가 어디 서나냐 임마 크나버미 둘씨기쓰믄서 어트게 그게 조카새끼를 구하고 내종잔데 그걸 고아워네다갇다주잔소리가 어:디서나오냐 시름관되라{내가 그냥 화가 나서 야단을, 야 이녀석 아 싫으면 그만두지 고아원 소리가 어디서 나냐? 임마, 큰아버지가 둘씩 있으면서 어떻게 그게 조카 새끼를 구하고, 내 종잔데, 그걸 고아원에다 갇다 주자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싫으면 그만두어라!}

10201 # 게 인제 내가 길르기루헐:쪼 그래뜨니 아 어머니가 그래 니 이르미 고아원원:장이냐 그래가지구 애:드를 일곱씩 어트게 길르냐{그래 이제 내가 기르기로 했지요. 그랬더니 아, 어머니가 그래 네 이름이 고아원 원장이냐? 그래가지고 애들을 일곱 씩 어떻게 기르냐?}

10201 # 그래가지곤 그 둘:째애를 데리구 자:근 지브루 간다구 그래서 가는 줄 아라뜨니

이냥바니 문사느루가서 문산 그 내 저 이:종사초니 거기 사란는데{그래서 그 둘째애를 데리고 작은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문산으로 가서 문산, 그, 내, 저, 이종 사촌이 거기 살았는데}

10201 # 거:기서 이종사촌 그 기:수가 거기 뭐 엘: 하나 구한다구 허는데 따리움은 지비인는데 교:장선생이 문산초등학교 교:장인데 에 따리움써서 그걸 저 하나구허니까 그 저 간 데려와두 텐다 그레때요 그래서 데려다쥔:때지 뭐야 그렌뜨니{거기서 이종 사촌 그, 계수가 거기, 뭐, 애를 하나 구한다고 하는데, 딸이 없는 집이 있는데, 교장 선생이, 문산 초등학교 교장인데, 에, 딸이 없어서 그걸, 저, 하나 구하니까 그, 갓, 데려와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데려다 주었다지 뭐야 그랬더니}

10201 # 게 인제 마누라가 우리마누라가 이제 그걸 몰:르구 이따가 인제 이트린가 사흘마네 어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아 이 어트게텐냐니까 그래서 갓따쥔:파니간 인제 내가 야:다늘 치니간{그래 이제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가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틀인가 사흘만에 어,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아. 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그리서 갓다주었다니까 이제 내가 야단을 치니까}

10201 # 우리마누라가 또 쪼차강거예요 거길 가보니간 벌써 머 부사느로 갓따그르구 읍:때 능거야 가니간 서로 밀구 자 그냥 결국 이저버려쥔:요{우리 마누라가 또 쫓아간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벌써 뭐 부산으로 갔다고 그러고 없다는 거야. 가보니까 서로 미루고 자, 그냥 결국 잊어버렸어요.}

10201 # 게 모차자가지구 기냥와쥔: 왜몬차잔냐 난 인제 마누라한테 야:다늘해:뜨니 그세 그르케 애:길허는데 어:트커냐 이거야 그레 결국 못찾꾸 그냥 와따구{그래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어. 왜 못 찾았느냐? 내가 이제, 마누라에게 야단을 했더니, 글썽 그렇게 애기를 하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그레 결국 못 찾고 그냥 왔다고}

10201 # 그래서 결국근 그 애:를 이저버려쥔:요 여태 이에 지금 아마 거반 한 삼십 삼시비 뭐야 삼시비 너머꾸나{그래서 결국은 그 애를 잃어버렸어요, 여태. 이에 지금 아마 거반 한 삼십? 삼십이 뭐야? 삼십이 넘었구나!}

10201 # 지금 그 유:복자 그 지금 자그나들 지금 장게드리겔때는 애:가 서른 세:사리니까 그러니까 게:가 아마 서른텐:쌀 데여선쌀 데 데게쥔:요{지금 그 유복자 그, 지금 작은 아들 지금 장가드리겠다는 애가 서른 세 살이니까 그러니까 개가 아마 서른 댓 살 대여섯 살 되, 되겠어.}

10201 # 그인제 게:만 하나 차즈른 인제 내 마오미 인제 가벼워질텐데 게:\*\*\* 항::상 그 텔레비에서{그 이제 개만 하나 찾으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가벼워질텐데, 개\*\*\* 항상 그 텔레비전에서} @ 사람찬능거{사람 찾는 것} # 아침 그 가족들 찬능거 뭐 부모찬는 사람 머 이렇거 나오른 게 꼭: 그시가넨 그걸봐요 우리는 혹:시 나와서 찬는 찰찌나아들까 하구{아침 그, 가족들 찾는 것. 뭐 부모 찾는 사람 뭐 이런 것 나오면 그레 꼭 그 시간에는 그걸 봐요, 우리는. 혹시 나와서 찾는, 찰찌나 앓을까 하고}

10201 # 근데 영: 안차자 게 지:가 차자야지 우리가 우리 크나이가 거 뭐뭐 뵈:또 처노쿠 뵈:두 해:노쿠 다:해날때 근데 영: 나타나질 안능거야{그런데 영 안 찾아. 그레 제가 찾아야지. 그리가, 우리 큰애가 그, 뭐, 뭐 무엇도 쳐놓고, 뭐도 해놓고 다 해놓았다고 해. 그런데 영 나타나지를 앓는 거야}

10201 # 게 혹 미:구그루 가쓰까 이 양 양녀루 보낸나 어트게 하여튼 어찌웬뜬지 하나 이저버린거거든 그래서{그래 혹시 미국으로 갔을까? 이, 양, 양녀로 보냈나? 어떻게, 하여

- 튼 어찌 되었든지 하나 잃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 10201 @ 그래서 두리 두리군요.{그래서 둘이, 둘이군요.}
- 10201 # 게서 지금 둘:만 길르는데 게 지금두리 이 거 아들로미 하나이스니까 그거 게 제:사는 내가 지내 지내주구{그래서 지금 둘만 기르는데, 그래 지금 둘이, 이, 거, 아들 놈 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 그래 제사는 내가 지내, 지내주고}
- 10201 # 그저 제사 지낼땐 그두 인제 아드리 그마니카이 커:쓰니깐 니가 자:늘 올려라 그 래가지구 인제 인제 켜 켜 처리나서부터는 지:가 자:늘 올리는데{그저 제사 지낼 때, 그 래도 이제 아들이 그만큼 컸으니까 네가 잔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이제, 컸, 젓, 철이 나서부터는 제가 잔을 올리는데}
- 10201 # 게두 인제 지금 그저께두 그 에 서로 상머늘 허면서 내가 뭐 조:카래는 애:길 모 태썬요 인테 그 그조게서는 에 애:길 들, 어트게 니 그 색씨아이헌테 무러받:뜨니{그래도 이제 지금 그저께도 그, 에, 서로 상면(相面)을 하면서, 내가 뭐, (신랑될 사람이) 조카라 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그쪽에서는 에, 얘기를 들, 어떻게 네, 그 색씨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 10201 # 엄마아부지는 그 알:구 익꾸 애:길 험때능거예요{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그 사실 을) 알고 있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10201 # 그리구 오빠나 이 언니드룬 몰른다 이거야. 그러니깐 엄마아부지가 엄마아부지가 인는줄안다 그래 인제 나두 그래서 그날 그냥 애:길 안허구 그냥 얻 조은 애:기만 하구 마란찌만{그리고 오빠나 이, 언니들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 니, 아버지가 있는 줄 안다. 그래 이제 나도 그래서 그날 그냥 얘기를 앓하고, 그냥 얻, 좋은 애:기만 하고 말았지만}
- 10201 # 그애:기가 나오믄 부니기가 아주 확 달라질꺼란마리아. 그런차나두 실랑아부지가 눈무를짜더라구 그이 그래서 그렇거 걸끼두해 맘쏜젠 그래서 게 우리마누라는 와서그래 {그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아주 확 달라질 거란 마리아. 그렇잖아도 신랑 아버지가 눈 물을 짜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마음 속에는. 그래서 그래 우리 마누 라는 와서 그래}
- 10201 # 그래서 그러구나. 남자가 눈무를 땅능거 보니깐 승나글 햐:파 그러믄선 눈무를 딱 뜨라구그래 그이간 소그 속시:믄 다 인능게아니냐 그럼 그이간 이왕저거해쓰니까 그냥 아라서 다 처리하시오 허는 시그로 애:길허드라고 그래서{그래서 그렇구나. 남자가 눈물 을 닦는 것을 보니까, 승낙을 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닦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속은, 속 셈은 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러니까 이왕 저거(=승낙)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 10201 # 게 오늘 그 인제 지금 저 일싼 저 이 뭐 철학까한테루 지금{그래서 오늘 그, 이 제, 지금 저, 일산 저, 이, 뭐, 철학가(=점쟁이)에게 지금}
- 10201 @ 예 날 날 바드러{예, 날, 날 받으러} # 예, 날보러 가능거야 게 가서 날 봐:가지 구 게 인제 우린 가을 이:리나 해:노쿠 허자 어차피 초:네선 가을이른 해:야되니깐 인제 해:노쿠 인제{예, 날 보러 가는 거야. 그래 가서 날을 받아서 그래 이제 우리는 가을 일 이나 해 놓고 하자. 어차피 촌에서는 가을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해놓고 이제}

## (10) 회갑과 팔순

10201 # 그이 그냥 한달마네 그이 아니 세:상에 그런게 어딘냐 우리 옴:나레는 옴이 말그 대루 회가븐 팔자가 조은사라미허는{그러니 그냥 한 달만에 그러니 아니, 세상에 그런게 어디있냐 우리 옛날에는 말 그대로 회갑은 팔자가 좋은 사람이 하는}

10201 @ 사실{사실}

10201 # 환가블 허능거지{환갑을 하능거지}

10201 @ 그러썅니다 {그렇습니다}

10201 # 아무나 한가파능게 아:니라 이마리예요 {아무나 환갑하능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201 @ 예 {예}

10201 # 팔자가 쫄테는건 뭐야 자:소니 자: 이 이 줄주리이 쓰면서 화모커게 이 가정을 가 추구인는 그 이 천제는 인제 도니 이씨야구 천젠 도니씨야테구 두:번째로 인제 무 그 이 이 부부가 해로를 해야되능거 아닙니까 부부가 {팔자가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손이 줄 줄이 있으면서 화목하게 가정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 첫제는 돈이 있어야하고 첫젠 돈이 있어야하고 두 번째로는 부부가 해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10201 @ 예 {예}

10201 # 세번째아서는 자시기 이씨야허구 녀너칸 거 이게 이씨야되능 거아닙니까 {세번째 와서는 자식이 있어야하고 녀너칸 그,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201 @ 그러썅니다 {그렇습니다}

10201 # 이진 아:무것뚜 무시어구 내:가 예:순환사라니칸 한:가비다 이진 그 아니 호래비가 혼자서허민 이게 무신 거응코:다모테 징얼 아니 한보기래두쭈 깨끄터게 채려입꾸 해야테 능 거아닙니까 {이진 아무것도 무시하고 내가 예순 한 살이니까 환갑이다. 이진 그, 아니 홀애비가 혼자서 하면 이게 무슨 그렇다 못해 아니 한복이라도 좀 깨끗하게 차려입고 해야 되능거 아닙니까?}

10201 # 이진 그게 아니예요 지금 그 양보기본체로 서려 그게 무슨뭐 무슨 행 뭐행 아 그럼 순저니 뭐 봉투받기위애 허능 거바께더테냐마라 그게 봉투 바다머글려고 허능거야 지 끄른 칠썅니고 뭐이고 아주 의:무저그로 난 한:갑 아내쓰니까 칠썅는 해야대 아 이진 누군 뭐, 뭐, 뭐, 그게 그게 마리테는 소림니까 {이진 그게 아니예요 지금 그 양복입은 채로 그게 무슨 뭐 무슨 아, 그럼 순전히 뭐, 봉투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냐 말 이야 그게. 봉투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칠순이고 뭐이고 아주 의무적으로 난 환갑 안 했으니까 칠순은 해야돼. 아 이진 누군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림니까?}

10201 # 그래서 게 팔썅는 이거 팔썅되언는데 아 이 원치근 팔썅늘 헐래몬 이거는 증말 그 자손드리 이 그 두 늑그니가 이씨야 팔썅 거 행보카게 뭐이러케해서 점 화모카게 이 케해서 줘야 그게 팔썅잔치지 {그래서 그게 팔썅은 이거 팔썅 되었는데 아, 이, 원칙은 팔썅을 하려면 이것은 정말 그 자손들이 그 두 늑은이가 있어야 팔썅 그거 행복하게 뭐 이렇게 해서 좀 화목하게 이렇게 해 줘야 그게 팔썅 잔치지.}

10201 # 이진 혼:자서 마:누라 혼자서 자시뜨리 부어주는 수리나 한잔 바다먹꼬 이게 눈물 질질짜고 그게 무슨 모 모 모 모 그런게 어:디썅니까 그건 이썅썅도 엄능거예요 {이진 혼자서 마누라 혼자서 자식들이 부어주는 술이나 한잔 받아먹고 이게 눈물 질질 짜고 그 게 무슨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10201 # 난 그래서 그 내:가 월래 저 배우고 참 월래 그이 참 저거헌거는 그게 아니다 {난 그래서 그 내가 원래 배우고 원래 참 저거 한 것은 그게 아니다}

- 10201 # 내:가 자랄때 그래서 이동네서두 이 회가불 그때는 회갑 한:갑살기두 무척 어려워  
꺼드노 그때는 내가 어려쓸때는 한:갑 해명은 사라물 두:사람바께 모뻘써요 두:사람 그사  
람 한사라른 이동네에서 역때루 아주 부자 그 어저께도 애:기해씀니다마는 그 친군데 그  
사람 먼:장데 그사람 먼:장을 아호 형제가 먼:장을 해써요 {내가 자랄 때 그래서 이 동네  
에서도 이 회갑을 그때는 회갑 환갑 살기도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는 환갑 해먹는 사람을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두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은 이 동네에  
서 역대로 아주 부자 그 어저께도 애기했습시다만 그 친군데 그 사람 먼장택 그 사람 먼  
장을 형제가 먼장을 했어요.}
- 10201 # 오일읍 먼장허고 고다메 또동 둘째동생이 또 먼장을허고 공무원 그 오래도로캐서  
그인제그 그지바네 하라버지가 자근마나님꺼지 두어쓰니깐 아주 한:가불 진짜 대대적으  
로허 허는걸 봐:꾸 {오일읍 먼장하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동생이 또 먼장을 하고 공무원  
그 오래도록 해서 그 이제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작은 마님까지 두었으니까 아주 환갑을  
진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봤고}
- 10201 # 그 어려서 야: 참 저러케 행복허게 예 자:손드리 오슬 잘:해입꾸 그 참 마누라가  
동씨기 이르게 이쓰문서 한:가불 채렁 그냥 이:러케체려서 로코그 상을바드문선 그 자손  
드리 절허구 그거렁 가만 도 또 이게 {그 어려서 야, 참, 저렇게 행복하게 자손들이 옷  
을 잘 해입고 그 참 마누라가 동식이 이렇게 있으면서 환갑을 차린 그냥 이렇게 차려 놓  
고 그 상을 받으면서 그 자손들이 절하고 그거랑 가만 또, 또 이게}
- 10201 # 저 신 모씨라고 노인네가 이 방아간도 허구 또 인제 게 연나레 연:자방아까늘 인  
제 그 우리 외조부가 연:자방아까늘 허서써요 그마를 가지구{저 신 모씨라고 노인네가  
이 방앗간도 하고 또 이제 그래 옛날에 연자방앗간을 이제 그 우리 외조부가 연자방앗간  
을 하셨어요. 그 말을 가지고}
- 10201 # 그 인제 우리외삼추니 마를 타구댕기구 만날 그런게시 왜그런가해뜨니 연:자방아  
까늘 허느라구 마를 길러뜨라구요{그 이제 우리 외삼촌이 말을 타고다니고, 늘 그런 것  
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연자방앗간을 하느라고 말을 길렀더라고요.}
- 10201 # 이뭇 말가지구 인제 그 큰 인제 지끄마마 그 연자방아 아마 아실껍니다 {이 뭇  
말로써 그 큰 지금 아마 그 연자방아 아마 아실 껍니다.}
- 10201 @ 돌 예 예 {돌. 예 예}
- 10201 # 돌메이 큰:거가지구 비이이잉빙 돌문서 거 버리방아 찌꾸 베 방아찌꾸 허능거 그  
거를 요 바로 드러오는 구 꼬토 이러케 도는데 바로 그게 우리 외가집 집터예요 우리 지  
끔 인능게{돌멩이 큰것으로서 빙빙 돌면서 거, 보리 방아 찧고 벼 방아 찧고 하는 것.  
그것을 요, 바로 들어오는 그 끝으로 이렇게 도는 데 바로 그게 우리 외가집 집터예요.  
우리 지금 있는 것이.}
- 10201 # 이 바로 고 산미테 오지끔 일케 그 알루내려가는 기린는 고쪼게다가 그 지금 기  
리나써요그자리가 그 며나바치구 그저넌 그랜는데 {이, 바로, 고, 산 밑에 지금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 있는 그쪽에다가 그, 지금 길이 났어요. 그 자리가 그 면화 밭이  
고 그전에는 그랬는데}
- 10201 # 거:기가 그 연자방아간 터야 게 노인네가 인제 거이 며 자순두 일꾸 헐리리 업쓰  
니까 헐게 인제 신청허니깐 고만뒀:뜨니 그 신 모씨 아드리 신 구경이라고 이사라미 올  
타 이거다하구 방아까늘 자기네가 인제 신식 방아까니야 그때는 돌려가지구 밭똥기 돌려  
가지구 탕탕탕탕 해가지구 아 이결해가지구 수질마자쪼 {거기가 그, 연자방앗간 터야.

게, 노인네가 인제 거이, 뭐, 자손도 잃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할 것이 이제 신청하니까 그 만렸더니 그 신 모씨 아들이 신국영이라고 이 사람이 옳다 이것이다 하고 방앗간을 자기 네가 인제 신식 방앗간이야. 그때는 돌려가지고 발동기 돌려가지고 탕탕탕탕 해가지고 아, 이걸 해가지고 수지 맞았지요.}

10201 # 이 그땐 그 처:음 신시기구 여:기가 그저넌 또 이동네가 그 농사가 만:씀니다 \*\*\* 다른동네보단 부:초니예요 여기가 옛날부터 {이 그때는 그 처음 신식이고 여기가 그전에는 또, 이 동네가 그 농사가 많습니다. 다른 동네보다는 부촌이예요. 여기가 옛날부터}

10201 # 그서 인제 그 그사라미 그 하라버지가 인제 이 회갑 잔치 허능걸 봐:꾸 케논 그리 구는 회갑 잔치 허는 사라를 모뻘씨요 {그래서 인제 그,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인제 이 회갑 잔치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는 회갑 잔치 하는 사람을 못 보았어요.}

10201 # 아른 뭐 칠십 그저네 칠십 살은 참 꽤 사는건데{뭐 칠십 그전에 칠십 살면 참 꽤 사는 것인데} @ 고래 고래히라고 그랜잔씀니까{고래, 고래희(古來稀)라고 그랜잔씀니까?}

10201 # 지끄른 뭐 칠십은 애들 본다구 그러지만 인정두 안해주구 그랜끄든 이 지끔 그췌 한:갑 헌데능건 이건 애:드리 뭐 저 돌잔치허는 시그루나 매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칠십은 애들 본다구 그러지면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랜거든. 이 지끔 글췌 환갑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들이 뭐, 저, 돌잔치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로예요.}

10201 # 그르네 요며칠저네 이 아래 녀서기 하나 한:가블헌다구 꺾쩍거리능겨 참 내:가볼 때 갈짜는데 야 창아 아니 세상에 한:가퍼는노미 아:들 하나에 딸 세:슬 자 가지인는 누민데 하나도 출가를 모씨켜씨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 아래 녀석이 하나 환갑을 한다고 꺾쩍거리는 거참, 내가 볼 때 갈잖은데 야, 창아, 아니 세상에 환갑하는 놈이 아들 하나에 딸 셋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하나도 출가를 못시켰어.}

10201 # 그르네 무슨 그꺼이 무신 한가블험니까 외:짜기 술찌기 이 동네싸라미 부끄럽찌도 안나이마리아 오타빨도 아내이버따 이 오타벌도 {그런데, 무슨, 그것이 무슨 환갑을 합니까? 외짜이 솔직히 이, 동네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냐 이 말이야. 옷 한 벌도 안 해 입었다. 이 옷 한벌도}

10201 # 자 그르니 내친구가 한번 황:가블헌다 그래서 가뜨니 에 저만 오슬 한벌해입, 두 내우만해입꾸 아:들 하나 인능걸 오슬 하나에 아내이퍼뜨라구 이제 친군데 {자, 그러니 내 친구가 한 번 환갑을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에, 저만 옷을 한 벌 해입 두 내외만 해입고 아들 하나 있는 걸 옷을 하나에 안 해 입혔더라고 이제 친군데}

10201 # 그래 내가 고 대:노코 애:기래씨 예라이누마 아:니 이누마 아:들 하나인 아들며누리하나인능걸그래 한 오타버레 무슨 머 메천마넌가냐 이 오시래두 한벌 해이피구 그래두 호:사스럽게 이르케해야지 {그래, 내가 그, 대놓고 얘기했어. 예라 이놈아. 아니 이놈아 아들 하나 있, 아들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을 그래 한, 옷 한 벌에 무슨 머 몇 천만 원 가냐? 옷이라도 한 벌 해 입히고 그래도 호사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10201 # 애라 호:사는 무신 호:사냐 난 마음만 호:사를 생가커문돼찌 그래 그래 친구드리다 뭐라케씨 {애라 호:사는 무슨 호:사냐. 난 마음만 호:사를 생각하면 됐지. 그래. 그래, 친구들이 다 머라 했어.}

10201 # 야 이엔마 이게 차라리 그까지꺼 때려치구말지 너 그걸 허냐 찌그 친구가내 군대 동생이니깐데 글케 말더러구 그래찌만 인제 이러내드른 이아래애드른 그말도안데지 응기게 뭘니까그게 {야, 이, 임마, 이게, 차라리 그까지 것 때려치우고 말지. 너 그걸 하나?

친구 간에 군대 동생이니까 그렇게 말들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런 애들은 이 아래 애들은 그 말도 안 되지}

10201 @ 그래애노코 이제 손님초 초청을 해썬니까{그래 놓고 이제 손님 초청을 했습니까}

10201 # 크러묘 청처븐 미리내나따 크다보니 봉투 다 가져오능거야 으 이게그러코 {그럼 요. 청첩은 미리 내왔다. 그러다 보니 봉투 다 가져 오는 거야. 으, 이게 그렇고.}

10201 # 또 고다메 칠썬제 지금들 칠썬 난 한:갑도 모태머거썬요 칠썬인데 칠썬도 그러썬다 칠썬도 아니 자손드리 다 이게 짜글채서 {또. 그 다음에 칠썬 때 지금들 칠썬, 난 한:갑도 못해먹었어요. 칠썬인데 칠썬도 그렇습니다. 칠썬도 아니 자손들이 다 이게 짝을 지어서}

10201 @ 그러치요 {그렇지요} # 그 구구저리 줄줄줄줄 이게가서 손주새끼드리래두 이르게해서 그 자니래두 올리구 크게그래 행보그로 그게 동기 여기 박썬쳐주고 그렇거 아님니까 {그 구구저리 줄, 줄, 줄, 줄 이렇게 가서 손주 새끼들이래도 이렇게 해서 그 잔이라도 올리고 그게 그래 행복으로 그게 동기 여기 박썬쳐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10201 # 이:건 그거뚜 아냐 장:개도 못뜨린 사라메 그저 흑씨 하나두른 장겔 드려꺼나 이 건 땡데 게 인제 그게 아이 참 나는 한:가블 해머거썬니다 {이건 그것도 아니야. 장가도 못 들인 사람에 그저 흑씨 하나 둘은 장가를 드렸거나 인제 그게, 아이 참, 나는 환갑을 해 먹었습니다.}10201 @ 예{예}

10201 # 저이 지금 사지니 저게 한:갑때 찌근 사지닌데요 근데 인제 저:때가 그니깐{저이, 지금, 사진이 저게, 환갑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인제, 저 때가 그러니까}

10201 @ 오 벌써 손 손주가 여페 손주이썬 손주손녀 {오, 벌써, 손, 손주가 옆에 손주가 있어. 손주, 손녀}

10201 # 이 요고는 가족싸진 요고는 인제 우리 형:제사진이구 요:쫓근 가족싸지니구 저:꺼:먼저 저건 옴:나레 우리 어:머니 휘갑 때 내가 내가 휘가블 내가 인제 어머니 휘가블 해드려썬요{이, 요것은 가족 사진, 요것은 우리 형제 사진이고, 요쪽은 가족 사진이고, 저거, 검은 것, 저것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 회갑 때, 내가 회갑을, 내가 이제 어머니 회갑을 해드렸어요.}

10201 # 내 그글 해드리지 말래능겔 내가 그래두 자시기 응 저이 사람때가 어머니 인는데 그 다그래두 손주들 나쿠 다 근:장하고 응 인제 뭐 걱정이 음는데 아버지만 안 양계서서 그러치 {내 그것을 해드리지 말라는 것을, 내가 그래도 자식이 응, 저이, 사남매가 엄연히 있는데, 다 그래도 손주들 낳고 다 건장하고 응, 이제 뭐, 걱정이 없는데 아버지만 안 계서서 그렇지}

10201 # 그래두 도라가시문 하:니 데니깐 내가 해드려야텐다 그러구선 해:서 저게 꺼:먼저이 그게 흑빠그로 사지들 그땐 흑빠싸지들 찌거썬 때니깐 저러케 나옴거 그래 그거 하나 놔:두고 {그래도 돌아가시면 아니되니깐, 내가 해드려야 된다. 그러고선 해서, 저게 꺼:먼저이 그게 흑백으로 사진을 그땐 흑백 사진을 찍었을 때니까 저렇게 나온 것 그래 그거 하나 놔두고}

10201 # 이게 인제 내 환:갑때는 어트개텐냐아문 저게 애:드리 그 내환갑때는 전:부들 그냥 무 동네 이 친구드리고 다 이 날리들이어썬찌 그냥 머 버 문산서했는데 벽씩날리가 난 또 업썬요 {이게 인제 내 환갑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저게 애들이 그 내 환갑 때는 전부들 그냥 동네 친구들이고 다 난리들이었지. 그냥 뭐, 문산에서 했는데 법석 난리가 났, 또 없었어요.}

- 10201 @ 아 그 도 동아네 하신 이:리 마느니까 {아, 그동안에 하신 일이 많으니까}
- 10201 # 꼴똥사니 꼴똥사니고 또 온:또 화려하게해 이버찌마는 그 인제 내가 나이는 이제 예순한사레헨데 예순살에해능게 지금들 허거드노 한갑뜨를 {꽃동산이, 꽃동산이고 또 옷도 화려하게 해 입었지만 그 이제 내가 나이는 이제 예순 한 살에 했는데 예순 살에 하는 것이, 지금들 하거든요, 한갑들을}
- 10201 # 근데 나는 하 예순한사레 해썬요그거 왜 모텐냐하든 우리 큰따리 시지블 못까썬 요 큰따리 게 인제 사여 사:남맨대 이제 자:큰따리 먼저가드니 이게 큰따리 영 시지블 안 못까능거예요 그냥{그런데 나는 예순 한 살에 했어요. 그게 왜 못했냐하면 우리 큰딸이 시집을 못 갔어요. 큰딸이 거, 인제 4여, 4남매인데 이제 작은 딸이 먼저 (시집을) 가드니 이게 큰딸이 영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 10201 # 게 그때 인제 대우 인제 근:서래 가서 나가이썬꾸 그른데 이이이 실랑까미 엄능거야 근데 뭐 그러타구해서 애가 뭐 인무리 모쟁기거나 어디 병:시니 돼:서 그런거뚜 아:닌데 혼처가 잘 드리오지라나 드리오능거마다 보든 마땅칠아나 {그래 그때 인제, 대우 인제, 건설에 가서 나가있었고 그런데 이 실랑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애가 뭐, 인물이 못생기거나 어디 병신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닌데 혼처가 잘 들어오지 않아. 들어오는 것마다 보든 마땅치 않아}
- 10201 # 그런데 그름 한:가비 인제 해:야댄다구 인제 애:들두그러구 인제 서두르는데 아이 게 난 그렇건 아니 안헌다 한가블 아너든 고마니지 인자 자시기 하나 짜:기엄는데 혼:자서 술따르능걸 바다먹꼬 눈무를 흘리나 게 그런건 안헌다 {그런데 그름, 한갑이 인제 해야된다고 애들도 그러고 인제 서두르는데 아이, 그래 난 그런 건 안 한다. 한갑을 안 하면 그만이지. 이제 자식이 하나 짝이 없는데 혼자서 술 따르는 걸 받아먹고 눈물을 흘리나? 그래 그런 것은 안 한다.}
- 10201 # 그 인제 거 이 그리자마침 그게 나와썬요 혼처가 근데 인제 요 이 지금 벽제가서 살구이썬만 {그 인제 그, 이, 그러자 마침 그게 나왔어요, 혼처가. 그런데 이제 요, 이. 지금 벽제에 가서 살고 있지만}
- 10201 # 그 데썬 공까 그름 허자 그래서 인제 이 나를 인제 자바가지구 가을루 인제 해서 인제 자바서 헨는데 문산가서 헨는데 온통 인제 그 친구더리구머이구 와서 그냥 하루썬: 일 노래불르고 온통 날리법썬 참 그 이 이 지금 그 비디오를 참 보르는 새삼스럽꺼드노 {그 되었어. 그러니까 그름 하자. 그래서 인제 날을 인제 잡아가지고, 가을로. 인제 해서. 인제 (날을) 잡아서 했는데 문산으로 가서 했는데 온통 인제 그 친구들이고 뭐이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온통 난리법썬 참, 그, 이, 이 지금 그 비디오를 참 보면 새삼스럽거든요.}
- 10201 # 그냥 그 친구들 와서 똥땅대구 놀구 그냥 그 이 기:생드리 와서 그냥 여자들 세시 인제 저걸해꺼던 노래 불르구 노능거 초청을 해서 그걸 아이 그때 일당을 주구 인제 해:뜨니 그여자드리 다 인제 잔 반능거구 머이구 다 시중을 해주구 {그냥 친구들 와서 똥땅대고 놀고 그냥 그, 이, 기생들이 와서 그냥 여자들 셋이 인제 저걸 했거든, 노래 부르고 노는 것. 초청을 해서 그것을. 아, 이, 그 때 일당을 주고 인제 했더니 그 여자들이 다 인제 잔 받는 거고 뭐이고 다 시중을 해주고}
- 10201 # 다 게 난렁에 다 끈나구나선 그냥 가족싸진 저 가족끼리 노래불르구 또 애:덜 노래 쫓 시키구 또 보닌 노래시켜 마누라 노래시켜 그다메 그냥 화 전부 그냥 저, 이 손님들까지 다 그냥 한데얼려서 노래 불르구 아 저녁때까지 그냥 그러케 야단들허구 그랜는



데 게 그 지금까지두 얘기가 나 해가편 애:기드를 허거드뇨 {다, 그래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선 그냥 가족사진 저, 가족끼리 노래 부르고 또 애들 노래 죽 시키고 또 본인 노래시켜, 마누라 노래시켜, 그 다음에 그냥 화, 전부 그냥 저, 이 손님들까지 다 그냥 한테 어울려서 노래 부르고 아, 저녁때까지 그냥 그렇게 야단들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 회갑 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10201 # 게 내가 칠쭈늘 안해써요 해갑 그러케 헐는데 우리마누라 아이거 누가보면 봉투나 바다머글려고 또 한다 그러니깐 고만둬씨다 게 지금 내가 팔십까지 산:다며는 {그래 내가 칠순을 안 했어요. 회갑,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마누라 아, 이거 누가 보면 봉투나 받아먹으려고 또 한다 그러니까 그만둬시다. 그래 지금 내가 팔십까지 산다면}

10201 @ 아이구 {아이구}

10201 # 근데 이 애:드리 또 허구 나두 또 하구십꾸 팔씨븐 게 어떤사람들 팔씨베두 인제 참 저 이 물론 청처블 허는데 {그런데 이, 애들이 또 하고 나도 또 하고 싶고 팔십은. 그래 어떤 사람들 팔십에도, 인제, 참, 저, 이, 물론 청첩을 하는데}

10201 # 봉:투는 사절 이걸 아주 바가서 내보내야 데거더뇨 일절 봉투는 사절 끝따발 사절 근데 이거거던 {봉투는 사절. 이것은 아주 (청첩장에) 박아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일절 봉투는 사절, 꽃다발 사절. 그런데 이거거든}

10201 # 게 그거는 왜 팔:쭈는 내가 나 오래살구 참 장허게 다 장허다 해서 애:드리 참 그 저 받뜨러서 그 증말 행:사라구 참 머신는 그 일생애 그저 경:사를 간따가 치루기위한 저거지 {그래, 그것은 왜 팔순은 내가, 나 오래 살고 참 장하게, 다 장하다 해서 애들이 참, 그저 받들어서 그 정말 행사라고 참 멋있는 그 일생애 그저 경사를 갖다가 치루기 위한 저거지.}

10201 # 봉투 바다먹기 위에 근게 아니거더뇨 이 천마네 말쓰미거던 그래서 그런건 옛날부터 그런게 아니다 팔씨븐 그러케허능게 아니니깐 절:때 애드런테도 그런 봉투는 사저리다 {봉투 받아먹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천만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다. 팔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애들한테도 그런 봉투는 사절이다.}

10201 # 나:드리 하나 아페 이 근간 여서시니깐 인제 뭐 이 저이 조카가 남매가 이쓰니깐 게 인제 그저께 참 내가 그 서로 인제 상봉을 해따 그러지만 {너희들이 하나 앞에 이, 그러니까, 여섯이니까 인제 뭐, 이, 저이, 조카가 남매가 있으니까 그래 인제 그저께 참, 내가 그 서로 인제 상봉을 했다 그러지만}

10201 # 게:도 올까울에 인제 저걸 허구 그러면 내 내가 팔썬때는 다 짜기 덴거거던 다 짜기 만꾸그러니깐 {그래도 올 가을에 인제 저걸 하고 그러면 내가 팔썬 때는 다 짝이 된 것이거든. 다 짝이 맞고 그러니까}

10201 # 그때 가서는 그냥 한번 좀 조:나 다: 짜기 마즌데 내가 팔썬살구 그러면 나:들 그냥 조:꾸 머 친구들 다 불러서 놀:구 그럼 종:거지 무슨 봉투 그런데 봉투가통거 안 안덴 다 내 이걸 그래서{그때 가서는 그냥 한번 좀 좋으냐? 다 짝이 맞은데 내가 팔십 살고 그러면 너희들 그냥 좋고 친구들 다 불러서 놀고 그럼 좋은 거지. 무슨 봉투 그런데 봉투 같은 것 안 된다. 내 이걸 그래서}

10201 # 게 인제 마누라가 인제 참 나보덤도 마누라가 건강이 인제 괜차나야만 데는데 케 팔썬 팔썬잔치를 애:드른 해:야한다구들 인제 별르구 인는데 하여 그때까지 사:라야지 팔썬잔치를{그래 인제 마누라가 인제, 참, 나보다도 마누라가 건강이 인제 괜찮아야만 되

는데 그래 팔십 팔순 잔치를 애들은 해야 한다고들 인제 버르고 있는데 하여, 그때까지 살아야지 팔순 잔치를}

10201 @ 아이구 지금 이러케 건강하신데 {아이구, 지금 이러케 건강하신데}

10201 # 나 그래서 {나 그래서}

10201 @ 팔순만 가지고는 안테게씀니다 {팔순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10201 # 아 남드른 머야 머 저기 갈려고 그래 가마니써 마누라만 지끔쫘 건강만하든 그쵸  
쫘 별루 그르케 걱정덜게 업꺼드뇨 {아, 남들은 뭐야, 뭐 저기 가려고 그래. 가만있어.  
마누라만 지금 쫘 건강만하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걱정될 것이 없거든요}

10201 @ 그르케씀니다 {그렇겠습니다}

## (11) 청첩장

10201 # 근데 인제 이게 참: 어려웁게 뭐냐 내가 친 참: 친구들두 참 만:치만 그 청:처블  
다 하든 그이기 큰 인제 이 큰딸 쪼게 그때에는 청처블 쫘 해:써요 그래쁘니 그때두 쫘  
상가서 헨:는데 그 내가 친:모되 하능게 하나 이쨌는데 그때 거기서 도:늘 삼십마늬늘 가  
지구 완는데{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친, 참, 친구들도 참 많지만 그  
청첩을 다 하면 그 이게 큰, 이제, 이, 큰딸 적에 그때에는 청첩을 쫘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쫘 삼가서 했는데, 그, 내가 친목회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돈을  
삼십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10201 # 그게 인제 며칠후에 그 총무가 그 내가 이제 회:장을허다가 그걸 다 냉겨주구 인  
제 다른사라미 허는데{그게 이제 며칠 후에 그 총무가 그, 내가 이제 회장을 하다가 그  
것을 다 넘겨주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데}

10201 # 그 회장님 그 그 총무가 와서 허는 마리 그 마리 쫘들 만:트라 이런 애:길해 그래  
무슨 애:기냐 그랜쁘니 그 뭐 따니미 그 조카딸 조카따리래믄서요{그 회장님, 그, 그 총  
무가 와선 하는 말이, 그 말이 쫘들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 그래 무슨 얘기냐? 그랬더  
니, 그 뭐, 따님이, 그 조카딸, 조카딸이라면서요?}

10201 # 게 조카따리다 그래도 조카따른 조카따린데 애:는 아주 한살서부터 내가 길른 애:  
야 그르니깐 내따리나 매찬가지구 지금 이 아들 애:두 앤: 우리집 내:가 난:건 아니지만  
우리지비서 난: 애:야 그래 이 여태 길런는데 이제 지끔두 그래서 이에 할때는 청처블  
안헐려구 그래요{그래 조카딸이다. 그래도 조카딸은 조카딸인데, 애는 아주 한 살서부터  
내가 기른 애야. 그러니까 내 딸이나 매찬가지고 지금 이 아들애도 애는, 우리 집, 내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낳은 애야. 그래 이 여태 길렀는데, 이제 지금도 그래  
서 이 애(가 결혼)할 대에는 청첩을 안 하려고 그래요.}

10201 # 그때 인제 그래서 그런 애:기를 회원드리 그런 애:기를힘니다 이거야 그럼 삼십마  
년도루 가주가라 그르구 내 내:쥬뜨든 그리구나선 그 해{그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 그러면 삼십만 원 도로 가지고 가거라 그러고 내  
가 내어주었거든. 그리고 나서 그 해}

10201 # 내가 이제 그 봉봉회라구 해서 이 봉환 봉서리가 이제 합쳐가지구 내가 맨든거에  
요 그 그때 인제 그게 이 애향침모되라구 그 이 우리가 파주으베서 그니깐 파주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무꿍게 그에 인제 그게 한{내가 이제 그 봉봉회라고 해서 이 봉환

봉서리가 이제 합쳐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그, 그때 이제, 그게 이, 애향 친목회라고 그, 이, 우리가 파주읍에서 그러니까 파주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묶은 게 그래 이제 그게 한}

10201 # 이십 한 오륙명이서 무꺼썬요 근데 그게 그 웨:장이 그만 이 극장을 사어블 헨:는데 그게이 장파리라고 전방쫓그론 그 이 미군드리 마:나서 그게 잘돼썬요 극장이 그래서 이 하날 더넌파 금파리쫓그로 그 여프로 그래뜨니 거기서 내구 인제 한참 참 그 그니깐 우리 침모웨:가 그땐또:느루 이린당 육:처넌썬글 내쓰니깐 그 큰도니 땡거예요 근데{이십 한 오륙명이서 묶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회장이 그만 이 극장을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 장파리라고, 전방 쪽으로는 그, 이, 미군들이 많아서 그게 잘 되었어요, 극장이. 그래서 이, 하나를 더 내었다. 금파리 쪽으로, 그 옆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극장을) 내고, 이제 한참 참, 그, 그러니까 우리 친목회가 그땐 돈으로 일인당 육천 원씩을 내었으니까 그 큰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201 # 이 웨:장이라는 사라미 그걸 마타가지구 도:늘 다 썬버려따 그 그니겐 그 극장을 하나 더맨드는데 도:니 피료허니까 그돈까지 다썬버려썬요{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돈을 다 썬버렸다. 그, 그러니까 그, 극장을 하나 더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까지 다 썬버렸어요.}

10201 # 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미:구니 드러가게 철썬다 이르게돼빠러꺼든 이 미:구니 드러가니까 그:지가 돼빠러썬 뭐 극장이 그냥 그대루{아, 그래서 하루 아침에 미군이 들어가게, 철수한다 이렇게 되어버렸거든. 이 미군이 들어가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지 뭐. 극장이 그냥 그대루}

10201 # 하나 움:지기질 모터니까 미:구니 썬뜨러가버리니까 뭐 어트게 그니깐 그대루 그냥 거기 그냥 내:부러썬요 극장을 그러니 그 완저니 그:지가 땡거지{하나 움:직이지를 못 하니까. 미군이 썬 들어가버리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 그냥 내버렸어요, 극장을. 그러니 그, 완전히 거지가 된 거지.}

10201 # 게 침모웨:가 다 저 이 아주 풍지박산 되구 그냥 깨:져버런는데 참 그게 엄청난 침모웨:여썬는데그게 참 깨:져버려썬요 그래서인제 그리니깐 내가 예 이왕저거하니까 그럼 이 봉한봉서리이쫓그루 하나 무꺼보자 그레가지구 인제{그레 친목회가 다, 저, 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고 그냥 깨:져버렸는데, 참, 그게 엄청나 친목회였었는데 그게. 참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예, 이왕 저거하니까(=깨:졌으니까) 그러면 이 봉한봉서리 이 쪽으로 하나 묶어보자. 그래서 이제}

10201 # 내가 저: 바까테 인제 통일로 여페 살썬건데 거기서 그 다리미테 인제 철 인제 거기다 인제 하루는 모 인제 불러썬요 웬마:난 사람들 그 웨:위니될마:난 사람드를 한 열땐:명 불러가지고{내가 저 바깥에 이제 통일로 옆에 살 적인데, 거기서 그 다리미테 이제, 철, 이제 거기다 이제, 하루는 모, 이제 불렀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 회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한 열댓 명 불러서}

10201 # 게 그날 이제 수를 한잔씩 머거가면서 이야:기 저애:기허다가 자 이르게 돼:가지구 우리 참 이 봉한 봉서리 무꺼가지구 침:모웨:나 하나묵짜{그레 그날 이제 술을 한 잔씩 먹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참, 이 봉한 봉서리 묶어서 친목회나 하나 묵자.}

10201 # 그래서 이 침:모웨:나 하나묵짜 해가지구 묵꺼는데 그게 인제 그럼 봉:안 봉서리니 까는 봉:봉으루다 하자 그래서 봉:봉 그레 이러케 해:서 인제 침:모웨:를 묵꺼는데{그래서

이 친목회나 하나 뭉자. 해서 뭉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봉안 봉서리니까 봉봉으로 하자. 그래서 봉봉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친목회를 뭉었는데}

10201 # 그에 침모퀘가 결국은 그런 시그루 게 내가 이제 그런 아 야 너이드리 그러케까지 따진다며는 내가 그런 침모퀘 난 피로가 업따 아무리 내가 맨드러논 침모퀘래두 그렇게 안헌다 고만 두 두젠따.{그래 친목회가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래 내가 이제 그러면 아, 야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따진다면 내가 그런 친목회 나는 필요가 없다. 아무리 내가 만들어놓은 친목회라도 그런 것 안 한다. 그만 두, 두겠다.}

10201 # 그러구 이제 고만될:떠니 이게 어트게 호지부지허드니 단 뎀팔도 양가서 다 해:사니 되버리구말자나요 그래 자 이게 내가 또 잘못했:꾸나 이 기:꼴 맨드러노쿠 기양 뿌리 뿌리 해:산 지금 영영 해:사니 되버리구마라썬요 침모퀘가{그리고 이제 구만두었더니 이게 어떻게 호지부지 하더니 단 몇 달도 안 가서 다 해산이 되버리고 말잖아요. 그래 자, 이게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 기껏 만들어 놓고 그냥 뿔뿔이 해산 지금 영영 해산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친목회가}

10201 # 이 며썸 저 이 그래두 며썸년 내려오든건데 이게 참 야 게 게 내가 지금두 그런 애:기를 나한테 해:요 술들먹꾸 그거는 버니가 아니어썬따 그건 웨:원드리 애:기해:때능 건 잘못뎀애기다 총무가 그거 지가헌 애:기지{이 몇 십, 저, 이 그래도 몇 십 년 내려오던 것인데. 이게 참, 야, 그, 그래 내가 지금도 그런 애:기를 나에게 해:요, 술들을 먹고. 그것은 본의가 아니었었다. 그건 회원들이 애:기했다는 것은 잘못된 애:기다. 총무가 그거 자기가 한 애:기지}

10201 # 웨:원드리 누가 그런 애:길헨냐 당시니 그 길른걸 누가몰르냐 물론 총:무는 아주 원리원칙을 애:기형거구 원리원칙을 내자시근 아니지 분명이 조칸 조카지{회원들이 그런 애:기를 했냐? 당신이 그 기른 것을 누가 모르냐? 물론 총무는 아주 원리원칙을 애:기한 것이고, 원리원칙을. 내 자식은 아니지, 분명히. 조카는 조카지}

10201 # 그러나 그게 내 자시기 청:첩장에는 내 자 망내팔루 헨:꺼든 그거 참 그래 내가 그때 가만:: 하니깐 참 이거뚜 잘못탱거구 조칸조칸데 어트게 망내따리냐{그러나 그래 내 자식이, 청첩장에는 내 자, 막내팔로 했거든. 그거는 참 그래,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깐 참,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조카는 조카인데 어떻게 막내딸이냐?}

10201 @ 그래 그 사정이 다르니까 마리지요{그래 그, 사정이 다르니까 말이지요} # 그거 다르지{그거 다르지}

10201 #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길러썬도 이건 조칸조카지 게서 지끄문 이게 이누문 이눔도 망내는 망낸데 자 이걸 그래 이 게 난 고만 청:처븐 이버네 안허젠따 그냥 동네싸람드리 야 다 야:니깐 동네싸람드리 이동네싸람드리{그래서 아무리 내가 길렀어도 이건 조카는 조카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눔은, 이눔도 막내는 막내인데. 자 이걸 그래, 이, 그래 나는 그만 청첩은 이번에 안하겠다. 그냥 동네 사람들야 다 아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 그러면 두 두른 호:저근 어디로 댜 이썬니까{그러면 두, 둘은 호적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10201 # 예?(예?) @ 호저기{호적이}

10201 # 호:저근 따로 댜 인썬지요{호적은 따로 되어 있지요.} @ 아 따로{아, 따로}

10201 # 그러료 건 내 이제 이 망 망내아우로 썬썬로 댜인썬 그래서 그쪽 소:니니깐{그럼 요. 그건 내 이제, 이, 막, 막내아우로, 셋썬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쪽 손이니까.}

10201 # 원리원칙때루 허재문 야:니 조칸조카지 그니겐 그나 그걸 내가 참 지금 양:자두

허는데 양:자두해:서 다 길르자나 뭐 내가 난: 자시기래야만 자시기냐{원리원칙대로 하자면, 아니 조카는 조카지. 그러니까 그러냐 그걸 내가 참, 지금 양자도 하는데, 양자도 해서 다 기르잖아? 뭐, 내가 낳은 자식이라야만 자식이나?}

10201 # 그걸 침:모케한다구 그래두 가까운 친구끼리덜 저걸허면서 그걸 꼭 꼬지버야되느냐 이마리야 나 가스마프게 마리아 에이 관:뒤:라 게 삼심마뉘주고 난 고만 탈퇴한다 고 만두게따{그걸 친목회한다고 그래도 가까운 친구끼리들 저걸하면서, 그걸 꼭 꼬집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나 가슴 아프게 말이야. 에이, 관두어라. 그래 삼십만 원주고 나는 고만 탈퇴한다. 그만 두겠다.}

10201 # 게:도 이 단 그냥 멘 멘딸도 묻아서 그제 그냥 깨:저버리구 말드라구 흐지부지 다 해:산테버려써 그제요{그래도 이, 단, 그냥 몇, 몇 달도 못 가서 그제 그냥 깨어저버리고 말더라고. 흐지부지 다 해산돼버렸어. 그제요.}

10201 @ 중 중심 인무리 업써저쓰니까 마리지요{중, 중심 인물이 없어졌으니까 말이지요.} # 긴게루 그리 그런 뭐 그래서 그런진 몰라두{그러니까 그리, 그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0201 # 근:간 모:든 주도꿔늘 참 내가 가지구서 뢰:장을 내가 다른 사람 시키면서 허드래두 내해 누구누구시켜서 뢰:장을 허구 이제 이러케 뢰:꺼든 그래서{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참, 내가 가지고 회장을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면서 하더라도 내가 누구누구를 시켜서 회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10201 # 그런지 모르지만 아 이 총무란 노미 지금두 그냥 와서 뢰장님 그냥 참 주글뽰를 저습니다{그런지 모르지만, 아, 이, 총무라는 놈이 지금도 그냥 와서, 회장님 그냥 참, 죽을 죄를 저습니다.}

10201 # 그 이 그놈두 나이가 칠십비너먼데 지금 주글뽰를 지어쑈. 그거 이왕 지나간 애:기 뭐 자꾸허냐{그, 이, 그놈도 나이가 칠십이 넘었는데, 지금. 죽을 죄를 지었소. 그거 이왕 지나간 애기 뭐 자꾸하냐?}

10201 # 게 그누미 참:: 인제 지끄른 그걸 뉘우치면서 나한테 참 잘:해요 그냥 요 아랫뽰네 사:는데 그동네서 뭐 지금 노인뢰:장을 또 마탄때나 잘:해라 잘해봐:라 그래야지 이 사람드리래능게 내:가 이:를 해:보구 다 해:야 아무리 대꼬채이거치 꼬꼬턴 사라미래두 뽰:가 거기에선 하자가 이쓸쑈두 인능거시 인가니다 마리아{그래 그놈이 참 이제 지금은 그걸 뉘우치면서 나한테 참 잘해요. 그냥 요 아랫동네 사는데 그 동네에서 뭐, 지금 노인 회장을 또 맡았다나. 잘해라 잘해봐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내가 일을 해보고 다 해야 아무리 대꼬챙이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도 무언가 거기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말이야.}

10201 # 하여튼 자:래봐라 내 그래서 잘해 이게 꼬꼬터니깐 잘허는데{하여튼 잘해봐라. 내 그랬어. 잘해. 이게 깨끗하니까 잘하는데}

## (12) 마을 회관과 경로당

10201 # 게 인제 그걸두 하나 인제 그건 우리가족 애:기 인제 그만허고 우리 마으레 애:길 또 한가지만 더 디리게요 예 이게 예 요저네 내가 이제 새마을사어베서 일뽰을 해:따구 그러지아나쑈니까{그래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그건 우리 가족 애기 이제 그만하고. 우

- 리 마을의 얘기를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 이게 예, 요전에 내가 이제 새마을 사업에서 일등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10201 # 게서 인제 대:통녕표창을 타구 이랬는데 그바라메 고만 우리동네가 아주 그냥 베란가네 그냥 그이 금씨발보글 헐정도로 달라지게 돼써요{그래서 이제 대통령 표창을 타고 이랬는데, 그 바람에 그만 우리 동네가 아주 그냥 별안간에 그냥 그, 이 금씨발복(今時發福)을 할 정도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 10201 # 왜 그르케 웬나허든 무놔공보부에서 예 이 지금 웨:관저기 인찌안씀니까 우리동 마을웨:관 이걸 와서 저걸 이:층으루 지어써요{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문화공보부에서 예, 이, 지금 회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 마을 회관. 이것을, 와서, 저것을 이층으로 지었어요.}
- 10201 # 이:층을 지어주면서 이 마으레 홍보 자료를 간따노케씀니다{이층을 지어주면서, 이 마을에 홍보자료를 갖다 놓겠습니다.}
- 10201 # 그런데 이게 참 어이 업는 애:기가 마:니 나오지요. 내:가 볼땐 참 가당치두 아는 진뜰두 마니허구 그래 그래서 게 물론 우리동네를 피아를 허능거다 그르문 대한민구글 피알허능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이업는 애기가 많이 나오죠. 내가 볼 땐 참 가당치도 않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 그래서 게, 물론 우리 동네를 피알을 하는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피알하는 거예요.}
- 10201 # 마레이시아 수상꺼지 왓따가쓰니깐 이동네를 무놔공보부에서 그 통역파니 데리고 와요 {말레이시아 수상까지 왔다갔으니까 이 동네를 문화 공보부에서 그, 통역관이 데리고 와요.} @ 시범부라기나 모범부라기 데겐지요{시범부라기나 모범부라기 되겠지요.}
- 10201 # 네 그 모범 부라긴데 이 기니간 초:네도 이르게 산다 하는 시그루 하는데 {네, 그, 모범 부라인데 이, 그러니까 촌에도 이렇게 산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 10201 # 게 하루는 제 오라 그래서 갓뜨니 그 뿌리뽕을 허는데 그 무 그니간 항:궁말로 허능게 아니라 인제 영어로 허니까 난 잘 몰랐거든 그래뜨니 근데 낭중에 아라보니까 이게 너무 엉터리야 {게, 하루는 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브리핑을 하는데 그, 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제 영어로 하니까 난 잘 몰랐거든 그랬더니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엉터리야.}
- 10201 # 아이 무신 그때 당시에 텔레비 우리동네에 한대도 업는데 텔레비가 열한대가 인꾸 뒷 무신 무:가 인꼬 무신 테 저 이 전:추기 인꼬 무 갓출건 다 갓춰따 이거야 {아이, 무슨 그 때 당시에 텔레비전 우리 동네에 한 대도 없는데 텔레비전이 열한 대가 있고 뒷 무슨 뒷가 있고 무슨 저, 이, 전축이 있고 뒷 갓출 건 다 갓췌다 이거야}
- 10201 # 그러니 그니간 웨:구게서 오는 사 신문기자래는 신문기자는 다 옵니다 여기 다: 여길 무놔공보부 통해서 다 들르게 데인꾸 {그러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 신문 기자라는 신문기자는 다 옵니다. 여기 다. 여길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다 들리게 되어 있고}
- 10201 # 와:서 그냥 집점마다 도라맹기구 그런데 문제는 동네싸라미 몬쌀게 데능거야 인제 몬쌀게 심드른게 무냐든{와서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이 못살게 되는 거야 인제 못살게 힘든 게 뭐냐면}
- 10201 # 아치미면 버써 방송을 허능거예요 그냥 그럼 버써 싸리비짜루 여페끼구 나가야 데 게 골목길 써:러야데구 그냥 지밥 써:러야데구 {아침이면 벌써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벌써 싸리 빗자루 옆에 끼고 나가야 돼. 그래 골목길 쓸어야 되고 그냥 집

앞 쓸어야 되고.}

10201 # 청소 게 한시간씩 청소를 허구 이제 여그 또 하루이트리지 이게 주글 찌경이거드  
뇨 농산꾸니 농사를 지:야 데는디 이기 무신 먹꼬살 거냐 이거야 이 그리구 장 이 그:진  
마리나 해:서 영 여기서 드립따 퍼문는 이런 이 무슨 기 이게 무슨 누미 이게 이게 이따  
위 노르 저게 인냐 {청소. 그래 한 시간 썩 청소를 하고 이제 여기 또 하루 이틀이지 이  
게 죽을 지경이거든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먹고 살 거냐 이거야.  
이 그리고 이 거짓말이나 해서 영, 여기서 막 물어대는 이런 이, 무슨 이게 무슨 놈이  
이게, 이게, 이 따위 놈이 있냐.}

10201 # 그르케 인제 한참 나든지 불평을 허고 동네싸람드리 다 그냥 주글 찌경이니 어트  
케 마치 아침마다 방송 소리만드구 그냥 귀를 트리막꼬 그럴쥬운데 아 그냥 지겹따 이거  
지 인제 {그렇게 인제 한참 불평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을 지경이니 어떻게  
마치 아침마다 방송 소리만 듣고 그냥 귀를 틀어막고 그런 정도 인데 아, 그냥 지겹다  
이거지 인제.}

10201 # 그르데 인제 하루는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가 여길 순시를 나온다 인제 기계  
계오래테썩요 그래서 대한민구게 증말 왜:만한 데선 다: 왁따가썩꺼예요 아마 {그르데  
이제 하루는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가 여기를 순시를 나온다. 인제 그게 꽤 오래되었어  
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왜 만한 데서는 다 왔다 갔을 거예요 아마}

10201 # 새마을 부모 청년회 부녀회 무신 뭐 하도 웨국 기자덜 손님들 무지 다 왁따간는  
데 {새마을 부모 청년회 부녀회 무슨 뭐 하도 외국 기자들 손님들 무지 다 왔다 갔는데}

10201 # 하루는 도 도지사가 저 온다구 뭐: 아침부터 방송을허구 날리가나썩 그냥뭐 이냥  
여기저기청소를 해야텐다구 {하루는 도지사가 저 온다고 뭐, 아침부터 방송을 하고 난리  
가 났어. 그냥, 뭐, 그냥, 여기 저기 청소를 해야 된다고}

10201 # 게 내가 불평을 좀해썩요 야 이거는 마리아 우:리 동네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견  
국까사어빈데 이거 왜 우리동네싸람 희생이 데야테냐 이견 그러잔냐 어디를 보든지 왜  
우리 마을싸람만 희생을 시키냐 그러타면 무슨 대:까가 이썩야 데지안냐 이거 근게 안텐  
다 {게, 내가 불평을 좀 했어요. 야, 이거는 말이야 우리 동네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견  
국가 사업인데 이거, 왜, 우리 동네 사람 희생이 돼야 되냐. 이견 그렇지 않냐 어디를 보  
든지. 왜 우리 마을 사람만 희생을 시키냐. 그렇다면 무슨 댓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거 그러니까, 안 된다.}

10201 # 게 인제 부지사가 온다 그래서 읍:짱이 나와썩 그래 인제 곽 모씨라구 그사라미  
읍:짱을할썩긴데 읍짱이거 내 애이 주제넘는 애긴진 몰라도 인제 우리가 더이상 참꼬 할  
썩가업썩 {그래 인제 부지사가 온다 그래서 읍장이 나와서 그래 인제 곽 모씨라고 그 사  
람이 읍장을 할 적인데 읍장이거 내 애이, 주제 넘는 애긴 지는 몰라도 인제 우리가 더  
이상 참고 할 수가 없어.}

10201 # 그르니깐 인젠 허래는것뚜 어:느정도지 이게 민 이 맨년썩 머허는 지시냐 인젠 다  
여기 몬:썩게 데썩 다: 동네가 그:지가 데게 생겨썩는데 만날 여기만 잘텐따 그러구 그래  
이:층에 올라가보든 무슨 텔레비가 맨때 머:가 맨때 무슨 소가 맨마리 무신 {그러니까  
인젠 하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 민, 이, 몇 년썩 뭐하는 짓이냐. 인젠 다 여기 못살  
게 뻘어. 다 동네가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맨날 여기만 잘 뻘다 그러고 그래 이층에 올  
라가 보면 무슨 텔레비전이 몇 대 뭐가 몇 대 무슨 소가 몇 마리 무슨}

10201 # 하우 이:페이거 으그 시뻘건 그:진마리나 해논쿠마리아 이게 뭐:허는 지시냐마리

야 이게 {하우, 이때 이거 으, 그, 새빨간 거짓말이나 해놓고 말이야. 기계 뭐하는 것이냐 말이야 이게.}

10201 # 게 내가 이버네 부지사오른 한마디해야 데간따 그랜찌 그랜뜨니 에 허세요 그래 근데이게 겐차늘까 그랜뜨니 아 무이 먹꾸살겐떼는데 무이 잘못떼쓰께요 아흐세요 겐차나요 {그래 내가 이번에 부지사 오면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랬지. 그랬더니, 에, 하세요. 그래 근데 이게 팬찮을까 그랬더니 아, 무이, 먹고 살겠다는데 무이, 잘못되게요. 그러세요. 팬찮아요.}

10201 # 그른데 이제 군:수가 그느무 군수허구 인제 데데리루 싸:미 난는데 {그런데 이제 군수가 그놈의 군수하고 크게 싸움이 났는데}

10201 # 이게 이게 한참 뿌리뽕을 인제 거기인제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구 인제 동:네선 제 뭐 유:지라구해서 나하나 인제 초청을 헌거예요 그래서 {이게이게, 한참 브리핑을 인제 거기 인제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인제 동네서는 제, 뭐, 유지라고 해서 나 하나 인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201 # 이 네:사라플 초청을 해서 가:친제 거기 이르케 으:자 가운데로 이케 으:자도 그냥 보:통으자가 아니조 이:러케 으잘 크:게서 그냥 이러께 두르는 으잔데 {이, 네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거기 이렇게 의자 가운데로 이렇게 의자도 그냥 보통 의자가 아니쥬. 이렇게 의자를 크게 그냥 이렇게 두르는 의잔데}

10201 # 그게 이제 그거슨 선전농이 순:저니 선전농 그니깐 외구게서 오는 사라플 그 거기다 가 따 다: 안쳐노곤 냅:따 칠파네다 데구 선저늘 허고 비디오 트러노코 마리지 {그게 이제 그것은 선전용이 순전히 선전용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그 거기다 앉혀놓고는 칠판에다 대고 선전을 하고 비디오 틀어놓고 말이지.}

10201 # 근게 이 머머 전:부 시빨긴 거진마리지 하:나두 무거기 해당이 데능게 읍:꺼드노 그래서 내가 한참 제 또 애길허구 도지사 얘기가 끈난는데 인제 인산마리 끈나썬요 {그러니까 이, 뭐, 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지 하나도 뭐 거기 해당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참 제또, 얘기를 하고 도지사 얘기가 끝났는데 인제 인사말이 끝났어요.}

10201 # 게 내 이거난 이 동네 한사라프로서 이 주미느로서 우리 부:지사님 여기 만나기도 참 어렵꾸 {그래 내, 이거 나는 이 동네 한 사람으로서 이, 주민으로서 우리 부지사님 여기 만나기도 참 어렵고}

10201 # 처음 이르케 점 베:짜마자 또 이런 말쓰를 드려서 췌송헌데 내가 거 면말씀점 드려두 겐:차늘까요 그래뜨니 아무 말씀해보쇼 {처음 이렇게 좀 뽕자마자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헌데 내가 거, 몇 말씀 좀 드려도 팬찮을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해보시오.}

10201 # 그니깐 군:수가 인따 아 무슨 말헐게 이썬 또 이래 그래서 아 내가 군수 얼굴보면서 아니 여보세요 내가 말씀을 쫘 드리겐떼는데 뭘 그케 야다늘 허십니까 그래뜨니 군도지사가 아이 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군수가 있다 아, 무슨 말 할 게 있소. 또 이래. 그래서 아, 내가 군수 얼굴 보고 아니 여보세요 내가 말씀을 쫘 드리겠다는데 뭘 그렇게 야단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도지사가 아이, 말씀하세요.}

10201 # 그래 인제 예 땅 게 아니구 이 마으레는 물론 이게 예 문화 공보부에서 우리 마으레 이제 투자헌건또 일꾸 참 이게 회관도 지어줘서 고마운건암니다 {그래 인제, 딴 게 아니고 이 마을에는 물론 이게, 예, 문화공보부에서 우리 마을에 이제 투자한 것도 있고 참 이게 회관도 지어줘서 고마운 것은 압니다.}

10201 # 그러나 우:리가 시 우선 식쌍와를 하구 먹꾸 사라야 데는데 먹꾸 우리농초네서



이:를 허구 먹꾸사라야 데는데 이게 이 선바리 안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식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우리 농촌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손발이 안맞습니다.}

10201 # 아:침마다 가서 논두렁이라도 깎꾸 이:를 해야데는데 아예 쟁:일 빈짜루나 아치메 끼구 방송쏘리만 드르문 귀를 트러마글쨌도루 인제 아주 영 시러전는데 이거 은:제까지 이걸 해이르케 예 해:야데는지 또 내가와서 여기 봐:두 {아침마다 가서 논두렁이라고 깎고 일을해야 되는데 아예, 종일 빗자루나 아침에 끼고 방송 소리만 들으면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인제 아주 영, 싫어졌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해 이렇게 예, 해야되는지 또 내가 와서 여기 봐도}

10201 # 아 우리마으레 무신 테레비가 어디 열한 대가 무슨 어디 이썸니까 한사람 그 상그므로 탄거 테레비 한:대바께 업습니다 이동네 부녀회장네지비 {아, 우리 마을에 무슨 텔레비전이 어디 열한 대가 무슨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상금으로 탄 거 텔레비전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 부녀회장네 집이}

10201 # 그걸두 상그므로나 탄거 하나바께 누가 테레비 가진사라미 누가인나 {그것도 상금으로나 탄 거 하나 밖에 누가 텔레비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10201 # 그런데 이게 미신 그:진말도 어느 정도구 이게 사라물 마:을싸람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이 좀 생활 터저늘 맨드러주면서 이르케 해야지 이게 예 선바리만찌 이래서야 쓰겐썸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거짓말도 어느 정도고 이게 사람을 마을사람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이, 좀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예, 손발이 맞지 이래서야 쓰겠썸니까}

10201 # 도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젠 우리 마으레서 더 이상 이게 힘듭니다 {도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젠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이게 힘듭니다.}

10201 # 인제 이르케 애길 해뜨니 아 아이 군수란 노미마레요 아 이게 이양바나 그걸 마리라구해 어 반말지거리루 아이동네 간따 준 저 준게 올만데 여기간따 퍼봉:게 올만데 그러나 이런 시그루 애:길해 이양 내가 그냥 벌떡 이러나서 {이제 이렇게 애길 했더니 아 아이, 군수란 놈이 말이에요. 아, 이게 이양반아 그걸 말이라고 해. 어, 반말 짓거리로 아이, 동네 갖다 준 저, 준 것이 얼마인데 여기 갖다 퍼 부은 게 얼마인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양, 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10201 # 머이 이따위 이 이게 무신 군:수야 이게 얼마대구 반말지거리야 이 육 모씨라구 그에 아주 유명한 노미에요 {뭐이, 이따위, 이, 이게 무슨 군수야 이게. 어디다 대고 반말 짓거리야. 이, 육 모씨라고 그에,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10201 # 이:게 누네 보이능게 업나 당신 지금 이거이거 지금 도지사 아페서 혈 마를해써 어 어디테레비가 이동네에 여란테가 어디썸 거 차자와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당신 지금 이거이거, 지금 도지사 앞에서 할 말을 했어. 어, 어디 텔레비전이 이 동네 열한 대가 열한대가 어디있어. 거, 찾아와봐}

10201 # 말:도 안데는 소가 어디 맨마리가 이썸 단 송아지 멧멧새끼 한마리 빠께읍따 그거 두 경양 신문사에서 신문혀웨에서 준거 한마리 하우스가 한동 이썸 이동네에 뭐:가 이썸 먹꾸살꺼 하나두 업썸 지금 쪼록 소리가나 이:게 무슨 군:수야 이따이가 군:수 노르슬해 이제 내가 그랜꺼든 {말도 안되는 소가 어디 몇 마리가 있어. 단, 송아지 멧멧 새끼 한마리 밖에 없다. 그것도 경향 신문사에서 신문 협회에서 준 거 한 마리 하우스가 한 동

있어. 이 동네에 뭐가 있어.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쪼르륵 소리가 나. 이게 무슨 군수야 이 따위가 군수 노릇을 해. 이제 내가 그랬거든}

10201 # 그:래뜨니 도:지사가 그냥 마악 아라씨요 강 군:수한테 뻥하니 별떠 기러나드니 그냥 입따물고 가마닐찌모터냐고 호:늘 내더 일르드라구 {그랬더니 도지사가 그냥 막 알았어요. 강, 군수한테 뻥하니 별떡 일어나더니 입 다물고 가만있지 못하냐고 혼을 내더라고요.}

10201 # 저 이 무신 참 지산님 아페서 이게참 증말지 송구스럽꾸 제:송합니다 {저, 이, 무슨 참 지사님 앞에서 이게, 참,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10201 # 내가 참 나두 나이가 이제 올만테 아이 아무리 군:수면 군수지 반말지거리루 나한테 이게 마리템니까 이말도 안템니다 내가무 이게 군템니까 여기 이니 시키는데루 그냥 머 주 주그나사나 해야텐데는 이런거는 업:찌안씀니까 {내가 참, 나도 나이가 이제 올만테 아, 이, 아무리 군수면 군수지 반말지거리로 나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됩니다. 내가 뭐, 이게 군대입니까. 여기 아니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죽으나 사라 해야된다는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10201 # 어디까지나 우린 이 먹꾸살기 위헐거지 위해 먹꾸사라야 데능거지 이거 무슨 국가사어블 허는데 왜 국가사어블 허는데 우리 마으레 이 사람드리 다 희생이데야 템니까 이러커다간 우리 멘녀나네 다 여기 굴머죽습니다 그래뜨니 {어디까지나 우린 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먹고 살아야 되능거지 이거 무슨 국가사업을 하는데 왜 국가사업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 이 사람들이 다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몇 년 안에 다 여기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10201 # 그러 아 아라씀니다 아라씀니다 근디 멀: 어트게해드리면 데게씀니까 {그러,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10201 # 글쎄 제는 그러씀니다 물론 이 청소허고 저거허는걸또 조은데 근데 군:수가 쪽뜨러간찌 그 한마디모타고 인제 여폐안잔는데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청소하고 저거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군수가 쪽 들어갔지. 한마디도 못하고 인제 옆에 앉았는데}

10201 # 그래두 우리 농초네서 살:쭈 인능거는 그녕 참 뭘 생사늘해서 먹꾸사라야 데는데 이게 안테지 안씀니까 허다모태 소:래두 으어 어 호호마다 송아지래두 한마리 갇다주면서 길러서 그걸 참 이:를 수고들 허니깐 길러서 수이블 보래든지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참, 뭘, 생산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소라도 으어, 어, 호호마다 송아지라도 한 마리 갇다주면서 길러서 그걸 참, 이를 수고들 하니까 길러서 수입을 보라든지}

10201 # 하우스를 한동씩 지어줘 마리아 줘서 거:기서 무슨 트경장무를 해서 파라서 생가유지를 허넌든지 이게무슨 대:채기 이씨야지 만날 빈짜루만 여폐끼구 청소나허든 이게 밥먹꾸사냐구마리아 이 데게씀니까 그래뜨니 아 참 오른 소리허셔씀니다 만는 소리허셔씀니다 {하우스를 한 동씩 지어줘 말이야 줘서 거기서 무슨 특용 작물을 해서 팔아서 생계 유지를 하든지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빚자루만 옆에끼고 청소나 하면 이게 밥먹고 사냐고 말이야 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아, 참, 옳은 소리 하셨습니다. 맞는 소리 하셨습니다.}

10201 # 그리구 난 이 머 증말 마땅치 안씀니다 전:부 시뻔건 거진말만 허는데 이게 템니까 물론 왜국 싸람헌데는 조:씀니다 근나 우리나라 싸라멘텐 그:진말 허든 안템니다 {그리고 난, 이, 뭐,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데 이게 됩니까. 물론

- 외국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 10201 # 우리나라 사람드리 더 마니 오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진말허믄 안텐다  
내 그래뜨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면  
안된다. 내 그랬더니}
- 10201 # 아 말씀니다 말씀 도지사 도지사도 할:마리 엄능거야 그냥 @ 그러쵸 사실대로 #  
내가 드리바그니깐 할:마리 엄능거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 도지사도 할 말이  
없능거야 그냥(그렇쵸. 사실대로) 내가 들이 박으니까 할 말이 없능거야.}
- 10201 # 그 오:른 소리만 헐찌 내가 틀린말 아니거드뇨 아라씀니다 그러면 뭘 어트게 해:  
드려야테겐씀니까 {그 옳은 소리만 했지 내가 틀린 말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 10201 # 그쵸 제가 말씀드린 그대롭니다 하우스를 한동씩 지어준데든지 송아지를 한마리  
씩 이 내게해서 그래도 그거에 추밀부치면서 이런 처우래두 해야 그래두 아 정부에서 우  
리 이 마을을 증말 먹꾸살게 해주는구나 이르게 인정을 허지 아 맨날 청소나 허래는데  
청소해가지구 밤먹꾸 삼니까 그래뜨니 {글세, 제가 말씀 드린 그대롭니다. 하우스를 한  
동씩 지어준다든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이, 내게 해서 그래도 그거에, 취미를 붙이면서  
이런, 처우라도 해야 그래도 아, 정부에서 우리 이, 마을을 정말 먹고 살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아, 맨날 청소나 하라는데 청소해가지고 밥 먹고 삼니까. 그랬더니}
- 10201 # 아라씀니다 그리구 가드니 어제 송아지 열마리 열 마리를 내려보내뵈요 {알았습  
니다. 그리고 가더니. 어제, 송아지 열 마리 열 마리를 내려 보냈데요.}
- 10201 # 그래타구 이 군:수가 께쏘리 모타구 그냥 간 아무 쏘리모터구 가쵸 {그랬다고 이,  
군수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간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
- 10201 # 가더니 아마 도지사가 이제 그 군수한테 야다늘 친 몬냐이야{가더니 아마 도지사  
가 이제 그, 군수한테 야단을 친 모양야.}
- 10201 # 송아지 열마리 쥬:라 그랜 그랜나봐 아:느 하루 가드니 이:장이 갑따오드니 웬장  
님 저이 송아지 열마리가 뵈웁씀니다 열마리 열마리 갑따 뵈:래 임마 팽개치고오지 열마  
릴가저와 내가 그래뜨니 뵈:그거 갑따 뵈:허냐 내가 아 또:준대요 {송아지 열 마리를 쥬  
라. 그랬나봐. 어느 하루 가드니 이장이 갔다 오드니 회장님 저, 이, 송아지 열 마리가  
되었습니다. 열 마리 열 마리 갖다 뵈:래. 임마, 팽개치고 오지 열 마리를 가져와. 내가  
그랬더니. 뵈:이거 갖다 무얼하냐 내가 아, 또 준대요.}
- 10201 # 그래 그래 그서 매어 일러네 함 한버네 다줄 쭈가 업쓰니깐 열마리씩 준대요 그  
르니깐 인제 그르케 생가글 헐찌 그래뜨니 뵈:그기 뵈:쥬 열마리 주곤 고마니지 {그래  
그래, 그래서 일년에 한 한 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열 마리씩 준대요.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뵈:그게 뵈:쥬 열 마리 주고는 그만이지.}
- 10201 # 그래 그나마두 주긴 쥬:는데 제대로 갑따가 제대로 갑따 메겨서 무슨 그 저 저걸  
해:씨야마리지 이런 아이누미 도늘저 그때당시에 오뱅마너닌가 을말 타다가 그인제 그때  
오십마년 송아지 한마리에 오십마년씩 사서 인제 쥬:라 그랜건데 {그래도 그나마도 주긴  
줬는데 제대로 갖다가 제대로 갖다 먹어여 무슨 저, 저걸 했어야 말이지. 이런 아, 이 놈  
이 돈을 쥬. 그때 당시에 오백만 원인가 열마를 타다가 그 인제 그 때 오십만 원 송아지  
한 마리에 오십 만원씩 사서 인제 쥬:라 그런 것인데}
- 10201 # 그때만 해두 엔나리니깐 벌써 이선 기 보보 아라보니까 길을 싸라미 업:파고 머  
전부다 길르기 실타 그르데나 어쩔때나 그랜때 아이누미 우물우물 허드니 지가다 도:늘

다 써버려써 그래 내가 야:다늘 치고 한번야단치구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벌써, 알아 보니까 기를 사람이 없다고 뭐 전부다 기르기 싫다 그런데나. 어쨌거나 그랬데 아, 이놈이 우물우물 하더니 자기가 돈을 다 써 버렸어. 그래 내가 야단을 치고 한번 야단을 치고}

10201 # 너 이누마 그도니 어트게 텐 도닌줄 알구 니들 그게 이:장보는 태:도가 안텐써 인마 난 어으어으 누구는 이:장을 안판냐 이:장은 무어 내가 빼가부러지두루 희생이 데야 이:장이지 마 이장을 바서 더:글 보게떼는건마 이:장이 아냐 그건 {너, 이놈아. 그 돈이 어떻게 된 돈인줄 알고 니들 그게 이장 보는 태도가 안 됐어. 인마, 난 어으어으, 누구는 이장을 안 봤나. 이장은 뭐 내가 빼가 부러지도록 희생이 되어야 이장이지 마, 이장을 봐서 덕을 보겠다는 건 마, 이장이 아냐 그건.}

10201 # 채김자로서 채기를 지는 사라문 내:가 희생이 데능거시 채김자야 내가 드글 보는 건 채김자가아냐 이:장을 그르케보든 안텐다 장:자쿠인 그돈 이:자 무러주지말고 갑따 가파 너 니가 물론 혼자 써쓰니깐 혼자서 갑겐찌마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가 희생이 되는 것이 책임자야. 내가 덕을 보는 건 책임자가 아냐. 이장을 그렇게 보면 안된다. 그 돈 이자 물어주지 말고 갚다 갚아. 너, 너가 물론 혼자서 쓰니까 혼자서 갚겠지만}

10201 # 그게 그러커능게 아니다 내가 좀 이저 허 모씨라고 인제 저 운마을 사는 사라미 인는데 또참 증말 나이차이두만쿠 그러치만 그인제 한참 한참 나다늘치구 {그게, 그렇게 하능게 아니다. 내가 좀, 허 모씨라고 인제 저 윗마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참, 정말 나이 차이도 많고 그렇지만 그 인제, 한참 한참 야단을 치고.}

10201 # 그후에두 가만 히 인제 허능거보든 증말 마땅치 아능게 만쳐 이:장들본다 허면선 이게 자기 챙길꺼부터 챙기능거야 자기일땅 버써 생가커능거구마랴 이게 아 내가 이장볼 때는 {그 후에도 가만히 인제 하는 거 보면 정말 마땅치 않은게 많죠. 이장들 본다 하면서 이게 자기 챙길 거부터 챙기는 거야. 자기 일당 벌써 생각하능거구 말야. 이게 아, 내가 이장 볼 때는}

10201 # 이걸 어트거든 주:미늘 내가어트게 퍼나나게좀 해:주까하구 그걸 뛰어댕깁게 이:장이닌데 이걸 저너 이게아주 달른예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민을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좀 해줄까 하고 그걸 뛰어 다니는 게 이장인데 이걸 전혀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그래서}

### (13) 노인회장 시절

10201 # 에 그게 이 노인회장도 그러씀니다 노인회장을 내가 그 참 육십살서부터 노인회장을 이른헌살까지 십 시빌년똥안 받:는데 {예, 그게 이, 노인 회장도 그렇습니다. 노인 회장을 내가 그 참, 육십살 때부터 노인 회장을 일흔 한 살까지 십 일년동안 봤는데}

10201 # 그걸뚜 그사람드리 그때는 이 지끄른 저이 우녕비가 나오고 다:나웁니다 이게 저이 그래서 그때내가 이장을 노인회장을 볼뜨게두요 그게 한푼도 그런게 엄썬찌기구 동 동네 마:으레 무신 도:니어디씀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 지금은 저이, 운영비가 나오고 다 나웁니다. 이게, 저이, 그래서 그 때 내가 이장을 노인 회장을 볼 적에도. 그게 한푼도 그런게 없을 적이고 동네 마을에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 10201 # 노인회는 그때 조지기래는걸부 제대로 테인찌안쿠 그래서내가 그걸 조지글허구 명:다늘 작성해서 시:에다가 올려서 부녀회따루 남자따루해서 두:를올려썬요 {노인회는 그때 조직이라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걸 조직을 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시에다가 올려서 부녀회 따로 남자 따로 해서 둘을 올렸어요.}
- 10201 # 그래뜨니 한 막사가 하나기때메 하나바께 안텐다 이게 게 인제 그때부터 머 지워늘 해준다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한팀 인제 그니깐 남자 하나만 지워늘 해주젠따 그래 인제 그때부터 한다레 인제 그게 삼만 육쳐뉘닌가 얼마를 준거예요 {그랬더니 한 막사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 밖에 안된다 이게. 게, 인제 그때부터 뭐 지원을 해준다 워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한 팀, 인제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인제 그때부터 한달에 인제 그게 삼만 육천원인가 얼마를 준거예요.}
- 10201 # 인제 그래서 그걸 가지구 인제 우:녕이 데는데 겐 도저이 우녕이 안테 그래서 내가 인제 그 또 또{인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제 운영이 되는데 겐, 도저히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인제 그 또 또,}
- 10201 # 그 허 이 우녕을 이 그기 경노당이라든 늘그니드리 으트거든지 퍼나내야테구 이 늘그니드리 이 와서 쉴:짜리와서 쉬어야테구 이 읍장한테 우선드러가서 {그, 허, 이 운영을 이, 거기 경로당이라면 늙은이들이 어떡하든지 편해야되고 이 늙은이 들이 이, 와서, 쉴 자리 와서 쉬어야 되고 이 읍장한테 우선 들어가서}
- 10201 # 이 우리 경노당이 이러니깐 회:과닌데 회:과니 이르케이르케테가지구 이젠머 어트게 경노당이 아니다 카늘 좀 마가서 노이드른 노인들끼리 이쪼근 부녀는 부녀 할머니들끼리 이르케좀 따로따로허게끔 카늘 막꾸 어트게 수릴좀 해야테간는데 어:트게 좀 보태달라그랬뜨니 {이, 우리 경로당이 이러니까 회관인데 회관이 이렇게 이렇게 되가지고 이 건 뭐 어떻게 경로당이 아니다. 칸을 좀 막아서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이쪽은 부녀는 부녀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게끔 칸을 막고 어떻게 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보태달라 그랬더니}
- 10201 # 아이 므 읍:짱이 무 므신 허미썬니까 도니 어디썬니까 아이 그 아이 므 어찌구저 찌구 자:꾸그래 내 아이 그 채육썬라구 인제 그사라미 읍짱할찌긴데 게내가스 쪼끔 쪼 들끼시른소리도 헐찌 아이여보오 {아이, 뭐, 읍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그, 아이, 뭐, 어찌구 저찌구 자꾸 그래. 내, 아니, 그, 최육수라고 인제 그 사람이 읍장할 적인데 개네가 조금 쪼 듣기 싫은 소리도 했지 아이, 여보}
- 10201 # 아 그거 읍짱이 인짜나 돈:쓰능거 맘:대로쓰는돈: 으{아, 그것 읍장이 있잖아? 돈 쓰는 것. 마음대로 쓰는 돈} @ 팡공비{판공비}
- 10201 # 아니 그게 인제 읍:짱이 인제 그 재량껏 쓸썬인능게{아니, 그게 이제 읍장이 이제 그,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이} @ 그러썬니다{그렇습니다.} # 육천마뉘닝가 칠천마뉘니 일러네 나오능게 이썬니다{육천만 원인가 칠천만 원이 일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 10201 # 그러믄 그필때 그 돈갈따 쓰 인제 메꾸능거거더뇨 아이 그거뭐 다 썬썬 쪼끔 주지 그래뜨니{그러면 급할 때 그 돈 갖다가 쓰, 이제 메우는 것이거든요. 아이, 그것 뭐 다 썬어? 조금 주지 그랬더니}
- 10201 # 아 별낭걸 다따지시네 그 별랑걸 그렇거까지 아:슈 인제 아니 아:나 모르나 그르치 내가 당신한테 무슨 동:냥허러 와썬 내가 먹꼬 살려그래 그 썬:해서 늘그니드리 퍼난 허게살젠때는데 뭐:가 잘못때썬 썬 도와주면 크닐나나 그래뜨니 아라썬니다 그러드니 오 뱅마너늘 줘:썬요{아, 별난 것 다 따지시네. 그 별난 것 그런 것까지 아세요? 이제 아니,

아나 모르나 그렇지. 내가 당신에게 무슨 동냥하러 왔어? 내가 먹고 살려고 그래? 그 줌 해서 늙으니들이 편안하게 살겠는데 뭐가 잘못됐어? 줌도와주면 큰일이 나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런더니 오백만 원을 주었어요.}

10201 # 게 가따 그노무거를 카:늘막꾸 무늘 장지무늘 해달꾸 인제 에 핵이때는 게 터노코 인제게해서 인제 주방을 주방기를 디려노코 냉:장고 쪼끄망걸 하나 으:더다노코 인제이 르케해서{그래 (그 돈을) 가져다가 그놈의 것(노인들이 거쳐할 곳)을 칸을 막고 문을, 장 지문을 해 달고, 이제 예, 회의 때는 그래 터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방을, 주방기를 들여놓고 냉장고 조그만한 것을 하나 얻어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201 # 게:도 이 나며니래두 혹시 인제 쌀마다 머글때는 게도 주방이 이씨야 데지안나 그래서 이제 처:메 시자글 해:서보니깐 이게 하나 하니깐 또 하나가 모자라 하나하니깐 또 하나가안돼: 이게 머{그래도 이, 라면이라도 혹시 이제 삶아먹을 때는 그래도 주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를 하나까 또 하나 가 모자라, 하나를 하나까 또 하나가 안 돼. 이게 뭐}

10201 # 주글 지경잉거예요 가마니 생각하니까 이게 크닐나씨 그래서 짜 이게 그래두 노인네드를 데리구 어딜 좀 하루 놀러래두 좀 나가구 그래야 데는데 이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그래서 자, 이게그래도 노인네들을 데리고 어 디를 좀 하루 놀러라도 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0201 # 게 인제 하룬 인제 여행이라구해서 저 강화를가서 인제 하루 놀다가와뜨니 아이런 망할 아이그 그때 인제 고 그즘 뭐 강꿔늘 씨따 날보러 인제 그 그 왜 그랜냐면 그때 당시에는 칠씨비상덴 사람드른 안데리간다 이러케 덴:씨요 그 왜 그르냐면 {그래 이제 하루는 이제 여행이라고 해서 저 강화를 가서 이제 하루 놀다가 왔더니 아, 이런 망할 아이, 그 그때 이제, 고, 그 줌, 뭐, 강권을 썼다. 날보고 이제 그, 그,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칠십 이상이 된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10201 # 그이 저할망구드리 참 우리 어머니버텀도 칠씨비 너머드랜지만 노인네들 켜히 까 따거른 차멸미나하구 이이게 아주심 안데거드노 까따 위허마니까 그래뜨니 그게 마리마 능거야 {그이, 저 할망구들이 참, 우리 어머니부터도 칠십이 넘었었지만 노인네들 켜히 까딱하면 차멸미나 하고 이, 이게, 아주 심, 안되거든요. 까딱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제 말이 많은 거야.}

10201 # 아 이런 망할 게서 가마아이 따져보니까 그양반 그런 칠씨비상 노인니 그때당시에 에 바깥노인 안 안노인 해가지고 전부 하폐봐야 열텐명바께 안데는데 바깥 노인드른 뭐 저저게 안데구 안노인만 열한부닌가 열두부닌가데요 그래서 {아, 이런 망할,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양반 그런 칠십 이상 노인네 그때 당시에 에, 바깥노인 안노인 해가지고 전부 함해봐야 열 몇 명밖에 안되는데 바깥노인들은 뭐 저, 저게 안 되고 안노인만 열한분인가 열두 분인가 돼요.}

10201 # 아 이글 내가 이시보인승 빼슬 하나 내 하날 으:더다가 그때 인제 고게 하루 쓰는데 시비마너니지 그때 을마 해씨요 에 내가 까지꺼 시비마년 내가 주머니 터러서 내가 모쌀게 데냐 노:인네들 위해서 저머나 게 부너훼장보러 야 여보 {아, 이걸 내가 이십 오 인승 버스를 하나 내 하나를 얻어다가 그때 이제 그제 하루 쓰는데 십이만 원인지 그때 얼마 했어요. 예, 내가 까짓거 십이만 원 내가 주머니 털어서 내가 못 살게 되나? 노인네들 위해서 그래 부너훼장보고 야, 여보}

10201 # 이거 저 노인훼장 아저 노인들 할무니들 그 뭐 제대로 잡쭈지도 모니까 음뇨수나

땀땀허구 거기서 머저 땀: 머 이런거 해서 차에다 좀 시러라 {이거, 저 노인 회장 아, 저, 노인들 할머니들 그, 뭐,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니까 음료수나 몇 병하고 거기서 뭐, 저, 땀 뭐 이런 거 해서 차에다 좀 실어라.}

10201 # 기래 그 인제 그걸해서 실:꾸 그러구 인제 그 여기서 자유다리루해서 저 화석쟁으루해서 저 통일동사느루해서 그 이 가다가 노인냥반드리 차멀미해요 그럼 가다쉬구서 예 길가에 이제 잔디바테다 세워노쿠 인제 한참 노래두 불러주구 인제 게 인제 부녀회장 나 또 우리 총무 이넌 세시서 데리구 탕기능거지 {그래, 그 인제, 그걸 해서 신고 그리고 인제 그 여기서 자유다리로 해서 저 화석정으로 해서 저, 통일 동산으로 해서 그, 이, 가다가 노인 양반들이 차멀미를 해요. 그럼, 가다 쉬고서 예, 길 가에 이제 잔디밭에다 세워 놓고 인제 한참 노래도 불러주고 인제 그래 인제, 부녀회장 나 또 우리 총무 이 넌, 셋이서 데리고 다니는 거지.}

10201 # 하루 놀고와쁘니 아이게 그냥 머 그냥 조아서 이냥반드리 이젠 주거도 하니 업느니 어찌느니 허는 소리가 나오구 살:다보니까 참 별란걸 다했 구경해따 그러구 이참 통일동산 거기 올라가기두 힘들지만 {하루 놀고 왔더니 아, 이게, 그냥, 뭐, 그냥 좋아서 이 양반들이 이젠 죽어도 한이 없느니 어찌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살다 보니까 참 별란 걸 다했, 구경했다 그리고 이, 참, 통일 동산 거기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10201 # 거길 참 간시니 우리가 인제 모시구 올라가구 인제 가서 사 카메라는 내가 자주 탕기니깐 사:지늘 제 찌거서 한장씩 노나드리겐 아주 조아죽겐때능거야들 {거길 참, 간신히 우리 가 이제 모시고 올라가고 인제 가서 카메라는 내가 갖고 다니니까 사진을 제, 찍어서 한 장씩 나눠드리겠, 아주 좋아 죽겠다네 거야}

10201 # 게 그래쁘니 그담부턴냥 노인네들이 이거 그냥 아 올 오래는 어디루갈꺼야 보멘 어디루가 아이 크닐나따마랴 이거인제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노인네들이 이거, 그냥, 아, 올해는 어디로 갈 꺼야? 봄에는 어디로 가? 아이,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인제}

10201 @ 연중행사가 텔네 {연중행사가 됐네?}

10201 # 한번 해날쁘니 자꾸만 그소리가 나와 그래 예라 이거 모르젠따 인제 그레인자 가으래 {한번 해났더니 자꾸만 그 소리가 나와. 그래 예라, 이거, 모르겠다. 인제 그레인제 가을에}

10201 # 이 영:굴해보니까 머 돈 나올 구멍이 업써 어디가서 뜨터온데는 건뚜 한:계가 인능거지 게인제 척:싸대헬 열라 그래 엔따그 냥 간파늘 부천찌 그냥 에 척싸대외 그건뚜 가마니 소울롬드리 나가인는 놈드리 내려와야데 아들딸드리 내려와야데거든 {이 연구를 해 보니까 뭐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어딜 가서 뜯어온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게, 인제, 척사대회를 열라고 그래. 냅다 그냥 간판을 붙였지. 그냥 에, 척사대회 그것도 가만히 서울 놈들이 나가 있는 놈들이 내려와야 돼. 아들 딸들이 내려와야 되거든.}

10201 # 아 그래노쿠 인제 우리 애들부터 야 오마넌 심마넌 갈따부 갈따부쳐라 아이 하보니 제다부천꺼던 이게 아무개가 와서 머 오마넌 부치구 아무개가 심마넌 부치구 이거 크닐 날꺼든 이게 지:들 안헐쑤도업꾸 지 엄마아버지가 여기 인는데 어트갈테야 {아, 그래 놓고 인제 우리 애들부터 야, 오만 원 십만 원 갖다 붙여라. 아이, 해보니 죄다 부쳤거든. 이게 아무개가 와서 뭐 오만 원 붙이고 아무개가 십만 원 붙이고 이거, 큰일 났거든 이게 제들 안할 수도 없고. 지 엄마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어떡할 거야.}

10201 # 학생드리 그냥 그머 공무 노리두 윤노리도 윤노리지만 그게 우선 이름갈따 쭈우

옥 간따 부쳐노니까 아이 그니깐 수 수이비 엄청난 수이비 온거예요 야 인제 텨따 인제 이마나쁜 인제 또 한동안 견디겄따 인제 그래서 인제 {학생들이 그냥, 그 뭐, 공무, 놀이도 웃놀이도 웃놀이지만 그게, 우선 이름 갖다 죽 갖다 붙여 놓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수업이 엄청난 수업이 난 거예요. 야, 인제 됐다. 인제 이만 하면 인제 또 한동안 견디겠다. 인제 그래서 인제}

10201 # 그때만해도 노인네드리 마:나씨요 그래 인제 한 이 남자여자 하패서 한 사십명 한 오십명가까이 텨꺼든 {그때만 해도 노인네들이 많았어요. 그래, 인제, 한, 이 남자 여자 합해서 한 사십 명 한 오십 명 가까이 됐거든}

10201 # 게 인제 가:게하는 사라미 두:리 인젠는데 그때 소:주 한병에 팔:백 얼마지 옥백 얼마지 해써 게 이제 이:홉뜨리 한병에 두:를 불러다노쿠 {그때 인제, 가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소주 한 병에 팔백 얼마지 옥백 얼마지 했어. 게, 이제, 이 홉 들이 한 병에 둘을 불러다 놓고}

10201 # 야 니:들 이 노인정에서 노인네드리 사다 멍는건 이 지브루 가져가는건 말구 노:인정에서 사다멍는거는 니들 원까루 도매값 떠는 값으루 좀 줄쭈음냐 {야, 니들 이,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사다 먹는 것 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말고 노인정에서 사다 먹는 거는 니들 원가로 도매 값, 사오는 값으로 좀 줄 수 없냐}

10201 # 그 그 정도 좀 희생 좀 해:라 그랜저 그래뜨니 아이 한누미 안허겄따능거야 난 그러케 모릅니다 장:산테 어트게 그러케 험니까 파라머거야지 {그 그 정도 좀 희생 좀 해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 한 놈이 안하겠다는 거야. 난 그렇게 못 합니다. 장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팔아먹어야지}

10201 # 노인들 데꾸 파라머거야 테냐 그래뜨니 이를 냉겨 머거야 테냐 그래뜨니 글썄 저는 모릅니다 이거야 그래? 고만뒤 그럼 가마:이 생가카니까 안테게서 예 {노인들 갖고 팔아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이를 남겨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글썄 저는 못 합니다 이거야. 그래? 그만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예,}

10201 # 농협베 가씨 그래 인제 그 질로 수리 사기가 힘드러씨요 게 농협벨 갸찌 가서 인제 그 공판장애를 가서 인제 지그 저기 전무를 만나가지구 야 이르게 텨는데 {농협에 가서 그래 인제 그 진로 술이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농협에를 갔지. 가서 인제, 그, 공판장애를 가서 인제 지, 그, 저기 전무를 만나 가지고 야, 이렇게 됐는데}

10201 # 이게 내가 농여블 이 파주농여블 창:설자이면서 농여베 인제 그 이:사 수석이사 머 이런걸 그 두루거친끼 때무네 게 농:여블 내가 맘대로 해 그 내가 인제 조합짱 출마까지두 인제 나를 저걸해서 추대를 허다가 {이게, 내가 농협을 이, 파주 농협을 창설자이면서 농협에 인제 그 이사 수석이사 뭐 이런 걸 그, 두루 거쳤기 때문에 그래 농협을 내가 마음대로 해. 그 내가 인제 조합장 출마까지도 인제 나를 저걸해서 추대를 허다가}

10201 # 참 내가 그 결:씨를 제테루 모터구 인다가 낭중에선 결썸 해라해서 허다가 이겐 내:가 그 이 {참, 내가 그, 결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결심해라 해서 하다가 이게 내가 그, 이,}

10201 # 저거시 제테루 안테씨요 그 즈 조합짱을 할러든 그때당시에 오십마년 이상을 정리블 시킨 사라미래야데 근데 내가 삼십텐마년바게 안테 {저것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즈, 조합장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오십만 원 이상을 적립을 시킨 사람이라야 돼. 근데 내가 삼십만 원밖에 안 돼.}

10201 # 그래서 그게 그 범찌그루 안테데능거야 그래서 기꿔늘 해버리구 마란지만 그르니



깐 이 지권드리구 뭐 이 조합짱이 누가 됐든지가네 나:래는 사라를 알:거드노 {그래서 그게 그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권을 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고 뭐, 이, 조합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10201 # 계인제 그런 네길 해:뜨니 우리 경노당에서 한다래 멍능게 소주 한 팔십병정도든 돼 두:짜 사십병 짜리 두:짜기든 돼는데 어뜨게 그걸 좀 이 저 농협 에서 좀 대:줄수 없냐 그래뜨니 {그래 인제 그런 애길 했더니. 우리 경로당에서 한 달에 먹는 게 소주 한 팔십 병 정도면 돼. 두 짜 사십 병 짜리 두 짜이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좀 이, 저, 농협 에서 좀 대 줄 수 없냐? 그랬더니}

10201 # 그러드니 그 무 회장님 와서 얘기하시면 또어뜨게 그걸 거절 혈쭈 이썸니까 어트 건지 그걸 빼:서 빼드려야쥬 그래서인제 그러케 그 우리 총무한테가서 {그러더니 그 뭐, 회장님 와서 얘기하시면 또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떡하든지 그걸 빼서 빼드려야지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그 우리 총무한테 가서}

10201 # 야 이르게 데쓰니까 농협배가서 가져와 게 인제 그치 갑파가 인제 그 메기니깐 아이 동 이눔집저눔집 기냥 한병도 안팔리지 뭐야 한병도안팔리지 기 난 그걸 어트거나 {야, 이렇게 됐으니까 농협에 가서 가져와. 그래 인제 그렇지 갖다가 인제 그 먹이니깐 아이, 동, 이눔 집 저눔 집 그냥, 한 병도 안 팔리지 뭐야. 한 병도 안 팔리지. 기, 난 그걸 어떡하냐?}

10201 # 농여배서 가져온 갑썰 고대로 준 니들 머거라 그대신 느이 여기서 지 지브로 가져가는 한병이라두 가져가든 안데 어쁜냥바니든지 안템니다 여기서 꼭 회:과내서만 멍능 거라야템니다 그래서 그리구 도:늘내고 머거요 그리군제 {농협에서 가져온 값을 그대로 준, 너희들 먹어라. 그 대신 너희 여기서 집으로 가져가는 한 병이라든 가져가면 안 돼. 어떤 양반이든지 안 됩니다. 여기서 꼭 회관에서만 먹는 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돈을 내고 먹어요. 그리고}

10201 # 이 지끔 구 모시래는 사라미 지끔 마:를모터구 병:신처럼 살구인는데 그사라미 술 두체데루 저이 먹찌마는 또그러타구해서 뭐 실수를하는 사라미아니야 아주어려서부터 아주 고지시권사라미거든 {이, 지금, 구 모씨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못 하고 병신처럼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술도 제대로 저이, 먹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거든.}

10201 # 도:는 총무가 받찌 난 노상 이썸쭈가업썸 그니간 당시니 요 술갑썸 당여니 채김저 그래뜨니 아라따 그러면서 채기물전는데 {돈은 총무가 받찌 난 노상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요 술값은 당연히 책임져.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책임을 졌는데}

10201 # 아 처으메는 아 요 그 한 한상자 팔든 한상자가 고대로 나오드라구요 그니간 인제 이게 한 두어달 돼니깐 아 한상자 팔든는 멘뽕씩 이게 도니 모자라 게 왜 모자라냐 그래뜨니 {아, 처음에는 아, 요, 그, 한 상자 팔면 한 상자 값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한 두어 달 되니까 아, 한 상자 팔면 몇 병씩 이게 돈이 모자라. 그래 왜 모자라느냐? 그랬더니.}

10201 # 아이 나 모태 나 이제 안혈테야 그래 왜 왜 안허냐 그래뜨니 {아이, 나 못 해 나 이제 안 할테야. 그래 왜 안하냐? 그랬더니}

10201 # 이게 어뜨게 텐건지이 머이 저사라미 먹꾸설랑 안넌거 거튼데 내:따구 드리 내밀구 그르니 어트거나 이거야 싸울쭈두 읍꾸 게 멘뽕갑썸 읍:따 이거야 나참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머, 이, 저 사람이 먹고서 안 낸 것 같은데 냈다고 들이 내밀고 그러니

- 어떡하냐 이거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병 값이 없다 이거야. 나 참 그래.}
- 10201 # 그런데 가마: 생가카니까 요거 한다레 그래 스물두짜 요거 뎡뎡 그래 까지능거가 예라 그라이 수른 그대로 공짜다 그대신 여기서 한:병두 거주나가면 안됩니다 요기서 멍는건 그냥 공짜로 잡썬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요거 한 달에 그래 스물두 짜 이거 몇 병 그래 까지는 것이, 예라, 그래 술은 그대로 공짜다. 그 대신 여기서 한 병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먹는 건 그냥 공짜로 잡썬}
- 10201 # 아어 그래뜨니 그냥 술드리 신빠라미나서 멍능거예요 가 철따레는 이제 두상자가 모자라드라구 이에 차츰 차츰 지나니까 이제 그담부터 들:머거 {아어, 그랬더니 그냥 술들을 신바람이 나서 먹는 거예요. 가, 첫 달에는 이제 두 상자가 모자라더라고 이에, 차츰 차츰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덜 먹어.}
- 10201 # 강 그 머거뽕짜 얼마나 멍냐 까진 뭐 술리 수리 어트가문 안테젠냐 어느놈 가서 등을 쳐두 내가 술잡슨 내마 이랬거든 게 이제 잘 허구들 이제 게 신빠람나서 머궁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그냥 그, 먹어봤자 얼마나 먹냐? 까짓것 뭐 술이 어떡하면 안 되겠냐? 어느 놈 가서 등을 쳐도 내가 술값은 내마. 이랬거든. 그래 이제 잘 하고들 이제 게, 신바람 나서 먹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 10201 # 가마:니 또 생가글 허니깐 이제 그 이러케 저러케 도늘 좀 주서모으고 또 그냥 내가 뵈:장을 허니깐 그냥 이놈저놈 또 가는 가는놈 오는놈 와서 그냥 그래두 또 십마년씩 주고 머 어찌고 저찌고 또 와서 즈이 주고가구 {가만히 또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이렇게 저렇게 돈을 좀 주워 모으고 또 그냥 내가 회장을 하니까 그냥 이놈 저놈 또 가는 놈 오는 놈 와서 그냥 그래도 또 십만 원씩 주고 뭐 어찌고저찌고 또 와서 주고 가고}
- 10201 # 뭐 이런 그 뵈:사하는 사람들 무이 뵈:사에서 여기 뎡뎡데 뵈:사가 일꺼드뇨 아이 와서 기냥 뵈이 뵈장님 이르게 참 애를 쓰신데는데 이제 참 경노당에 예이게 보태 서쓰시라구 인자 봉투도 하나씩 주고 그래 {뭐, 이런, 그, 회사하는 사람들 뭐, 이, 회사에서 여기 몇 군데 회사가 있거든요. 아이, 와서 그냥 뵈, 이, 뵈장님 이렇게 참 애를 쓰신다는데 이거 참 경로당에 예, 이제, 보태서 쓰시라고 인자 봉투도 하나씩 주고 그래.}
- 10201 # 아이 으 그럭저럭 그냥 우녕이 돼드라구요 그러니깐 술잡 그까지꺼 머 공짜로 줘:도 데걸따 생가글해써 그래 {아이, 으, 그럭저럭 그냥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값 그까짓 것 뭐 공짜로 주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
- 10201 # 가마:니 그래서 이제 가으리 데가지구 겨우리 데는데 가마:이 생가글 허니깐 참 이상한게 또하나 또 또 생기더라구요 {가만히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어 가지고 겨울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이상한 게 또 하나 또 생기더군요.}
- 10201 # 이제 겨우레 누:니 완는데 이 늘그니드리 바블 머그러 점:시를 머그러 가야데 지:비를 갈따가 또 점심 먹꾸 와야데 게 인자 이 미끄러져 나가 떨어지면 다치기라두 허문 이제 또 어뜨커나{이게, 겨울에 눈이 왔는데 이 늙은이들이 밥을 먹으러 점심을 먹으러 가야돼. 집을 갔다가 또 점심 먹고 와야 돼. 그래 이제, 이, 미끄러져 나가 떨어지면 다치기라도 하면 이제 또 어떡하냐}
- 10201 # 예라 바블 어트게 쌀 가지꺼 뎡 한 잘해바야 겨울라바야 한 두어 가마면 데걸찌 쌀 두가마니에 이제 간 따져봐야 을마 {예라, 밥을 어떻게 쌀 까짓것 몇, 한, 잘해봐야 겨울 나봐야 한 두어 가마면 되겠지. 쌀 두 가마니에 이제 따져봐야 얼마.}
- 10201 # 문제는 반찬이다 반찬은 까질꺼 지비가면 지이들 더 잘멍냐 배추김치 한통씩 건꼬 머여 걸짜 이래가지구 {문제는 반찬이다. 반찬은 까짓것 집에 가면 제들 더 잘 먹냐?

배추 김치 한 통씩 걷고 뭐 걷자. 이래 가지고}

10201 # 게 지금제 문 모씨라구 그 이제 자랄때두 참 내 누이동생허구 동가비에요 지금 제 이른 한사린데 불렀찌 야 이:거 내 이르게 허고시픈데 너 밥쫄해줄래 해뜨니 하이 오라브니가 무 해달래든 해 해야지 어트게 야 이거 저이 늘그니를 위해서 허능거니까 다조은거야 조은니리야 그니간 해봐 해보자 {그래 지금 제, 문 모씨라고 그, 이제 자랄 때두 참 내 누이동생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제, 이른 한 살인데. (그 사람을) 불렀지. 야, 이거 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밥 좀 해줄래? 했더니. 하이, 오라버니가 뭐 해달라면 해야지. 어떡해. 야, 이거, 저이, 늙은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은 거야.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해봐 해보자.}

10201 # 에 그래뜨니 아 그러커허자 그래 게 인제 까쓰렌지 뭐 이런거 다 이쓰니까 게 거기서 반찬 인제 우선 가으레 파를 심거서 우선 파 저장해 노코 게 김치 해서 이만한거 한독 당가노코 뭐 그년간 김치 기보니 이쓰니깐 데능거야 기보니 그까진꼰 말쁜반차니 뭐니 다른거반차니야{에,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자 그래. 그래 인제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래 거기서 반찬 인제 우선 가을에 파를 심어서 우선 파 저장 해 놓고 김치 해서 이만한 거 한독 담귀 놓고 뭐, 그러니까 김치 기본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기본이. 그 까짓것 마른 반찬이 뭐니 다른 거 반찬이야}

10201 # 그르케 허다보니깐 또 이사람 저사람 또 고기도 한근 사오는 누민꼬 뭐 가 이거 무슨 어디가니까 선:지를 또 파는 데 싸서 쫄 사왓따 그러구 또 선:지를 한뼉게서 가져오는 누미엄나 그이 이래저래 또 먹게 테드라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도 고기도 한 근 사오는 놈 있고 뭐, 가, 이거 무슨 어디 가니까 선지를 또 파는 데 싸서 쫄 사왔다 그러고. 또 선지를 한 바가지 해서 가져오는 놈이 없나 그, 이, 이래저래 또 먹겠더라고요.}

10201 # 그 허니까 예라 이누마 잘텐따 그래 그래가지 신나게다 바블허니까 파주 파주시 전체에 소무니낭거야 야 봉암일리 경노당에서는 점:시를 해서 명는다 이르게테췌요 {그렇게 하니까 예라, 이눔아 잘됐다. 그래 그래가지 신나게 밥을 하니까 파주시 전체에 소문이 난 거야. 야, 봉암 일리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해서 먹는다 이렇게 됐어요.}

10201 # 아 그니깐 인제 그 시:여나웨 웨:장이 방 모시라고 아이 한번 와써 내오라 그래찌 그래뜨니 와 아 오면 지가 그냥 오나마리아 체소한도 심마너는 누쿠가야 허거든 그래 봉틀 하나가지고 와써 게 여 저 바블 해 메긴템서 그래 {아, 그러니까 인제 시 연합회 회장이 박 모씨라고 아이, 한 번 왔어. 내가 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와. 아, 오면 제가 그냥 오나 말이야. 최소한도 십만 원은 놓고 가야 하거든. 그래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 그래 여기서 밥을 해 먹인다면서 그래.}

10201 # 그래 바블 해메기는데 나보다 한살 더 머거쓰니깐 인제 그전부터도 잘 알구허니깐 그사라든 인제 적쌍 싸라민데 {그래, 밥을 해 먹이는데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인제 그 전 부터도 잘 알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인제 적성 사람인데}

10201 # 그래 인제 바블 해메기니깐 아주 조아하구들 참 잘명는다구 마시게들 먹꾸 아주 떠난하긴해 겨우레 그 아주 이 미끄러운데 그냥 누노는데 갑따가 오능게 애쳐로워서 이 시자글 헐뜨니 잘웨써 그러드니 {그래, 인제, 밥을 해 먹이니까 아주 좋아하고들 참 잘먹는다고 맛있게들 먹고 아주 편안하긴 해 겨울에 그, 아주 이, 미끄러운데 그냥, 눈 오는데 갔다가 오는 게 애쳐로워서 이 시작을 했더니 잘 됐어. 그랬더니.}

10201 # 아주 참 잘해써 잘해써 이거 인제 내가 총:해 때 내가 선저늘해 가지고 이게 내

그냥 엔만한텐 해:먹게 맨드리 해하는데 거 참 조은 아이디어야 그래 조은게 아니라 사  
시른 허다보니까 그게 생 어쩔쑤업씨 해줄쑤바께 업는 형퍼니 데드라 그래서 이르게 텅  
거다 그래뜨니 잘해씨 잘해씨 {아주, 참, 잘 했어 잘 했어. 이거 인제 내가 총회 때 내가  
선전을 해가지고 이게 내 그냥 웬만한 데는 해먹게 만들어 해놔는데 거, 참 좋은 아이디  
어야. 그래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다보니까 그게 생,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잘 했어. 잘 했어.}

10201 # 아 그 이 그래 총회때 나를 이 표창을 주능거예요 그에 가직 뭐 그 선저늘 허기  
위해서야 그게 아 무슨 경노당에 이냥 휘 휘워니 남:자가 맨명 여자가 맨명인데 이걸 식  
싸를 해서 그냥 다: 그냥 점심세 대저블허구 그냥 뭐 이르게 아주 그냥 참 모 화머커구  
머해야지 {아, 그, 이, 그래 총회 때 나를 이 표창을 주는 거예요. 그 가직 뭐, 그 선전을  
하기 위해서야 그게, 아, 무슨 경로당에 그냥 회원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데 이  
걸 식사를 해서 그냥 다 그냥 점심 대접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참, 뭐, 화  
목하고 뭐해야지.}

10201 # 참 에 이 에 하이구 이진 증말 다나비 잘테인꼬 그러타구 인제 그냥 선저늘 디리  
다능거야 그래서 거기서 인제 그걸 퍼창장을 하나 바:다가지구 인제그냥 아이 요 인제  
{참, 에, 이, 에, 이진 정말 단합이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인제, 그냥 선전을 마구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인제 그걸 표창장을 하나 받아 가지고 인제 그냥 아이, 요, 인제}

10201 # 그냥 그르니깐 그담부턴 그 손 이 술도 그러케 마니 먹명게요 실째 터논코머 그  
래니깐 마니 몬먹떠라구 가자가진 모타니까 하이튼 지브로 가자가진 모타니까 고기서만  
명능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손, 이, 술도 그렇게 많이 먹던 게요 실제  
터놓고 먹으라니까 많이 못 먹더라고. 가져가지는 못하니까 하여튼 집으로 가져가진 못  
하니까 거기서만 먹는 거니까}

10201 # 게 인잔 술명은 사람도 그냥 고:래처럼 명는 사라미 그저 맨싸람 서너너던 싸람인  
는데 그 머저받짜지 지가 머 얼마나 머저 고기서만 명능거니까 {그래 이제는 술 먹는 사  
람도 그냥 고래처럼 먹는 사람이 그저 몇 사람. 서너 너덧 사람 있는데 그, 먹어 보았자  
지. 제가 뭐, 얼마나 먹어? 거기서만 먹는 거니까}

10201 # 그르케 해 가지구 경노당 그 그냥 그러한 저러한 그냥 우녕이데 아 휘장 내 논대  
면 기냥 질씩뜨를 허구 드리비담비구 야다늘해서 몬:내노코 몬내노코 인제 {그렇게 해가  
지고 경로당 그, 그냥 그런 저런 그냥 운영이 돼. 아, 회장 내 놓는다면 그냥 질씩들을  
하고 들이 텅비고 야단을 해서 못 내놓고 못 내놓고 인제}

10201 # 여 월래 휘장이 이너니 만기거든 저거거드노 근데 이게 그냥 심너니 넘뜨록 참  
그 원 그다메 인제 지끄른 삼너니 텅찌만 임기가 그뻘 이:너니어써씨요 그때 {여, 월래  
회장이 이 년이 만기거든, 저거 거드요. 근데, 이게, 그냥 십 년이 넘도록 참 그, 원, 그  
다음에 인제 지금은 삼 년이 됐지만 임기가 그뻘 이 년이었어요. 그때}

10201 # 게 명:단 작성에서 그 저러케 신:고를 해가지 거기서도 또 이 저걸 드러가지고  
{그래 명단 작성해서 그 저렇게 신고를 해가지. 거기서도 또, 이, 저걸, 들어가지고}

10201 # 시:에서도 인제 그 지위늘 직접해주는 걸로 이르게 해가지구 시에선 또 박 모씨는  
박 모씨대루 {시에서도 인제 그 지원을 직접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선 또,  
박 모씨는 박 모씨 대로}

10201 # 시장미테 드러가서 인제 그 디리 인제 싸우능거야 경노당에 이 요즘 협조를 해줘  
예지 요 늘그니드리 이에 뭐 때만웨든 그래두 늘그니찬는데 아주 평 표 찌글때 가서 니

들 생가캐라 뭐 뭐 이냥 공갈협박 막 때리능거야 인제 {시장 밑에 들어가서 인제 그, 인제 싸우능거야. 경로당에 이, 요즘, 협조를 해줘야지. 늙은이들이 이에, 뭐, 때만 되면 그래도 늙은이 찾는데 아주 표 찍을 때 가서 너희들 생각해라. 뭐, 뭐, 그냥 공갈 협박 막 때리는 거야 이제}

10201 # 그래가지구 거 박 모씨도 보:통 아니예요 그래가지구 여니를 하만 두어번해써 그래가지구 그사람도 참 낭중에 고만될찌만 {그래 가지고 거, 박 모씨도 보통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연임을 두어 번 했어. 그래 가지고 그 사람도 참 나중에 그만 뛴지만.}

#### (14) 군대 시절

10201 # 그르케 해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 어저께 왁든 그 이 정 모씨라구 이사람 이 나보단 두사리 아랜데 학폰 가치 땡겨써요 그리군 인제 어제도 예:기 쯤만 군대도 가치 나가구 근데 참 그 군대나가서도 고생을 마니 헐찌 말 그대루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 어저께 왔던 그, 정 모씨라고 이 사람 이 나보다 두 살이 아래인데 학교는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는 인제 어제도 얘기 했지만 군대도 같이 나가고 근데 참, 그 군대 나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 말 그대로.}

10201 # 나는 인제 그 그래두 줌 이르게 자꾸 좀 노픈 자리로만 땡기구이꾸 그르니깐 {나는 인제 그래도 좀 이렇게 자꾸 좀 높은 자리로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10201 # 참 아주 말판 소 소 소 소총소대에서 소총소대 참 힘:듭니다 증말 힘드려요 심바리 하나 제대로 돼 나오나 {참, 아주 말단 소총소대에서 소총소대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신발이 하나 제대로 돼 나오나?}

10201 # 아이 휴가를 처:오메 보낼랴 그래뜨니 중대장이 안보내능거야 이 사고뭉치에 가문 안올꺼다 애가 그니깐 안텐데능거야 그래서 내가 일차휴가때 내:가 그럼 휴가갈때 데리구갈따오마 {아이, 휴가를 처음에 보내려고 그랬더니. 중대장이 안 보내는 거야. 이 사고뭉치에 가면 안 올꺼다 애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차 휴가 때 내가 그럼 휴가갈 때 데리고 갔다오마.}

10201 # 게 가 인제 내가 휴갈 인제 오게데 아니 인제 휴전 데고나서 한 일련이쯤 인따가 난 해결봐써요 남드리 그냥 바쁘니깐 난 휴가가잔 보내달란 마를 모팅거지 내가 아라서 인제 눈치껏 쯤 이케 허는 파닌데 원체 바쁘니까 {그래 가, 인제 내가 휴가를 인제 오게 돼. 아니 인제 휴전되고 나서 한 일 년 이쯤 있다가 나는 해결을 봤어요. 남들이 그냥 바쁘니까 나는 휴가 가잔, 보내달라는 말을 못 한 거지. 내가 알아서 인제 눈치껏 이렇게 하는 판인데 원체 바쁘니까.}

10201 # 게 인제 그 지비 오고시폰 사람 생가기야 왜 업께써요 그니까 그냥 참 전쟁할 때 나간는데 지금 그 이 휴저니테구 그렌는데 다:들 지비 가고십찌 {그래, 인제, 그 집에 오고 싶은 사람 생각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 전쟁할 때 나갔는데 지금 그, 이, 휴전이 되고 그랬는데 다들 집에 가고 싶지}

10201 # 게 인제 강제 이사람 버러 나지비 인제 지금가게 텐는데 어뜨게 난몰까 아니 내가 그 저이 인사계헌테두 애길 해난데 그래뜨니 안텐데 그래. {그래 인제, 강제 이 사람 보러 내가 집에 인제 지금 가게 났는데 어떻게? 나는 못 가. 아니 내가 그, 저이, 인사계한테도 애길 해났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

- 10201 # 게 인제 중대장한테 내가 그 대대장시래 이쓸때니깐 중대장 거 사실 만만하거던 그 머 게:급썩그론 봐선 그 사라미 데이구 나는 무 쫄병이지만 게두 대대장시래 가치이 쓰 절령으루이쓰니깐 {그래 인제, 중대장한테 내가 그 대대장실에 있을 테니까 중대장 거, 사실, 만만하거든 그, 머, 계급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대위고 나는 뭐, 쫄병이지만 그래도 대대장실에 같이 있으, 전령으로 있으니까}
- 10201 # 저:날 거러가지구 이르케이르케 텐는데 내가 예 정 데리구 가치갈따가 가치 데리 구오른 어떠냐 한동네 산:다 그니 가치 군데 나가따가 가치 가야지 나만 지비 드리 가면 그사람네 부모드리 어트게 생가커젠냐 이버네 한범만 어트게 좀 선처를 좀 바랜다 그랜 뜨니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내가 예, 정, 데리고 같이 갔다가 같이 데리고 오면 어떠냐? 한동네 산다. 그러니 같이 군데 나갔다가 같이 가야지 나만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네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번에 한 번만 어떻게 좀 선처를 좀 바랜다. 그랬더니}
- 10201 # 조타 이거야 채기를 저라 이거야 아라따고 내가 채김 지마 그때 왜: 그사람물 아 노는 걸루 보냐 그랜뜨니 아이 여러가지루 마:물 몬논대능거야 {좋다 이거야. 책임을 저 라 이거야. 알았다고 내가 책임을 지마. 그때 왜 그 사람을 안 오는 걸로 보냐 그랬더니 아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못 놓는다는 거야.}
- 10201 # 아 근데 막쌍 갈래니깐 뭐 오시 읍따 신바리 읍따 뭐가 읍따 이 차리미 그냥 하 나두 뜨이 엄능거야 {아, 그런데 막상 갈려니까 뭐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뭐가 없다. 이 차림이 그냥 하나도 없는 거야.}
- 10201 # 자 이걸 자 눈치껏 이제 내 내가 그사람미 업쓰니깐 얘가지마노 너머해 그래 인 제 우선 신발 하나 인제 구두 하나 으서 으:더서 인제 신키구 그때 이제 제 군대구두 인 제 그하나 {자, 이걸, 자 눈치껏 이제 이것을, 내가 그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만요. 너머해 그래, 인제 우선 신발 하나 인제 구두 하나 얻어서 인제 신기고. 그때 이제 군대 구두 인제 그 하나}
- 10201 @ 위카 예 {위커 예}
- 10201 # 위카 위카 근데 우선 자갑뽕또 한벌해야 사:파에 애길해서 야 그냥 자갑뽕 한벌 꼭 피료허니까 한벌만 가져와라 그래 그래서 간따 이퍼 모:자 새로 사 썩어 {위커화(=군 화), 위커화. 그런데 우선 작업복도 한 벌 해야 4과에 얘기를 해서 야, 그냥, 작업복 한 벌 꼭 필요하니까 한 벌만 가져와라 그래. 그래서 갖다 입혀, 모자 새로 사 썩워}
- 10201 # 아이 몽땅 아주해서 아주 그양 사:파에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배낭 야 머글꺼 좀 여기 다 다마라 그 나는 거기서 인제 뭐 이 뽕 들구 두개나 들고 인는데 뽕또 하나도 업 씨 또 기냥 오몬 안데자나요 그니깐 {아이, 몽땅 아주 해서 아주, 그냥, 4과에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배낭 야, 먹을 것 좀 여기다 담아라. 그 나는 거기서 인제 뭐, 이, 뽕 들 고 두 개나 들고 있는데 뽕도 하나도 없이 또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 10201 # 하나 뽕 느: 줘라 게 이걸썩걸 뭐 그냥 간빵도 좀 느쿠 간수메도 좀 느쿠 게 인제 데리구 가치 웅거야 예 가치 와가지구 참 놀다가 참 드리갈썩게 가치 드리갈썩마는 참 고생마니해썩요 {하나 뽕 넣어 줘라. 게, 이것저것 뭐, 그냥 간빵도 좀 넣고 통조림도 좀 넣고 그래 인제 데리고 같이 온 거야. 예, 같이 와가지고 참 놀다가 참 들어갈 적에 같 이 들어갔지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 10201 @ 그래서 그쪽에 게서서 득또마니 받:꾸뇨 {그래서 그쪽에 게서서 덕도 많이 받군 요.}

- 10201 # 기니간 더기래능게 마니 봉거는 읍찌만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많이 본 거는 없지만}
- 10201 @ 아니 그제다 그르치요 {아니 그제 다 그렇지요.}
- 10201 # 그제 무슨 큰더근 아니지만 그래두 가치 이써쓰니깐 그리군 참 어제두 얘기 그사람 내기두 이써찌만 그 점 둘러서 나한테 오며는 멍능거는 참 그 걸릴찌기 마나요 노상 그 점 그 몬먹꼬 저거 찢찢 매능거보른 {그제, 무슨 큰 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참 어제두 얘기 그 사람 얘기도 있었지만 그, 좀 둘러서 나한테 오면 먹는 거는 참, 그, 걸릴 적이 많아요. 노상 그, 좀 그 못 먹고 저거, 찢찢 매는 것을 보면}
- 10201 # 거 와 오기만 하든 나한테 오든 바:비야 시킨 먹짜나요 아:노능거야 아와 아:노나 모:도능거지 모:도능거야 짜이 짜이플 그 내질 모터능거야 그리구 어트게 어트게 하다보든 제이 그 {거, 와, 오기만 하면 나한테 오면 밥이야 실컷 먹잖아요. 안 오는 거야. 안 와. 안 오나? 못 오는 거지 못 오는 거야. 짬을 그, 내지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 제 이, 그}
- 10201 # 소대장한테 애:길 해가지구 인제 오는데 게 오든 우선 제 파헤친 내가 볼때는 제일 먼저 바비거든 밥 배가 고프니깐 제 밥 썩킨 메기고 먹꾸 모자라면 더머거 더머거 밥 이제 시킨 먹꾸 그냥 그래 {소대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인제 오는데 그래 오면 우선 내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밥이거든. 밥 배가 고프니까 제 밥 실컷 먹이고 먹고 모자라면 더 먹어 더 먹어. 밥 이제 실컷 먹고 그냥 그래}
- 10201 # 뭐 줄게 뭐이 꺼 어떠케 보낼꺼야 그 내가 사:파에 이쓸때는 그냥 맘대루꺼 내줘 썩요 소고기통조림이든지 뭐 이렇거 그냥 끄내서 한보따리 싸서 인제 주구 인제 그랜는데 {뭐, 줄게 뭐, 이, 그 어떻게 보낼 거야? 그, 내가 4과에 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꺼 내줬어요. 소고기 통조림이든지 뭐 이런 것 그냥 꺼내서 한 보따리 싸서 인제 주고 인제 그랬는데}
- 10201 # 아이 대 대대장실로 나와가지고 뭐 이써야지 거 거기 게 인제 그 정중사라고 이 사라마 경상도 싸라민데 그사라마 바퍼는 당버니거드노 {아이, 대대장실로 나와가지고 뭐, 있어야지. 거기, 그래 인제 그 정 중사라고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밥하는 당번이거든요.}
- 10201 # 어 정중사 왜 그래요 야 그 뭐 좀 먹꼬 나뭇거 좀 업냐? 그래 그 나는 하사고 저는 중사지만 하나가 인제 계급이찌만 그래두 마디기 바퍼는 누미니깐 게 {어, 정 중사. 왜? 그래요. 야, 그 뭐, 좀, 먹고 남은 거 좀 업냐? 그래 그 나는 하사고 저는 중사지만 하나가 인제 계급 있지만 그래도 밥하는 놈이니까}
- 10201 # 무 업는데 그래 야야 그 저 뭐 좀 그서 머글만항거 이케서 좀 싸줘 좀 싸줘 불쌍 하지만냐 싸줘라 그러 인 제거 뭐 좀 이케서 남는 싸서 이케 주구 가주가서 먹꾸 인제 그리구 {뭐, 없는데 그래? 야야, 그, 저, 뭐 좀 거기서 먹을 만한 것 이렇게 해서 좀 싸줘 좀 싸줘. 불쌍하지 않냐? 싸줘라. 그래 인, 제, 거, 뭐, 좀 남는, 싸서 이렇게 주고 가지고 가서 먹고 인제, 그리고}
- 10201 # 인제 뭐 그 사:파에서 내가 뭇뻔 제 창고에서 그냥 뭇개 썩 대:쥬뜨니 이 자:꾸가서 으:터오랜대지 뭐야 이런 망알 그그래 이거 자:꾸 또 줄썩도 업능거구 그 뭐하 그 또 거저 이 아무리 내가 저거 그런걸 준다 허드래도 그제 각 대대별로 난 내보내줘야 데능 건데 {인제, 뭐, 그 4과에서 내가 몇 번 창고에서 그냥 뭇 개 썩 대 주었더니 이, 자꾸

가서 얻어 오라고 하지 뭐야. 이런 망할. 그래 이거 자꾸 또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뭐 하 그, 또, 저저, 이, 아무리 내가 저저, 그런 걸 준다 하더라도 그게 각 대대별로 난 내 보내 줘야 되는 건데}

10201 # 그거 근간 허다모태 저이 난 저 골치 아픈니리 만:커드노 거기이쎄도 그 순대 수령계 보고혈쨌게 그 참너 자이 심지어 그냥 대 이 연대에서 연대본 중 저이 본부중대장 무슨 거기 각 실파 일파 이:파 상파 사:파 과장 {그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이, 난, 저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거기 있어도 그 순대 수령계 보고 할 적에 그, 참요, 자이, 심지어 그냥 대, 이 연대에서 연대 본 중 저이, 본부 중대장 무슨 거기 각 실파 1과 2과 3과 4과 과장}

10201 # 이걸떠리 다: 머걸쥔 내달래능거예요 이거 이냥 허다모태 수송관 머 이런건뜨리 쌀 {이것들이 다 먹을 것을 내 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다못해 수송관 뭐, 이런 것들이 쌀}

10201 # 게 수송과는 아까 얘기한대루 돌 레기헌 그 유명해라 그 이인 제 그 제:무씨 아이 수령할때은 으레 아주 자를 두:개 가져와요 으 쌀담는자루허고 그 부:식뜰 그냥 콩나물 두:부 뭐 이냥 이런거해서 한통 또 해서 그건 너 그지랄해가지고 임마 너 어트 이거 너 크닐나 너 이진 제 한번더 혼좀내 인제그러면{그래 수송관은 아까 얘기 한 대로 돌, 얘기한 그 유명해라 그이, 인제, 그 GMC, 아이 수령할 때면 으레 아주 자루를 두 개 가져와요. 으 쌀 담는 자루하고 그 부식들 그냥 콩나물, 두부 뭐 그냥 이런 거해서 한 통 또 해서 그 건너 그 지랄해가지고 임마 너 어떡 이거 너 큰일 나 너 이진 한번 더 혼 좀 내 인제 그러면}

10201 # 야 인제 눈 눈 눈가마라 눈가마 마 수송관 저님하사 내 이리야 어:땡 매겨살려야 지 어트가냐 그놈드른 또 나만 믿꼬 한 가져오래지 허고 인때능거야 게서 공:치 뭐 간쓰 메 이런거 아이 으레 가주갈레니허구 {야, 이러니까 눈 감아라 눈감아 마, 수송관 전임 하사 내 이게 어땡, 먹여 살려야지 어떡하냐? 그놈들은 또 나만 믿고 한, 가져 오래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쫌치 뭐 통조림 이런 거 아이, 으레, 가지고 가려니 하고}

10201 # 그럼 인제 그그뚜 질:그건 저거 형게 담:배요 그이 담:배를 하루에 열꼬치씨기 나 오능게 그래 인제 예 예를 드러서 일쭈이레 한버늘 나온데든지 다세한번 나온데든지 이르케 나오자나요 {그럼 인제 그것도 제일 저거 한 것이 담배요. 그이, 담배를 하루에 열 가지 썩 나오는 게 그래 인제 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온다든지 닷 새 한 번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자나요.}

10201 # 그러면 거기서 인제 예를 드러서 일 일개 대대에서 한보루쟁만 띠어두 인제 이게 뽕뽕루데자나요 세이 세보루 네보루가 데능거야 번부중대까지 해서 이르케은 이 수색중대니 무니 이런 건쥬 좀 뽕뽕네 한번 걸러서 띠구 인제 그러는데 그럼 대대에서 이 버급개 이놈드른 이제 마른 모터구 그냥 투덜투덜허지 {그러면 거기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일개 대대에서 한 보루 썩만 떼어도 인제 이게 몇 보루 되잖아요. 세 보루 네 보루가 되는 거야. 본부 중대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수색 중대니 뭐니 이런 것 중 좀 몇 번에 한번 걸러서 떼고 인제 그러는데 그럼 대대에서 이 보급계 이놈들은 이제 말은 못하고 그냥 투덜투덜 하지}

10201 # 그래 뭐라 그러면 야 이새끼야 뭐: 그거가지구 인마 느이드른 안쳐머거 아주 이런 이제 근데 그 그러면 쫌쫌 모태서 기니 기냥 가 저이들두 가서 중대 이썰쨌게 지들 다 대대에 떨꺼 띠고 주거드노 뭘 방버비 업쎄 군대에선 혈쭈가 업쎄 {그래 뭐라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뭐, 그거 가지고 이녀석아 너희들은 안 쳐먹어 아주 이런 이제 그런데 그러면 꼼짝 못했어. 그러니 그냥 가 저희들도 가서 중대 있을 적에 자기들 다 대대에 땔 것 땔고 주거든요. 땔 방법이 없어. 군대에서는 할 수가 없어.}

10201 # 그리고 그건 무 내가하나 헌병대오지 특무대오지 자 이새끼들 오래오 그냥 그 이 무 달:라 자 이거 만날 그냥 뜯기느라구요 뜯기는 데가 좀마나요? {그리고 그건 뭐 내가 하나? 헌병대 오지 특무대 오지 자, 이 새끼들 그냥 그, 이, 뭐 달라. 자, 이거 언제나 그냥 뜯기느라고요. 뜯기는 데가 좀 많아요?}

10201 # 그러 조여테 또 이거 인제 증말 실과장들 자 야 야 김중사 너 이러커기냐 아 이거 또 함보루 또 주오이테 한버는 또 이걸 안줄 쭈도업썬 그래서 가끔가다 담배 한 보루 씨글주 그 하냥담배두 서른각씩 드리인꺼드뇨 한 보루가 그 이걸 한보루씩 주능거야 {그렇게 조여테. 또 이거 인제 정말 실과장들 야, 야, 김중사 너 이렇게 하기냐? 그 이거 또 한 보루 또 주어야 돼. 한 번은 또 이걸 안 줄 수도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 담배 한 보루씩을 줘. 그 하양 담배도 서른 각 썬 들어있거든요. 한 보루가 그 이걸 한 보루씩 주는 거야.}

10201 # 그럼 인제 그거 그러니 인제 그걸 내가 어:서 사다줍니까 천상 뜨더서 주능거지 그게 참 그러니깐 그런 지슬 허지 마라야 데는데 어쩔쭈가 엄능거여 {그럼 인제 그거 그러니 인제 그걸 내가 어디서 사다 줍니까? 천상 뜯어서 주는 거지.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 어쩔쭈 업께 데인썬요{어쩔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어쩔쭈가 엄능거예요{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0201 # 그니까 결과저그로는 담:배 열꼬치가 저 아:래 내려가서 졸병이 하루에 담배 세가 치 네가치바께 안 차례 간데능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배 열 가치가 저 아래 내려가서 졸병이 하루에 담배 세 가치 네 가치 밖에 안 차례 간다는 거야.}

10201 # 그나머지는 다 뺏기는 거지 이리뜯끼구 저리뜯끼구 강 중대에서 뜯끼지 또 소:대에서 뜯끼지 서님하사 띠끼지 뭐 향:도 분대장 띠 아 네 신 진짜 증말 생각해보면 어불쌍한거야 군대들 구닌들 {그 나머지는 다 뺏기는 거지. 이리 뜯끼고 저리 뜯끼고 그냥 중대에서 뜯끼지. 또 소대에서 뜯끼지 선임 하사 뜯끼지 뭐, 향도 분대장 아, 네, 신, 진짜 정말 생각해 보면 불쌍한 거야. 군대들, 군인들.}

10201 # 그래두 그거 근데 지끄문 그런 저기 업쓰니까 아마 그 겐차늘꺼예요 그저넌 참 너무 배가 고프구 그래서 몰싸라썬요 {그래도 그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저기 없으니까 아마 그, 괜찮을 거예요. 그 전에 참,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못 살았어요.}

10201 # 에 이거 이거 참 하여튼 그 옛날 애:기지만 나는 그래도 그런 그 훈련소에서도 나는 그 참 그냥 저 식당에 가서들 탁팡(='단무지'를 뜻하는 일본어 단어) 꼬랑지 찢라버링 걸 그양 씨쳐가주들 먹꼬 그냥 그래썬도 난 그렇거 훈련소에서도 난 그렇걸 몰르구날 {아이고, 이거 참, 아무튼 그 옛날 애기지만 나는 그래도 그런 그 훈련소에서도 나는 그 참 그냥 저 식당에 가서들 단무지 꼬리 잘라버린 걸 그냥 찢어가지고 먹고 그냥 그랬어도 나는 그런 그, 훈련소에서도 나는 그런 걸 몰랐고}

10201 # 훈련소에서 인제 거기서 인제 쳐으메는 내가 인제 그 저거 허는 에 향도 보급개 이런거뜨를 보느내드른뇨 그때 다 인제 내가 인제 추천늘해서 인제 시키고 나는 그냥 분대워느로 그대로이썬썬요 {훈련소에서 인제 거기서 인제 처음에는 내가 인제 그 저거하는 에, 향도 보급개 이런 것들을 보는 애들은요 그때 다 인제 내가 인제 추천을 해서 인제 시키고 나는 그냥 분대원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 10201 # 제:주도 훈련소에서 그래뜨니 게:네드리 또 그게 아니지 그니깐 나를 또 그냥 꼬러올려가지고 인제 그르케해구 그에 저 그 때 이 그때서부터도 훈련소에서부터두 {제주도 훈련소에서 그랬더니 개네들이 또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또 그냥 끌어 올려가지고 인제 그렇게 하고 그래 저, 그 때 이, 그때서부터도 훈련소에서부터도}
- 10201 # 나는 그르케 저걸 아낸는데 마지막에 인제 훈련소 그 제주도에서 나올때 가서 내가 좀 고통을 당형게 그때는 이제 향도 근무를 하면서 인제 이 어려운저미이씨씨요 그 보그블 {나는 그렇게 저걸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인제 훈련소 그 제주도에서 나올 때 가서 내가 좀 고통을 당한 게 그때는 이제 향도 근무를 하면서 인제 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보급을}
- 10201 # 자: 심지어는 철모 이저버린 노미 음나 그냥 흠쳐가니깐 으 어트커냐마리아 에이 뼈떡허면 그냥 그 이 왜망총애 그냥 이 노리새 방아새 이게 이 업씨지능거야 {자, 심지어는 철모 잃어버린 놈이 없나. 그냥 흠쳐가니까 으, 어떡하나 말이야. 에이, 특하면 그냥 그, 이, 엠원(M1)총애 그냥 이 노리쇠 방아쇠 이게 이, 없어지는 거야.}
- 10201 # 그 빼:가요 그걸요 그걸 누가 빼가냐면 조교드리 빼가나 조교드리 이 혀:넉꾸न्द्र리 그리곤 시미 뜯:띠고 일판마리아 향도들 헌테 야 인마 이 새끼들 느이 조:사헌다고 하니 또 짜구선 빼따때리네 {그, 빼가요 그걸요. 그걸 누가 빼 가느냐 하면 조교들이 빼가는 거야 조교들이. 이 현역 군인들이. 그러고는 시치미 똑 떼고 있다 말이야. 향도들한테 야 이녀석아, 이 새끼들 너희 조사한다고 하니 또 (서로) 짜고서는 배트(=몽둥이)로 때리네}
- 10201 # 그러 어떡카냐 마리아 그래 야 거 어트게 하나 구매 구할쑤엄냐 나 그거 저 어렵긴 헌테 내가 어트게 하나 구매볼게 아 이런다고 그리고 갑따 끼어줘 거냥 끼어주냐고 이걸 돈줘이지 {그러니 어떡카냐 말이야 그래 야, 거, 어떻게 하나 구할 수 없냐? 나 그거, 저, 어렵긴 헌테 내가 어떻게 하나 구매볼게. 아 이런다고. 그리고 갖다 끼워줘. 그냥 끼어 주냐고? 이걸 돈 줘야지.}
- 10201 # 그니 그 그놈미 매만 마자찌 도니 어:디쑤니까 인는 애:들도 일쑤요. 지베서 가져와서 인는 애:들두 인는데 게 인제 우리가 저이 통용 경상도 통영 애드리 이 저이 일개 분대가 이쑤는데 이노프새끼들 {그러니 그놈이 매만 맞았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애들도 있지요. 집에서 가져와서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 인제 우리가 저이, 통영 경상도 동영 애들이 이, 저이, 일개 분대가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들}
- 10201 # 그 점 가깝다고 해서 며:네도 오고 그래 도니 떨어지지 안커든 내 구두세도 그런 구두세드른 업씨요 아주 한소대에서도 느 남나미야 은제 우리 경기도 싸람드른 그게 아니거던 그래 참 구두세 놈드리그든 {그, 좀 가깝다고 해서 면회도 오고 그래. 돈이 떨어지지 않거든. 내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들은 없어요. 아주 한 소대에서도 남남이야. 인제 우리 경기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 참 구두쇠 놈들이거든.}
- 10201 # 게 그놈드리고 인제 나올찌게 어트젠냐면 이 이저버려서 분대별로 인제 이 뭐 별란거별란거 다:이저 버려진 뭐 이건 제대로 차지아나요 뭐 탄빼 이저버린누메 무슨 뭐 이저 자이 누즈거 변상을 해놔야 내보낸데는 이걸 어트커냐 이게 크:일난쪼 {그래, 그놈들과 인제 나올 적에 어떻게 했냐면 이, 잊어버려서 분대별로 인제 이, 뭐, 별난 것, 별난 것 다 잊어 버렸지 뭐, 이건 제대로 차질 않아요. 뭐 탄피 잊어버린 놈에. 무슨 뭐 이, 저, 자, 이놈의 것 변상을 해놔야 내 보낸다는데 이걸 어떡카냐 이게 큰일 났지요.}
- 10201 # 게 분대별로 인제 그 파아글해서 그냥 분대 하튼 분대장들 그바라메 나하테 빼:따

좀 마니마자때 니들 그 뭐 어트게 그때 군대에선 그냥 때리든 다 해결돼요 또 때리든 어: 디가서 훔쳐오든지 또 훔쳐래도 와야데 그니깐 게 하든 너 뭘까지 뭘이거 아내노른 니 들하든 아라서해 {그래 분대별로 인제 그, 파악을 해서 그냥 분대 하여튼 분대장들 그 바람에 나한테 몽둥이 좀 맞았어. 너희들 그, 뭐, 어떡해. 그때 군대에서는 그냥 때리면 다 해결돼요. 또 때리면 어디 가서 훔쳐오든지 또 훔쳐래도 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너 몇 시까지 뭘, 이거 안 해 놓으면 너희들 하여튼 알아서 해.}

10201 # 근데 지금 요노 므 이 모씨란 그사라미 이제 이:분대장을 했는데 이게 순진허기 하니음는 노미데서 융통성이라곤 저너 업찌뤄야 아:니 때리든 다르내드른 이냥 해오게해 게 가져오게가져오게하든서 안맡꺼드노 {그런데 지금 요, 이 모씨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분대장을 했는데 이게 순진하기 한이 없는 놈이 되어서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지 뭐 야. 아니 때리면 다른 애들은 그냥 해올게, 할게, 가져 올게 하면서 안 맞거든요.}

10201 # 근데 이진 그런 말도 아내 그냥 다선크때다선크때 그대로 다마져 이런 마 해온다그 래 이자시가 해온다 그러든 땀뭇 왜 뿌드려만냐 내 아유 소기 상해서 그냥 그럼 해오게 그래 마 해온다 그러면 안때리잔냐 그 참 아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다섯 대면 다섯 대 그대로 다 맞아. 이런 마, 해온다 그래 이 자식야. 해온다 그러면 땀 뭇 왜 두드려 맞냐? 내, 아유, 속이 상해서 그냥 그럼 해올게 그래. 마, 해온다 그러면 안 때리지 않냐? 그, 참, 아유, 하여튼}

10201 # 제가 알고보든 모뎀진뚜 헨꾸 근데기게 뭉뎀지시 아니라 어쩔쑤업는 환경쑤게서 글케 도라가니까 근 내가 허고시퍼허능게 아니자나요 이어쩔 쑤업씨 그걸 그렇게 허능거 구 게 인제 그르케 다루구 그 참 {제가 알고 보면 못된 짓도 했고 그런데 그게 못된 짓 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거고. 게, 인제, 그렇게 다루고, 그, 참}

10201 # 아주 참 그 비참한 일두 마나요 식당에 가서 그냥 그 제주도에서는 바블 그냥 그 이 저 이 큰: 통에다 이마난 통에다 해서 이 당까처럼 이러케 뎀드러가지고 들구갑니다 {아주 참, 그, 비참한 일도 많아요. 식당에 가서 그냥 그, 제주도에서는 밥을 그냥, 그이, 저, 이, 큰 통에다 이만한 통에다 해서 이 당까(=‘들것’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처럼 이 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 갑니다.}

10201 # 그러든 그 바블 들구가는 바브로 그대루 여페서 이르케 우무루물허고 일파 그냥 들구가는 누든 그냥 뎀파 뛰어드러가더니 주머그로 콕 쥐어가지고 그냥 이만큼 바블 훔 쳐가지고 내뺄능거예요 크냥 머그문서는 {그러면 그 밥을 들고 가는 밥을요. 그대로 옆 에서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있다 그냥 들고가는 놈은 그냥 뎀다 뛰어 들어가더니 주먹으 로 콕 쥐어가지고 그냥 이만큼 밥을 훔쳐 가지고 내 뛰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는}

10201 # 그 소니 밥인데 그러든 이눔드리 두:누미서 이걸 가주가다 노코 인제 쪼차 올쑤도 업꼬 그니깐 뭘 너 이새끼 주겨주겨허기만 하지 뭘 어떡해 그냥 도둥만능거지 {그 손이 밥인데 그러면 이눔들이 두 놈이서 이걸 가지고 가다 놓고 인제 쫓아올 수도 없고 그러 니까 뭘, 너 이 새끼 죽어죽어 하기만 하지 뭘 어떻게 해. 그냥 도둑 맞는 거지.}

10201 # 게 인제 그걸뚜 너머 그러니까는 그담부터든 이제 한누미 아직 쏘끼이 짜루들구 디에 따라오능거야 그냥 게 결국 어찌 모타게 그래두 그래두 달라 분는 그런노미이쑤요 {그래 인제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놈이 아직 곡괭이 자루 들고 뒤애 따라 오는 거야. 그냥 게, 결국 어떻게 못하게. 그래도 달라붙는 놈이 있어요.}

10201 # 아유 참 게 우리 이케 저 이 우리 구이군버는 아주 유명언 사람 저 저게 다이쑤

부턴뜨래씨요 파주 다짱 게 파주다짱은 뭐냐 인제 다짱을 훔쳐 먹따가 이누미 냥 인제  
넵따 그냥 불러가지구 주어 펠라니깐 이 누미 다짱을 넵따 처너:서 이 여기다 지버넨:파  
고 {아유, 참, 그래 우리 이게 저, 이, 우리 구이(92)군번은 아주 유명한 사람, 저, 저게  
다 있어. 붙었었어요. 파주 다짱. 그래 파주 다짱은 뭐냐 인제 단무지를 훔쳐 먹다가 이  
눔이 그냥 인제 넵다 그냥 불러가지고 주어 패러니까 이눔이 다짱을 넵다 처넣어서 이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10201 # 게 인제 아 그래가지구 인제 이눔 새끼 허리클르라 그래가지구 인제 인기 여기  
미트 꾸녀에 가서 이쓰니 이걸 이눔 새끼 너 이견또 몰르 그래서이게 너 어디야 고향이  
이게 파주라 그러드라고 아이 그에 파주다짱{그래 인제, 아, 그래가지고 인제 이눔 새끼  
허리 풀라 그래가지고 인제 여기, 밑에 구멍에 가서 있으니 이걸 이눔 새끼 그래서 이게  
너 어디야? 고향이? 이게 파주라 그러더라고 아이, 이에, 파주 다짱}

10201 @ 별명이 그러케 부터꾼뇨 {별명이 그렇게 붙었군요.}

10201 # 게 파주다짱이 돼버려씨요 {그래서 파주 다짱이 되어 버렸어요.}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8.3. 전설과 설화

#### (1) 파평 윤씨 시조 설화

10813 # 거기는 인제 윤씨네가 윤씨네 시조라 해서 파평 윤씨네 게서 거기가 삼 파평이다.  
늘노리다.{거기는 이제 윤 씨네가 윤 씨네 시조라 해서 파평 윤 씨네. 그래서 거기가 삼  
파평이다. 늘노리다.}

10813 # 파주에선{파주에선} @울로리요?{울로리요?} / # 늘노리 / @ 늘노리 / # 예 늘로  
리 게 인제 거기가{예, 늘노리. 그래 이제 거기가}

10813 # 직끔도 가보며는 그 파평윤씨네 그 잉:어에서 뭐 태어날따 하는 애:긴데 그 연모  
시{지금도 가보며는 그 파평 윤 씨네 그 잉어에서 뭐, 태어났다 하는 애:긴데, 그 연못  
이}

10813 # 직끔 새로 이러케 보수를 해놔서요{지금 새로 이렇게 보수를 해놓았어요.}

10813 # 그래서 거기 파평윤씨 시:조라고 써분쳐난는데{그래서 거기 파평 윤 씨 시조라고  
써붙여놓았는데}

10813 # 그게 저 참 이해가 참 뭐 우리가 아:무리 그 저거해도 시:조가{그게 저, 참, 이해  
가 참, 뭐, 우리가 아무리 그, 저거해도 시조가}

10813 # 잉:어에서 태어나서 잉:어를 안먹는다 이진 이해가 잘 양가는 애:기예요{잉어에서  
태어나서 잉어를 안 먹는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애:기예요.}

10813 # 그래서 연모슬 거기 이러케 똥::그러케 파노코 인는데 그게{그래서 연못을 거기  
이렇게 둥그렇게 파놓고 있는데, 그게}

10813 # 아니 직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이해가 가나{아니, 지금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이해가 가나?}

10813 # 예 잉:어에서 사라미 어떠케 태어나서 그게 그래 파평윤씨에 씨를 퍼트려냐{예, 잉어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그게 그래, 파평 윤 씨의 씨를 퍼트렸느냐?}

10813 # 이진 그나마 어딘가 좀 잘못뵈거다 그래가지고 좀 농담드를 허문{이것은 그나마 어딘가 좀 잘 뵈된 거이다. 그래서 좀 농담들을 하면}

10813 # 인제 빠:스타구 광광거튼데 가다가 술들 먹꾸{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 같은데 가다가 술들을 먹고}

10813 # 그 인제 파평윤씨가 어찌고 저찌고 허문 이러언 니까진 노므 새끼드리 임마 무슨 양:반 양:반갑쎄 가는 놈드리 양:반노르술 헐려고 해야지 이놈드라{그 이제 파평 윤 씨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 이런, 네까짓 놈의 새끼들이 이놈아 무슨 양반, 양반값을 하는 놈들이 양반 노릇을 하려고 해야지 이놈들아}

10813 # 아 이노마 이 잉:어가 어떠케 새끼를 난냐? 이 이 저기 사:라를 난냐? 그래 그걸 마:리라고 허냐 이 똥을 쌀놈드라 오주커믈들 농담드를 허구 저:기{아, 이 놈아, 이 잉어가 어떻게 새끼를 낳느냐? 이, 이, 저기 사람을 낳느냐? 그래,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이 똥을 쌀 놈들아. 오죽하면 농담들을 하고 저기}

10813 # 아 그러찬쎄니까 그래 잉:어가 어떠케 사:라를 난냐 그건 마:리 안된다{아, 그렇잖습니까? 그래, 잉어가 어떻게 사람을 낳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10813 @지금도 그쪼게는 계속 마:니 살고 인쎄니까? 파평윤씨{지금도 그 쪽에는 계속 많이 살고 있습니까? 파평 윤 씨} / # 네 그 윤씨네가 더러 사:는데{예, 그 윤 씨네가 더러 사는데}

10813 # 마:니 살지는 아나요. 그냥 이르게 산미트로 응뎡이가 하나 인쎄 뿌니야. 거긴 사람도 안살구{많이 살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산미트로 엉뎡이가 하나 있을 뿐이야. 거기는 사람도 안 살고}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           |               |           |                  |
|-----------|---------------|-----------|------------------|
| 20101     | 벼             | 20101     | 벼                |
| 20102     | 이삭            | 20102     | 벼이삭              |
| 20103     | 볍씨            | 20103     | 볍씨               |
| 20104     | 못자리           | 20104     | 못짜리              |
| 20105     | 모판            | 20105     | 모파는              |
| 20106     | 쟁기            | 20106     | 이게 쟁긴데           |
| 20107     | 보습            | 20107     | 보시비에요            |
| 20108     | 벼             | 20108     | 벼순               |
| 20108-0-1 | -이            | 20108-0-1 |                  |
| 20109     | 극쟁이           | 20109     | *                |
| 20110     | 씨레            | 20110     | 이건 쓰:레           |
| 20111     | 번지            | 20111     | 이거는 끌쟁이라구, 번지치는거 |
| 20112     | 모내기           | 20112     | 모낸다, 모내기 한다      |
| 20113     | 흙덩어리          | 20113     | 흑뎡이, 흑뎡이         |
| 20114     | 고무래           | 20114     | 거물개구             |
| 20114-1   | 고무래(곡식용도)     | 20114-1   | 거물개              |
| 20114-2   | 고무래(채 용도)     | 20114-2   | 거물개              |
| 20114-3   | 고무래(흙 용도)     | 20114-3   | 쟁이, 쇠시랑          |
| 20114-4   | 고무래(미는 데 사용)  | 20114-4   | 거물개              |
| 20114-5   |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4-5   | 거물개              |
| 20115     | 쇠스랑           | 20115     | 쇠(ö)시랑           |
| 20116     | 곡쟁이           | 20116     | 곡쟁이              |
| 20117     | 쟁이            | 20117     | 쟁이               |
| 20118     | 삽             | 20118     | 이건 사비구           |
| 20119     | 호미            | 20119     | 호미               |
| 20120     | 농기구           | 20120     | 농기구              |

|         |                           |         |                 |
|---------|---------------------------|---------|-----------------|
| 20121   | 김                         | 20121   | 기:미 김           |
| 20122   | 김매다                       | 20122   | 김:맨다 그러긴 하죠     |
| 20123   | 애벌 매다                     | 20123   | 앤:논 맨다          |
| 20123-1 | 두벌 매다                     | 20123-1 | 두벌론 두벌로는        |
| 20123-2 | 마지막(세벌) 김매기               | 20123-2 | 세버리요            |
| 20124   | 논두둑                       | 20124   | 논뚜긴데            |
| 20124-1 | 논두렁                       | 20124-1 | 논뚜렁             |
| 20125   | 밭둑                        | 20125   | 밭뚝              |
| 20126   | 밭두둑                       | 20126   | 밭뚜렁             |
| 20127   | 밭고랑                       | 20127   | 밭꼴창, 밭뚜렁        |
| 20128   | 밭이랑                       | 20128   | *               |
| 20128-1 |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 20128-1 | 반니랑 골른다, 밭뚝 골른다 |
| 20128-2 | 이랑밟기                      | 20128-2 |                 |
| 20129   | 보리                        | 20129   | 버리 이삭           |
| 20129-1 | 가을보리                      | 20129-1 | 가을 버리           |
| 20129-2 | 봄보리                       | 20129-2 | 봄 버리            |
| 20130   | 보리쌀                       | 20130   | 버리쌀             |
| 20131   | 가을갈이                      | 20131   | 가을가리            |
| 20132   | 깜부기                       | 20132   | 깜부기, 버리 깜부기요    |
| 20133   | 두엄                        | 20133   | 더엄이라구, 퇴비라구     |
| 20134   | 거름                        | 20134   | 거루믈             |

## 2.1.2. 타작

|         |            |         |                |
|---------|------------|---------|----------------|
| 20201   | 추수하다       | 20201   | 추수             |
| 20202   | 벼단         | 20202   | 별판             |
| 20202-1 | 벼단(한 줌정도)  | 20202-1 | 별판             |
| 20202-2 | 벼단(타작할 정도) | 20202-2 | 별판             |
| 20202-3 | 벼단(한 아름정도) | 20202-3 | 별따니예요          |
| 20203   | 가리(積)      | 20203   | 낙(<날),까리, 별까리  |
| 20204   | 가리다(積)     | 20204   | 장작, 직(<짚)까리 썬다 |

20205 벧가리  
 20206 날가리  
 20207 타작  
 20208 벼훑이  
 20208-1 그네  
 20209 개상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20210-2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20211 벧짚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 폐기  
 20213 쪽정이  
 20214 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흥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05 별까리라구두  
 20206 낙까리  
 20207 도리깨질, 콩마당질 한다  
 20208 훑치기  
 20208-1 \*  
 20209 개상  
 20209-1 탕쥬  
 20209-2 \*  
 20210 도리깨 아녀요  
 20210-1  
 20210-2 도리깨 장군 도리깨 아들  
 20210-3 도루래  
 20211 집탄, 별짚  
 20211-0-1 별찌븐, 별찌비라구  
 20211-0-2 별찌베  
 20212 고갱이  
 20213 쪽쟁이  
 20214 티라구두 하지요  
 20215 버리 쉬움  
 20215 깔끄래미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흥년  
 20220 머슴 일:꾼  
 20221 \*  
 20221-0-1 \*  
 20222 푸마시  
 20223 품깁  
 20223-0-1 품깁시, 품깁슬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방아



|       |      |       |                 |
|-------|------|-------|-----------------|
| 20302 | 디딜방아 | 20302 | 디딜뽕아            |
| 20303 | 방앗공이 | 20303 | *               |
| 20304 | 방아확  | 20304 | *               |
| 20305 | 물레방아 | 20305 | 물방아             |
| 20306 | 연자방아 | 20306 | 연자방아            |
| 20307 | 절구   | 20307 | 절구 절군뽕이         |
| 20308 | 절구통  | 20308 | 절구통이에요          |
| 20309 | 절굿공이 | 20309 | 절군뽕이, 돌뽕이       |
| 20310 | 절구질  | 20310 | 절뽕이질 한다 돌뽕이질 한다 |
| 20311 | 겨    | 20311 | 등겨 매지미껴         |
| 20312 | 보릿겨  | 20312 | 등겨              |
| 20313 | 왕겨   | 20313 | 매지미껴            |
| 20314 | 등겨   | 20314 | 등겨              |
| 20315 | 검불   | 20313 | 매지미껴 왕겨         |
| 20316 | 껍질   | 20315 | 북떼기             |
|       |      | 20316 | 껍질              |

#### 2.1.4. 곡물

|         |        |         |          |
|---------|--------|---------|----------|
| 20401   | 곡식     | 20401   | 곡식, 잡곡   |
| 20402   | 참쌀     | 20402   | 참싸리쥌     |
| 20403   | 멥쌀     | 20403   | 멥쌀       |
| 20404   | 쌀보리    | 20404   | 쌀버리, 건빼리 |
| 20405   | 조      | 20405   | 조이삭      |
| 20406   | 차조     | 20406   | 차좁싸리 인꾸  |
| 20407   | 메조     | 20407   | 메좁쌀      |
| 20408   | 좁쌀     | 20408   | 좁쌀       |
| 20409   | 작다     | 20409   | 잘지요      |
| 20410   | 조이삭    | 20410   | 조이삭      |
| 20411   | 수수     | 20411   | 수수       |
| 20411-1 | 붉은색 수수 | 20411-1 | *        |
| 20411-2 | 장목수수   | 20411-2 | *        |
| 20411-3 | 찰수수    | 20411-3 | 찰수수      |
| 20411-4 | 메수수    | 20411-4 | 메수수      |

|         |      |         |              |
|---------|------|---------|--------------|
| 20412   | 수수깡  | 20412   | 수수깡          |
| 20413   | 옥수수  | 20413   | 옥수수          |
| 20413-1 | 찰옥수수 | 20413-1 | 찰옥수수         |
| 20413-2 | 메옥수수 | 20413-2 | 메옥수수         |
| 20414   | 귀리   | 20414   | 귀리           |
| 20415   | 메밀   | 20415   | 메밀           |
| 20416   | 콩    | 20416   | 콩 흰콩 검은콩 누런콩 |
| 20417   | 콩깍지  | 20417   | 콩깍지          |
| 20418   | 메주   | 20418   | 메줄 썬서        |
| 20419   | 매달다  | 20419   | 매달다          |
| 20420   | 떡우다  | 20420   | 떠어요 뜨게끔      |
| 20421   | 곰팡이  | 20421   | 곰패이          |
| 20422   | 강낭콩  | 20422   | 강낭콩 가튼데      |
| 20423   | 콩기름  | 20423   | 콩기름도 짜구      |
| 20424   | 깨    | 20424   | 깨 창깨여        |
| 20424-1 | 참깨   | 20424-1 | 창깨           |
| 20424-2 | 들깨   | 20424-2 | 들깨           |
| 20425   | 고소하다 | 20425   | 고수허지요        |

## 2.1.5. 채소

|         |           |         |                 |
|---------|-----------|---------|-----------------|
| 20501   | 채소        | 20501   | 채:소반            |
| 20502   | 나물        | 20502   | 산나물 산채          |
| 20502-1 | 나물(밭, 재료) | 20502-3 | 질갱이 냉이 소리쟁이 씀바귀 |
| 20502-2 | 나물(밭, 반찬) |         | 달래 도라지          |
| 20502-3 | 나물(들, 재료) | 20502-3 | 메싸근 메싸글         |
| 20502-4 | 나물(들, 반찬) |         |                 |
| 20502-5 | 나물(산, 재료) |         |                 |
| 20502-6 | 나물(산, 반찬) |         |                 |
| 20503   | 푸성귀       | 20503   | 푸성귀             |
| 20504   | 다듬다       | 20504   | 다드머서            |
| 20505   | 반찬        | 20505   | 반차니지 반찬         |
| 20506   | 무         | 20506   | 무운데             |

|         |        |       |                     |
|---------|--------|-------|---------------------|
| 20507   | 썰다     | 20507 | 썰:다 써:러             |
| 20508   | 무청     | 20508 | 무:쫑                 |
| 20509   | 시래기    | 20509 | 무:시래기               |
| 20510   | 무말랭이   | 20510 | 무:말래이               |
| 20511   | 장다리무   | 20511 | 무:짱다리               |
| 20512   | 배추     | 20512 | 배추                  |
| 20513   | 고깡이    | 20513 | 노:란소기라고 하쥌 속:빠기 꼬깡이 |
| 20514   | 오이     | 20514 | 오이                  |
| 20515   | 오이지    | 20515 | 오이지                 |
| 20516   | 오이소박이  | 20516 | 오이통김치               |
| 20517   | 가지(茄子) | 20516 | 오이속빠기               |
| 20518   | 호박     | 20517 | 가지                  |
| 20519   | 고구마    | 20518 | 호박                  |
| 20520   | 감자     | 20519 | 고구마                 |
| 20520-1 | 잘다     | 20521 | 우엉                  |
| 20521   | 우엉     | 20520 | 감자                  |
| 20522   | 파      | 20522 | 파                   |
| 20523   | 고추     | 20523 | 고추                  |
| 20524   | 시금치    | 20524 | 시금치                 |
| 20525   | 미나리    | 20525 | 미나리                 |
| 20526   | 부추     | 20526 | 부:추                 |
| 20527   | 상추     | 20527 | 상추                  |
| 20528   | 마늘     | 20528 | 마늘                  |
| 20529   | 생강     | 20529 | 생강                  |
| 20530   | 냉이     | 20530 | 냉이                  |
| 20531   | 달래     | 20531 | 달래                  |
| 20532   | 도라지    | 20532 | 도라지                 |
| 20533   | 더덕     | 20533 | 더덕                  |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           |                        |           |            |      |
|-----------|------------------------|-----------|------------|------|
| 20601     | 쌀밥                     | 20601     | 바비지요 20601 | 쌀바빈데 |
| 20602     | 찬밥                     | 20602     | 찬바비야       |      |
| 20602-1   | 더운밥                    | 20602-1   | 더운밥        |      |
| 20603     | 조밥                     | 20603     | 조바비라       |      |
| 20604     | 누룽지                    | 20604     | 누룽지        |      |
| 20605     | 눌은밥                    | 20605     | 누른밥        |      |
| 20606     | 송늬                     | 20606     | 송늬         |      |
| 20607     | 뜨물                     | 20607     | 쌀뜨물        |      |
| 20608     | 김(蒸氣)                  | 20608     | 김:         |      |
| 20609     | 갱죽(羹粥)                 |           |            |      |
| 20610     | 싱겁다                    | 20610     | 싱겁꾸        |      |
| 20611     | 국수                     | 20611     | 실:국쭈       |      |
| 20612     | 칼국수                    | 20612     | 칼국쭈        |      |
| 20612-1   | <u>기계국수/틀국수</u>        |           |            |      |
| 20613     | 건더기                    | 20613     | 건데기        |      |
| 20613-1   | 국물                     | 20613-1   | 궁물         |      |
| 20614     | 고명                     | 20614     | (고명)       |      |
| 20615     | 꾸미                     | 20615     | 꾸미         |      |
| 20616     | 미역                     | 20616     | 미역꼭        |      |
| 20617     | 김(海苔)                  | 20617     | 김:         |      |
| 20618     | 수제비                    |           |            |      |
| 20619     | 끼니                     | 20619     | 끄니         |      |
| 20620     | 미음                     | 20620     | 멈          |      |
| 20620-1   | (미음을) <u>끓이다/쭈다/삶다</u> | 20620-1   | 쪄:서 쪄:다    |      |
| 20621     | 엿기름                    | 20621     | 엿길금        |      |
| 20622     | 식해(食醃)                 | 20622     | 식케         |      |
| 20623     | 식해(食醃)                 |           |            |      |
| 20624     | 달다(甘)                  | 20624     | 달다         |      |
| 20625     | 가루                     |           |            |      |
| 20625-0-1 | -에                     | 20625-0-1 | 가루에        |      |
| 20625-0-2 | -을                     | 20625-0-2 | 가루코를       |      |
| 20625-0-3 | -도                     |           |            |      |
| 20626     | 밀가루                    | 20626     | 밀까루        |      |
| 20627     | 밀기울                    | 20627     | 밀끼우리       |      |
| 20628     | 미숫가루                   | 20628     | 미수까루 미스까루  |      |

## 2.2.2. 반찬과 별식

|           |         |           |             |
|-----------|---------|-----------|-------------|
| 20701     | 간장      | 20701     | 간장          |
| 20702     | 된장      | 20702     | 된장          |
| 20703     | 고춧가루    | 20703     | 고춧가루        |
| 20704     | 고추장     | 20704     | 고추장         |
| 20705     | 소금      | 20705     | 소금          |
| 20706     | 김치      | 20706     | 김치          |
| 20707     | 김장      | 20707     | 김장          |
| 20708     | 깍두기     | 20708     | 깍두기         |
| 20709     | 나박김치    | 20709     | 나박김치        |
| 20710     | 담그다     | 20710     | 담그다         |
| 20710-0-1 | -고      | 20710-0-1 | 담그구일따       |
| 20710-0-2 | -어라     | 20710-0-2 | 담가라         |
| 20711     | 양념      | 20711     | 양념          |
| 20712     | 버무리다    | 20712     | 버무리다        |
| 20713     | 버섯      | 20713     | 버섯신데        |
| 20713-0-1 | -이      |           |             |
| 20714     | 콩나물(재료) | 20714     | 콩나물         |
| 20714-1   | 콩나물(반찬) | 20714-1   | 콩나물         |
| 20714-2   | 숙주(나물)  | 20714-2   | 숙주나물        |
| 20715     | 두부      | 20715     | 두부          |
| 20716     | 비지      | 20716     | 비지          |
| 20716-1   | 비지떡     | 20716-1   | 비지떡기        |
| 20717     | 달걀      | 20717     | 달걀 다걀 겨란    |
| 20718     | 가래떡     | 20718     | 가래떡기        |
| 20719     | 시루떡     | 20719     | 시루떡기        |
| 20720     | 송편      | 20720     | 송편          |
| 20721     | 빻다      | 20721     | 비진다 비저 비지더라 |
| 20722     | 흰떡      | 20722     | 흰떡          |
| 20723     | 고물      | 20723     | 고물          |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24 파죽  
20725 웅수래미  
20726 백설기  
20727 강내이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누름적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냄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20817 밥주걱  
20818 숟가락  
20819 젓가락

20801 부뚜막 부뚜마기라  
20802 가마솥  
20802-0-1 소술 소시  
20802-0-2 소테다  
20803 아궁지  
20803-1 아궁지가  
20804 그:름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  
20807 그슬릴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부사베다 거물개  
20810 시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그르시다  
20813 뚜껑  
20816 소뚜껑  
20817 주거기  
20818 수갈  
20819 저갈

|           |       |           |          |
|-----------|-------|-----------|----------|
| 20820     | 종지    | 20820     | 종지       |
| 20821     | 보시기   | 20821     | 보시기      |
| 20822     | 뚝배기   | 20822     | 뚝배기      |
| 20823     | 접시    | 20823     | 접시       |
| 20824     | 조리    | 20824     | 조:리      |
| 20825     | 이남박   | 20825     | 이남박      |
| 20826     | 바가지   | 20826     | 바가지      |
| 20827     | 행주    | 20827     | 행주       |
| 20828     | 행구다   | 20828     | 형군다      |
| 20829     | 설거지   | 20829     | 설거질      |
| 20830     | 개숫물   | 20830     | 개신물      |
| 20831     | 찌꺼기   | 20831     | 찌꺼지      |
| 20832     | 화로    | 20832     | 화:루      |
| 20833     | 화롯불   | 20833     | 화:룬뿔     |
| 20834     | 부젓가락  | 20834     | 화적갈      |
| 20834-0-1 | -이    | 20834-0-1 | 화적까리     |
| 20834-1   | 불순가락  | 20834-1   | 부삼비 부사브로 |
| 20835     | 다리쇠   | 20835     | 다리쇠      |
| 20836     | 석쇠    | 20836     | 석쇠       |
| 20837     | 도시락   | 20837     | 바팍       |
| 20838     | 바구니   | 20838     | 바구니      |
| 20839     | 뒤주    | 20839     | 뒤지       |
| 20840     | 찬합    |           |          |
| 20841     | 강판    |           |          |
| 20842     | 개다리소반 | 20842     | 개다리상     |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       |    |       |    |
|-------|----|-------|----|
| 20901 | 안방 | 20901 | 안땡 |
| 20902 | 벽  | 20902 | 벽  |

|           |              |           |                  |
|-----------|--------------|-----------|------------------|
| 20903     | 다락           | 20903     | 다라기라고 다락         |
| 20904     | 벽장           | 20904     | 벽짱               |
| 20905     | 감추다          | 20905     | 감춰둔다             |
| 20906     | 흙            | 20906     | 흐미 흙찌비           |
| 20907     | 돌찌귀          | 20907     | 돌:찌기             |
| 20907-1   | 암짜           | 20907-1   | 암눔               |
| 20907-2   | 수짜           | 20907-2   | 순눔               |
| 20908     | 미단이          | 20908     | 미단이              |
| 20909     | 여단이          |           |                  |
| 20910     | 덧문           | 20910     | 던문               |
| 20911     | 열다           | 20911     | 연:다              |
| 20912     | 문꼬리          | 20912     | 문꼬리              |
| 20913     | 자물쇠          | 20913     | 자물통 자물쇠          |
| 20914     | 간히다          | 20914     | 가철따              |
| 20915     | 열쇠           | 20915     | 열쇠               |
| 20916     | 잠그다          | 20916     | 잠근다              |
| 20917     | 구멍           | 20917     | 구녁 몽꾸녀글          |
| 20917-1   | 취구멍          | 20917-1   | 취구녀기             |
| 20918     | 찢다           | 20918     | 찢는다              |
| 20919     | 구들           | 20919     | 구들               |
| 20920     | 흙받기          | 20920     | 흑빠끼              |
| 20921     | 흑손           | 20921     | 흑손               |
| 20922     | 흑칼           | 20922     | 흑칼               |
| 20922-1   | 흑칼(나무로 만든 것) | 20922-1   | 애벌흑손 애벌치기흑손 나무흑손 |
| 20922-2   | 흑칼(쇠로 만든 것)  | 20922-2   | 흑손               |
| 20923     | 바르다          | 20923     | 발른다              |
| 20924     | 장판           | 20924     | 장판               |
| 20925     | 종이           | 20925     | 종이               |
| 20926     | 도배           | 20926     | 도배               |
| 20927     | 구석           | 20927     | 구탱이 구서계          |
| 20928     | 굽도리          | 20928     | 굽뚜리              |
| 20929     | 깨끗하다         | 20929     | 깨:끄터다            |
| 20930     | 문지방          | 20930     | 문찌방              |
| 20930-0-1 | -에           | 20930-0-1 | 문지방에             |
| 20931     | 툼            | 20931     | 트미               |
| 20932     | 가장자리         |           |                  |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롱

20933 복판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색경  
20940 건:다 거리  
20941 호롱

###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영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지붕에 지붕에  
21002 개와  
21003 개와집  
  
21006 대들뽀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막싸리  
21011 초가집  
21012 영:  
  
21013 용구새  
21014 귀시락  
21015 낙신물  
  
21016 사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댛돌  
 21019-1 섬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19 대:뜰  
 21019-1 퇴  
 21020 마루  
  
 21021 텃:마루 대:청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뜰  
 21023-0-1 주춧뜰  
 21024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02 마당  
 21103 널:따  
 21103-0-1 널:버서  
 21104 널:핀다  
 21105 광: 곡간  
 21106 왕:간  
  
 21108 광:  
 21109 허슬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또간  
 21112 소래기  
 21113 뒤:간 두칸  
 21113-1 똥짱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돌담 흑담  
 21115-0-1 다메  
 21115-0-2 담:두

21116 사립문  
 21117 뒤곶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16 찌리문  
 21117 뒀:마당  
 21117-0-1 뒀:끄세  
 21118 바깥  
 21118-0-1 바깸테  
 21119 모탱이  
 21120 모서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뒀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찌다  
 21212 비찌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01 마을 동:네  
 21202 운말  
 21203 이운  
 21203-0-1 이우시  
 21203-0-2 이우제  
 21204 말:간다  
 21205 우물  
 21206 두루바기  
 21207 샘:물  
 21208 우물까  
 21208-0-2 우물까에  
 21209 물찌게  
 21210 가:게  
 21211 찌다  
 21212 비찌다  
 21213 흥정  
 21214 흥정꾼  
 21215 잔돈  
 21216 외:누리  
 21217 거스름똥  
 21218 거슬른다  
 21219 꺾:다  
 21219-0-1 꾸워라  
 21220 구두쇠 노랭이

|           |              |           |         |
|-----------|--------------|-----------|---------|
| 21221     | 말기다          | 21221     | 매:깁다    |
| 21222     | 나머지          | 21222     | 나머지     |
| 21223     | 덤            | 21223     | 덤:      |
| 21224     | 묵            | 21224     | 묵       |
| 21224-0-1 | -을           | 21224-0-1 | 묵슬      |
| 21225     | 빚            |           |         |
| 21225-0-1 | -을           | 21225-0-1 | 비슬      |
| 21225-0-2 | -에           | 21225-0-2 | 비세      |
| 21226     | 이자(利子)       | 21226     | 이자      |
| 21227     | 심부름          | 21227     | 심:부름    |
| 21228     | 두름           | 21228     | (한)두름   |
| 21228-1   | 축            | 21228-1   | (한)축    |
| 21228-2   | 쾌            | 21228-2   | (한)쾌    |
| 21228-3   | 접            | 21228-3   | (한)접    |
| 21228-4   | 쌈            | 21228-4   | (한)쌈    |
| 21228-5   | 두름           | 21228-5   | (한)타래   |
| 21228-6   | 단/뭇(작은 묶음)   | 21228-6   | (한)단    |
| 21228-7   | 단/뭇(서너 개 묶음) | 21228-7   | (한)단    |
| 21228-8   | 툇            | 21228-8   | (한)툇 토시 |
| 21228-9   | 모습           | 21228-9   | (한)우쿰   |
| 21229     | 컬레           | 21229     | 컬레      |
| 21230     | 마지기          | 21230     | 마지기     |
| 21230-1   | 한 마지기의 넓이    | 21230-1   | 이백평     |
| 21231     | 꾸러미          | 21231     | 꾸래미     |
| 21232     | 그루           | 21232     | 그루      |
| 21233     | 포기           | 21233     | 포기      |
| 21234     | 저울           | 21234     | 겨울      |
| 21235     | 자루(包袋)       | 21235     | 자루      |
| 21235-0-1 | -을           | 21235-0-1 | 자루 가져와  |
| 21235-0-2 | -에           | 21235-0-2 | 자루(에다)  |
| 21236     | 하나           | 21236     | 하나      |
| 21236-1   | 한-개          | 21236-1   | 항개      |
| 21236-2   | 한-되          | 21236-2   | 한되      |
| 21236-3   | 한-말          | 21236-3   | 한말      |
| 21237     | 둘            | 21237     | 둘:      |
| 21237-1   | 두-개          | 21237-1   | 두:개     |

|         |      |         |     |
|---------|------|---------|-----|
| 21237-2 | 두-되  | 21237-2 | 두:되 |
| 21237-3 | 두-말  | 21237-3 | 두:말 |
| 21238   | 셋    | 21238   | 센:  |
| 21238-1 | 세-개  | 21238-1 | 세:개 |
| 21238-2 | 세-되  | 21238-2 | 석되  |
| 21238-3 | 세-말  | 21238-3 | 서:말 |
| 21239   | 넷    | 21239   | 넌:  |
| 21239-1 | 네-개  | 21239-1 | 네:개 |
| 21239-2 | 네-되  | 21239-2 | 넉되  |
| 21239-3 | 네-말  | 21239-3 | 너:말 |
| 21240   | 다섯   | 21240   | 다섯  |
| 21240-1 | 다섯-개 | 21240-1 | 다섯개 |
| 21240-2 | 다섯-되 | 21240-2 | 단되  |
| 21240-3 | 다섯-말 | 21240-3 | 단말  |
| 21241   | 여섯   | 21241   | 여섯  |
| 21241-1 | 여섯-개 | 21241-1 | 여섯개 |
| 21241-2 | 여섯-되 | 21241-2 | 열되  |
| 21241-3 | 여섯-말 | 21241-3 | 연말  |
| 21242   | 일곱   | 21242   | 일곱  |
| 21242-1 | 일곱-개 | 21242-1 | 일곱개 |
| 21242-2 | 일곱-되 | 21242-2 | 일곱되 |
| 21242-3 | 일곱-말 | 21242-3 | 일곱말 |
| 21243   | 여덟   | 21243   | 여덟  |
| 21243-1 | 여덟-개 | 21243-1 | 여덟개 |
| 21243-2 | 여덟-되 | 21243-2 | 여덟되 |
| 21243-3 | 여덟-말 | 21243-3 | 여덟말 |
| 21244   | 아홉   | 21244   | 아홉  |
| 21244-1 | 아홉-개 | 21244-1 | 아홉개 |
| 21244-2 | 아홉-되 | 21244-2 | 아홉되 |
| 21244-3 | 아홉-말 | 21244-3 | 아홉말 |
| 21245   | 열    | 21245   | 열:  |
| 21245-1 | 열-개  | 21245-1 | 열개  |
| 21245-2 | 열-되  | 21245-2 | 열:되 |
| 21245-3 | 열-말  | 21245-3 | 열:말 |
| 21246   | 스물   | 21246   | 스물  |
| 21246-1 | 스무-개 | 21246-1 | 스무개 |

|         |      |         |      |
|---------|------|---------|------|
| 21246-2 | 스무-되 | 21246-2 | 스무되  |
| 21246-3 | 스무-말 | 21246-3 | 스무말  |
| 21247   | 서른   | 21247   | 서른   |
| 21247-1 | 서른-개 | 21247-1 | 서른개  |
| 21247-2 | 서른-되 | 21247-2 | 서른되  |
| 21247-3 | 서른-말 | 21247-3 | 서른말  |
| 21248   | 마흔   | 21248   | 마흔   |
| 21248-1 | 마흔-개 | 21248-1 | 마흔개  |
| 21248-2 | 마흔-되 | 21248-2 | 마흔되  |
| 21248-3 | 마흔-말 | 21248-3 | 마흔말  |
| 21249   | 쉰    | 21249   | 쉰:   |
| 21249-1 | 쉰-개  | 21249-1 | 쉰:개  |
| 21249-2 | 쉰-되  | 21249-2 | 쉰:되  |
| 21249-3 | 쉰-말  | 21249-3 | 쉰:말  |
| 21250   | 예순   | 21250   | 예:순  |
| 21250-1 | 예순-개 | 21250-1 | 예:순개 |
| 21250-2 | 예순-되 | 21250-2 | 예:순되 |
| 21250-3 | 예순-말 | 21250-3 | 예:순말 |
| 21251   | 일흔   | 21251   | 이른   |
| 21251-1 | 일흔-개 | 21251-1 | 이른개  |
| 21251-2 | 일흔-되 | 21251-2 | 이른되  |
| 21251-3 | 일흔-말 | 21251-3 | 이른말  |
| 21252   | 여든   | 21252   | 여:든  |
| 21252-1 | 여든-개 | 21252-1 | 여:든개 |
| 21252-2 | 여든-되 | 21252-2 | 여:든되 |
| 21252-3 | 여든-말 | 21252-3 | 여:든말 |
| 21253   | 아흔   | 21253   | 아흔   |
| 21253-1 | 아흔-개 | 21253-1 | 아흔개  |
| 21253-2 | 아흔-되 | 21253-2 | 아흔되  |
| 21253-3 | 아흔-말 | 21253-3 | 아흔말  |
| 21254   | 백    | 21254   | 백    |
| 21254-1 | 백-개  | 21254-1 | 백개   |
| 21254-2 | 백-되  | 21254-2 | 백되   |
| 21254-3 | 백-말  | 21254-3 | 백말   |
| 21255   | 이백   | 21255   | 이:백  |
| 21256   | 한둘   | 21256   | 한두   |

|         |        |            |
|---------|--------|------------|
| 21256-1 | 한두-개   |            |
| 21256-2 | 한두-되   |            |
| 21256-3 | 한두-말   |            |
| 21257   | 두셋     |            |
| 21257-1 | 두세-개   |            |
| 21257-2 | 두세-되   |            |
| 21257-3 | 두세-말   |            |
| 21258   | 두서넛    | 21258 두어서너 |
| 21258-1 | 두서너-개  |            |
| 21258-2 | 두서너-되  |            |
| 21258-3 | 두서너-말  |            |
| 21259   | 서넛     | 21259 서너개  |
| 21259-1 | 서너-개   |            |
| 21259-2 | 서너-되   |            |
| 21259-3 | 서너-말   |            |
| 21260   | 네댓     | 21260 너덜깨  |
| 21260-1 | 네댓-개   |            |
| 21260-2 | 네댓-되   |            |
| 21260-3 | 네댓-말   |            |
| 21261   | 대여섯    | 21261 대여섯  |
| 21261-1 | 대여섯-개  |            |
| 21261-2 | 대여섯-되  |            |
| 21261-3 | 대여섯-말  |            |
| 21262   | 예닐곱    | 21262 여닐곱  |
| 21262-1 | 예닐곱-개  |            |
| 21262-2 | 예닐곱-되  |            |
| 21262-3 | 예닐곱-말  |            |
| 21263   | 일여덟    | 21263 일여덜  |
| 21263-1 | 일여덟-개  |            |
| 21263-2 | 일여덟-되  |            |
| 21263-3 | 일여덟-말  |            |
| 21264   | 여덟아홉   | 21264 여덜아홉 |
| 21264-1 | 여덟아홉-개 |            |
| 21264-2 | 여덟아홉-되 |            |
| 21264-3 | 여덟아홉-말 |            |
| 21265   | 여남은    | 21265 여나믄  |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겹

21315-0-1 -에

21315-0-2 -을

21316 홑옷

21317 겹옷

21318 잠방이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1 구걸

21322 조끼

21323 내의

21301 치마

21302 기리

21303 저고리

21304 새똥저고리

21305 배빠지

21306 무니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매기

21310 의복

21311 꾸걸따

21312 옥꼬름

21313 댕추

21314 동정

21315 겹 거치

21315-0-1 거테

21315-0-2 거츨

21316 호돈

21317 겨본 겨보슬

21318 잠:땡이

21319 누대기

21320 거:지

21321 구걸 동:냥

21322 조끼

21323 소:고시 내:보기



|           |                           |           |        |
|-----------|---------------------------|-----------|--------|
| 21324     | 껴입다                       | 21324     | 껴:임는다  |
| 21325     | 소매                        | 21325     | 소매     |
| 21326     | 주머니                       | 21326     | 주머니    |
| 21327     | 호주머니                      | 21327     | 호주머니   |
| 21328     | 허리띠                       | 21328     | 허리띠    |
| 21329     | 댕기                        | 21329     | 댕기(꼬리) |
| 21330     | 도포                        | 21330     | 도:포    |
| 21331     | 삿갓                        | 21331     | 사까슨    |
| 21331-0-1 | -에                        | 21331-0-1 | 사까세    |
| 21332     | 고깔                        | 21332     | 고깔     |
| 21333     | 사모                        | 21333     | 사:모 관디 |
| 21334     | 유건                        | 21334     | 두건     |
| 21335     | 대님                        | 21335     | 댄님     |
| 21336     | 감발                        | 21336     | 길모글    |
| 21337     | 짚신                        | 21337     | 집신     |
| 21338     | 미투리                       | 21338     | 미:투리   |
| 21338-1   | (짚신을) <u>삼다/만들다/트다/걸다</u> | 21338-1   | 삼는다    |
| 21339     | 나막신                       | 21339     | 나막시니고  |
| 21340     | 설피                        |           |        |

#### 2.4.2. 바느질과 세탁

|         |      |         |      |
|---------|------|---------|------|
| 21401   | 명주   | 21401   | 명지   |
| 21401-1 | 명주실  | 21401-1 | 명지실  |
| 21402   | 목화   | 21402   | 며느   |
| 21402-1 | 목화다래 | 21402-1 | 면와다래 |
| 21403   | 무명   | 21403   | 무명   |
| 21403-1 | 무명실  | 21403-1 | 무명실  |
| 21404   | 씨아   | 21404   | 씨아   |
| 21405   | 자새   | 21405   | 영깡깨이 |
| 21406   | 물레   | 21406   | 물래   |
| 21407   | 베    | 21407   | 베    |
| 21408   | 길쌈   | 21408   | 길쌈   |
| 21409   | 골무   | 21409   | 골무   |
| 21410   | 반진고리 | 21410   | 반주꼬리 |

|           |                          |           |               |
|-----------|--------------------------|-----------|---------------|
| 21411     | 가위                       | 21411     | 가위 가:새        |
| 21411-0-1 | -을                       |           |               |
| 21411-0-2 | -에                       | 21411-0-2 | 가:새에          |
| 21412     | 마르다(裁)                   | 21412     | 마름개질          |
| 21412-0-1 | -고                       | 21412-0-1 | 말르구           |
| 21412-0-2 | -어라                      | 21412-0-2 | 말라            |
| 21413     | 형걸                       | 21413     | 형거비           |
| 21413-0-1 | -을                       |           |               |
| 21413-0-2 | -에                       |           |               |
| 21414     | 바늘                       | 21414     | 바늘            |
| 21415     | 깨다                       | 21415     | 깎다            |
| 21415-0-1 | -고                       | 21415-0-1 | 끼:구이따         |
| 21415-0-2 | -어라                      | 21415-0-2 | 끼어라           |
| 21416     | 바느질                      | 21416     | 바누질           |
| 21417     | 재봉틀                      | 21417     | 자방틀           |
| 21418     | 끈                        | 21418     | 끈             |
| 21419     | 노끈                       | 21419     | 삼벼끈, 노끈       |
| 21420     | 참바                       | 21420     | 동아줄           |
| 21421     | 매듭                       | 21421     | 매디, 매듭        |
| 21421-1   | (매듭을) <u>맷다/짚다/엮다/묶다</u> | 21421-1   | 진다            |
| 21422     | 보자기                      | 21422     | 보재기           |
| 21423     | 이불                       | 21423     | 이불            |
| 21424     | 솜                        | 21424     | 솜             |
| 21425     | 포근하다                     | 21425     | 푸근하다          |
| 21426     | 훈이불                      | 21426     | 훈니불           |
| 21427     | 겹이불                      | 21427     | 겹니불           |
| 21427-1   | 솜이불                      | 21427-1   | 솜:니불          |
| 21428     | 누비이불                     | 21428     | 누비이불          |
| 21429     | 베개                       | 21429     | 보개            |
| 21430     | 베갯잇                      | 21430     | 보갠니시 보갠니슨 조갠닐 |
| 21430-0-1 | -에                       |           |               |
| 21431     | 목침                       | 21431     | 목침            |
| 21432     | 퇴침                       | 21432     | 퇴침            |
| 21433     | 방석                       | 21433     | 방석 방서게        |
| 21434     | 담요                       | 21434     | 담:뇨           |
| 21435     | 빨래하다                     | 21435     | 빨래한다          |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36 빨래방매이 빨래방추  
 21437 빨래터  
 21438 빨래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리미질  
 21440 인:두  
 21441 다드미뺑매이  
 21442 다드민뜰  
 21443 다드미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딸 거믐날  
  
 21505 오래  
 21505-0-1 오래도  
 21505-1 장년  
 21505-2 재장년 그러께  
 21505-3 명년 새해 내년  
 21505-4 후년  
 21505-5 후후년  
  
 21507 유:시  
  
 21507-0-2 유:세  
 21507-1 윤:노리  
 21508 육:까락  
 21508-1 도  
 21508-2 개

|              |                   |
|--------------|-------------------|
| 21508-3 걸    | 21508-3 걸         |
| 21508-4 옷    | 21508-4 윤, 유시다    |
| 21508-5 모    | 21508-5 모         |
| 21509 단동     | 21509 단동          |
| 21509-1 외동무니 | 21509-1 억꾸간다      |
| 21509-2 두동무니 |                   |
| 21509-3 석동무니 |                   |
| 21509-4 녀동무니 |                   |
| 21509-5 막동   |                   |
| 21509-6 단동무니 |                   |
| 21510 보름     | 21510 보름          |
| 21510-1 삭망   |                   |
| 21511 추석     | 21511 추석          |
| 21512 망월     | 21512 달마지         |
| 21513 쥐불놀이   | 21513 쥐불노리        |
| 21514 자치기    | 21514 자치기         |
| 21514-1 작은막대 | 21514-1 아들        |
| 21514-2 긴막대  | 21514-2 잔:때       |
| 21515 수수깨끼   | 21515 수수깨끼        |
| 21516 호미씻이   | 21516 대:동노리, 호미수새 |
| 21517 팽과리    | 21517 팽가리 상:새     |
| 21518 장구     | 21518 장구          |
| 21519 결두리    | 21519 결뚜리         |
| 21520 무당     | 21520 무당          |
| 21520-1 박수   | 21520-1 박:쭈       |
| 21521 고수레    | 21521 고시래         |
| 21521-1 고수레! |                   |
| 21522 점쟁이    | 21522 점쟁이         |
| 21523 상여(喪輿) | 21523 생여          |
| 21524 굴건     | 21524 건           |
| 21525 제사     | 21525 재사          |
| 21526 제기     | 21526 제기          |
| 21527 귀신     | 21527 귀:신         |
| 21528 도깨비    | 21528 도깨비         |

## 2.5.2. 농경용품

|           |                           |         |              |
|-----------|---------------------------|---------|--------------|
| 21601     | 고삐                        | 21601   | 고삐           |
| 21602     | 굴레                        | 21602   | 목똥래          |
| 21603     | 명애                        | 21603   | 명애           |
| 21604     | 길마                        | 21604   | 길마           |
| 21605     | 부리망                       | 21605   | 임망           |
| 21606     | 구유                        | 21606   | 평:           |
| 21607     | 작두                        | 21607   | 작두           |
| 21608     | 꿀                         | 21608   | 꿀            |
| 21609     | 여물                        | 21609   | 여물           |
| 21610     | 쇠죽                        | 21610   | 소죽           |
| 21611     | 쇠죽바가지                     | 21611   | 소 이남박, 소죽바가지 |
| 21612     | 수레                        | 21612   | 마:차          |
| 21613     | 끌다                        | 21613   | 끈:다          |
| 21613-0-1 | -고                        |         |              |
| 21614     | 바퀴                        | 21614   | 바퀴           |
| 21615     | 새끼(繩)                     | 21615   | 새끼           |
| 21615-1   | 새끼(짐승의)                   | 21615-1 | 새끼           |
| 21616     | 망태기                       | 21616   | 망태           |
| 21617     | 떡등구미                      | 21617   | 등구미          |
| 21618     | 거적                        | 21618   | 거적           |
| 21619     | 가마니                       | 21619   | 가마니          |
| 21619-1   | 가마니틀                      | 21619-1 | 가마니틀         |
| 21620     | 돛자리                       | 21620   | 돛자리          |
| 21621     | 자리틀                       | 21621   | 자리틀          |
| 21621-1   |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결다</u> | 21621-1 | 친다           |
| 21622     | 왕굴                        | 21622   | 왕굴           |
| 21623     | 삼태기                       | 21623   | 삼태           |
| 21623-1   | 짚 삼태기                     | 21623-1 | 짚 삼태         |
| 21623-2   | 짜리 삼태기                    | 21623-2 | 짜리 삼태        |
| 21624     | 명석                        | 21624   | 명석           |
| 21625     | 어래미                       | 21625   | 어래미 어래미      |
| 21625-1   | 고운체                       | 21625-1 | 고운체          |
| 21625-2   | 굵은체                       | 21625-2 | 굵은체          |

|           |        |           |        |
|-----------|--------|-----------|--------|
| 21626     | 대장장이   | 21626     | 대장쟁이   |
| 21627     | 대장간    | 21627     | 대장깁    |
| 21628     | 풀무     | 21628     | 풍구     |
| 21629     | 모루     | 21629     | 섶뜰, 모루 |
| 21630     | 모루채    |           |        |
| 21631     | 갈퀴     | 21631     | 갈퀴     |
| 21632     | 집게     | 21632     | 집깨     |
| 21633     | 장도리    | 21633     | 망치     |
| 21633-1   | 노루발    |           |        |
| 21634     | 툽      | 21634     | 툽      |
| 21634-0-1 | -에     | 21634-0-1 | 토비     |
| 21635     | 도끼     | 21635     | 도끼     |
| 21636     | 자루(柄)  | 21636     | 자루     |
| 21636-0-1 | -을     | 21636-0-1 | 자루를    |
| 21636-0-2 | -에     | 21636-0-2 | 자루에    |
| 21637     | 갈고리    | 21637     | 갈쿠리    |
| 21638     | 썰기     | 21638     | 썰:기    |
| 21639     | 송곳     | 21639     | 송곳     |
| 21639-0-1 | -에     | 21639-0-1 | 송고세    |
| 21640     | 뽕죽하다   | 21640     | 뽕주카다   |
| 21641     | 숯돌     | 21641     | 숯뜰     |
| 21641-0-1 | -에     |           |        |
| 21642     | 맷돌     | 21642     | 맷뜰     |
| 21642-1   | 수쇠     | 21642-1   | 숯돌찌기   |
| 21642-1   | 암쇠     | 21642-2   | 암돌찌기   |
| 21643     | 지게     | 21643     | 지게     |
| 21644     | 발채     | 21644     | 바:소코리  |
| 21645     | 지게 작대기 | 21645     | 지게작대기  |
| 21646     | 막대기    | 21646     | 막대기    |
| 21647     | 몽둥이    | 21647     | 몽둥이    |

### 2.5.3. 생활용품

|       |     |       |     |
|-------|-----|-------|-----|
| 21701 | 빗자루 | 21701 | 비짜루 |
| 21702 | 광주리 | 21702 | 광주리 |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향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빠리  
 21712 웅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변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5 담배설대  
 21726 담배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03 대소코리  
 21704 함지  
 21705 풀빼  
  
 21706 독  
 21706-0-1 도게다  
  
 21708 향아리  
 21709 향아리(동일)  
 21710 물뚱이  
 21711 빠:리  
 21712 웅:기  
 21713 쪽박  
 21714 키  
 21715 떡쌀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2 시루에  
 21718 시루판, 시루미치 시루밑  
 21718-0-1 시루파네 시루미테  
 21719 시룻뵤  
 21720 부싯돌, 부시  
  
 21722 부식길 부식끼슨  
 21723 담:배  
 21724 담:뵤뵤, 담:뵤뵤  
 21725 담배설쪽 담배설쭈기라고  
 21726 담:배통, 담:배골통  
 21727 담:배 물쭈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찌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33    비녀  
 21734    참빔    참비시

21735    열게빔    열게비시  
 21736    세:순때  
 21737    비누

## 2.6. 인 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01    이마  
 21802    마:빼기  
  
 21804    눈똥자  
 21805    흰자위  
 21806    눈똥이  
 21806    눈꺼푸리  
 21807    거정눈(실체모름)  
 21808    눈썹  
 21809-0-1    눈썹비  
 21809    송:눈썹  
 21809-0-1    송:눈썹비  
 21810    눈똥등  
 21811    안경  
 21812    안경쩍



|           |       |           |        |
|-----------|-------|-----------|--------|
| 21813     | 돋보기   | 21813     | 돋빼기    |
| 21814     | 주름살   | 21814     | 주름쌀    |
| 21814-0-1 | -이    | 21814-0-1 | 주름싸리   |
| 21815     | 엣되다   | 21815     | 엣뛰어 보여 |
| 21816     | 수염    | 21816     | 쉬엄     |
| 21817     | 구레나룻  | 21817     | 구레나루   |
| 21817-0-1 | -을    |           |        |
| 21818     | 코     | 21818     | 코      |
| 21818-0-1 | -이    |           |        |
| 21819     | 콧수염   | 21819     | 코쉬엄    |
| 21820     | 코딱지   | 21820     | 코딱지    |
| 21821     | 콧구멍   | 21821     | 코꾸멍    |
| 21821-0-1 | -을    |           |        |
| 21821-0-2 | -에    |           |        |
| 21822     | 콧물    | 21822     | 콧물     |
| 21823     | 입술    | 21823     | 입쉴     |
| 21823-0-1 | -에    |           |        |
| 21824     | 다물다   | 21824     | 다무러    |
| 21825     | 어금니   | 21825     | 어금니    |
| 21826     | 덧니    | 21826     | 던니     |
| 21827     | 휘파람   | 21827     | 휩빠람    |
| 21828     | 침     | 21828     | 침      |
| 21829     | 삼키다   | 21829     | 생킨다    |
| 21830     | 가래(痰) | 21830     | 가래     |
| 21831     | 뺨다    | 21831     | 배타라    |
| 21832     | 혀     | 21832     | 새빠닥    |
| 21833     | 혓바늘   | 21833     | 쌔빠늘    |
| 21834     | 콧볼    |           |        |
| 21835     | 귀고리   | 21834     | 권몸     |
| 21835-1   | 귀걸이   |           |        |
| 21836     | 귀지    | 21835-1   | 귀거리    |
| 21837     | 귀이개   | 21836     | 귀지     |
| 21838     | 소리    | 21837     | 귀지개    |
| 21839     | 엮듣다   | 21838     | 소리     |
| 21840     | 귀청    | 21839     | 엮듣는다   |
| 21841     | 귀밑    | 21840     | 귀청     |

|                              |                |
|------------------------------|----------------|
| 21841-0-1 -을                 |                |
| 21842 관자놀이                   | 21842 관자노리     |
| 21843 기미                     | 21843 기미       |
| 21844 주근깨                    | 21844 주근깨      |
| 21845 턱                      | 21845 턱, 턱주加里  |
| 21846 턱수염                    | 21846 턱쉬엄      |
| 21847 뺨                      | 21847 뺨        |
| 21847-1 볼                    | 21847-1 벌      |
| 21848 가름하다                   | 21848 개름:하다    |
| 21849 보조개                    |                |
| 21850 머리카락                   | 21850 머리칼      |
| 21851 비듬                     | 21851 비듬 비드비   |
| 21852 기계충                    | 21852 기개충      |
| 21853 정수리                    | 21853 정수리      |
| 21854 대머리                    | 21854 대머리      |
| 21855 고수머리                   | 21855 곱슬머리     |
| 21856 가르마                    | 21856 가르마      |
| 21856-1 가르마 <u>타다/가르다/하다</u> | 21856-1 가름마 탄다 |
| 21857 가마                     | 21857 가름마      |
| 21857-1 가마(鼎)                |                |
| 21857-2 가마(轎)                |                |
| 21857-3 가마(질그릇)              |                |
| 21857-4 가마(가마니)              |                |
| 21858 뒤통수                    | 21858 뒤통시      |
| 21859 뒷덜미                    |                |
| 21860 목                      | 21860 목        |
| 21861 멧살                     | 21861 멧쌀       |

## 2.6.2. 상체

|           |             |
|-----------|-------------|
| 21901 어깨  | 21901 어깨    |
| 21902 밀치다 | 21902 미러써   |
| 21903 겨드랑 | 21903 겨드랑   |
| 21904 등   | 21904 등새이 등 |
| 21905 가슴  | 21905 가슴    |

|           |        |           |        |
|-----------|--------|-----------|--------|
| 21906     | 결리다    | 21906     | 결려서    |
| 21907     | 갈비뼈    | 21907     | 갈비     |
| 21908     | 허파     | 21908     | 허파     |
| 21909     | 쓸개     | 21909     | 쓸개     |
| 21910     | 콩팥     | 21910     | 콩팥 콩파치 |
| 21910-0-1 | -에     |           |        |
| 21910-0-2 | -을     | 21910-0-2 | 콩파테    |
| 21911     | 팔      | 21911     | 팔때기    |
| 21912     | 팔꿈치    | 21912     | 팔꿈치    |
| 21913     | 팔짱끼다   | 21913     | 팔짱끼구   |
| 21914     | 손톱     | 21914     | 손톱 손투비 |
| 21915     | 오른손    | 21915     | 바른손    |
| 21916     | 왼손     | 21916     | 왼손     |
| 21917     | 다르다    | 21917     | 달라     |
| 21917-0-1 | -아서    |           |        |
| 21917-1   | 틀리다    |           |        |
| 21918     | 왼손잡이   | 21918     | 왼손재비   |
| 21919     | 엄지손가락  | 21919     | 엄지손꾸락  |
| 21920     | 집게손가락  | 21920     | 둘째손꾸락  |
| 21921     | 가운뎃손가락 | 21921     | 무명지손꾸락 |
| 21922     | 약손가락   |           |        |
| 21923     | 새끼손가락  | 21923     | 새끼손꾸락  |
| 21924     | 생인손    | 21924     | 생인손    |
| 21925     | 사마귀    | 21925     | 사마귀    |
| 21926     | 손아귀    | 21926     | 손마굽    |
| 21927     | 손목     | 21927     | 손목     |
| 21928     | 뺨      | 21928     | 뺨      |
| 21929     | 허리     | 21929     | 허리     |
| 21930     | 지팡이    | 21930     | 지팡이    |
| 21931     | 옆구리    | 21931     | 역꾸리    |
| 21932     | 간지럽다   | 21932     | 가렵따    |
| 21933     | 간지럼    | 21933     | 간지럼    |
| 21934     | 잔허리    | 21934     | 잔허리    |
| 21935     | 근육     | 21935     | 뺨:     |
| 21936     | 배꼽     | 21936     | 배꼽     |
| 21937     | 목물     | 21937     | 등목     |

### 2.6.3. 하체

|           |                          |           |          |
|-----------|--------------------------|-----------|----------|
| 22001     | 복사빠                      | 22001     | 복숭아빠     |
| 22002     | 발가락                      | 22002     | 발꾸락      |
| 22003     | 발바닥                      | 22003     | 발빠당      |
| 22004     | 발톱                       | 22004     | 발툽       |
| 22005     | 냄새                       | 22005     | 냄:새      |
| 22006     | 고린내                      | 22006     | 고린내      |
| 22007     | 굳은살                      | 22007     | 구든살      |
| 22008     | 정강이                      | 22008     | 정깁이      |
| 22009     | 종아리                      | 22009     | 종아리      |
| 22010     | 장딴지                      | 22010     | 장딴지      |
| 22011     | 회초리                      | 22011     | 회차리      |
| 22012     | 무릎                       | 22012     | 부릅       |
| 22012-0-1 | -을                       | 22012-0-1 | 무르블      |
| 22012-0-2 | -에                       |           |          |
| 22013     | 오금                       | 22013     | 어금       |
| 22014     | 엉덩이                      | 22014     | 엉:덩이     |
| 22015     | 궁둥이                      | 22015     | 궁:덩이     |
| 22016     | 볼기                       | 22016     | 볼:기      |
| 22017     | 명                        | 22017     | 명        |
| 22018     | 명울                       | 22018     | 몽어리      |
| 22019     | 가랑이                      | 22019     | 가랭이      |
| 22020     | 사이                       | 22020     | 새        |
| 22021     | 살                        | 22021     | 오금       |
| 22021-0-1 | -이                       |           |          |
| 22021-0-2 | -을                       |           |          |
| 22022     | 사타구니                     | 22022     | 사추리      |
|           |                          | 22022     | 사타구니     |
| 22023     | 가래툽                      | 22023     | 가래토시     |
| 22023-0-1 | -을                       |           |          |
| 22024     | 허벅다리                     | 22024     | 허벅파리     |
| 22025     | 넓적다리                     | 22025     | 넙적파리     |
| 22026     | 가부좌(跏趺坐)                 | 22026     | 책쌍다리 꾀:다 |
| 22026-1   |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u> |           |          |

## 2.6.4. 질병과 생리

|         |                         |         |        |
|---------|-------------------------|---------|--------|
| 22101   | 감기                      | 22101   | 강:기    |
| 22102   | 기침                      | 22102   | 기침     |
| 22103   | 채채기                     | 22103   | 채치기    |
| 22104   | 사래                      | 22104   | 사래     |
| 22104-1 | (사래)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 22104-1 | 사래 걸린다 |
| 22105   | 딸꾹질                     | 22105   | 딱꾹쩔    |
| 22106   | 트림                      | 22106   | 트:름    |
| 22107   | 곰보                      | 22107   | 곰:보    |
| 22108   | 천연두                     | 22108   | 마:마    |
| 22109   | 여드름                     | 22109   | 여드름    |
| 22110   | 학질                      | 22110   | 학쩔     |
| 22110-1 | 하루거리                    | 22110-1 | 하루거리   |
| 22110-2 | 이틀거리                    |         |        |
| 22110-3 | 매일 앓는 학질                |         |        |
| 22111   | 홍역                      |         |        |
| 22112   | 볼거리                     |         |        |
| 22113   | 땀띠                      |         |        |
| 22114   | 두드러기                    |         |        |
| 22115   | 버짐                      | 22115   | 버짐     |
| 22115-1 | 마른버짐                    | 22115-1 | 마른버짐   |
| 22115-2 | 진버짐                     | 22115-2 | 물버짐    |
| 22115-3 | 도장 버짐                   | 22115-3 | 도장 부시럼 |
| 22116   | 문둥이                     |         |        |
| 22116-1 | 문둥병                     |         |        |
| 22117   | 부스럼                     | 22117   | 부시럼    |
| 22117-1 | 종기                      | 22117-1 | 종기     |
| 22118   | 고름                      | 22118   | 고름     |
| 22119   | 곰기다                     | 22119   | 공긴다    |
| 22120   | 난쟁이                     | 22120   | 난쟁이    |
| 22121   | 사팔뜨기                    | 22121   | 사:팔뜨기  |
| 22122   | 언청이                     | 22122   | 언채:이   |
| 22123   | 소경                      | 22123   | 장:님    |
| 22123-1 | 당달봉사                    | 22123-1 | 눈뜬 장님  |

22124 애꾸  
 22125 눈곱  
 22126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7 절름발이  
 22128 곱사등이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졸리다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22124 애:꾸  
 22125 누곱  
 22126 다래키  
  
 22127 찢뜩빠리  
 22128 곱:추  
 22129 귀머거리  
 22130 반병어리 말더드미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졸:립따  
 22134 하품  
 22135 조름  
  
 22136 장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 기(驚氣)하다  
 22205 눅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01 입떠시  
  
 22202 간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끼  
 22205 눅어  
 22206 기:지배:  
 22207 이:뿌다  
 22208 사내새:끼  
 22209 아우탄다  
 22209-1 아우본다  
  
 22210 자랄꼬비드런따  
 22211 쌍:둥이

|         |                         |         |                 |
|---------|-------------------------|---------|-----------------|
| 22212   | 오줌                      | 22212   | 오줌              |
| 22213   | 똥                       | 22213   | 똥               |
| 22214   | 기저귀                     | 22214   | 기저기             |
| 22215   | 뉘다(排便)                  | 22215   | 뉘다              |
| 22216   | 방귀                      | 22216   | 방:구             |
| 22216-1 | 뀌다                      | 22216-1 | 뀐다              |
| 22217   | 구린내                     | 22217   | 구린내             |
| 22218   | 구리다                     | 22218   | 구려 구리다          |
| 22219   | 포대기                     | 22219   | 포대기             |
| 22220   | 기지개                     | 22220   | 기지개             |
| 22220-1 | 기지개를 <u>켜다/하다/쓰다/펴다</u> | 22220-1 | 핀다              |
| 22221   | 거짓말                     | 22221   | 그:진말            |
| 22222   | 남부끄럽다                   | 22222   | 부그럽따            |
| 22223   | 겁쟁이                     | 22223   | 겁쟁이             |
| 22224   | 불쌍하다                    | 22224   | 불쌍허다            |
| 22225   | 죄암죄암                    | 22225   | 췌췌              |
| 22226   | 곤지곤지                    | 22226   | 곤지곤지            |
| 22227   | 따로따로                    | 22227   | 따루따루            |
| 22228   | 도리도리                    | 22228   | 도리도리            |
| 22229   | 짹짹                      | 22229   | 짹짹              |
| 22230   | 부라부라                    | 22230   | 부라부라            |
| 22231   | 걸음마                     | 22231   | 거름마             |
| 22232   | 아장아장                    | 22232   | 아장아장            |
| 22233   | 넘어지다                    | 22233   | 너머진다 어푸러진다 자빠진다 |
| 22234   | 곤두박질                    | 22234   | 곤두박쩔            |
| 22235   | 안기다                     | 22235   | 앙긴다             |
| 22236   | 바람개비                    | 22236   | 도루래미            |
| 22237   | 호드기                     | 22237   | 물피리             |
| 22238   | 숨바꼭질                    | 22238   | 숨바꼭쩔            |
| 22239   | 소꿉놀이                    | 22239   | 소꿉짱난            |
| 22240   | 사금파리                    | 22240   | 깜파리             |
| 22241   | 연                       | 22241   | 연               |
| 22241-1 | 방패연                     | 22241-1 | 사방연             |
| 22241-2 | 가오리연                    | 22241-2 | 개구리연            |
| 22242   | 걸리다                     | 22242   | 언첼써             |
| 22243   | 고누                      |         |                 |

|           |                           |           |                  |
|-----------|---------------------------|-----------|------------------|
| 22244     | 땅뺏기                       |           |                  |
| 22245     | 팽이                        | 22245     | 팽이               |
| 22246     | 딱지치기                      | 22246     | 딱찌치기             |
| 22247     | 구슬                        | 22247     | 다마치기             |
| 22248     | 그네                        | 22248     | 건:네              |
| 22248-1   | 그네를 <u>뛰다/타다/구르다</u>      | 22248-1   | 건:네 뛰다           |
| 22249     | 밑신개                       | 22249     | 발판               |
| 22250     | 굴렁쇠                       | 22250     | 굴렁쇠              |
| 22251     | 굴리다                       | 22251     | 굴린다              |
| 22251-0-1 | -고                        | 22251-0-1 | 굴리구              |
| 22251-0-2 | -어야                       |           |                  |
| 22252     | 자전거                       | 22252     | 자전거              |
| 22253     | 목말                        | 22253     | 무등               |
| 22254     | 말타기                       | 22254     | 말타기              |
| 22255     | 달음박질                      | 22255     | 뽀박질              |
| 22256     | 썰매                        | 22256     | 썰매               |
| 22256-1   | 얼음을(썰매를) <u>지치다/타다</u>    | 22256-1   | 어름 지친다           |
| 22256-2   | 송곳                        | 22256-2   | 썰매 꼬챙이           |
| 22257     | 엄살                        | 22257     | 엄살               |
| 22257-1   | (엄살) <u>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u> | 22257-1   | 엄살 부린다           |
| 22258     | 부아                        | 22258     | 화:가 치민다, 부아통 터진다 |

## 2.8. 친족

|         |          |         |               |
|---------|----------|---------|---------------|
| 22301   | 아버지      | 22301   | 아버지           |
| 22301-1 | 아버지(호칭)  | 22301-1 | 아버지           |
| 22302   | 어머니      | 22302   | 어머니           |
| 22302-1 | 어머니(호칭)  | 22302-1 | 어머니           |
| 22303   | 할아버지     | 22303   | 하라버지          |
| 22303-1 | 할아버지(호칭) | 22303-1 | 하라버지          |
| 22304   | 할머니      | 22304   | 할머니           |
| 22304-1 | 할머니(호칭)  | 22304-1 | 할머니           |
| 22305   | 남편       | 22305   | 남편            |
| 22305-1 | 남편(호칭)   | 22305-1 | (아이 이름)아버지 여보 |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8-1 아우(호칭)  
 22309 누나  
 22309-1 누나(호칭)  
 22310 누이  
 22310-1 누이(호칭)  
 22311 자식  
 22312 맡아들  
 22313 막내  
 22314 오라버니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5 오빠  
 22315-1 오빠(호칭)  
 22316 언니  
 22316-1 언니(호칭)  
 22317 아비  
 22317-1 아비(호칭)  
 22318 어미  
 22318-1 어미(호칭)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1 사위(호칭)  
 22322 외손자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다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7 혼인  
 22327-1 혼인식

22306 처 마누라(나이 들었을 때)  
 22307 형  
 22307-1 형  
 22308 동생 아우  
 22308-1 동생 아우, 22308-1 (누구)아범  
 22309 누이(혼전)  
 22309-1 누님(혼후) 누나(어렸을 때)  
 22310 누이동생  
 22310-1 이름(혼전) 누이야  
 22310-1 (애이름)엄마(혼후)  
 22311 자녀 자시기  
 22312 장:남  
 22313 장:녀  
 22312 큰아들  
 22313 큰딸  
 22314 망내  
 22315 오빠(젊었을 때) 오라버니(나이드었을 때)  
 22316 언니  
 22317 (누구)아버미  
 22317-1 애미야  
 22318 (누구)애미  
 22318-1 애미야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1 여보게 (성)서방  
 22322 외손주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는다  
 22324-1 나무래다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7 혼인  
 22327-1 결혼식 홀례

|         |             |         |         |
|---------|-------------|---------|---------|
| 22328   | 혼인 잔치       | 22328   | 혼인잔채    |
| 22329   | 장가가다        | 22329   | 장:개 든다  |
| 22329-1 | 시집가다        | 22329-1 | 시집깎다    |
| 22330   | 혼숫감         | 22330   | 혼수감:    |
| 22331   | 함           | 22331   | 함:      |
| 22332   | 겹사돈         | 22332   | 겹싸돈     |
| 22333   | 새색시         | 22333   | 새택      |
| 22333-1 | 새색시(호칭)     | 22333-1 | 새택:     |
| 22334   | 시아버지        | 22334   | 시아버지    |
| 22334-1 | 시아버지(호칭)    | 22334-1 | 아버님     |
| 22335   | 시어머니        | 22335   | 시어머님    |
| 22335-1 | 시어머니(호칭)    | 22335-1 | 어머님     |
| 22336   | 비위          | 22336   | 비우      |
| 22337   | 아주버니        | 22337   | 시아주버니   |
| 22337-1 | 아주버니(호칭)    | 22337-1 | 아주버님    |
| 22338   | 서방님         | 22338   | 서방님     |
| 22338-1 | 서방님(호칭)     |         |         |
| 22339   | 도련님         | 22339   | 시동생     |
| 22339-1 | 도련님(호칭)     | 22339-1 | 대린님     |
| 22340   | 형님          | 22340   | 형님      |
| 22340-1 | 형님(호칭)      |         |         |
| 22341   | 시누이         | 22341   | 시누      |
| 22341-1 | 시누이(호칭)     |         |         |
| 22341-2 | 아가씨         | 22341-2 | 아가씨     |
| 22341-3 | 아가씨(호칭)     | 22341-3 | 아가씨     |
| 22342   | 올케          | 22342   | 올케      |
| 22342-1 | 올케(호칭)      | 22342-1 | 올케      |
| 22343   | 매형          | 22343   | 매형      |
| 22343-1 | 매형(호칭)      |         |         |
| 22344   | 매제          | 22344   | 매제      |
| 22344-1 | 매제(호칭)      |         |         |
| 22345   | 큰아버지        | 22345   | 크나버지    |
| 22345-1 | 큰아버지(호칭)    | 22345-1 | 크나버지    |
| 22345-2 | (아버지의 둘째 형) | 22345-2 | 둘째 크나버지 |
| 22345-3 | (아버지의 셋째 형) | 22345-3 | 세째 크나버지 |
| 22346   | 큰어머니        | 22346   | 크너머니    |

|         |                 |                |
|---------|-----------------|----------------|
| 22346-1 | 큰어머니(호칭)        |                |
| 22346-2 |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                |
| 22346-3 |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                |
| 22347   | 큰집              | 22347 큰댁, 큰집   |
| 22348   | 작은아버지           | 22348 자근아버지    |
| 22348-1 | 작은아버지(호칭)       |                |
| 22349   | 작은어머니           | 22349 자근어머니    |
| 22349-1 | 작은어머니(호칭)       |                |
| 22350   | 삼촌              | 22350 삼촌       |
| 22350-1 | 삼촌(호칭)          |                |
| 22351   | 아저씨             | 22351 오촌 당숙    |
| 22351-1 | 아저씨(호칭)         | 22351-1 아저씨    |
| 22352   | 아주머니            | 22352 당승모      |
| 22352-1 | 아주머니(호칭)        | 22352-1 아주머니   |
| 22353   | 조카              | 22353 생질, 조카   |
| 22354   | 조카딸             | 22354 생질녀, 조카딸 |
| 22355   | 고모              | 22355 고모       |
| 22355-1 | 고모(호칭)          |                |
| 22356   | 고모부             | 22356 고모부      |
| 22356-1 | 고모부(호칭)         |                |
| 22357   | 고종              | 22357 고종사촌     |
| 22358   | 이모              | 22358 이모       |
| 22358-1 | 이모(호칭)          |                |
| 22359   | 이모부             | 22359 이모부      |
| 22359-1 | 이모부(호칭)         |                |
| 22360   | 이종              | 22360 이종사촌     |
| 22361   | 외삼촌             | 22361 왜삼촌      |
| 22361-1 | 외삼촌(호칭)         |                |
| 22362   | 외숙모             | 22362 왜승모      |
| 22362-1 | 외숙모(호칭)         |                |
| 22363   | 외종              | 22363 왜사촌      |
| 22364   | 외할아버지           | 22364 왜하라버지    |
| 22364-1 | 외할아버지(호칭)       |                |
| 22365   | 외할머니            | 22365 왜할머니     |
| 22365-1 | 외할머니(호칭)        |                |
| 22366   | 장인              | 22366 장·인      |

|                  |  |
|------------------|--|
| 22366-1 장인(호칭)   | 22366-1 아버님                                  |
| 22367 장모         | 22367 장모님                                    |
| 22367-1 장모(호칭)   | 22367-1 어머님                                  |
| 22368 처남         | 22368 처남                                     |
| 22368-1 처남(호칭)   |  |
| 22369 처남댁        | 22369 처나매댁                                   |
| 22369-1 처남댁(호칭)  |  |
| 22370 할아버지       | 22370 할아버지                                   |
| 22371 할머니        | 22371 과:부                                    |
| 22372 계모         | 22372 자근어머니 계:모(재가한 여자의 경우)<br>어머니(새장가 간 경우) |
| 22372-1 계부       | 22372-1 으분아버지                                |
| 22373 아버지        | 22373 아버지                                    |
| 22373-1 아버지(호칭)  |  |
| 22374 아주머니       | 22374 아주머니                                   |
| 22374-1 아주머니(호칭) |  |
| 22375 사나이        | 22375 사나이                                    |
| 22376 영감         | 22376 영감 영감님                                 |
| 22376-1 할망구      | 22376-1 할망구 할멈                               |
| 22377 나이         | 22377 나이                                     |
| 22377-0-1 -를     | 22377-0-1 나이를                                |
| 22378 환갑         | 22378 한:가비라구                                 |
| 22378-1 환갑 잔치    | 22378-1 향:갑잔채                                |
| 22379 사투리        | 22379 사:투리                                   |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            |               |
|------------|---------------|
| 22401 물고기  | 22401 물꼬기     |
| 22402 민물고기 | 22402 밀물꼬기    |
| 22403 피라미  | 22403 불거지 날피리 |
| 22404 지느러미 | 22404 지느래미    |

|           |          |         |          |
|-----------|----------|---------|----------|
| 22405     | 아가미      | 22405   | 아가미      |
| 22406     | 창자       | 22406   | 창자       |
| 22407     | 송사리      | 22407   | 송:사리     |
| 22408     | 혜엄       | 22408   | 회엄(사람)   |
| 22409     | 매기       | 22409   | 매:기      |
| 22410     | 자라       | 22410   | 자라       |
| 22411     | 거북       | 22411   | 거부기 남새이  |
| 22412     | 미꾸라지     | 22412   | 미꾸라지 미꾸리 |
| 22413     | 개구리      | 22413   | 개구리      |
| 22414     | 올챙이      | 22414   | 올챙이      |
| 22415     | 두꺼비      | 22415   | 두꺼비      |
| 22416     | 거머리      | 22416   | 거머리      |
| 22417     | 다슬기      | 22417   | 소라       |
| 22418     | 우렁이      | 22418   | 우렁이      |
| 22419     | 고둥       | 22419   | 고둥 달팽이   |
| 22420     | 달팽이      | 22420   | 달패이      |
| 22421     | 새우       | 22421   | 새우       |
| 22421-1   | 새우(민물 대) |         |          |
| 22421-2   | 새우(민물 소) | 22421-2 | 버리새우     |
| 22421-3   | 새우(바다 대) | 22421-3 | 왕새우      |
| 22421-4   | 새우(바다 소) | 22421-4 | 전새우      |
| 22422     | 새우젓      |         |          |
| 22422-0-1 | -이       |         |          |
| 22423     | 가재       | 22423   | 가:재      |
| 22424     | 갈치       | 22424   | 칼치       |
| 22425     | 고등어      | 22425   | 고등어      |
| 22426     | 가오리      | 22426   | 가오리      |
| 22427     | 가자미      | 22427   | 넙치       |
| 22428     | 멸치       | 22428   | 매리치      |
| 22429     | 명태       | 22429   | 동:태      |
| 22429-1   | 동태       |         |          |
| 22429-2   | 황태       | 22429-2 | 노랑태      |
| 22429-3   | 노가리      | 22429-3 | 부개새끼     |
| 22429-4   | 북어       | 22429-4 | 부개, 명태   |
| 22429-5   | 생태       |         |          |
| 22430     | 조기       | 22430   | 조기       |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3 낚시  
22434 미끼  
22435 낚싯대  
22436 얼레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2 뱀:장어  
22433 낙씨질  
22434 미끼  
22435 낙싯때  
22436 영깡깨이  
22437 조개  
22438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5 가시  
22506 진딧물  
22506-1 (진딧물 이) 끼다/얹다/생기다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매뚜기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3 땅벌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6 풍뎡이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9 매미

22501 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쫄다  
22505 구대기  
22506 진딧물  
22506-1 꺾따 꺾썌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9 매띠기  
22510 여:치  
22511 영:가씨 오쭈싸개  
22512 벌:  
22512-1 벌:친다  
22513 읍빠치  
22514 나비  
22515 하루사리  
22516 풍대이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9 매미, 쓰르라미(작은 것)

|         |        |         |           |
|---------|--------|---------|-----------|
| 22520   | 개똥벌레   | 22520   | 개똥벌레      |
| 22521   | 반딧불    |         |           |
| 22522   | 거미     | 22522   | 거미        |
| 22523   | 굼벵이    | 22523   | 굼:벵이      |
| 22524   | 구더기    | 22524   | 구대기       |
| 22525   | 노래기    | 22525   | 노래기       |
| 22526   | 그리마    | 22526   | 돈:뽕레, 구루마 |
| 22527   | 지네     | 22527   | 지내        |
| 22528   | 개미     | 22528   | 개미        |
| 22529   | 바구미    | 22529   | 바구미       |
| 22530   | 진드기    | 22530   | 찢디기       |
| 22531   | 벼룩     | 22531   | 벼루기       |
| 22532   | 이      | 22532   | 이         |
| 22532-1 | 서캐     | 22532-1 | 서캐        |
| 22532-2 | 빈대     | 22532-2 | 빈대        |
| 22533   | 송충이    |         |           |
| 22534   | 귀뚜라미   | 22534   | 귀뚜라미      |
| 22535   | 누에     | 22535   | 누에        |
| 22536   | 고치     | 22536   | 누에꼬치      |
| 22537   | 번데기    | 22537   | 번디기       |
| 22538   | 지렁이    | 22538   | 지렁이       |
| 22539   | 회충(蛔蟲) | 22539   | 거위, 회충    |
| 22540   | 소금쟁이   |         |           |
| 22541   | 방개     | 22541   | 물매미       |

### 2.9.3. 가축

|         |                   |         |          |
|---------|-------------------|---------|----------|
| 22601   | 가축                | 22601   | 가축 김승    |
| 22602   | 암소                | 22602   | 암소       |
| 22603   | 송아지               | 22603   | 송아지, 맹아지 |
| 22604   | 송아지 부르는 소리        | 22604   | 머:이 머:이  |
| 22605   | 황소                | 22605   | 황소       |
| 22606   | 길들이다              | 22606   | 길디린다     |
| 22606-1 |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 22606-1 | 이랴 이랴    |
| 22606-2 |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 22606-4 | 저러저러     |

|                           |                    |
|---------------------------|--------------------|
|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 22606-3 이리이리       |
|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 22606-2 워워         |
|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 22606-5 마라마라       |
| 22607 쇠고기                 | 22607 쇠고기          |
| 22608 고기(肉)               | 22608 고기           |
| 22609 돌치                  | 22609 두람소          |
| 22610 꼬리                  | 22610 꼬리           |
| 22611 망아지                 | 22611 망아지          |
| 22612 당나귀                 |                    |
| 22613 갈기                  |                    |
| 22614 돼지                  | 22614 돼:지          |
| 22614-1 멧돼지               | 22614-1 산돼지        |
| 22615 주둥이                 | 22615 주둥아리         |
| 22616 돼지 머리               | 22616 돼:지머리 돼:지대가리 |
| 22617 돼지우리                | 22617 돼:지우리        |
| 22617-1 오래오래              | 22617-1 오래오래       |
| 22618 개(犬)                | 22618 개:           |
| 22618-1 수캐                | 22618-1 수캐         |
| 22618-2 암캐                | 22618-2 암캐         |
| 22619 강아지                 | 22619 강아지          |
| 22620 염소                  | 22620 염소           |
| 22621 고양이                 | 22621 팽이           |
| 22621-1 수고양이              | 22621-1 수캥이        |
| 22621-2 암고양이              | 22621-2 암캥이        |
| 22622 토끼                  | 22622 토끼           |
| 22623 거위(鵞)               | 22623 거우기          |
| 22624 암탉                  | 22624 암탉, 다기       |
| 22625 병아리                 | 22625 병아리          |
| 22626 모으다                 | 22626 모운다 파        |
| 22627 수탉                  | 22627 수탉           |
| 22627-0-1 -이              |                    |
| 22628 벵슬(鷄冠)              | 22628 벵 벵시         |
| 22629 부리                  | 22629 주둥아리         |
| 22630 모이                  | 22630 머이           |
| 22630-0-1 -을              | 22630-0-1 머이를      |
| 22630-1 모이다               |                    |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31 털  
 22632 닭똥  
 22633 닭우리  
 22634 닭기장  
 22635 알똥지  
 22636 날개  
 22637 긴 기시라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01 호:레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노루가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래이  
 22713 살무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가꾸로  
 22717 다람쥐  
 22718 날김성  
 22719 꼬리  
 22720 솔개미  
 22721 독쭈리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빠꾸기  
 22730 기러기  
 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23 황:새,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쟁끼  
 22727 까:투리  
 22727-1 꿩새끼  
 22728 종다리  
 22729 빠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췌:기, 뎃: 더:시  
 22735-0-1 더:슬  
 22736 옹노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01 진달래  
 22802 철쭉  
 22803 민들레 뎃:달래  
 22804 민드래미  
 22805 봉숭아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곧뽕우리  
 22809 시드로 시든다  
 22810 질깁이  
 22810-2 질깁이나물

|         |            |         |       |
|---------|------------|---------|-------|
| 22811   | 빨기         |         |       |
| 22812   | 비름         | 22812   | 비름    |
| 22813   | 쇠비름        | 22813   | 돌나물   |
| 22814   | 썸바귀        | 22814   | 썸바귀   |
| 22815   | 고들빼기       | 22815   | 고들빼기  |
| 22815-1 | 고들빼기(식물이름) |         |       |
| 22815-2 | 고들빼기(식용이름) |         |       |
| 22816   | 고사리        | 22816   | 고사리   |
| 22817   | 고비         | 22817   | 고비    |
| 22818   | 도깨비바늘      |         |       |
| 22819   | 도꼬마리       | 22819   | 도꾸마리  |
| 22820   | 억새         | 22820   | 억새    |
| 22821   | 갈대         | 22821   | 갈땅    |
| 22822   | 이끼         | 22822   | 니끼    |
| 22823   | 아주까리       | 22823   | 피마주   |
| 22824   | 담쟁이        | 22824   | 담쟁이   |
| 22825   | 수세미        | 22825   | 수세미   |
| 22826   | 덩굴         | 22826   | 넙쿨    |
| 22827   | 덤불         | 22827   | 덤부사리  |
| 22827-1 | 가시덤불       | 22827-1 | 가시 덩불 |
| 22828   | 잔디         | 22828   | 잔디    |

## 2.10.2. 나무

|       |       |       |      |
|-------|-------|-------|------|
| 22901 | 소나무   | 22901 | 소나무  |
| 22902 | 솔방울   | 22902 | 솔뽕울  |
| 22903 | 관솔    | 22903 | 관솔   |
| 22904 | 솔가리   | 22904 | 솔까리  |
| 22905 | 그리모으다 | 22905 | 글거와라 |
| 22906 | 뽕나무   | 22906 | 뽕낭구  |
| 22907 | 오디    | 22907 | 오디   |
| 22908 | 도토리   | 22908 | 도토리  |
| 22909 | 떡갈나무  | 22909 | 떡갈나무 |
| 22910 | 상수리   | 22910 | 상:수리 |
| 22911 | 옷     | 22911 | 오슬   |

|                              |               |
|------------------------------|---------------|
| 22911-0-1 -으로                |               |
| 22912 버드나무                   | 22912 버드나무    |
| 22913 느티나무                   | 22913 느티나무    |
| 22914 그림자                    | 22914 그림자     |
| 22914-1 그늘                   | 22914-1 그늘    |
| 22915 숲                      | 22915 숲 수피    |
| 22915-0-1 -을                 |               |
| 22915-0-2 -에                 |               |
| 22916 시원하다                   | 22916 시원:허다   |
| 22917 쫄레                     | 22917 쫄레      |
| 22918 칩                      | 22918 칩 치기라구  |
| 22918-0-1 -에                 |               |
| 22919 가지(枝)                  | 22919 가지      |
| 22920 끝                      | 22920 끝       |
| 22920-0-1 -이                 | 22920-0-1 꼬치  |
| 22920-0-2 -에                 | 22920-0-2 꼬칠  |
| 22920-0-3 -을                 | 22920-0-3 꼬테  |
| 22921 삭정이                    | 22921 삭장기     |
| 22921-1 삭정이를 <u>따다/꺾다/하다</u> | 22921-1 꺾는다   |
| 22922 나무                     | 22922 나무      |
| 22922-0-1 -을                 |               |
| 22922-0-2 -에                 |               |
| 22923 나무하다                   | 22923 나무허러간다  |
| 22924 그루터기                   | 22924 꼬르태기    |
|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               |
| 22925 등걸                     | 22925 등걸      |
| 22926 장작                     | 22926 장작      |
| 22927 패다                     | 22927 팬다      |
| 22928 부스러기                   | 22928 부시래기    |
| 22929 숯                      | 22929 숯       |
| 22929-0-1 -이                 |               |
| 22929-0-2 -을                 |               |
| 22929-0-3 -에                 | 22929-0-3 수세다 |
| 22930 불잉걸                    |               |
| 22931 짝                      | 22931 짝 짝시    |
| 22932 잎                      | 22932 이파리     |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32-1 이파리, 잎싸귀

22933 가랑니비라

22934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풋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6 보늬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01 사과

23002 돌빼

23003 복숭아

23004 곧감

23005 연시감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1 성뉴(나지 않음)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찌

23015 밤:

23015-1 밤송아리

23015-2 푼밤

23015-3 아람

23015-4 쌍둥이밤:

23016 번(?)

23017 호두

23018 가래

23019 가암

23020 산머루

23021 다래

23024 참외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24 채미  
 23025 딸기  
 23025-1 집딸기 왕딸기, 왜딸기  
 23025-3 들:딸기  
 23025-5 산딸기  
 23026 뱀:딸기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7 뿔자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01 산뿔오리  
 23102 산뺨탈  
 23103 상골  
 23104 메아리  
 23105 아글 쓴다 큰소리 친다  
 23106 산수 묘  
 23107 산수짜리 본다  
 23107-1 모토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비타리 시:머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벌판 벌:, 들판 들  
 23114 벌판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23118 돌(石)  
 23118-0-1 -을  
 23118-0-2 -에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15 갈림길  
 23116 해:절따  
 23117 바위  
 23117-0-2 바위에  
 23118 돌:  
 23118-0-2 도: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1 지:늪  
 23121-1 지:늪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붓도랑  
 23205 독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9 미역 감다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굴창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히다  
 23204 도랑  
 23204-1 볼또랑  
 23205 뚝  
 23206 쟁긴다  
 23207 개울 낸:물  
 23209 미역 껌는다  
 23210 발가새이  
 23211 모곡(목욕탕)  
 23212 수채꾸덕  
 23213 개굴창  
 23214 시궁창  
 23215 엉대이

|           |      |           |        |
|-----------|------|-----------|--------|
| 23218     | 배(船) | 23218     | 배      |
| 23219     | 나루터  | 23219     | 나루터    |
| 23220     | 돛    | 23220     | 돛 도시   |
| 23220-0-1 | -에   | 23220-0-1 | 도세     |
| 23221     | 돛대   | 23221     | 돛 때    |
| 23222     | 돛배   | 23222     | 돛 빼    |
| 23223     | 돛 줄  | 23223     | 돛 쥘    |
| 23224     | 돛 줄  |           |        |
| 23225     | 거루   |           |        |
| 23226     | 상앗대  |           |        |
| 23227     | 개(펼) | 23227     | 개 뻔    |
| 23228     | 물    |           |        |
| 23228-0-1 | -으로  |           |        |
| 23229     | 밀물   | 23229     | 밀물     |
| 23230     | 썰물   | 23230     | 썰:물    |
| 23231     | 가라앉다 | 23231     | 가라 안는다 |
| 23232     | 그물   | 23232     | 그물     |
| 23233     | 해녀   | 23233     | 해:녀    |

### 2.11.3. 시 후

|           |       |       |        |
|-----------|-------|-------|--------|
| 23301     | 새벽    | 23301 | 새벽     |
| 23302     | 새벽밥   | 23302 | 새백빤    |
| 23303     | 아침    | 23303 | 아침     |
| 23304     | 아침밥   | 23304 | 아침빤    |
| 23305     | 점심    | 23305 | 점:심    |
| 23306     | 저녁    | 23306 | 저녁     |
| 23307     | 설핏하다  |       |        |
| 23308     | 노을    | 23308 | 너을 진다  |
| 23308-0-1 | -을    |       |        |
| 23309     | 불그레하다 | 23309 | 불거타 북따 |
| 23310     | 해거름   | 23310 | 해질무렵   |
| 23311     | 망거미   | 23311 | 망꺼미    |
| 23312     | 봄     | 23312 | 봄      |
| 23313     | 여름    | 23313 | 여름     |



|           |      |           |      |
|-----------|------|-----------|------|
| 23314     | 더위   | 23314     | 더위   |
| 23315     | 추위   | 23315     | 추위   |
| 23316     | 가을   | 23316     | 가을   |
| 23316-0-1 | -에   | 23316-0-1 | 가으레  |
| 23317     | 겨울   | 23317     | 겨울   |
| 23317-0-1 | -에   | 23317-0-1 | 겨우레  |
| 23318     | 얼음   | 23318     | 어름   |
| 23319     | 오늘   | 23319     | 오늘   |
| 23320     | 내일   | 23320     | 내일   |
| 23321     | 모레   | 23321     | 모레   |
| 23322     | 글피   | 23322     | 글피   |
| 23323     | 그글피  | 23323     | 그글피  |
| 23324     | 어제   | 23324     | 어제   |
| 23325     | 그저께  | 23325     | 그저께  |
| 23326     | 그그저께 | 23326     | 그그저께 |
| 23327     | 훗날   | 23327     | 훈:날  |
| 23328     | 하룻날  | 23328     | 초하루  |
| 23329     | 이튿날  | 23329     | 초이틀  |
| 23330     | 사흘날  | 23330     | 초사흘  |
| 23331     | 나흘날  | 23331     | 초나흘  |
| 23332     | 닷셋날  | 23332     | 초단째  |
| 23333     | 엿셋날  | 23333     | 초열째  |
| 23334     | 이렛날  | 23334     | 초이레  |
| 23335     | 여드렛날 | 23335     | 초여드레 |
| 23336     | 아흐렛날 | 23336     | 초아흐레 |
| 23337     | 열흘날  | 23337     | 열흘   |
| 23338     | 하루   | 23338     | 하루   |
| 23339     | 이틀   | 23339     | 이틀   |
| 23340     | 사흘   | 23340     | 사흘   |
| 23341     | 나흘   | 23341     | 나흘   |
| 23342     | 닷새   | 23342     | 단째   |
| 23343     | 엿새   | 23343     | 열째   |
| 23344     | 이레   | 23344     | 이레   |
| 23345     | 여드레  | 23345     | 여드레  |
| 23346     | 아흐레  | 23346     | 아흐레  |
| 23347     | 열흘   | 23347     | 초열흘  |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즘  
 23355 금방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4 요즘  
 23355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3401 험뻘테  
 23401-0-1 험뻘치  
 23401-0-2 험뻘칠  
  
 23404 응:달  
 23405 양지쪽  
 23406 비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양: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내기  
 23413 벼랑간  
 23414 홍수  
 23415 병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따  
 23419 함방눈  
 23420 싸랑눈

|           |       |           |       |
|-----------|-------|-----------|-------|
| 23421     | 발자국   | 23421     | 발짜죽   |
| 23422     | 진눈깨비  | 23422     | 진눈깨비  |
| 23423     | 우박    | 23423     | 우:박   |
| 23424     | 고드름   | 23424     | 고두름   |
| 23425     | 햇무리   | 23425     | 해무리   |
| 23426     | 달무리   | 23426     | 달무리   |
| 23427     | 둥글다   | 23427     | 둥글다   |
| 23428     | 은하수   | 23428     | 으나수   |
| 23429     | 금성    | 23429     | 썬뻔    |
| 23430     | 가뭄    | 23430     | 가뭄    |
| 23431     | 마르다   | 23431     | 말르지   |
| 23431-0-1 | -어서   |           |       |
| 23432     | 위     | 23432     | 위     |
| 23433     | 아래    | 23433     | 아래    |
| 23434     | 왼쪽    | 23434     | 왼:쪽   |
| 23435     | 오른쪽   | 23435     | 바른쪽   |
| 23436     | 결     | 23436     | 겨트루   |
| 23436-0-1 | -에    | 23436-0-1 | 여페    |
| 23437     | 회오리바람 | 23437     | 회:루바람 |
| 23438     | 북풍    | 23438     | 북풍    |
| 23439     | 남풍    | 23439     | 남풍    |
| 23440     | 동풍    | 23440     | 동풍    |
| 23441     | 서풍    | 23441     | 서풍    |

##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           |          |       |         |
|-----------|----------|-------|---------|
| 31001-0-1 | 테(輪)-이/가 | 31001 | 테가(-가)  |
| 31001-0-2 | 테(輪)-보다  |       |         |
| 31002-0-1 | 태(胎)-이/가 | 31002 | 태가(-가)  |
| 31002-0-2 | 태(胎)-보다  |       |         |
| 31003-0-1 | 떼(群)-이/가 | 31003 | 떼가(-가)  |
| 31003-0-2 | 떼(群)-보다  |       |         |
| 31004-0-1 | 때(時)-이/가 | 31004 | 때가(-가)  |
| 31004-0-2 | 때(時)-보다  |       |         |
| 31005-0-1 | 틀(機)-이/가 | 31005 | 트리(-이)  |
| 31005-0-2 | 틀(機)-보다  |       |         |
| 31006-0-1 | 털(毛)-이/가 | 31006 | 터리(-이)  |
| 31006-0-2 | 털(毛)-보다  |       |         |
| 31007-0-1 | 글(文)-이/가 | 31007 | 그리(-이)  |
| 31007-0-2 | 글(文)-보다  |       |         |
| 31008-0-1 | 걸(옷)-이/가 | 31008 | 거:리(-이) |
| 31008-0-2 | 걸(옷)-보다  |       |         |
| 31009-0-1 | 기(旗)-이/가 | 31009 | 기가(-가)  |
| 31009-0-2 | 기(旗)-보다  |       |         |
| 31010-0-1 | 귀(耳)-이/가 | 31010 | 귀가(-가)  |

|           |              |                |
|-----------|--------------|----------------|
| 31010-0-2 | 귀(耳)-보다      |                |
| 31011-0-1 | 시(生時)-이/가    | 31011 시가(-가)   |
| 31011-0-2 | 시(生時)-보다     |                |
| 31012-0-1 | 취(蠅卵)-이/가    | 31012 취:가(-가)  |
| 31012-0-2 | 취(蠅卵)-보다     |                |
| 31013-0-1 | 쇠(鐵)-이/가     | 31013 쇠가(-가)   |
| 31013-0-2 | 쇠(鐵)-보다      |                |
| 31014-0-1 | 외:국(外國)-이/가  | 31014 웨:구기(-이) |
| 31014-0-2 | 외:국(外國)-보다   |                |
| 31015-0-1 | 왜국(倭國)-이/가   | 31015 왜구기(-이)  |
| 31015-0-2 | 왜국(倭國)-보다    |                |
| 31016-0-1 | 쉬:다(休)-이/가   | 31016 쉼:다      |
| 31016-0-2 | 쉬:다(休)-보다    |                |
| 31017-0-1 | 쇠:다(설을~)-이/가 | 31017 쉼:다      |
| 31017-0-2 | 쇠:다(설을~)-보다  |                |
| 31018-0-1 | 베(布)-이/가     | 31018 베가(-가)   |
| 31018-0-2 | 베(布)-보다      |                |
| 31019-0-1 | 배(船)-이/가     | 31019 배가(-가)   |
| 31019-0-2 | 배(船)-보다      | 31019 배두(-도)   |
| 31020-0-1 | 배(腹)-이/가     |                |
| 31020-0-2 | 배(腹)-보다      |                |
| 31021-0-1 | (떡)메-이/가     | 31021 메가(-가)   |
| 31021-0-2 | (떡)메-보다      |                |
| 31022-0-1 | 매(鞭)-이/가     | 31022 매가(-가)   |

|           |             |                  |
|-----------|-------------|------------------|
| 31022-0-2 | 매(鞭)-보 다    |                  |
| 31023-0-1 | 매:다(擔)-이/가  | 31023 맨:다        |
| 31023-0-2 | 매:다(擔)-보 다  | 31023 민:다        |
| 31024-0-1 | 매:다(繫)-이/가  | 31024 맨:다        |
| 31024-0-2 | 매:다(繫)-보 다  |                  |
| 31025-0-1 | 떼:다(分離)-이/가 | 31025 떤:다        |
| 31025-0-2 | 떼:다(分離)-보 다 |                  |
| 31026-0-1 | 때:다(炊)-이/가  | 31026 땀:다        |
| 31026-0-2 | 때:다(炊)-보 다  |                  |
| 31027-0-1 | 베:다(切斷)-이/가 | 31027 벤:다        |
| 31027-0-2 | 베:다(切斷)-보 다 | 31027 빈:다        |
| 31028-0-1 | 배:다(孕胎)-이/가 | 31028 뱌:따(배-엮-다) |
| 31028-0-2 | 배:다(孕胎)-보 다 |                  |
| 31029-0-1 | 세:다(算)-이/가  | 31029 센:다        |
| 31029-0-2 | 세:다(算)-보 다  | 31029 신:다        |
| 31030-0-1 | 새:다(漏泄)-이/가 | 31030 샌:다        |
| 31030-0-2 | 새:다(漏泄)-보 다 |                  |
| 31031-0-1 | 뒤(後)-이/가    | 31031 뒤가(-가)     |
| 31031-0-2 | 뒤(後)-보 다    |                  |
| 31032-0-1 | 되(升)-이/가    | 31032 뒌:가(-가)    |
| 31032-0-2 | 되(升)-보 다    |                  |
| 31033-0-1 | 게:(蟹)-이/가   | 31033 궤:가(-가)    |
| 31033-0-2 | 게:(蟹)-보 다   |                  |
| 31034-0-1 | 개:(犬)-이/가   | 31034 개:가(-가)    |

31034-0-2 개:(犬)-보다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 여러시(-이)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 물꺼리(-이)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 예의가(-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 계획기(-이)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 귀치기(-이)

31039-0-2 규칙(規則)-보다

=2 휘가(=휴가)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 휘이리다(-이다)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 교통이(-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 효:자가(-가)

|           |              |                 |
|-----------|--------------|-----------------|
| 31042-0-2 | 효:자(孝子)-보다   |                 |
| 31042-0-3 | 효:자(孝子)-을/를  |                 |
| 31043-0-1 | 웬일(何事)-이/가   | 31043 웬니리냐(-이냐) |
| 31043-0-2 | 웬일(何事)-보다    |                 |
| 31043-0-3 | 웬일(何事)-을/를   |                 |
| 31044-0-1 | 궤:(絜)(櫃)-이/가 | 31044 궤:짜기(-이)  |
| 31044-0-2 | 궤:(絜)(櫃)-보다  |                 |
| 31044-0-3 | 궤:(絜)(櫃)-을/를 |                 |
| 31045-0-1 | 왜란(倭亂)-이/가   | 31045 왜라니(-이)   |
| 31045-0-2 | 왜란(倭亂)-보다    |                 |
| 31045-0-3 | 왜란(倭亂)-을/를   |                 |
| 31046-0-1 | 헛대(鷄架)-이/가   | 31046 해가(-가)    |
| 31046-0-2 | 헛대(鷄架)-보다    |                 |
| 31046-0-3 | 헛대(鷄架)-을/를   |                 |
| 31047-0-1 | 원망(怨望)-이/가   | 31047 원망이(-이)   |
| 31047-0-2 | 원망(怨望)-보다    |                 |
| 31047-0-3 | 원망(怨望)-을/를   |                 |
| 31048-0-1 | 권:투(拳鬪)-이/가  |                 |
| 31048-0-2 | 권:투(拳鬪)-보다   |                 |
| 31048-0-3 | 권:투(拳鬪)-을/를  | 31048 곤:투를(-를)  |
| 31049-0-1 | 의논(議論)-이/가   |                 |
| 31049-0-2 | 의논(議論)-보다    |                 |
| 31049-0-3 | 의논(議論)-을/를   | 31049 의느늘(-을)   |
| 31050-0-1 | 무늬(紋)-이/가    | 31050 무니가(-가)   |
| 31050-0-2 | 무늬(紋)-보다     |                 |
| 31050-0-3 | 무늬(紋)-을/를    |                 |
| 31051-0-1 | 왕(王)-이/가     | 31051 왕이(-이)    |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 과자가(-가)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3 이리(-이)  
31053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4 이:리(-이)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21055 매가(-가)  
31055 매보덤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6 매:  
31056 매:보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7 바미(-이)  
31057 밤보덤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8 바:미(-이)  
31058 밤:보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59 누니(-이)  
31059 눈보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0 누:이(-이)  
31060 눈:보덤

31061-0-1 말(馬)-이/가

31061 마리(-이)

|           |           |               |
|-----------|-----------|---------------|
| 31061-0-2 | 말(馬)-보다   | 31061 말보덤     |
| 31062-0-1 | 말(斗)-이/가  | 31062 마리(-이)  |
| 31062-0-2 | 말(斗)-보다   | 31062 말보덤     |
| 31063-0-1 | 말:(言)-이/가 | 31063 마:림(-이) |
| 31063-0-2 | 말:(言)-보다  | 31063 말:보덤    |
| 31064-0-1 | 손(客)-이/가  | 31064 소니(-이)  |
| 31064-0-2 | 손(客)-보다   |               |
| 31065-0-1 | 손(手)-이/가  | 31065 소니(-이)  |
| 31065-0-2 | 손(手)-보다   |               |
| 31066-0-1 | 손:(孫)-이/가 | 31066 소:니(-이) |
| 31066-0-2 | 손:(孫)-보다  |               |
| 31067-0-1 | 배(梨)-이/가  | 31067 배(-가)   |
| 31067-0-2 | 배(梨)-보다   | 31067 배보더     |
| 31068-0-1 | 배:(倍)-이/가 | 31068 배:가     |
| 31068-0-2 | 배:(倍)-보다  |               |
| 31069-0-1 | 벌(罰)-이/가  | 31069 버를(-을)  |
| 31069-0-2 | 벌(罰)-보다   |               |
| 31070-0-1 | 벌:(蜂)-이/가 | 31070 버:리(-이) |
| 31070-0-2 | 벌:(蜂)-보다  | 31070 벌:      |
| 31071-0-1 | 솔(松)-이/가  | 31071 소리(-이)  |
| 31071-0-2 | 솔(松)-보다   |               |
| 31072-0-1 | 솔:(刷)-이/가 | 31072 소:리(-이) |
| 31072-0-2 | 솔:(刷)-보다  |               |
| 31073-0-1 | 줄(鉉)-이/가  | 31073 주리(-이)  |

|           |            |               |
|-----------|------------|---------------|
| 31073-0-2 | 줄(鉉)-보다    |               |
| 31074-0-1 | 줄:(연장)-이/가 | 31074 주:리(-이) |
| 31074-0-2 | 줄:(연장)-보다  |               |
| 31075-0-1 | 돌:(石)-이/가  | 31075 도:리(-이) |
| 31075-0-2 | 돌:(石)-보다   |               |
| 31076-0-1 | 담(牆)-이/가   | 31076 다미(-이)  |
| 31076-0-2 | 담(牆)-보다    |               |
| 31077-0-1 | 담:(膽)-이/가  | 31077 다:미(-이) |
| 31077-0-2 | 담:(膽)-보다   |               |
| 31078-0-1 | 들:(野)-이/가  | 31078 드:리(-이) |
| 31078-0-2 | 들:(野)-보다   |               |
| 31079-0-1 | 달-(懸)-고    | 31079 단다      |
| 31079-0-1 | 달-(懸)-더라   | 31079 달더라     |
| 31080-0-1 | 달-(甘)-고    | 31080 달더라     |
| 31080-0-2 | 달-(甘)-더라   |               |
| 31081-0-1 | 달:-(熱)-고   | 31081 다러썬     |
| 31081-0-2 | 달:-(熱)-더라  | 31081 달터라     |
| 31082-0-1 | 갈-(換)-고    | 31082 갈:구     |
| 31082-0-2 | 갈-(換)-더라   |               |
| 31083-0-1 | 갈-(磨)-고    | 31083 갈:구     |
| 31083-0-2 | 갈-(磨)-더라   |               |
| 31084-0-1 | 갈:-(耕)-고   | 31084 간:다     |
| 31084-0-2 | 갈:-(耕)-더라  | 31084 갈:구     |
| 31085-0-1 | 걸-(收)-고    | 31085 거더라     |

|           |           |             |
|-----------|-----------|-------------|
| 31085-0-2 | 견-(收)-더라  | 31085 견찌    |
| 31086-0-1 | 견:-(步)-고  | 31086 거러라   |
| 31086-0-2 | 견:-(步)-더라 | 31086 견:찌   |
| 31087-0-1 | 적-(書)-고   | 31087 정는다   |
| 31087-0-2 | 적-(書)-더라  | 31087 적떠라   |
| 31088-0-1 | 적:-(小)-고  | 31088 적:따   |
| 31088-0-2 | 적:-(小)-더라 | 31088-0-2 * |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 기초 항목

|           |                     |                |
|-----------|---------------------|----------------|
| 32001-0-1 | 막-(防)[ㄱ]-지          | 32001-0-1 막찌   |
| 32001-0-2 | 막-(防)[ㄱ]-고          | 32001-0-2 막꾸   |
| 32001-0-3 | 막-(防)[ㄱ]-더라         | 32001-0-3 막떠라  |
| 32001-0-4 | 막-(防)[ㄱ]-으니까        | 32001-0-4 마그니까 |
| 32001-0-5 | 막-(防)[ㄱ]-아/어(왔/었다)  | 32001-0-5 마가두  |
| 32002-0-1 | 흐르-(流)[ㅡ]-지         | 32002-0-1 흘르면  |
| 32002-0-2 | 흐르-(流)[ㅡ]-고         | 32002-0-2 흘르구  |
| 32002-0-3 | 흐르-(流)[ㅡ]-더라        | 32002-0-3 흘르더라 |
| 32002-0-4 | 흐르-(流)[ㅡ]-으니까       | 32002-0-4 흐르니까 |
| 32002-0-5 | 흐르-(流)[ㅡ]-아/어(왔/었다) | 32002-0-5 흘러두  |
| 32003-0-1 | 오-(來)[ㅓ]-지          | 32003-0-1 오믄   |
| 32003-0-2 | 오-(來)[ㅓ]-고          | 32003-0-2 오구   |
| 32003-0-3 | 오-(來)[ㅓ]-더라         | 32003-0-3 오더라  |
| 32003-0-4 | 오-(來)[ㅓ]-으니까        | 32003-0-4 오니까  |

|           |                      |                |
|-----------|----------------------|----------------|
| 32003-0-5 | 오-(來)[ㄱ]-아/어(왔/었다)   | 32003-0-5 와두   |
| 32004-0-1 | 듣-(聞)[ㄷ 변]-지         | 32004-0-1 듣찌   |
| 32004-0-2 | 듣-(聞)[ㄷ 변]-고         | 32004-0-2 득꾸   |
| 32004-0-3 | 듣-(聞)[ㄷ 변]-더라        | 32004-0-3 듣떠라  |
| 32004-0-4 | 듣-(聞)[ㄷ 변]-으니까       | 32004-0-4 드르니까 |
| 32004-0-5 |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 32004-0-5 드리라  |
| 32005-0-1 | 많:-(多)[ㄴᄃ]-지         |                |
| 32005-0-2 | 많:-(多)[ㄴᄃ]-고         | 32005-0-2 망:꾸  |
| 32005-0-3 | 많:-(多)[ㄴᄃ]-더라        | 32005-0-3 만:더라 |
| 32005-0-4 | 많:-(多)[ㄴᄃ]-으니까       | 32005-0-4 마느니까 |
| 32005-0-5 | 많:-(多)[ㄴᄃ]-아/어(왔/었다) | 32005-0-5 마:나서 |
| 32006-0-1 | 말-(任)[ㅌ]-지           |                |
| 32006-0-2 | 말-(任)[ㅌ]-고           | 32006-0-2 말꾸   |
| 32006-0-3 | 말-(任)[ㅌ]-더라          | 32006-0-3 말떠라  |
| 32006-0-4 | 말-(任)[ㅌ]-으니까         | 32006-0-4 마트니까 |
| 32006-0-5 | 말-(任)[ㅌ]-아/어(왔/었다)   | 32006-0-5 마타두  |
| 32007-0-1 | 알:-(知)[ㄹ]-지          |                |
| 32007-0-2 | 알:-(知)[ㄹ]-고          | 32007-0-2 알:꾸  |
| 32007-0-3 | 알:-(知)[ㄹ]-더라         | 32007-0-3 알:더라 |
| 32007-0-4 | 알:-(知)[ㄹ]-으니까        | 32007-0-4 아:니까 |
| 32007-0-5 | 알:-(知)[ㄹ]-아/어(왔/었다)  | 32007-0-5 아라두  |
| 32008-0-1 | 감:-(閉眼)[ㄱ]-지         |                |
| 32008-0-2 | 감:-(閉眼)[ㄱ]-고         | 32008-0-2 감:꾸  |
| 32008-0-3 | 감:-(閉眼)[ㄱ]-더라        | 32008-0-3 감:떠라 |
| 32008-0-4 | 감:-(閉眼)[ㄱ]-으니까       | 32008-0-4 가무니까 |
| 32008-0-5 | 감:-(閉眼)[ㄱ]-아/어(왔/었다) | 32008-0-5 가마두  |
| 32009-0-1 | 벗-(脫)[ㅍ]-지           |                |
| 32009-0-2 | 벗-(脫)[ㅍ]-고           | 32009-0-2 벌꾸   |
| 32009-0-3 | 벗-(脫)[ㅍ]-더라          | 32009-0-3 벌떠라  |
| 32009-0-4 | 벗-(脫)[ㅍ]-으니까         | 32009-0-4 버스니까 |

|           |                       |                |
|-----------|-----------------------|----------------|
| 32009-0-5 | 벗-(脫)[ㅅ]-아/어(왔/었다)    | 32009-0-5 버서두  |
| 32010-0-1 | 옹-(可)[ㄹㅎ]-지           |                |
| 32010-0-2 | 옹-(可)[ㄹㅎ]-고           | 32010-0-2 올쿠   |
| 32010-0-3 | 옹-(可)[ㄹㅎ]-더라          | 32010-0-3 올터라  |
| 32010-0-4 | 옹-(可)[ㄹㅎ]-으니까         | 32010-0-4 오르니까 |
| 32010-0-5 | 옹-(可)[ㄹㅎ]-아/어(왔/었다)   | 32010-0-5 오라두  |
| 32011-0-1 | 입-(着衣)[ㅂ]-지           |                |
| 32011-0-2 | 입-(着衣)[ㅂ]-고           | 32011-0-2 입꾸   |
| 32011-0-3 | 입-(着衣)[ㅂ]-더라          | 32011-0-3 입떠라  |
| 32011-0-4 | 입-(着衣)[ㅂ]-으니까         | 32011-0-4 이부니까 |
| 32011-0-5 | 입-(着衣)[ㅂ]-아/어(왔/었다)   | 32011-0-5 이버두  |
| 32012-0-1 | 바꾸-(換)[ㅌ]-지           |                |
| 32012-0-2 | 바꾸-(換)[ㅌ]-고           | 32012-0-2 바꾸구  |
| 32012-0-3 | 바꾸-(換)[ㅌ]-더라          | 32012-0-3 바꾸더라 |
| 32012-0-4 | 바꾸-(換)[ㅌ]-으니까         | 32012-0-4 바꾸니까 |
| 32012-0-5 | 바꾸-(換)[ㅌ]-아/어(왔/었다)   | 32012-0-5 바꿔두  |
| 32013-0-1 | 덮-(覆)[ㄱ]-지            |                |
| 32013-0-2 | 덮-(覆)[ㄱ]-고            | 32013-0-2 덮꾸   |
| 32013-0-3 | 덮-(覆)[ㄱ]-더라           | 32013-0-3 덮떠라  |
| 32013-0-4 | 덮-(覆)[ㄱ]-으니까          | 32013-0-4 더푸니까 |
| 32013-0-5 | 덮-(覆)[ㄱ]-아/어(왔/었다)    | 32013-0-5 더퍼두  |
| 32014-0-1 | 묻:-(問)[ㄷ 변]-지         |                |
| 32014-0-2 | 묻:-(問)[ㄷ 변]-고         | 32014-0-2 묻:꾸  |
| 32014-0-3 | 묻:-(問)[ㄷ 변]-더라        | 32014-0-3 묻:떠라 |
| 32014-0-4 | 묻:-(問)[ㄷ 변]-으니까       | 32014-0-4 무르니까 |
| 32014-0-5 | 묻:-(問)[ㄷ 변]-아/어(왔/었다) | 32014-0-5 무러두  |
| 32015-0-1 | 낫:-(癒)[ㅅ 변]-지         |                |
| 32015-0-2 | 낫:-(癒)[ㅅ 변]-고         | 32015-0-2 낫:꾸  |
| 32015-0-3 | 낫:-(癒)[ㅅ 변]-더라        | 32015-0-3 낫:떠라 |
| 32015-0-4 | 낫:-(癒)[ㅅ 변]-으니까       | 32015-0-4 나:니까 |

|           |                       |           |      |
|-----------|-----------------------|-----------|------|
| 32015-0-5 | 낫:-(癒)[스 변]-아/어(왔/었다) | 32015-0-5 | 나아두  |
| 32016-0-1 | 닫-(閉)[ㄷ]-지            |           |      |
| 32016-0-2 | 닫-(閉)[ㄷ]-고            | 32016-0-2 | 닫꾸   |
| 32016-0-3 | 닫-(閉)[ㄷ]-더라           | 32016-0-3 | 닫떠라  |
| 32016-0-4 | 닫-(閉)[ㄷ]-으니까          | 32016-0-4 | 다드니까 |
| 32016-0-5 | 닫-(閉)[ㄷ]-아/어(왔/었다)    | 32016-0-5 | 다다두  |
| 32017-0-1 | 쫓-(追)[ㅈ]-지            |           |      |
| 32017-0-2 | 쫓-(追)[ㅈ]-고            | 32017-0-2 | 쫓꾸   |
| 32017-0-3 | 쫓-(追)[ㅈ]-더라           | 32017-0-3 | 쫓떠라  |
| 32017-0-4 | 쫓-(追)[ㅈ]-으니까          | 32017-0-4 | 쫓츠니까 |
| 32017-0-5 | 쫓-(追)[ㅈ]-아/어(왔/었다)    | 32017-0-5 | 쫓차두  |
| 32018-0-1 | 베:-(枕)[베]-지           |           |      |
| 32018-0-2 | 베:-(枕)[베]-고           | 32018-0-2 | 비:구  |
| 32018-0-3 | 베:-(枕)[베]-더라          | 32018-0-3 | 비:더라 |
| 32018-0-4 | 베:-(枕)[베]-으니까         | 32018-0-4 | 비:니까 |
| 32018-0-5 | 베:-(枕)[베]-아/어(왔/었다)   | 32018-0-5 | 벼두   |
| 32019-0-1 | 깨:-(破)[깨]-지           |           |      |
| 32019-0-2 | 깨:-(破)[깨]-고           | 32019-0-2 | 깨구   |
| 32019-0-3 | 깨:-(破)[깨]-더라          | 32019-0-3 | 깨더라  |
| 32019-0-4 | 깨:-(破)[깨]-으니까         | 32019-0-4 | 깨니까  |
| 32019-0-5 | 깨:-(破)[깨]-아/어(왔/었다)   | 32019-0-5 | 깨애두  |
| 32020-0-1 | 펴-(伸)[펴]-지            |           |      |
| 32020-0-2 | 펴-(伸)[펴]-고            | 32020-0-2 | 펴구   |
| 32020-0-3 | 펴-(伸)[펴]-더라           | 32020-0-3 | 펴더라  |
| 32020-0-4 | 펴-(伸)[펴]-으니까          | 32020-0-4 | 펴니까  |
| 32020-0-5 | 펴-(伸)[펴]-아/어(왔/었다)    | 32020-0-5 | 펴두   |
| 32021-0-1 | 밟-(明)[밟]-지            |           |      |
| 32021-0-2 | 밟-(明)[밟]-고            | 32021-0-2 | 밟꾸   |
| 32021-0-3 | 밟-(明)[밟]-더라           | 32021-0-3 | 밟떠라  |
| 32021-0-4 | 밟-(明)[밟]-으니까          | 32021-0-4 | 밟그니까 |

|           |                      |                 |
|-----------|----------------------|-----------------|
| 32021-0-5 | 밝-(明)[ㄹ]~아/어(왔/었다)   | 32021-0-5 발가두   |
| 32022-0-1 | 삶:-(烹)[ㄹ]~지          |                 |
| 32022-0-2 | 삶:-(烹)[ㄹ]~고          | 32022-0-2 삼:꾸   |
| 32022-0-3 | 삶:-(烹)[ㄹ]~더라         | 32022-0-3 삼:떠라  |
| 32022-0-4 | 삶:-(烹)[ㄹ]~으니까        | 32022-0-4 살므니까  |
| 32022-0-5 | 삶:-(烹)[ㄹ]~아/어(왔/었다)  | 32022-0-5 살마두   |
| 32023-0-1 | 음-(吟)[ㄹ]~지           |                 |
| 32023-0-2 | 음-(吟)[ㄹ]~고           | 32023-0-2 을푸구   |
| 32023-0-3 | 음-(吟)[ㄹ]~더라          | 32023-0-3 을푸더라  |
| 32023-0-4 | 음-(吟)[ㄹ]~으니까         | 32023-0-4 을프니까  |
| 32023-0-5 | 음-(吟)[ㄹ]~아/어(왔/었다)   | 32023-0-5 을퍼두   |
| 32024-0-1 | 밟:-(踏)[ㄹ]~지          |                 |
| 32024-0-2 | 밟:-(踏)[ㄹ]~고          | 32024-0-2 밟:꾸   |
| 32024-0-3 | 밟:-(踏)[ㄹ]~더라         | 32024-0-3 밟:떠라  |
| 32024-0-4 | 밟:-(踏)[ㄹ]~으니까        | 32024-0-4 밟부니까  |
| 32024-0-5 | 밟:-(踏)[ㄹ]~아/어(왔/었다)  | 32024-0-5 밟바두   |
| 32025-0-1 | 하-(爲)[ㅏ 변]~지         |                 |
| 32025-0-2 | 하-(爲)[ㅏ 변]~고         | 32025-0-2 허구    |
| 32025-0-3 | 하-(爲)[ㅏ 변]~더라        | 32025-0-3 허더라   |
| 32025-0-4 | 하-(爲)[ㅏ 변]~으니까       | 32025-0-4 허니까   |
| 32025-0-5 |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 32025-0-5 해:두   |
| 32026-0-1 | 맺-(結)[ㅏ]~지           |                 |
| 32026-0-2 | 맺-(結)[ㅏ]~고           | 32026-0-2 맺꾸    |
| 32026-0-3 | 맺-(結)[ㅏ]~더라          | 32026-0-3 맺떠라   |
| 32026-0-4 | 맺-(結)[ㅏ]~으니까         | 32026-0-4 매즈니까  |
| 32026-0-5 | 맺-(結)[ㅏ]~아/어(왔/었다)   | 32026-0-5 매저두   |
| 32027-0-1 | 엷:-(無)[ㅓ]~지          |                 |
| 32027-0-2 | 엷:-(無)[ㅓ]~고          | 32027-0-2 엷:꾸   |
| 32027-0-3 | 엷:-(無)[ㅓ]~더라         | 32027-0-3 엷떠라   |
| 32027-0-4 | 엷:-(無)[ㅓ]~으니까        | 32027-0-4 엷:쓰니까 |



|           |                     |                |
|-----------|---------------------|----------------|
| 32027-0-5 | 없:-(無)[ㅄ]-아/어(왔/었다) | 32027-0-5 업써두  |
| 32028-0-1 | 앉-(坐)[ㅅ]-지          |                |
| 32028-0-2 | 앉-(坐)[ㅅ]-고          | 32028-0-2 앙꾸   |
| 32028-0-3 | 앉-(坐)[ㅅ]-더라         | 32028-0-3 안떠라  |
| 32028-0-4 | 앉-(坐)[ㅅ]-으니까        | 32028-0-4 안즈니까 |
| 32028-0-5 | 앉-(坐)[ㅅ]-아/어(왔/었다)  | 32028-0-5 안저두  |
| 32029-0-1 | 비비-(刮)[ㅣ]-지         |                |
| 32029-0-2 | 비비-(刮)[ㅣ]-고         | 32029-0-2 비비구  |
| 32029-0-3 | 비비-(刮)[ㅣ]-더라        | 32029-0-3 비비더라 |
| 32029-0-4 | 비비-(刮)[ㅣ]-으니까       | 32029-0-4 비비니까 |
| 32029-0-5 | 비비-(刮)[ㅣ]-아/어(왔/었다) | 32029-0-5 비벼두  |
| 32030-0-1 | 끄-(消)[ㅡ]-지          |                |
| 32030-0-2 | 끄-(消)[ㅡ]-고          | 32030-0-2 끄구   |
| 32030-0-3 | 끄-(消)[ㅡ]-더라         | 32030-0-3 끄더라  |
| 32030-0-4 | 끄-(消)[ㅡ]-으니까        | 32030-0-4 끄니까  |
| 32030-0-5 | 끄-(消)[ㅡ]-아/어(왔/었다)  | 32030-0-5 꺼두   |
| 32031-0-1 | 꺾-(折)[ㄱ]-지          |                |
| 32031-0-2 | 꺾-(折)[ㄱ]-고          | 32031-0-2 꺾꾸   |
| 32031-0-3 | 꺾-(折)[ㄱ]-더라         | 32031-0-3 꺾떠라  |
| 32031-0-4 | 꺾-(折)[ㄱ]-으니까        | 32031-0-4 꺾끄니까 |
| 32031-0-5 | 꺾-(折)[ㄱ]-아/어(왔/었다)  | 32031-0-5 꺾껴두  |
| 32032-0-1 | 신:-(履)[ㄴ]-지         |                |
| 32032-0-2 | 신:-(履)[ㄴ]-고         | 32032-0-2 싱꾸   |
| 32032-0-3 | 신:-(履)[ㄴ]-더라        | 32032-0-3 신떠라  |
| 32032-0-4 | 신:-(履)[ㄴ]-으니까       | 32032-0-4 시느니까 |
| 32032-0-5 | 신:-(履)[ㄴ]-아/어(왔/었다) | 32032-0-5 시너두  |
| 32033-0-1 | 보-(視)[ㅇ]-지          |                |
| 32033-0-2 | 보-(視)[ㅇ]-고          | 32033-0-2 보구   |
| 32033-0-3 | 보-(視)[ㅇ]-더라         | 32033-0-3 보더라  |
| 32033-0-4 | 보-(視)[ㅇ]-으니까        | 32033-0-4 보니까  |

|           |                      |                     |
|-----------|----------------------|---------------------|
| 32033-0-5 | 보-(視)[ㅂ]-아/어(왔/었다)   | 32033-0-5 봐:두       |
| 32034-0-1 | 추-(舞)[ㅈ]-지           |                     |
| 32034-0-2 | 추-(舞)[ㅈ]-고           | 32034-0-2 추구, 치구    |
| 32034-0-3 | 추-(舞)[ㅈ]-더라          | 32034-0-3 추더라, 치더라  |
| 32034-0-4 | 추-(舞)[ㅈ]-으니까         | 32034-0-4 추니까       |
| 32034-0-5 | 추-(舞)[ㅈ]-아/어(왔/었다)   |                     |
| 32035-0-1 | 피우-(吸煙)[ㅍ]-지         |                     |
| 32035-0-2 | 피우-(吸煙)[ㅍ]-고         | 32035-0-2 피구        |
| 32035-0-3 | 피우-(吸煙)[ㅍ]-더라        | 32035-0-3 피더라       |
| 32035-0-4 | 피우-(吸煙)[ㅍ]-으니까       | 32035-0-4 피니까       |
| 32035-0-5 |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 32035-0-5 피두, 처두    |
| 32036-0-1 | 서-(立)[ㅅ]-지           | 32036-0-2 스구        |
| 32036-0-2 | 서-(立)[ㅅ]-고           | 32036-0-3 스더라       |
| 32036-0-3 | 서-(立)[ㅅ]-더라          | 32037-0-4 기:니까, 스니까 |
| 32036-0-4 | 서-(立)[ㅅ]-으니까         | 32036-0-5 서두        |
| 32036-0-5 | 서-(立)[ㅅ]-아/어(왔/었다)   |                     |
| 32037-0-1 | 기-(匍腹)[ㄱ]-지          |                     |
| 32037-0-2 | 기-(匍腹)[ㄱ]-고          | 32037-0-2 기:구       |
| 32037-0-3 | 기-(匍腹)[ㄱ]-더라         | 32037-0-3 기:더라      |
| 32037-0-4 | 기-(匍腹)[ㄱ]-으니까        | 32037-0-4 기:니까      |
| 32037-0-5 | 기-(匍腹)[ㄱ]-아/어(왔/었다)  | 32037-0-5 겨:두       |
| 32038-0-1 | 이-(戴)[ㅇ]-지           |                     |
| 32038-0-2 | 이-(戴)[ㅇ]-고           | 32038-0-2 이구        |
| 32038-0-3 | 이-(戴)[ㅇ]-더라          | 32038-0-3 이더라       |
| 32038-0-4 | 이-(戴)[ㅇ]-으니까         | 32038-0-4 이니까       |
| 32038-0-5 | 이-(戴)[ㅇ]-아/어(왔/었다)   | 32038-0-5 여두        |
| 32039-0-1 | 아니-(否)[ㅇ]-지          |                     |
| 32039-0-2 | 아니-(否)[ㅇ]-고          | 32039-0-2 아니구       |
| 32039-0-3 | 아니-(否)[ㅇ]-더라         | 32039-0-3 아니더라      |

|           |                       |           |      |
|-----------|-----------------------|-----------|------|
| 32039-0-4 | 아니-(否)[ㅣ]-으니까         | 32039-0-4 | 아니니까 |
| 32039-0-5 | 아니-(否)[ㅣ]-아/어(왔/었다)   |           |      |
| 32040-0-1 | 되-(升)[ㅁ]-지            |           |      |
| 32040-0-2 | 되-(升)[ㅁ]-고            | 32040-0-2 | 돼구   |
| 32040-0-3 | 되-(升)[ㅁ]-더라           | 32040-0-3 | 돼더라  |
| 32040-0-4 | 되-(升)[ㅁ]-으니까          | 32040-0-4 | 돼니까  |
| 32040-0-5 | 되-(升)[ㅁ]-아/어(왔/었다)    | 32040-0-5 | 돼:두  |
| 32041-0-1 | 있-(有)[ㅅ]-지            |           |      |
| 32041-0-2 | 있-(有)[ㅅ]-고            | 32041-0-2 | 익:꾸  |
| 32041-0-3 | 있-(有)[ㅅ]-더라           | 32041-0-3 | 일떠라  |
| 32041-0-4 | 있-(有)[ㅅ]-으니까          | 32041-0-4 | 이쓰니까 |
| 32041-0-5 | 있-(有)[ㅅ]-아/어(왔/었다)    | 32041-0-5 | 이써두  |
| 32042-0-1 | 놓-(放)[ㅎ]-지            |           |      |
| 32042-0-2 | 놓-(放)[ㅎ]-고            | 32042-0-2 | 노쿠   |
| 32042-0-3 | 놓-(放)[ㅎ]-더라           | 32042-0-3 | 노터라  |
| 32042-0-4 | 놓-(放)[ㅎ]-으니까          | 32042-0-4 | 노:니까 |
| 32042-0-5 | 놓-(放)[ㅎ]-아/어(왔/었다)    | 32042-0-5 | 놔:두  |
| 32043-0-1 | 훔-(拔)[ㅈ]-지            |           |      |
| 32043-0-2 | 훔-(拔)[ㅈ]-고            | 32043-0-2 | 훔꼬   |
| 32043-0-3 | 훔-(拔)[ㅈ]-더라           | 32043-0-3 | 훔떠라  |
| 32043-0-4 | 훔-(拔)[ㅈ]-으니까          | 32043-0-4 | 훔트니까 |
| 32043-0-5 | 훔-(拔)[ㅈ]-아/어(왔/었다)    | 32043-0-5 | 훔터두  |
| 32044-0-1 | 곱:-(麗)[ㅂ 변]-지         |           |      |
| 32044-0-2 | 곱:-(麗)[ㅂ 변]-고         | 32044-0-2 | 곱꼬   |
| 32044-0-3 | 곱:-(麗)[ㅂ 변]-더라        | 32044-0-3 | 곱:떠라 |
| 32044-0-4 | 곱:-(麗)[ㅂ 변]-으니까       | 32044-0-4 | 고우니까 |
| 32044-0-5 | 곱:-(麗)[ㅂ 변]-아/어(왔/었다) | 32044-0-5 | 고와두  |
| 32045-0-1 | 쥐:-(握)[ㄱ]-지           |           |      |
| 32045-0-2 | 쥐:-(握)[ㄱ]-고           | 32045-0-2 | 쥐:구  |
| 32045-0-3 | 쥐:-(握)[ㄱ]-더라          | 32045-0-3 | 쥐:더라 |

|           |                     |                |
|-----------|---------------------|----------------|
| 32045-0-4 | 쥐:-(握)[ㄱ]-으니까       | 32045-0-4 쥐:니까 |
| 32045-0-5 | 쥐:-(握)[ㄱ]-아/어(왔/었다) | 32045-0-5 쥐:두  |
| 32046-0-1 | 가-(去)[ㄱ]-지          |                |
| 32046-0-2 | 가-(去)[ㄱ]-고          | 32046-0-2 가고   |
| 32046-0-3 | 가-(去)[ㄱ]-더라         | 32046-0-3 가더라  |
| 32046-0-4 | 가-(去)[ㄱ]-으니까        | 32046-0-4 가니까  |
| 32046-0-5 | 가-(去)[ㄱ]-아/어(왔/었다)  | 32046-0-5 가두   |

## 2) 일반 항목

|           |           |                |
|-----------|-----------|----------------|
| 32047-0-1 | 먹-(食)-CY  | 32047-0-1 먹떠라  |
| 32047-0-2 | 먹-(食)-아Y  | 32047-0-2 머거두  |
| 32048-0-1 | 뜯-(摘)-CY  | 32048-0-1 뜯떠라  |
| 32048-0-2 | 뜯-(摘)-아Y  | 32048-0-2 뜨더두  |
| 32049-0-1 | 갈-(如)-CY  | 32049-0-1 갠떠라  |
| 32049-0-2 | 갈-(如)-아Y  | 32049-0-2 가타두  |
| 32050-0-1 | 얕-(淺)-CY  | 32050-0-1 얕떠라  |
| 32050-0-2 | 얕-(淺)-아Y  | 32050-0-2 야타두  |
| 32051-0-1 | 흩-(散)-CY  | 32051-0-1 해치더라 |
| 32051-0-2 | 흩-(散)-아Y  | 32051-0-2 해져두  |
| 32052-0-1 | 날:-(飛)-CY | 32052-0-1 나르더라 |
| 32052-0-2 | 날:-(飛)-아Y | 32052-0-2 날라두  |
| 32053-0-1 | 울:-(泣)-CY | 32053-0-1 울:더라 |
| 32053-0-2 | 울:-(泣)-아Y | 32053-0-2 우리두  |
| 32054-0-1 | 일:-(淘)-CY | 32054-0-1 일:더라 |
| 32054-0-2 | 일:-(淘)-아Y | 32054-0-2 이리두  |

|           |           |           |      |
|-----------|-----------|-----------|------|
| 32055-0-1 | 얼:-(凍)-CY | 32055-0-1 | 얼:더라 |
| 32055-0-2 | 얼:-(凍)-아Y | 32055-0-2 | 어러두  |
| 32056-0-1 | 넘:-(越)-CY | 32056-0-1 | 넘떠라  |
| 32056-0-2 | 넘:-(越)-아Y | 32056-0-2 | 너머두  |
| 32057-0-1 | 숨:-(隱)-CY | 32057-0-1 | 숨떠라  |
| 32057-0-2 | 숨:-(隱)-아Y | 32057-0-2 | 수머두  |
| 32058-0-1 | 쉽:-(易)-CY | 32058-0-1 | 쉽:떠라 |
| 32058-0-2 | 쉽:-(易)-아Y | 32058-0-2 | 쉬워두  |
| 32059-0-1 | 눅:-(臥)-CY | 32059-0-1 | 눅떠라  |
| 32059-0-2 | 눅:-(臥)-아Y | 32059-0-2 | 누워두  |
| 32060-0-1 | 깁:-(縫)-CY | 32060-0-1 | 깁:떠라 |
| 32060-0-2 | 깁:-(縫)-아Y | 32060-0-2 | 기어두  |
| 32061-0-1 | 밉:-(憎)-CY | 32061-0-1 | 미웁떠라 |
| 32061-0-2 | 밉:-(憎)-아Y | 32061-0-2 | 미워두  |
| 32062-0-1 | 놉:-(高)-CY | 32062-0-1 | 놉떠라  |
| 32062-0-2 | 놉:-(高)-아Y | 32062-0-2 | 노퍼두  |
| 32063-0-1 | 짚:-(作)-CY | 32063-0-1 | 짚:떠라 |
| 32063-0-2 | 짚:-(作)-아Y | 32063-0-2 | 지어두  |
| 32064-0-1 | 붓:-(腫)-CY | 32064-0-1 | 붓떠라  |
| 32064-0-2 | 붓:-(腫)-아Y | 32064-0-2 | 부어두  |
| 32065-0-1 | 웃:-(笑)-CY | 32065-0-1 | 웃:떠라 |
| 32065-0-2 | 웃:-(笑)-아Y | 32065-0-2 | 우서두  |
| 32066-0-1 | 짚:-(呖)-CY | 32066-0-1 | 짚떠라  |
| 32066-0-2 | 짚:-(呖)-아Y | 32066-0-2 | 지저두  |
| 32067-0-1 | 꽂:-(插)-CY | 32067-0-1 | 꽂떠라  |

|           |              |                |
|-----------|--------------|----------------|
| 32067-0-2 | 꽃-(插)-아Y     | 32067-0-2 꼬자두  |
| 32068-0-1 | 낱-(産)-CY     | 32068-0-1 나:터라 |
| 32068-0-2 | 낱-(産)-아Y     | 32068-0-2 나아두  |
| 32069-0-1 | 땅:-(辯)-CY    | 32069-0-1 따터라  |
| 32069-0-2 | 땅:-(辯)-아Y    | 32069-0-2 따두   |
| 32070-0-1 | 끓-(切)-CY     | 32070-0-1 끈터라  |
| 32070-0-2 | 끓-(切)-아Y     | 32070-0-2 끄너두  |
| 32071-0-1 | 괜찮-(無妨)-CY   | 32071-0-1 괜찬터라 |
| 32071-0-2 | 괜찮-(無妨)-아Y   | 32071-0-2 괜찬아두 |
| 32072-0-1 | 읽-(讀)-CY     | 32072-0-1 일떠라  |
| 32072-0-2 | 읽-(讀)-아Y     | 32072-0-2 일거두  |
| 32073-0-1 | 떨:-(漉)-CY    | 32073-0-1 떨떠라  |
| 32073-0-2 | 떨:-(漉)-아Y    | 32073-0-2 떨버두  |
| 32074-0-1 | 올:-(遷)-CY    | 32074-0-1 올르터라 |
| 32074-0-2 | 올:-(遷)-아Y    | 32074-0-2 올라두  |
| 32075-0-1 | 똥:-(貫)-CY    | 32075-0-1 똥터라  |
| 32075-0-2 | 똥:-(貫)-아Y    | 32075-0-2 똥러두  |
| 32076-0-1 | 꿇-(跪)-CY     | 32076-0-1 꿇터라  |
| 32076-0-2 | 꿇-(跪)-아Y     | 32076-0-2 꾸러두  |
| 32077-0-1 | 달:-(抗심이)-CY  | 32077-0-1 달터라  |
| 32077-0-2 | 달:-(抗,심이)-아Y | 32077-0-2 다라두  |
| 32078-0-1 | 달:-(煎)-CY    | 32078-0-1 *    |
| 32078-0-2 | 달:-(煎)-아Y    | 32078-0-2 *    |
| 32079-0-1 | 짜-(鹽)-CY     | 32079-0-1 짜터라  |

|           |                |                 |
|-----------|----------------|-----------------|
| 32079-0-2 | 짜-(鹽)-아Y       | 32079-0-2 짜두    |
| 32080-0-1 | 말-(捲)-CY       | 32080-0-1 말더라   |
| 32080-0-2 | 말-(捲)-아Y       | 32080-0-2 마라두   |
| 32081-0-1 | 쓰-(書)-CY       | 32081-0-1 쓰더라   |
| 32081-0-2 | 쓰-(書)-아Y       | 32081-0-2 써두    |
| 32082-0-1 | 오르-(登)-CY      | 32082-0-1 올르더라  |
| 32082-0-2 | 오르-(登)-아Y      | 32082-0-2 올라두   |
| 32083-0-1 | 바쁘-(忙)-CY      | 32083-0-1 바쁘더라  |
| 32083-0-2 | 바쁘-(忙)-아Y      | 32083-0-2 바빠도   |
| 32084-0-1 | 고프-(餓)-CY      | 32084-0-1 고푸더라  |
| 32084-0-2 | 고프-(餓)-아Y      | 32084-0-2 고파두   |
| 32085-0-1 | 쏘-(射)-CY       | 32085-0-1 쏘:더라  |
| 32085-0-2 | 쏘-(射)-아Y       | 32085-0-2 쏘:도   |
| 32086-0-1 | 꾸-(夢)-CY       | 32086-0-1 꾸더라   |
| 32086-0-2 | 꾸-(夢)-아Y       | 32086-0-2 꺾:도   |
| 32087-0-1 | 머무르-(留)-CY     | 32087-0-1 머물르더라 |
| 32087-0-2 | 머무르-(留)-아Y     | 32087-0-2 머물러도  |
| 32088-0-1 | 다듬-(整)-CY      | 32088-0-1 다듬떠라  |
| 32088-0-2 | 다듬-(整)-아Y      | 32088-0-2 다드머두  |
| 32089-0-1 | 견디-(忍)-CY      | 32089-0-1 견디더라  |
| 32089-0-2 | 견디-(忍)-아Y      | 32089-0-2 견더도   |
| 32090-0-1 | 말리-(裁)-CY      | 32090-0-1 말리더라  |
| 32090-0-2 | 말리-(裁)-아Y      | 32090-0-2 말려도   |
| 32091-0-1 | 끼-(烟鎖, 안개가)-CY | 32091-0-1 끼더라   |

|           |                |                 |
|-----------|----------------|-----------------|
| 32091-0-2 | 끼-(烟鎖, 안개가)-아Y | 32091-0-2 끼어두   |
| 32092-0-1 | 마시-(飲)-CY      | 32092-0-1 마시더라  |
| 32092-0-2 | 마시-(飲)-아Y      | 32092-0-2 마셔도   |
| 32093-0-1 | 세:-(强)-CY      | 32093-0-1 시:더라  |
| 32093-0-2 | 세:-(强)-아Y      | 32093-0-2 시어두   |
| 32094-0-1 | 포개-(重疊)-CY     | 32094-0-1 포개더라  |
| 32094-0-2 | 포개-(重疊)-CY     | 32094-0-2 포개두   |
| 32095-0-1 | 두드리-(敲)-CY     | 32095-0-1 두드리더라 |
| 32095-0-2 | 두드리-(敲)-아Y     | 32095-0-2 두드려도  |
| 32096-0-1 | 켜-(點燈)-CY      | 32096-0-1 키더라   |
| 32096-0-2 | 켜-(點燈)-아Y      | 32096-0-2 켜도    |
| 32097-0-1 | 췌:-(바람을)-CY    | 32097-0-1 췌:더라  |
| 32097-0-2 | 췌:-(바람을)-아Y    | 32097-0-2 췌애도   |
| 32098-0-1 | 췌:-(老)-CY      | 32098-0-1 췌:더라  |
| 32098-0-2 | 췌:-(老)-아Y      | 32098-0-2 췌애도   |
| 32099-0-1 | 췌:-(饅)-CY      | 32099-0-1 시더라   |
| 32099-0-2 | 췌:-(饅)-아Y      | 32099-0-2 셔:도   |
| 32100-0-1 | 희-(白)-CY       | 32100-0-1 히더라   |
| 32100-0-2 | 희-(白)-아Y       | 32100-0-2 혀도    |
| 32101-0-1 | 볶-(炒)-CY       | 32101-0-1 복떠라   |
| 32101-0-2 | 볶-(炒)-아Y       | 32101-0-2 보까도   |
| 32102-0-1 | 안:-(抱)-CY      | 32102-0-1 안:떠라  |
| 32102-0-2 | 안:-(抱)-아Y      | 32102-0-2 아나도   |
| 32103-0-1 | 묻-(埋)-CY       | 32103-0-1 묻떠라   |



|           |           |                |
|-----------|-----------|----------------|
| 32103-0-2 | 묻-(埋)-아Y  | 32103-0-2 무더도  |
| 32104-0-1 | 불:-(吹)-CY | 32104-0-1 불:더라 |
| 32104-0-2 | 불:-(吹)-아Y | 32104-0-2 부러도  |
| 32105-0-1 | 빨-(洗濯)-CY | 32105-0-1 빨더라  |
| 32105-0-2 | 빨-(洗濯)-아Y | 32105-0-2 빠라도  |
| 32106-0-1 | 죽-(死)-CY  | 32106-0-1 죽떠라  |
| 32106-0-2 | 죽-(死)-아Y  | 32106-0-2 주거도  |
| 32107-0-1 | 걸:-(步)-CY | 32107-0-1 걸:떠라 |
| 32107-0-2 | 걸:-(步)-아Y | 32107-0-2 거러도  |
| 32108-0-1 | 가물-(旱)-CY | 32108-0-1 가물더라 |
| 32108-0-2 | 가물-(旱)-아Y | 32108-0-2 가무러도 |
| 32109-0-1 | 졸:-(睡)-CY | 32109-0-1 졸:더라 |
| 32109-0-2 | 졸:-(睡)-아Y | 32109-0-2 조라도  |
| 32110-0-1 | 쓸-(掃)-CY  | 32110-0-1 쓸:더라 |
| 32110-0-2 | 쓸-(掃)-아Y  | 32110-0-2 쓰러도  |
| 32111-0-1 | 감:-(捲)-CY | 32111-0-1 감:떠라 |
| 32111-0-2 | 감:-(捲)-아Y | 32111-0-2 가마도  |
| 32112-0-1 | 더듬-(摸)-CY | 32112-0-1 더듬떠라 |
| 32112-0-2 | 더듬-(摸)-아Y | 32112-0-2 더드머도 |
| 32113-0-1 | 굽:-(炙)-CY | 32113-0-1 굽:떠라 |
| 32113-0-2 | 굽:-(炙)-아Y | 32113-0-2 구워도  |
| 32114-0-1 | 무겁-(重)-CY | 32114-0-1 무겁떠라 |
| 32114-0-2 | 무겁-(重)-아Y | 32114-0-2 무거와도 |
| 32115-0-1 | 잇:-(連)-CY | 32115-0-1 잇:떠라 |

|           |               |           |      |
|-----------|---------------|-----------|------|
| 32115-0-2 | 잇:-(連)-아Y     | 32115-0-2 | 이더도  |
| 32116-0-1 | 빋-(梳)-CY      | 32116-0-1 | 빔떠라  |
| 32116-0-2 | 빋-(梳)-아Y      | 32116-0-2 | 비서도  |
| 32117-0-1 | 까망-(黑)-CY     | 32117-0-1 | 까마터라 |
| 32117-0-2 | 까망-(黑)-아Y     | 32117-0-2 | 까매도  |
| 32118-0-1 | 넝-(入)-CY      | 32118-0-1 | 너터라  |
| 32118-0-2 | 넝-(入)-아Y      | 32118-0-2 | 너어도  |
| 32119-0-1 | 고:-(煮)-CY     | 32119-0-1 | 고:더라 |
| 32119-0-2 | 고:-(煮)-아Y     | 32119-0-2 | 고아도  |
| 32120-0-1 | 엷-(載)-CY      | 32120-0-1 | 언:떠라 |
| 32120-0-2 | 엷-(載)-아Y      | 32120-0-2 | 언저도  |
| 32121-0-1 | 귀찮-(囁)-CY     | 32121-0-1 | 귀찬터라 |
| 32121-0-2 | 귀찮-(囁)-아Y     | 32121-0-2 | 귀차나도 |
| 32122-0-1 | 바르-(剔, 빼를)-CY | 32122-0-1 | 발리더라 |
| 32122-0-2 | 바르-(剔, 빼를)-아Y | 32122-0-2 | 발려도  |
| 32123-0-1 | 맑-(淸)-CY      | 32123-0-1 | 막떠라  |
| 32123-0-2 | 맑-(淸)-아Y      | 32123-0-1 | 말가도  |
| 32124-0-1 | 굶:-(膿)-CY     | 32124-0-1 | 곰:떠라 |
| 32124-0-2 | 굶:-(膿)-아Y     | 32124-0-2 | 골마도  |
| 32125-0-1 | 굶:-(太)-CY     | 32125-0-1 | 굴:떠라 |
| 32125-0-2 | 굶:-(太)-아Y     | 32125-0-2 | 굴거도  |
| 32126-0-1 | 얇:-(薄)-CY     | 32126-0-1 | 얄떠라  |
| 32126-0-2 | 얇:-(薄)-아Y     | 32126-0-2 | 얄바도  |
| 32127-0-1 | 쑤-(春)-CY      | 32127-0-1 | 쑤:더라 |

|           |               |           |       |
|-----------|---------------|-----------|-------|
| 32127-0-2 | 쑤-(春)-아Y      | 32127-0-2 | 쓰러도   |
| 32128-0-1 | 잃-(失)-CY      | 32128-0-1 | 일터라   |
| 32128-0-2 | 잃-(失)-아Y      | 32128-0-2 | 이러도   |
| 32129-0-1 | 핥-(舐)-CY      | 32129-0-1 | 할떠라   |
| 32129-0-2 | 핥-(舐)-아Y      | 32129-0-2 | 할타도   |
| 32130-0-1 | 짧-(短)-CY      | 32130-0-1 | 짧떠라   |
| 32130-0-2 | 짧-(短)-아Y      | 32130-0-2 | 짧바도   |
| 32131-0-1 | 놀라-(驚)-CY     | 32131-0-1 | 놀:라더라 |
| 32131-0-2 | 놀라-(驚)-아Y     | 32131-0-2 | 놀:라도  |
| 32132-0-1 | 자-(宿)-CY      | 32132-0-1 | 자더라   |
| 32132-0-2 | 자-(宿)-아Y      | 32132-0-2 | 자도    |
| 32133-0-1 | 못:하-(不爲)-CY   | 32133-0-1 | 모:타더라 |
| 32133-0-2 | 못:하-(不爲)-아Y   | 32133-0-2 | 모:태도  |
| 32134-0-1 | 모르-(不知)-CY    | 32134-0-1 | 몰르더라  |
| 32134-0-2 | 모르-(不知) -아Y   | 32134-0-2 | 몰라도   |
| 32135-0-1 | 아프-(痛)-CY     | 32135-0-1 | 아푸터라  |
| 32135-0-2 | 아프-(痛)-아Y     | 32135-0-2 | 아과도   |
| 32136-0-1 | 크-(大)-CY      | 32136-0-1 | 크더라   |
| 32136-0-2 | 크-(大)-아Y      | 32136-0-2 | 커도    |
| 32137-0-1 | 꼬-(索, 새끼를)-CY | 32137-0-1 | 꼬:더라  |
| 32137-0-2 | 꼬-(索, 새끼를)-아Y | 32137-0-2 | 짜:도   |
| 32138-0-1 | 쭈-(造粥)-CY     | 32138-0-1 | 쭈더라   |
| 32138-0-2 | 쭈-(造粥)-아Y     | 32138-0-2 | 쭈:도   |
| 32139-0-1 | 맞추-(組合)-CY    | 32139-0-1 | 마치더라  |

|           |                |           |       |
|-----------|----------------|-----------|-------|
| 32139-0-2 | 맞추-(組合)-아Y     | 32139-0-2 | 마쳐두   |
| 32140-0-1 | 데우-(煑)-CY      | 32140-0-1 | 디:더라  |
| 32140-0-2 | 데우-(煑)-아Y      | 32140-0-2 | 디어두   |
| 32141-0-1 | 이:-(盖, 지붕을)-CY | 32141-0-1 | 일:떠라  |
| 32141-0-2 | 이:-(盖, 지붕을)-아Y | 32141-0-2 | 이어도   |
| 32142-0-1 | 갈기-(打)-CY      | 32142-0-1 | 갈기더라  |
| 32142-0-2 | 갈기-(打)-아Y      | 32142-0-2 | 갈겨도   |
| 32143-0-1 | 기다리-(待)-CY     | 32143-0-1 | 기다리더라 |
| 32143-0-2 | 기다리-(待)-아Y     | 32143-0-2 | 기다려도  |
| 32144-0-1 | 세:-(算)-CY      | 32144-0-1 | 시:더라  |
| 32144-0-2 | 세:-(算)-아Y      | 32144-0-2 | 시어도   |
| 32145-0-1 | 빼-(拔)-CY       | 32145-0-1 | 빼:더라  |
| 32145-0-2 | 빼-(拔)-아Y       | 32145-0-2 | 빼애도   |
| 32146-0-1 | 켜-(搥을)-CY      | 32146-0-1 | 켜더라   |
| 32146-0-2 | 켜-(搥을)-아Y      | 32146-0-2 | 켜두    |
| 32147-0-1 | 되:-(硬)-CY      | 32147-0-1 | 돼:더라  |
| 32147-0-2 | 되:-(硬)-아Y      | 32147-0-2 | 돼:도   |
| 32148-0-1 | 쉬:-(休)-CY      | 32148-0-1 | 쉬:더라  |
| 32148-0-2 | 쉬:-(休)-아Y      | 32148-0-2 | 쉬어도   |
| 32149-0-1 | 할퀴-(搔)-CY      | 32149-0-1 | 할키더라  |
| 32149-0-2 | 할퀴-(搔)-아Y      | 32149-0-2 | 할키어도  |
| 32150-0-1 | 눌:-(焦)-CY      | 32150-0-1 | 눌터라   |
| 32150-0-2 | 눌:-(焦)-아Y      | 32150-0-2 | 누려도   |
| 32151-0-1 | 깨닫-(覺)-CY      | 32151-0-1 | 깨닫터라  |

|           |             |                 |
|-----------|-------------|-----------------|
| 32151-0-2 | 깨닫-(覺)-아Y   | 32151-0-2 깨다라도  |
| 32152-0-1 | 마렵-(오줌이)-CY | 32152-0-1 마렵떠라  |
| 32152-0-2 | 마렵-(오줌이)-아Y | 32152-0-2 마려와도  |
| 32153-0-1 | 부끄럽-(恥)-CY  | 32153-0-1 부끄럽떠라 |
| 32153-0-2 | 부끄럽-(恥)-아Y  | 32153-0-2 부끄러와도 |
| 32154-0-1 | 가깝-(近)-CY   | 32154-0-1 가깝떠라  |
| 32154-0-2 | 가깝-(近)-아Y   | 32154-0-2 가까와도  |
| 32155-0-1 | 깊-(深)-CY    | 32155-0-1 김떠라   |
| 32155-0-2 | 깊-(深)-아Y    | 32155-0-2 기퍼두   |
| 32156-0-1 | 긋-(劃)-CY    | 32156-0-1 긋:떠라  |
| 32156-0-2 | 긋-(劃)-아Y    | 32156-0-2 그어도   |
| 32157-0-1 | 씻-(洗)-CY    | 32157-0-1 싹떠라   |
| 32157-0-2 | 씻-(洗)-아Y    | 32157-0-2 씨쳐도   |
| 32158-0-1 | 쪼-(搗)-CY    | 32158-0-1 쪼터라   |
| 32158-0-2 | 쪼-(搗)-아Y    | 32158-0-2 쪼어도   |
| 32159-0-1 | 잡-(搔)-CY    | 32159-0-1 갈떠라   |
| 32159-0-2 | 잡-(搔)-아Y    | 32159-0-2 갈가도   |
| 32160-0-1 | 굶-(飢)-CY    | 32160-0-1 굶:떠라  |
| 32160-0-2 | 굶-(飢)-아Y    | 32160-0-2 굴머도   |
| 32161-0-1 | 닮-(似)-CY    | 32161-0-1 담:떠라  |
| 32161-0-2 | 닮-(似)-아Y    | 32161-0-2 달마도   |
| 32162-0-1 | 싫-(厭)-CY    | 32162-0-1 싹터라   |
| 32162-0-2 | 싫-(厭)-아Y    | 32162-0-2 시러도   |
| 32163-0-1 | 쿨-(蹴)-CY    | 32163-0-1 골터라   |

|           |              |                   |
|-----------|--------------|-------------------|
| 32163-0-2 | 궤-(輓)-아Y     | 32163-0-2 고라도     |
| 32164-0-1 | 붓:-(注)-CY    | 32164-0-1 붓:떠라    |
| 32164-0-2 | 붓:-(注)-아Y    | 32164-0-2 부어도     |
| 32165-0-1 | 타-(乘)-CY     | 32165-0-1 타더라     |
| 32165-0-2 | 타-(乘)-아Y     | 32165-0-2 타도      |
| 32166-0-1 | 마르-(乾)-CY    | 32166-0-1 마르더라    |
| 32166-0-2 | 마르-(乾)-아Y    | 32166-0-2 말라도     |
| 32167-0-1 | 쓰-(苦)-CY     | 32167-0-1 쓰더라     |
| 32167-0-2 | 쓰-(苦)-아Y     | 32167-0-2 써도      |
| 32168-0-1 | 슬프-(哀)-CY    | 32168-0-1 슬푸더라    |
| 32168-0-2 | 슬프-(哀)-아Y    | 32168-0-2 슬퍼도     |
| 32169-0-1 | 기쁘-(喜)-CY    | 32169-0-1 기쁘더라    |
| 32169-0-2 | 기쁘-(喜)-아Y    | 32169-0-2 기뻐도     |
| 32170-0-1 | 쏘-(蜚, 벌이)-CY | 32170-0-1 쏘:더라    |
| 32170-0-2 | 쏘-(蜚, 벌이)-아Y | 32170-0-2 쏘아도 쏘:도 |
| 32171-0-1 | 주-(與)-CY     | 32171-0-1 주더라     |
| 32171-0-2 | 주-(與)-아Y     | 32171-0-2 주어도 줘:도 |
| 32172-0-1 | 키우-(飼育)-CY   | 32172-0-1 키우더라    |
| 32172-0-2 | 키우-(飼育)-아Y   | 32172-0-2 키워도     |
| 32173-0-1 | 가두-(囚)-CY    | 32173-0-1 가두더라    |
| 32173-0-2 | 가두-(囚)-아Y    | 32173-0-2 가둬도     |
| 32174-0-1 | 부수-(碎)-CY    | 32174-0-1 부시더라    |
| 32174-0-2 | 부수-(碎)-아Y    | 32174-0-2 부셔도     |
| 32175-0-1 | 나누-(分)-CY    | 32175-0-1 논:떠라    |

|           |           |           |         |
|-----------|-----------|-----------|---------|
| 32175-0-2 | 나누-(分)-아Y | 32175-0-2 | 노나도     |
| 32176-0-1 | 속이-(欺)-CY | 32176-0-1 | 소기더라    |
| 32176-0-2 | 속이-(欺)-아Y | 32176-0-2 | 소겨도     |
| 32177-0-1 | 끼-(插)-CY  | 32177-0-1 | 끼:더라    |
| 32177-0-2 | 끼-(插)-아Y  | 32177-0-2 | 끼어도 꺾:도 |
| 32178-0-1 | 튀-(跳)-CY  | 32178-0-1 | 튀더라     |
| 32178-0-2 | 튀-(跳)-아Y  | 32178-0-2 | 튀여도     |
| 32179-0-1 | 괴:-(淳)-CY | 32179-0-1 | 고이더라    |
| 32179-0-2 | 괴:-(淳)-아Y | 32179-0-2 | 고여도     |
| 32180-0-1 | 여위-(癪)-CY | 32180-0-1 | 말르더라    |
| 32180-0-2 | 여위-(癪)-아Y | 32180-0-2 | 말라두     |
| 32181-0-1 | 맵-(辛)-CY  | 32181-0-1 | 매웁떠라    |
| 32181-0-2 | 맵-(辛)-아Y  | 32181-0-2 | 매와도     |
| 32182-0-1 | 뀌:-(屁)-CY | 32182-0-1 | 꾸더라     |
| 32182-0-2 | 뀌:-(屁)-아Y | 32182-0-2 | 뀌:도     |
| 32183-0-1 | 고치-(改)-CY | 32183-0-1 | 고치더라    |
| 32183-0-2 | 고치-(改)-아Y | 32183-0-2 | 고쳐도     |
| 32184-0-1 | 싣:-(載)-CY | 32184-0-1 | 싣:터라    |
| 32184-0-2 | 싣:-(載)-아Y | 32184-0-2 | 시러도     |
| 32185-0-1 | 얻:-(得)-CY | 32185-0-1 | 얻:떠라    |
| 32185-0-2 | 얻:-(得)-아Y | 32185-0-2 | 어:더도    |
| 32186-0-1 | 뽡-(粉碎)-CY | 32186-0-1 | 빠:터라    |
| 32186-0-2 | 뽡-(粉碎)-아Y | 32186-0-2 | 빠아도     |
| 32187-0-1 | 파랑-(碧)-CY | 32187-0-1 | 파라터라    |

|           |             |                 |
|-----------|-------------|-----------------|
| 32187-0-2 | 파랗-(碧)-아Y   | 32187-0-2 파래도   |
| 32188-0-1 | 다르-(異)-CY   | 32188-0-1 다르더라  |
| 32188-0-2 | 다르-(異)-아Y   | 32188-0-2 달라도   |
| 32189-0-1 | 푸-(汲)-CY    | 32189-0-1 푸더라   |
| 32189-0-2 | 푸-(汲)-아Y    | 32189-0-2 퍼도    |
| 32190-0-1 | 누-(尿)-CY    | 32190-0-1 누터라   |
| 32190-0-2 | 누-(尿)-아Y    | 32190-0-2 누어도   |
| 32191-0-1 | 더:럽-(汚)-CY  | 32191-0-1 더:럽떠라 |
| 32191-0-2 | 더:럽-(汚)-아Y  | 32191-0-2 더:러와도 |
| 32192-0-1 | 거두-(收)-CY   | 32192-0-1 곁:떠라  |
| 32192-0-2 | 거두-(收)-아Y   | 32192-0-2 거더도   |
| 32193-0-1 | 끓-(沸)-CY    | 32193-0-1 끓터라   |
| 32193-0-2 | 끓-(沸)-아Y    | 32193-0-2 끄러도   |
| 32194-0-1 | 이기-(勝)-CY   | 32194-0-1 이기더라  |
| 32194-0-2 | 이기-(勝)-아Y   | 32194-0-2 이겨도   |
| 32195-0-1 | 부시-(照)-CY   | 32195-0-1 부시더라  |
| 32195-0-2 | 부시-(照)-아Y   | 32195-0-2 부셔도   |
| 32196-0-1 | 자빠지-(後倒)-CY | 32196-0-1 자빠지더라 |
| 32196-0-2 | 자빠지-(後倒)-아Y | 32196-0-2 자빠져도  |
| 32197-0-1 | 일으키-(使起)-CY | 32197-0-1 일으키더라 |
| 32197-0-2 | 일으키-(使起)-아Y | 32197-0-2 일으켜도  |
| 32198-0-1 | 당기-(引)-CY   | 32198-0-1 땡기더라  |
| 32198-0-2 | 당기-(引)-아Y   | 32198-0-2 땡겨도   |
| 32199-0-1 | 버리-(捨)-CY   | 32199-0-1 버리더라  |



|           |            |                 |
|-----------|------------|-----------------|
| 32199-0-2 | 버리-(捨)-아Y  | 32199-0-2 버려도   |
| 32200-0-1 | 훔치-(盜)-CY  | 32200-0-1 훔치더라  |
| 32200-0-2 | 훔치-(盜)-아Y  | 32200-0-2 훔쳐도   |
| 32201-0-1 | 지-(負)-CY   | 32201-0-1 지더라   |
| 32201-0-2 | 지-(負)-아Y   | 32201-0-2 저도    |
| 32202-0-1 | 왜:-(暗誦)-CY | 32202-0-1 왜:더라  |
| 32202-0-2 | 왜:-(暗誦)-아Y | 32202-0-2 왜애도   |
| 32203-0-1 | 사귀-(交際)-CY | 32203-0-1 사귀더라  |
| 32203-0-2 | 사귀-(交際)-아Y | 32203-0-2 사귀어도  |
| 32204-0-1 | 썩-(腐)-CY   | 32204-0-1 썩:떠라  |
| 32204-0-2 | 썩-(腐)-아Y   | 32204-0-2 썩거도   |
| 32205-0-1 | 질-(泥)-CY   | 32205-0-1 질더라   |
| 32205-0-2 | 질-(泥)-아Y   | 32205-0-2 지러도   |
| 32206-0-1 | 까불-(箕)-CY  | 32206-0-1 까블르더라 |
| 32206-0-2 | 까불-(箕)-아Y  | 32206-0-2 까블러도  |
| 32207-0-1 | 드물-(稀)-CY  | 32207-0-1 드물더라  |
| 32207-0-2 | 드물-(稀)-아Y  | 32207-0-2 드무러도  |
| 32208-0-1 | 줄:-(縮)-CY  | 32208-0-1 줄:더라  |
| 32208-0-2 | 줄:-(縮)-아Y  | 32208-0-2 주러도   |
| 32209-0-1 | 심:-(植)-CY  | 32209-0-1 심:떠라  |
| 32209-0-2 | 심:-(植)-아Y  | 32209-0-2 시머도   |
| 32210-0-1 | 쓰다듬-(撫)-CY | 32210-0-1 쓰다듬떠라 |
| 32210-0-2 | 쓰다듬-(撫)-아Y | 32210-0-2 쓰다드머도 |
| 32211-0-1 | 사:납-(猛)-CY | 32211-0-1 사:납떠라 |

|           |                |                 |
|-----------|----------------|-----------------|
| 32211-0-2 | 사:납-(猛)-아Y     | 32211-0-2 사:나와도 |
| 32212-0-1 | 가볍-(輕)-CY      | 32212-0-1 가볍떠라  |
| 32212-0-2 | 가볍-(輕)-아Y      | 32212-0-2 가벼워도  |
| 32213-0-1 | 젓:- (撈)-CY     | 32213-0-1 젖:떠라  |
| 32213-0-2 | 젓:- (撈)-아Y     | 32213-0-2 저어도   |
| 32214-0-1 | 두껍-(厚)-CY      | 32214-0-1 두껍떠라  |
| 32214-0-2 | 두껍-(厚)-아Y      | 32214-0-2 두꺼워도  |
| 32215-0-1 | 무르-(軟)-CY      | 32215-0-1 물르더라  |
| 32215-0-2 | 무르-(軟)-아Y      | 32215-0-2 물러도   |
| 32216-0-1 | 분지르-(折)-CY     | 32216-0-1 분질르더라 |
| 32216-0-2 | 분지르-(折)-아Y     | 32216-0-2 불질러도  |
| 32217-0-1 | 배우-(學)-CY      | 32217-0-1 배우더라  |
| 32217-0-2 | 배우-(學)-아Y      | 32217-0-2 배워도   |
| 32218-0-1 | 다리-(屣)-CY      | 32218-0-1 대리더라  |
| 32218-0-2 | 다리-(屣)-아Y      | 32218-0-2 대려도   |
| 32219-0-1 | 후비-(空, 귀를)-CY  | 32219-0-1 후비더라  |
| 32219-0-2 | 후비-(空, 귀를)-아/어 | 32219-0-2 후벼도   |
| 32220-0-1 | 아리-(痛)-CY      | 32220-0-1 아리더라  |
| 32220-0-2 | 아리-(痛)-아Y      | 32220-0-2 아려도   |
| 32221-0-1 | 그리-(畫)-CY      | 32221-0-1 그:리더라 |
| 32221-0-2 | 그리-(畫)-아Y      | 32221-0-2 그려도   |
| 32222-0-1 | 저리-(癡)-CY      | 32222-0-1 저리더라  |
| 32222-0-2 | 저리-(癡)-아Y      | 32222-0-2 저려도   |
| 32223-0-1 | 불리-(增)-CY      | 32223-0-1 불리더라  |

|           |            |                |
|-----------|------------|----------------|
| 32223-0-2 | 불리-(增)-아Y  | 32223-0-2 불려도  |
| 32224-0-1 | 뜨시-(溫)-CY  | 32224-0-1 *    |
| 32224-0-2 | 뜨시-(溫)-아Y  | 32224-0-2 *    |
| 32225-0-1 | 끓이-(使沸)-CY | 32225-0-1 끄리더라 |
| 32225-0-2 | 끓이-(使沸)-아Y | 32225-0-2 끄려도  |
| 32226-0-1 | 누비-(縫)-CY  | 32226-0-1 누비더라 |
| 32226-0-2 | 누비-(縫)-아Y  | 32226-0-2 누벼도  |
| 32227-0-1 | 구기-(皴)-CY  | 32227-0-1 꾸기더라 |
| 32227-0-2 | 구기-(皴)-아Y  | 32227-0-2 꾸겨도  |
| 32228-0-1 | 비:-(空)-CY  | 32228-0-1 비:더라 |
| 32228-0-2 | 비:-(空)-아Y  | 32228-0-2 벼:도  |
| 32229-0-1 | 식히-(使冷)-CY | 32229-0-1 시키더라 |
| 32229-0-2 | 식히-(使冷)-아Y | 32229-0-2 시켜도  |
| 32230-0-1 | 매-(除草)-CY  | 32230-0-1 매더라  |
| 32230-0-2 | 매-(除草)-아Y  | 32230-0-2 매애도  |
| 32231-0-1 | 매:-(結)-CY  | 32231-0-1 매:더라 |
| 32231-0-2 | 매:-(結)-아Y  | 32231-0-2 매애도  |
| 32232-0-1 | 뛰-(走)-CY   | 32232-0-1 뛰:더라 |
| 32232-0-2 | 뛰-(走)-아Y   | 32232-0-2 뛰워도  |
| 32233-0-1 | 담:-(盛)-CY  | 32233-0-1 담:떠라 |
| 32233-0-2 | 담:-(盛)-아Y  | 32233-0-2 다마도  |
| 32234-0-1 | 가렵-(癢)-CY  | 32234-0-1 가렵떠라 |
| 32234-0-2 | 가렵-(癢)-아Y  | 32234-0-2 가려와도 |
| 32235-0-1 | 때리-(打)-CY  | 32235-0-1 때리더라 |

|           |             |                  |
|-----------|-------------|------------------|
| 32235-0-2 | 때리-(打)-아Y   | 32235-0-2 때려도    |
| 32236-0-1 | 어둡-(暗)-CY   | 32236-0-1 어둡떠라   |
| 32236-0-2 | 어둡-(暗)-아Y   | 32236-0-2 어두워도   |
| 32237-0-1 | 잡-(執)-CY    | 32237-0-1 잡떠라    |
| 32237-0-2 | 잡-(執)-아Y    | 32237-0-2 자바도    |
| 32238-0-1 | 차-(蹴)-CY    | 32238-0-1 차더라    |
| 32238-0-2 | 차-(蹴)-아Y    | 32238-0-2 차도     |
| 32239-0-1 | 모자라-(不足)-CY | 32239-0-1 모:자라더라 |
| 32239-0-2 | 모자라-(不足)-아Y | 32239-0-2 모:자라도  |
| 32240-0-1 | 부르-(呼)-CY   | 32240-0-1 부르더라   |
| 32240-0-2 | 부르-(呼)-아Y   | 32240-0-2 불러도    |
| 32241-0-1 | 따르-(注)-CY   | 32241-0-1 딸터라    |
| 32241-0-2 | 따르-(注)-아Y   | 32241-0-2 따라도    |
| 32242-0-1 | 쫓:- (啄)-CY  | 32242-0-1 쫓:더라   |
| 32242-0-2 | 쫓:- (啄)-아Y  | 32242-0-2 쫓:도    |
| 32243-0-1 | 두-(置)-CY    | 32243-0-1 두더라    |
| 32243-0-2 | 두-(置)-아Y    | 32243-0-2 뒤:도    |
| 32244-0-1 | 시키-(使)-CY   | 32244-0-1 시키더라   |
| 32244-0-2 | 시키-(使)-아Y   | 32244-0-2 시켜도    |
| 32245-0-1 | 지리-(漏)-CY   | 32245-0-1 지리더라   |
| 32245-0-2 | 지리-(漏)-아Y   | 32245-0-2 지려도    |
| 32246-0-1 | 던지-(投)-CY   | 32246-0-1 던지더라   |
| 32246-0-2 | 던지-(投)-아Y   | 32246-0-2 던저도    |
| 32247-0-1 | 모이-(集)-CY   | 32247-0-1 모이더라   |

|           |            |                 |
|-----------|------------|-----------------|
| 32247-0-2 | 모이-(集)-아Y  | 32247-0-2 모여도   |
| 32248-0-1 | 만지-(拵)-CY  | 32248-0-1 만지더라  |
| 32248-0-2 | 만지-(拵)-아Y  | 32248-0-2 만저도   |
| 32249-0-1 | 쨌:- (曬)-CY | 32249-0-1 쨌:더라  |
| 32249-0-2 | 쨌:- (曬)-아Y | 32240-0-2 쨌애도   |
| 32250-0-1 | 비틀-(捻)-CY  | 32250-0-1 비틀더라  |
| 32250-0-2 | 비틀-(捻)-아Y  | 32250-0-2 비트러도  |
| 32251-0-1 | 돕:- (助)-CY | 32251-0-1 돕:떠라  |
| 32251-0-2 | 돕:- (助)-아Y | 32251-0-2 도와도   |
| 32252-0-1 | 썩-(咀)-CY   | 32252-0-1 썩떠라   |
| 32252-0-2 | 썩-(咀)-아Y   | 32252-0-2 썩버도   |
| 32253-0-1 | 미끄럽-(滑)-CY | 32253-0-1 미끄럽떠라 |
| 32253-0-2 | 미끄럽-(滑)-아Y | 32253-0-2 미끄러와도 |
| 32254-0-1 | 닿-(接)-CY   | 32254-0-1 다:떠라  |
| 32254-0-2 | 닿-(接)-아Y   | 32254-0-2 다아도   |
| 32255-0-1 | 누르-(壓)-CY  | 32255-0-1 누르더라  |
| 32255-0-2 | 누르-(壓)-아Y  | 32255-0-2 눌러도   |
| 32256-0-1 | 주무르-(揉)-CY | 32256-0-1 주물르더라 |
| 32256-0-2 | 주무르-(揉)-아Y | 32256-0-2 주물러도  |
| 32257-0-1 | 메우-(填)-CY  | 32257-0-1 메꾸더라  |
| 32257-0-2 | 메우-(填)-아Y  | 32257-0-2 메꿔도   |
| 32258-0-1 | 꼬시-(香味)-CY | 32258-0-1 고소하더라 |
| 32258-0-2 | 꼬시-(香味)-아Y | 32258-0-2 고소해도  |
| 32259-0-1 | 내리-(降)-CY  | 32259-0-1 내리더라  |

|           |               |                 |
|-----------|---------------|-----------------|
| 32259-0-2 | 내리-(降)-아Y     | 32259-0-2 내려도   |
| 32260-0-1 | 구르-(轉)-CY     | 32260-0-1 굴르더라  |
| 32260-0-2 | 구르-(轉)-아Y     | 32260-0-2 굴러도   |
| 32261-0-1 | 만들-(作)-CY     | 32261-0-1 맨들더라  |
| 32261-0-2 | 만들-(作)-아Y     | 32261-0-2 맨드러도  |
| 32262-0-1 | 늡-(老)-CY      | 32262-0-1 늡떠라   |
| 32262-0-2 | 늡-(老)-아Y      | 32262-0-2 늡거도   |
| 32263-0-1 | 왁-(痛)-CY      | 32263-0-1 알터라   |
| 32263-0-2 | 왁-(痛)-아Y      | 32263-0-2 아라도   |
| 32264-0-1 | 따르-(隨)-CY     | 32264-0-1 따르더라  |
| 32264-0-2 | 따르-(隨)-아Y     | 32264-0-2 따라도   |
| 32265-0-1 | 사-(買)-CY      | 32265-0-1 사더라   |
| 32265-0-2 | 사-(買)-아Y      | 32265-0-2 사도    |
| 32266-0-1 | 치우-(除)-CY     | 32266-0-1 치더라   |
| 32266-0-2 | 치우-(除)-아Y     | 32266-0-2 쳐도    |
| 32267-0-1 | 부러지-(被折)-CY   | 32267-0-1 부러지더라 |
| 32267-0-2 | 부러지-(被折)-아Y   | 32267-0-2 부러져도  |
| 32268-0-1 | 다치-(傷)-CY     | 32268-0-1 다치더라  |
| 32268-0-2 | 다치-(傷)-아Y     | 32268-0-2 다쳐도   |
| 32269-0-1 | 느리-(緩)-CY     | 32269-0-1 느리더라  |
| 32269-0-2 | 느리-(緩)-아Y     | 32269-0-2 느려도   |
| 32270-0-1 | 무치-(和,나물을)-CY | 32270-0-1 무치더라  |
| 32270-0-2 | 무치-(和,나물을)-아Y | 32270-0-2 무쳐도   |
| 32271-0-1 | 죄:-(締)-CY     | 32271-0-1 조이더라  |

|           |           |                |
|-----------|-----------|----------------|
| 32271-0-2 | 죄:-(締)-아Y | 32271-0-2 조여도  |
| 32272-0-1 | 팔-(賣)-CY  | 32272-0-1 팔더라  |
| 32272-0-2 | 팔-(賣)-아Y  | 32272-0-2 파라도  |
| 32273-0-1 | 뽑-(選)-CY  | 32273-0-1 뽑떠라  |
| 32273-0-2 | 뽑-(選)-아Y  | 32273-0-2 뽑마도  |
| 32274-0-1 | 뒤지-(索)-CY | 32274-0-1 뒤지더라 |
| 32274-0-2 | 뒤지-(索)-아Y | 32274-0-2 뒤저도  |
| 32275-0-1 | 마치-(終)-CY | 32275-0-1 마치더라 |
| 32275-0-2 | 마치-(終)-아Y | 32275-0-2 마쳐도  |
| 32276-0-1 | 절이-(鹽)-CY | 32276-0-1 저리더라 |
| 32276-0-2 | 절이-(鹽)-아Y | 32276-0-2 저려도  |
| 32277-0-1 | 휘-(曲)-CY  | 32277-0-1 휘더라  |
| 32277-0-2 | 휘-(曲)-아Y  | 32277-0-2 휘여도  |
| 32278-0-1 | 줍:-(拾)-CY | 32278-0-1 줌:떠라 |
| 32278-0-2 | 줍:-(拾)-아Y | 32278-0-2 주서도  |
| 32279-0-1 | 빼앗-(奪)-CY | 32279-0-1 뺨:떠라 |
| 32279-0-2 | 빼앗-(奪)-아Y | 32279-0-2 빼서도  |
| 32280-0-1 | 기울-(傾)-CY | 32280-0-1 기울더라 |
| 32280-0-2 | 기울-(傾)-아Y | 32280-0-2 기우러도 |
| 32281-0-1 | 아깝-(惜)-CY | 32281-0-1 아깝떠라 |
| 32281-0-2 | 아깝-(惜)-아Y | 32281-0-2 아까와도 |
| 32282-0-1 | 반갑-(歡)-CY | 32282-0-1 반갑떠라 |
| 32282-0-2 | 반갑-(歡)-아Y | 32282-0-2 반가와도 |
| 32283-0-1 | 찌-(蒸)-CY  | 32283-0-1 찌더라  |

|           |               |                  |
|-----------|---------------|------------------|
| 32283-0-2 | 찌-(蒸)-아Y      | 32283-0-2 찌도     |
| 32284-0-1 | 노랑-(黃)-CY     | 32284-0-1 노라더라   |
| 32284-0-2 | 노랑-(黃)-아Y     | 32284-0-2 노래도    |
| 32285-0-1 | 푸르-(靑)-CY     | 32285-0-1 푸르더라   |
| 32285-0-2 | 푸르-(靑)-아Y     | 32285-0-2 푸러도    |
| 32286-0-1 | 서두르-(忙)-CY    | 32286-0-1 서:둘르더라 |
| 32286-0-2 | 서두르-(忙)-아Y    | 32286-0-2 서:둘러도  |
| 32287-0-1 | 서투르-(不熟)-CY   | 32287-0-1 서:툴르더라 |
| 32287-0-2 | 서투르-(不熟)-아Y   | 32287-0-2 서:툴러도  |
| 32288-0-1 | 게으르-(怠)-CY    | 32288-0-1 겐:르더라  |
| 32288-0-2 | 게으르-(怠)-아Y    | 32288-0-2 겐:러도   |
| 32289-0-1 | 따뜻하-(溫)-CY    | 32289-0-1 따뜨타더라  |
| 32289-0-2 | 따뜻하-(溫)-아Y    | 32289-0-2 따뜨태도   |
| 32290-0-1 | 춡-(寒)-CY      | 32290-0-1 춡떠라    |
| 32290-0-2 | 춡-(寒)-아Y      | 32290-0-2 추워도    |
| 32291-0-1 | 뜨겁-(極熱)-CY    | 32291-0-1 뜨겁떠라   |
| 32291-0-2 | 뜨겁-(極熱)-아Y    | 32291-0-2 뜨거와도   |
| 32292-0-1 | 미지근하-(微溫)-CY, | 32292-0-1 미지근하더라 |
| 32292-0-2 | 미지근하-(微溫)-아Y  | 32292-0-2 미지근해도  |
| 32293-0-1 | 차갑-(寒)-CY     | 32293-0-1 차갑떠라   |
| 32293-0-2 | 차갑-(寒)-아Y     | 32293-0-2 차가와도   |
| 32294-0-1 | 부럽-(羨)-CY     | 32294-0-1 부럽떠라   |
| 32294-0-2 | 부럽-(羨)-아Y     | 32294-0-2 부러워도   |
| 32295-0-1 | 알밋-(憎)-CY     | 32295-0-1 알밋떠라   |



|           |               |                  |
|-----------|---------------|------------------|
| 32295-0-2 | 알밋-(憎)-아Y     | 32295-0-2 알미워도   |
| 32296-0-1 | 비슷하-(類似)-CY   | 32296-0-1 비스타더라  |
| 32296-0-2 | 비슷하-(類似)-아Y   | 32296-0-2 비스태도   |
| 32297-0-1 | 새롭-(新)-CY     | 32297-0-1 새롭떠라   |
| 32297-0-2 | 새롭-(新)-아Y     | 32297-0-2 새로와도   |
| 32298-0-1 | 서:럽-(悲痛)-CY   | 32298-0-1 서:럽떠라  |
| 32298-0-2 | 서:럽-(悲痛)-아Y   | 32298-0-2 서:러와도  |
| 32299-0-1 | 까다롭-(難)-CY    | 32299-0-1 까다랍떠라  |
| 32299-0-2 | 까다롭-(難)-아Y    | 32299-0-2 까다로와도  |
| 32300-0-1 | 외롭-(孤)-CY     | 32300-0-1 왜롭떠라   |
| 32300-0-2 | 외롭-(孤)-아Y     | 32300-0-2 왜로와도   |
| 32301-0-1 | 아쉽-(不滿)-CY    | 32301-0-1 아쉽떠라   |
| 32301-0-2 | 아쉽-(不滿)-아Y    | 32301-0-2 아쉬워도   |
| 32302-0-1 | 단단하-(固)-CY    | 32302-0-1 단단하더라  |
| 32302-0-2 | 단단하-(固)-아Y    | 32302-0-2 단단해도   |
| 32303-0-1 | 늦-(晚)-CY      | 32303-0-1 늦떠라    |
| 32303-0-2 | 늦-(晚)-아Y      | 32303-0-2 느저도    |
| 32304-0-1 | 남:-(餘)-CY     | 32304-0-1 남:떠라   |
| 32304-0-2 | 남:-(餘)-아Y     | 32304-0-2나마도     |
| 32305-0-1 | 남기-(使餘)-CY    | 32305-0-1 냉기더라   |
| 32305-0-2 | 남기-(使餘)-아Y    | 32305-0-2 냉겨도    |
| 32306-0-1 | 넘어뜨리-(使倒)-CY, | 32306-0-1 너머트리더라 |
| 32306-0-2 | 넘어뜨리-(使倒)-아Y  | 32306-0-2 너머트려도  |
| 32307-0-1 | 쭈그리뜨리-(使凹)-CY | 32307-0-1 쭈구리더라  |

|           |               |                 |
|-----------|---------------|-----------------|
| 32307-0-2 | 쭈그리뜨리-(使凹)-아Y | 32307-0-2 쭈구려도  |
| 32308-0-1 | 견주-(比)-CY     | 32308-0-1 *     |
| 32308-0-2 | 견주-(比)-아Y     | 32308-0-2 *     |
| 32309-0-1 | 외우-(誦)-CY     | 32309-0-1 웨:더라  |
| 32309-0-2 | 외우-(誦)-아Y     | 32309-0-2 웨:도   |
| 32310-0-1 | 문지르-(摩)-CY    | 32310-0-1 문지르더라 |
| 32310-0-2 | 문지르-(摩) -아Y   | 32310-0-2 문질러도  |
| 32311-0-1 | 가리키-(指)-CY    | 32311-0-1 가리키더라 |
| 32311-0-2 | 가리키-(指)-아Y    | 32311-0-2 가리켜도  |
| 32312-0-1 | 가르치-(敎)-CY    | 32312-0-1 가리키더라 |
| 32312-0-2 | 가르치-(敎)-아Y    | 32312-0-2 가리켜도  |
| 32313-0-1 | 겨누-(照準)-CY    | 32313-0-1 겨누더라  |
| 32313-0-2 | 겨누-(照準)-아Y    | 32313-0-2 겨누워도  |
| 32314-0-1 | 겨루-(競)-CY     | 32314-0-1 겨루더라  |
| 32314-0-2 | 겨루-(競)-아Y     | 32314-0-2 겨루워도  |
| 32315-0-1 | 달래-(慰撫)-CY    | 32315-0-1 달래더라  |
| 32315-0-2 | 달래-(慰撫)-아Y    | 32315-0-2 달래도   |
| 32316-0-1 | 본받-(效)-CY     | 32316-0-1 본받떠라  |
| 32316-0-2 | 본받-(效) -아Y    | 32316-0-2 본바다도  |
| 32317-0-1 | 어지르-(散)-CY    | 32317-0-1 어질르더라 |
| 32317-0-2 | 어지르-(散)-아Y    | 32317-0-2 어질러도  |
| 32318-0-1 | 달리-(走)-CY     | 32318-0-1 뛰더라   |
| 32318-0-2 | 달리-(走)-아Y     | 32318-0-2 뛰워도   |
| 32319-0-1 | 우기-(拗)-CY     | 32319-0-1 우기더라  |

|           |               |                  |
|-----------|---------------|------------------|
| 32319-0-2 | 우기-(拗)-아Y     | 32319-0-2 우겨도    |
| 32320-0-1 | 중얼거리-(獨言)-CY, | 32320-0-1 중얼거리더라 |
| 32320-0-2 | 중얼거리-(獨言)-아Y  | 32320-0-2 중얼거려도  |
| 32321-0-1 | 지껄이-(騷)-CY    | 32321-0-1 지꺼리더라  |
| 32321-0-2 | 지껄이-(騷)-아Y    | 32321-0-2 지꺼려도   |
| 32322-0-1 | 다니-(行)-CY     | 32322-0-1 다니더라   |
| 32322-0-2 | 다니-(行)-아Y     | 32322-0-2 다녀도    |
| 32323-0-1 | 떨어뜨리-(使落)-CY, | 32323-0-1 떨어뜨리더라 |
| 32323-0-2 | 떨어뜨리-(使落)-아Y  | 32323-0-2 떨어뜨려도  |
| 32324-0-1 | 깨-(覺)-CY      | 32324-0-1 깨:더라   |
| 32324-0-2 | 깨-(覺)-아Y      | 32324-0-2 깨애도    |
| 32325-0-1 | 시-(酸)-CY      | 32325-0-1 시더라    |
| 32325-0-2 | 시-(酸)-아Y      | 32325-0-2 셔도     |
| 32326-0-1 | 숫-(湧)-CY      | 32326-0-1 슬떠라    |
| 32326-0-2 | 숫-(湧)-아Y      | 32326-0-2 소사도    |
| 32327-0-1 | 좋:-(好)-CY     | 32327-0-1 조:더라   |
| 32327-0-2 | 좋:-(好)-아Y     | 32327-0-2 조아도    |
| 32328-0-1 | 빨강-(赤)-CY     | 32328-0-1 빨가터라   |
| 32328-0-2 | 빨강-(赤)-아Y     | 32328-0-2 빨개서    |
| 32329-0-1 | 끌:-(曳)-CY     | 32329-0-1 끌:더라   |
| 32329-0-2 | 끌:-(曳)-아Y     | 32329-0-2 끄려도    |
| 32330-0-1 | 얇:-(薄)-CY     | 32330-0-1 하얏터라   |
| 32330-0-2 | 얇:-(薄)-아Y     | 32330-0-2 하애도    |
| 32331-0-1 | 하얇-(白)-CY     | 32331-0-1 하얏터라   |
| 32331-0-2 | 하얇-(白)-아Y     | 32331-0-2 하애요    |

### 3.2.2. 곡용

|           |           |           |    |
|-----------|-----------|-----------|----|
| 32332-0-1 | 국(羹)-이/가  | 32332-0-1 | 구기 |
| 32332-0-2 | 국(羹)-을/를  | 32332-0-2 | 구글 |
| 32332-0-3 | 국(羹)-에(서) | 32332-0-3 | 구계 |
| 32332-0-4 | 국(羹)-으로   |           |    |
| 32332-0-5 | 국(羹)-도    | 32332-0-5 | 국또 |
|           |           |           |    |
| 32333-0-1 | 논(沓)-이/가  | 32333-0-1 | 노니 |
| 32333-0-2 | 논(沓)-을/를  | 32333-0-2 | 노늘 |
| 32333-0-3 | 논(沓)-에(서) | 32333-0-3 | 노네 |
| 32333-0-4 | 논(沓)-으로   |           |    |
| 32333-0-5 | 논(沓)-도    | 32333-0-5 | 논두 |
|           |           |           |    |
| 32334-0-1 | 쌀(米)-이/가  | 32334-0-1 | 싸리 |
| 32334-0-2 | 쌀(米)-을/를  | 32334-0-2 | 싸를 |
| 32334-0-3 | 쌀(米)-에(서) | 32334-0-3 | 싸레 |
| 32334-0-4 | 쌀(米)-으로   |           |    |
| 32334-0-5 | 쌀(米)-도    | 32334-0-5 | 쌀두 |
|           |           |           |    |
| 32335-0-1 | 봄(春)-이/가  | 32335-0-1 | 보미 |
| 32335-0-2 | 봄(春)-을/를  | 32335-0-2 | 보물 |
| 32335-0-3 | 봄(春)-에(서) | 32335-0-3 | 보메 |
| 32335-0-4 | 봄(春)-으로   |           |    |
| 32335-0-5 | 봄(春)-도    | 32335-0-5 | 봄두 |
|           |           |           |    |
| 32336-0-1 | 집(家)-이/가  | 32336-0-1 | 지비 |
| 32336-0-2 | 집(家)-을/를  | 32336-0-2 | 지불 |
| 32336-0-3 | 집(家)-에(서) | 32336-0-3 | 지베 |
| 32336-0-4 | 집(家)-으로   |           |    |
| 32336-0-5 | 집(家)-도    | 32336-0-5 | 집뚜 |
|           |           |           |    |
| 32337-0-1 | 옷(衣)-이/가  | 32337-0-1 | 오시 |
| 32337-0-2 | 옷(衣)-을/를  | 32337-0-2 | 오슬 |
| 32337-0-3 | 옷(衣)-에(서) | 32337-0-3 | 오세 |

|           |            |               |
|-----------|------------|---------------|
| 32337-0-4 | 옷(衣)-으로    |               |
| 32337-0-5 | 옷(衣)-도     | 32337-0-5 온뚜  |
| 32338-0-1 | 방(房)-이/가   | 32338-0-1 방이  |
| 32338-0-2 | 방(房)-을/를   | 32338-0-2 방을  |
| 32338-0-3 | 방(房)-에(서)  | 32338-0-3 방에  |
| 32338-0-4 | 방(房)-으로    |               |
| 32338-0-5 | 방(房)-도     | 32338-0-5 방두  |
| 32339-0-1 | 낮(晝)-이/가   | 32339-0-1 나지  |
| 32339-0-2 | 낮(晝)-을/를   |               |
| 32339-0-3 | 낮(晝)-에(서)  | 32339-0-3 나제  |
| 32339-0-4 | 낮(晝)-으로    |               |
| 32339-0-5 | 낮(晝)-도     | 32339-0-5 날또  |
| 32340-0-1 | 낮(顔)-이/가   | 32340-0-1 나치  |
| 32340-0-2 | 낮(顔)-을/를   | 32340-0-2 나슬  |
| 32340-0-3 | 낮(顔)-에(서)  | 32340-0-3 나세  |
| 32340-0-4 | 낮(顔)-으로    |               |
| 32340-0-5 | 낮(顔)-도     | 32340-0-5 날뚜  |
| 32341-0-1 | 부엌(廚)-이/가  | 32341-0-1 부어키 |
| 32341-0-2 | 부엌(廚)-을/를  | 32341-0-2 부어클 |
| 32341-0-3 | 부엌(廚)-에(서) | 32341-0-3 부어케 |
| 32341-0-4 | 부엌(廚)-으로   |               |
| 32341-0-5 | 부엌(廚)-도    | 32341-0-5 부엌뚜 |
| 32342-0-1 | 밭(田)-이/가   | 32342-0-1 바치  |
| 32342-0-2 | 밭(田)-을/를   | 32342-0-2 바츨  |
| 32342-0-3 | 밭(田)-에(서)  | 32342-0-3 바테  |
| 32342-0-4 | 밭(田)-으로    |               |
| 32342-0-5 | 밭(田)-도     | 32342-0-5 받뚜  |
| 32343-0-1 | 앞(前)-이/가   | 32343-0-1 아피  |
| 32343-0-2 | 앞(前)-을/를   | 32343-0-2 아폴  |
| 32343-0-3 | 앞(前)-에(서)  | 32343-0-3 아페  |

|           |            |           |     |
|-----------|------------|-----------|-----|
| 32343-0-4 | 앞(前)-으로    | 32343-0-4 | 아푸루 |
| 32343-0-5 | 앞(前)-도     | 32343-0-5 | 압또  |
| 32344-0-1 | 넋(魂)-이/가   | 32344-0-1 | 넉시  |
| 32344-0-2 | 넋(魂)-을/를   | 32344-0-2 | 넉슬  |
| 32344-0-3 | 넋(魂)-에(서)  |           |     |
| 32344-0-4 | 넋(魂)-으로    |           |     |
| 32344-0-5 | 넋(魂)-도     | 32344-0-5 | 넉뚜  |
| 32345-0-1 | 흙(土)-이/가   | 32345-0-1 | 호기  |
| 32345-0-2 | 흙(土)-을/를   | 32345-0-2 | 호글  |
| 32345-0-3 | 흙(土)-에(서)  | 32345-0-3 | 호게  |
| 32345-0-4 | 흙(土)-으로    |           |     |
| 32345-0-5 | 흙(土)-도     | 32345-0-5 | 흑뚜  |
| 32346-0-1 | 여덟(八)-이/가  | 32346-0-1 | 여더리 |
| 32346-0-2 | 여덟(八)-을/를  | 32346-0-2 | 여더를 |
| 32346-0-3 | 여덟(八)-에(서) | 32346-0-3 | 여더레 |
| 32346-0-4 | 여덟(八)-으로   |           |     |
| 32346-0-5 | 여덟(八)-도    | 32346-0-5 | 여덜두 |
| 32347-0-1 | 돌(週歲)-이/가  | 32347-0-1 | 도리  |
| 32347-0-2 | 돌(週歲)-을/를  |           |     |
| 32347-0-3 | 돌(週歲)-에(서) | 32347-0-3 | 도레  |
| 32347-0-4 | 돌(週歲)-으로   |           |     |
| 32347-0-5 | 돌(週歲)-도    | 32347-0-5 | 돌두  |
| 32348-0-1 | 값(價)-이/가   | 32348-0-1 | 갑시  |
| 32348-0-2 | 값(價)-을/를   | 32348-0-2 | 갑슬  |
| 32348-0-3 | 값(價)-에(서)  | 32348-0-3 | 갑세  |
| 32348-0-4 | 값(價)-으로    |           |     |
| 32348-0-5 | 값(價)-도     | 32348-0-5 | 갑뚜  |
| 32349-0-1 | 속:(內)-이/가  | 32349-0-1 | 소:기 |
| 32349-0-2 | 속:(內)-을/를  | 32349-0-2 | 소:글 |
| 32349-0-3 | 속:(內)-에(서) | 32349-0-3 | 소:게 |

|           |            |                |
|-----------|------------|----------------|
| 32349-0-4 | 속:(內)-으로   |                |
| 32349-0-5 | 속:(內)-도    | 32349-0-5 속:뚜  |
| 32350-0-1 | 돈:(錢)-이/가  | 32350-0-1 도:니  |
| 32350-0-2 | 돈:(錢)-을/를  | 32350-0-2 도:늘  |
| 32350-0-3 | 돈:(錢)-에(서) | 32350-0-3 도:네  |
| 32350-0-4 | 돈:(錢)-으로   |                |
| 32350-0-5 | 돈:(錢)-도    | 32350-0-5 돈:두  |
| 32351-0-1 | 발(足)-이/가   | 32351-0-1 바리   |
| 32351-0-2 | 발(足)-을/를   | 32351-0-2 바를   |
| 32351-0-3 | 발(足)-에(서)  | 32351-0-3 바레   |
| 32351-0-4 | 발(足)-으로    |                |
| 32351-0-5 | 발(足)-도     | 32351-0-5 발두   |
| 32352-0-1 | 짐(荷物)-이/가  | 32352-0-1 지미   |
| 32352-0-2 | 짐(荷物)-을/를  | 32352-0-2 지를   |
| 32352-0-3 | 짐(荷物)-에(서) | 32352-0-3 지메   |
| 32352-0-4 | 짐(荷物)-으로   |                |
| 32352-0-5 | 짐(荷物)-도    | 32352-0-5 짐도   |
| 32353-0-1 | 입(口)-이/가   | 32353-0-1 이비   |
| 32353-0-2 | 입(口)-을/를   | 32353-0-2 이블   |
| 32353-0-3 | 입(口)-에(서)  | 32353-0-3 이베   |
| 32353-0-4 | 입(口)-으로    | 32353-0-4 이브로  |
| 32353-0-5 | 입(口)-도     | 32353-0-5 입뚜   |
| 32354-0-1 | 낫(鎌)-이/가   | 32354-0-1 나:시  |
| 32354-0-2 | 낫(鎌)-을/를   | 32354-0-2 나:슬  |
| 32354-0-3 | 낫(鎌)-에(서)  | 32354-0-3 나세   |
| 32354-0-4 | 낫(鎌)-으로    | 32354-0-4 나:스로 |
| 32354-0-5 | 낫(鎌)-도     | 32354-0-5 낫:뚜  |
| 32355-0-1 | 강(江)-이/가   | 32355-0-1 강이   |
| 32355-0-2 | 강(江)-을/를   | 32355-0-2 강을   |
| 32355-0-3 | 강(江)-에(서)  | 32355-0-3 강에   |

|           |            |               |
|-----------|------------|---------------|
| 32355-0-4 | 강(江)-으로    |               |
| 32355-0-5 | 강(江)-도     | 32355-0-5 강두  |
| 32356-0-1 | 젓(乳)-이/가   | 32356-0-1 저시  |
| 32356-0-2 | 젓(乳)-을/를   | 32356-0-2 저슬  |
| 32356-0-3 | 젓(乳)-에(서)  | 32356-0-3 저:세 |
| 32356-0-4 | 젓(乳)-으로    |               |
| 32356-0-5 | 젓(乳)-도     | 32356-0-5 절:뚜 |
| 32357-0-1 | 꽃(花)-이/가   | 32357-0-1 꼬시  |
| 32357-0-2 | 꽃(花)-을/를   | 32357-0-2 꼬슬  |
| 32357-0-3 | 꽃(花)-에(서)  | 32357-0-3 꼬세  |
| 32357-0-4 | 꽃(花)-으로    | 32357-0-4 꼬스로 |
| 32357-0-5 | 꽃(花)-도     | 32357-0-5 끝뚜  |
| 32358-0-1 | 팥(赤豆)-이/가  | 32358-0-1 파시  |
| 32358-0-2 | 팥(赤豆)-을/를  | 32358-0-2 파슬  |
| 32358-0-3 | 팥(赤豆)-에(서) | 32358-0-3 파세  |
| 32358-0-4 | 팥(赤豆)-으로   | 32358-0-4 파스루 |
| 32358-0-5 | 팥(赤豆)-도    | 32358-0-5 팟뚜  |
| 32359-0-1 | 옆(側)-이/가   | 32359-0-1 여피  |
| 32359-0-2 | 옆(側)-을/를   | 32359-0-2 여플  |
| 32359-0-3 | 옆(側)-에(서)  | 32359-0-3 여페  |
| 32359-0-4 | 옆(側)-으로    | 32359-0-4 여푸루 |
| 32359-0-5 | 옆(側)-도     | 32359-0-5 엽뚜  |
| 32360-0-1 | 삯(賃金)-이/가  | 32360-0-1 싸기  |
| 32360-0-2 | 삯(賃金)-을/를  | 32360-0-2 싹쓸  |
| 32360-0-3 | 삯(賃金)-에(서) |               |
| 32360-0-4 | 삯(賃金)-으로   | 32360-0-4 싸그로 |
| 32360-0-5 | 삯(賃金)-도    | 32360-0-5 싹뚜  |
| 32361-0-1 | 닭(鷄)-이/가   | 32361-0-1 다기  |
| 32361-0-2 | 닭(鷄)-을/를   | 32361-0-2 다글  |
| 32361-0-3 | 닭(鷄)-에(서)  | 32361-0-3 다게  |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1-0-5 닭또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바끼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껴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바끄루

32362-0-5 밖(外)-도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5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3 저-을/를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5 너

40105-0-1 -가

40105-0-2 -의

40105-0-3 -을/를

40105-0-4 -에게

40105-0-5 -와/과

40105-0-6 -는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한테, 나에게

40101-0-5 나하고,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0-1 제:가

40103 우리

40104 저이

40105 너

40105-0-1 니가

40105-0-2 니

40105-0-3 너를

40105-0-4 너에게, 너한테

40105-0-5 너와

40105-0-6 너:는

40105-0-7 -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5-0-7 너:두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에

40109 개:

40109-2 저애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허구

40113 무엇니까

40113-0-1 무어시

40113-0-2 무신

40113-0-3 무어슬

40113-0-4 무어허구

#### 4.1.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터게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       |    |       |         |
|-------|----|-------|---------|
| 40120 | 이것 | 40120 | 이거시 이게  |
| 40121 | 그것 | 40121 | 그게, 그거시 |
| 40122 | 저것 | 40122 | 저거시 저게  |
| 40123 | 여기 | 40123 | 여기      |
| 40124 | 거기 | 40124 | 거기      |
| 40125 | 저기 | 40125 | 저기      |
| 40126 | 이리 | 40126 | 이리      |
| 40127 | 그리 | 40127 | 그리      |
| 40128 | 저리 | 40128 | 저리      |

## 4.2. 조사

### 4.2.1. 격조사

|       |         |       |                    |
|-------|---------|-------|--------------------|
| 40201 | -이/가    | 40201 | 소가                 |
| 40202 | -이/가    | 40202 | 지비                 |
| 40203 | -을/를    | 40203 | 귀를                 |
| 40204 | -을/를    | 40204 | 파를                 |
| 40205 | -에 게/더러 | 40205 | 저 사라메게, 저 사람한테     |
| 40206 | -보고/더러  | 40206 | 누구를, 누구더러          |
| 40207 | -보고/더러  | 40207 | 누구보고, 누구보러, 누구를 보고 |
| 40208 | -에      | 40208 | 지부루, 지비            |
| 40209 | -에      | 40209 | 나:중에               |
| 40210 | -에서     | 40210 | 큰택에서               |
| 40211 | -에서     | 40211 | 서우레서               |
| 40212 | -에서     | 40212 | 여기서                |
| 40213 | -으로     | 40213 | 콩으루                |
| 40214 | -으로     | 40214 | 지푸루                |
| 40215 | -으로     | 40215 | 새:끼루               |
| 40216 | -으로     | 40216 | 어디루                |
| 40217 | -와/과    | 40217 | 수:바카구, 재미하구        |
| 40218 | -와/과    | 40218 | 나하고                |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19 형보다  
40220 돼:지처럼  
40221 너망쿵  
40222 머글망쿵  
40223 봉나마  
40224 봉나미  
40225 영수야  
40226 누님  
  
40227 하라버지  
  
40228 수리랑 고기랑  
40229 마:너는 커녕

#### 4.2.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른 머거도 담배는  
40231 돈:만  
40232 키두, 얼굴두  
40233 맨날, 매일, 날마다  
40234 오늘서 버터른  
40235 내일까지  
40236 물조차  
  
40237 마리아  
40238 소리일랑  
40239 지비래두  
40240 너뿐니다, 너밖에  
40241 싸가지구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2 오라구  
40243 아라썬요 ,알겔썬니다

40244 했지-요?

40244 험씀니까, 해쓸까요, 험찌요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1 안자라

40302 -게

40302 앙께

40303 -으오

40303 안즈세요

40304 -으십시오

40304 안즈세요

40305 -세요

40305 안즈세요

### 4.3.2. 청유법

40306 -자

40306 가자

40307 -세

40307 가세

40308 -으오

40308 가세요

40309 -십시다

40309 가세요

40310 -세요

40310 가세요

### 4.3.3. 의문법

40311 -니

40311 오냐/어느냐

40312 -나

40312 오나

40313 -오

40313 와요

40314 -습니까

40314 와요

40315 -나요

40315 와요

40316 -니

40316 가느냐

40317 -나

40317 가나

40318 -시오

40318 가세요

40319 -십니까

40319 가세요

40320 -세요

40320 가세요

####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21 명는다  
40322 명네  
40323 머거요  
40324 머거요  
40325 머거요  
40326 작:따  
40327 장:네  
40328 자:가요  
40329 자:가요  
40330 자:가요

#### 4.3.5. 반말

40331 -아  
40332 -지

40331 아파 아프냐  
40332 도라 올수있찌

#### 4.3.6. -이다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이지지요  
40342 -이지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33 생이리다  
40334 생이리냐  
40335 생이리네  
40336 생이링가  
40337 생이립니다  
40338 생이리예요  
40339 생이리예요/ 생이립니다  
40340 생이리예요  
40341 생이리예요/ 생이립니다  
40342 생이리예요  
40343 무어나  
40344 무인가  
40345 무어예요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46 무어예요  
40347 무어예요  
40348 무어야  
40349 무어예요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을라

40350 만:습니다  
40351 만:투구뇨, 만:썸떠다, 만:턴데요  
40352 멍능구나, 곱:꾸나  
40353 썸더구먼, 멍능구먼  
40354 오 랜마닐썸  
40355 이부마  
40356 이봄썸  
40357 다칠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먹꾸나서, 먹꾸  
40402 머그면서  
40403 추워서  
40404 더와서, 더우니까  
40405 이리길레  
40406 오다  
40407 만나거든 만나면  
40408 쓰드래두  
40409 머글려고  
40410 빠지두룩  
40411 이쓸수록  
40412 물쓰드시, 물쓰든  
40413 먹찌



## 4.5. 주체 존대

40501 -서  
40502 -셨소

40501 이리 오슈  
40502 내설쭈

##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5 오고 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7 왔었다  
40608 먹더라  
40609 먹더냐  
40610 만나는 친구  
40611 만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3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6 컸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40601 운는다  
40602 겨: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5 오구일따  
40606 먹건냐/잡수셔썸요  
40607 완떠랜는데  
40608 먹떠라  
40609 먹떠냐  
40610 멍는 사람  
40611 머근 사람  
40612 만날편  
40613 머글 싸람  
40614 큰 아이  
40615 \*  
40616 켜편 아이  
40617 양켄따  
40618 오켄따 올꺼간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40701 먹찌아나썸  
40702 조:치안타, 안조타  
40703 깨끗치 모타다,  
깨끄터지 안타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만나 안 보았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1 먹도 않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4 장가 안갈때, 장가가지 안알씨  
 40705 안 만나 볼때  
 40705 아직 만나 보지 아닐때  
 40706 먹찌도 안코  
 40706-1 \*  
 40707 못마신다, 마시지 모:탄다  
 40708 \*

## 4.8. 피동과 사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40802 늘리다  
 40803 말리다1  
 40804 말리다2  
 40805 얼리다  
 40806 녹이다  
 40807 신기다  
 40808 보이다  
 40809 알리다  
 40810 입히다  
 40811 앉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찍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돌우다

40801 살린다  
 40802 늘린다  
 40803 말린다  
 40804 말린다  
 40805 얼린다  
 40806 녹인다  
 40807 신킨다  
 40808 보인다  
 40809 알린다  
 40810 이핀다  
 40811 안친다  
 40812 베긴다  
 40813 온킨다  
 40814 써킨다  
 40815 숨긴다  
 40816 굶긴다  
 40817 깨운다  
 40818 돈는다

###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재핀다

40820 깎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엇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끊기다  
 40834 굵히다

40820 까까진다  
 40821 끼인다  
 40822 떠인다  
 40823 채앨따, 채:다  
 40824 다친다  
 40825 들린다  
 40826 어핀다, 애핀다  
 40827 바깸다  
 40828 씹핀다  
 40829 언친다  
 40830 찌킨다  
 40831 놀린다  
 40832 실린다  
 40833 끈킨다, 끄너진다  
 40834 글킨다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시푼  
 40902 십떠니  
 40903 이버봐라, 이버보세요  
 40904 머거 버렐써  
 40905 우리 댜:다  
 40906 오려나 부다  
 40907 차나 부다  
 40908 추운가 보다

##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1 실컨  
 41002 마니  
 41003 너무  
 41004 쪼끔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9 곧장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꾸  
41009 가:끔  
41010 먼점  
41011 낭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두, 모조리, 전부  
41015 혼자  
41016 항상, 늘  
41017 잘 똑또기  
41018 겨우, 간시니  
41019 늘, 언제나, 항상  
41020 저절루  
41021 절루,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나터면  
41024 한테, 가치  
41025 걸썩타면  
41026 꽤:니  
41027 겨냥  
41028 아주  
41029 바루, 곧짱  
41030 벌써  
41031 제일  
41032 가마:니, 구구루(화날때)  
41033 미리  
41034 가:끔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어구

|       |                              |       |                         |
|-------|------------------------------|-------|-------------------------|
| 41101 | 여보                           | 41101 | 여보                      |
| 41102 | 여보세요                         | 41102 | 여보세요                    |
| 41103 | 들어가요                         | 41103 | 드러가요 끈습니다               |
| 41104 | 수고하세요                        | 41104 | 수고하세요<br>=4 먼저잡니다       |
| 41105 |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 41105 | 오랜마닐쎄 오랜마니다<br>=4 얼마마니야 |
| 41106 |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 41106 | 안녕이 주무쎄씀니까              |
| 41107 |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 41107 | 경:강하쎄씀니까 무고하쎄씀니까        |
| 41108 | 여기 있습니다                      | 41108 | 돈:바드세요                  |
| 41109 | 예                            | 41109 | 예<br>=4 네               |
| 41110 | 아니                           | 41110 | 아니예요                    |
| 41111 | 아무렇지도 않다                     | 41111 | 아무치두 안타                 |
| 41112 | 내버려 뒀                        | 41112 | 내버려 뒀                   |
| 41113 |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41113 | 아:무나<br>=4 개:나 소나 아무나   |

### 4.11.2. 속담

|       |                |       |                                     |
|-------|----------------|-------|-------------------------------------|
| 41114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41114 | 밑빠진 도게 물부끼<br>=2 시루에 물부끼            |
| 41115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41115 | 바늘 도도기 소도둑뻔                         |
| 41116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 41116 | 아니땐 굴뚜게 영기나냐<br>=2 때:지도 안은 굴뚜게 영기나냐 |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